

三茅라 称라고 館(成均館)에 六行(孝、友、睦、姻、任、恤)을 贈하였다. 솔고나 參我(時篇名)에 繼代여 追이 公車를 謝하였다. 晤語(過世)에 梅竹이요 酣飲(饑食)에 圖書로다. 婵婆舞貌(한·隱約이 걸이 漢桓帝기록 명세웠다. 鄉과里 에 百세에 기친 풍속이 사자지지 않으리라. 八智山 언덕에 四尺의 높이 있어 무窮도 록 詔하노라.

\* 李象靖號大山 韓山人 文科歷兵曹叅議 贈吏曹判書 詔文敍

### 适齋公墓碣銘

現義城郡丹村面方下谷向西而崇三尺者는 高靈縣監鵝洲申公諱는圭<sup>圭</sup>字<sup>君瑞</sup>號<sup>适齋</sup>之墓也。斗曰其十一世孫基宗春基載珏方余於大邱之寓而基宗袖出遺事而此는吾祖行略이라 方欲豎碣以表하야 積世未遑之阡하니願吾座惠一銘하야 此慰千秋吾有後魏이라 余以昏耄나固辭不獲하니 謹按公은 生有異質하야 十餘歲讀書에 通大義下筆로 輒成章을 與伯氏로 同業하니 人以老泉家와 二蘇로 比之하다 癸亥에 修撰公이 登第未還에 郡盜夜入歐害人命公與伯氏<sup>三</sup>蒼黃이나 冒兵刃하연서奉母夫人以避하니 修撰公이 遊宦京師에 公이 從之하야 就玄洲趙公<sup>하야</sup> 學이러니 玄洲가 大加敬重하다 愚伏鄭先生<sup>도</sup>亦以珠玉으로 賛之하다 甲子에 修撰公이 通判全州에 與伯氏로 從之하니 時에 李尚書溟이 按節是邦에 見公大異하야 論文에 肥不厭士하니 大夫行南州에 必日全州에 有二箇奇寶라하다 辛未에 修撰

公이 在京疾革<sup>일세</sup> 公이 泣血籲天하고 指血以進하니 見者驚難이러라 年이十八赴鄉解에 考官이 以夫子로 賢於堯舜이라하고 發論題에 老師皆袖手로 莫敢措辭려니 公이 輒一笔揮之에 一天居魁하니 諸儒가 多傳誦하다 戊子에 中生員하고 辛卯에 登明經科로 隸槐院倒하야 陞正字하고 管司憲府持平하고 作博士廉奉常直長嘗以注書로 入侍記司憲府持平에 注筆法이 賦敏하니 諸宰가咸嘆稱賞하다 出宰高靈縣하고 入爲工禮曹佐郎하니라 公은 生光海辛亥<sup>요</sup>孝宗丙申正月 初六日에卒하니 享年纔四十六이라 呴呼라 天降我公若將大有爲而壽不免大하니 堪不措哉아 上世에 有諱允濡는 高麗版圖判書謚貞肅公이요 子按廉使諱는祐이니 盧父墓하고 泣血以雙竹青於三綱行實錄享涑水院하고 曾祖의 諱는 元祿이요 號는 悔堂인데 亦以孝聞하고 享藏待院<sup>하나</sup> 祖의 諱는 乾이요 號는 城隱이니 贈左承旨하고 考諱는 達道이요 號는 晚悟니 行修撰하고 贈都承旨하다 姉는 贈淑夫人全州李氏德信正鸞壽의女<sup>요</sup> 配는 淑人星州李氏叅議碩望의女<sup>라</sup> 墓는 鳳陽面梧山村後<sup>요</sup> 繼配는 淑人安東權氏贈吏叅易慶의女<sup>로</sup> 墓는 前後配上下墳이요 系從子晋錫하야 男에 漢과湜이요 女는 韓山李碩觀孫出大山先生象靖小山先生光靖兄弟倘非其祝庭未艾蔭歟世遠其諱號男女不盡錄而今於大役隨分助力爲先誠孝豈不壯哉아 銘曰按廉雙竹修撰文學家聲百吉忠孝道德是父是子王公姻戚龍門玉堂領馳之摘壽不免夭未圓真福我銘于珉孰不嗟惜

## 敬齋公事實

公의 謂는 埼이오 字는 子高요 號는 敬齋니 虎溪公의 季子라 天資溫雅하고 氣宇端潔하야 既就學에  
聰明日進하야 十餘歲에 通經史하고 事親極孝하야 與叔兄忍齋公으로 蘆墓盡禮하고 一生에 以  
敬으로 爲日用工夫하야 扁齋警省이 杜門養病하고 不攻擊業하며 與忍齋公으로 講論經旨호대 或  
有疑難이어든 禀質于季父懶齋公하나 公이 賞著 敬齋銘하야 以寓箴警하다 銘에 曰 天賦厥初에  
心惟虛靈이라 心之用工이 不外乎敬이라 心則伊何오 一身主宰라 敬則伊何오 一心主宰라 日  
用常行에 舍敬奚爲아 潛心以居에 慎獨戒懼라 對越上帝에 母敢或貳라 主一無適하야 四端擴  
充이라 無諸內外하고 貫乎動靜이라 徹上徹下에 成始成終이라 萬善從出이오 九容俱備라 出入  
起居에 修身處事라 惟心惟一에 萬理昭昭라 周旋折旋이 無不規矩라 守口如瓶에 言不妄出이오  
防意如城에 閑邪之入이라 念茲在茲하야 其可不力가 如履薄冰하고 若奉拱璧이라 萬言萬事  
莫不由敬이라 終身不違하면 表正裏正이오 須臾有間하니 私欲并起라 毫釐之差에 午里之繆  
綱常已頽에 教化亦弛라 啟嗟小子아 念哉敬哉이다

## 霞村公事實

公諱坂 字定叔 號霞村 懶齋公次子 生而穎慧 甫八歲受小學 於先伯父 講論文義

雖老師宿儒殆無過焉 庚午丁淑人憂哀毀執喪如成人 乙亥往拜旅軒先生留數日屢  
賜警誨及辭歸曰觀其溫雅克持庭訓自是名譽益隆 蒼石李先生嘗觀所製以爲大  
有作者氣丙子清兵猝至先考懶齋公扈從南漢圍中遣書以訣公承書痛泣曰君父  
危急之際豈可晏然爲苟活之計哉父死於君子死於父天經民彝之不容已者遂爲赴  
難之計可見平日素講之大節也先公承命朝天公年十二取一囊緘之甚密人問之  
答曰此行中所用藥今於萬里之行可不縕乎奉餞知舊莫不異之公用効於誠正之學  
如六經四子心近性理書晚益講讀己亥丁外艱哀毀骨立一依家禮必誠慎勿之有  
悔焉及疾革命子弟書所訓諸條再三勉焉

## 霞村公事實

公의 謂는 坡이고 字는 定叔이며 號는 霞村이니 懶齋公의 次子시다 生來에 穎悟해서 겨우 8세때 小學을 伯父에게  
배우는데 文義를 講論함이 비록 老師宿儒라 그보다 나을수는 없었다. 庚午년에는 淑人喪을 當하여 哀痛해하고 執喪  
하는것이 成人같았다. 乙亥년에는 旅軒張先生을 가서 뵙고 數日동안 留宿하는데 여러가지 教訓을 받고 떠나올때도 말  
하자 「그대의 温雅함을 보니 能히家庭敎訓을 받았으다」고 하였다. 그때부터 名聲이 더욱 높아서 蒼石李先生은 일찌  
기作文한 것을 보고는 大作할 氣勢가 있다고 하였다. 丙子年에는 清兵이 猝至하니 先考懶齋公이 南漢山城으로扈從  
해서 편지를 보내고 永訣을 하니 公이 편지를 보고 울며서 말하되 「君父가 危急함때에 어찌 奪然하게 살려고 생자만해  
서 될까. 父도 君을 爲해 죽는다면 子는 父를 爲해 죽는 것이 天의 正經이고 人의 常則이니 그만둘수는 없는 것이다.  
다」고 하고는 三디어 그리로 장 準備를 하였으니 可히 平素에 가진 大節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先公이 王命을 받고

명나라에 살때는 公의 나이 十二歲였으나 한封다리를 叠疊으로 쌌기에 누가 물은즉 「이것은 行次中에 쓴 詞이다。」 至今  
萬里나 行次하시는 데 보따리가 없어서 허가」고 하니 錢別하든 知親들이 모두들 奇異하게 여겼다。 公은 誠意正心하는  
學問에 힘을 써서 文經(易經) 書經(詩經) 樂經(春秋禮經) 四子(大學 中庸 論語 孟子) 心經(近思錄) 등 性理書장을 것을 晚  
年에 더욱 讲讀하였다。 己亥年에는 外難을 당하고 哀毀로 瘦瘠하였으니 모득『家禮』대로 해서 三三시 誠慎하여 後悔됨  
이 있었던 것이다。 病이 危篤하니子弟들을 命래서 訓戒하는 係文을 쓰이고 再三次나 申勃하였다。

## 梅竹堂公事實

公諱堪 字輿叔 號梅竹堂 懶齋公第三子 天資溫粹 氣質端雅 甫十餘歲通經史 治舉  
子業 孝友極盡 旅軒張先生見而奇之曰 幼有美質 必有昌大矣 及長克修學行 潛心  
求道 敬承先師之遺風 無世推望有遺集

### 梅竹堂事蹟

공의 謂는 堪이고 字는 輿叔이며 號는 梅竹堂이니 懶齋公의 第三子다。 天性이 溫粹하고 氣質이 端雅하여 쟁여 十餘  
歲에 經書史書를 通하여 科舉工夫하고 孝友가 極盡하였으므로 旅軒張先生이 보시고 奇特하게 여겨 「이늘때 資  
質이 있으니 三三시 昌大하게 될 것이다」고 誉賜하였다. 커서는 學問과 實行을 남아서 潛心으로 道를 求하고 父가 先  
師의 遺風을 跟隨하여 世上에서 尊仰을 받았다. 文集이 있다.

## 桃溪公墓誌

公의 初諱는 至오 改諱는 塾니 字는 子 善이라 系出 鵝洲하니 高麗孝子按廉使申祐之後也 라會祖  
諱는 元祿이나 贈戶曹叅議以孝行旌閭하고 祖諱는 乾이나 贈承政院左承旨하고 考諱는 達  
道니 魁仁祖朝癸亥廷試하여 以直謙顯으로 官止弘文館修撰 贈都承旨하다妣는 完山李氏德  
信正鸞壽之女로 世祖大王五代孫也 라 天啓辛酉十二月十九日丙戌에 生하니 公天性醇厚하고  
氣宗寬曠하여 憤行孝悌에 泛愛容衆襟懷坦然無畛域雖在倉卒이 차도 亦無疾言遽邑하니  
未에 修撰公이 卒에 虽在鬱訥이나 哀毀如禮하고 戊戌丁内難에 盧墓終制하니라 公以幼孤로  
事二兄如父兄하고 有疾病이면 曰夜侍藥復常乃退나라 老而不懈仲氏佐郎公로 대早在均孤寡  
無依而竭誠 일생 扶護居家에 不事生產하고 日財利之欲이 勝則義理之心이 晦이나 甚者는 弟兄  
閨牆하고 骨肉相殘하니 此人之所當深戒處也 라 輕財好施해야 家無所餘야 窮族貧交가 成賴  
之하다 自少로 種學績文이나屢舉不第晚拋公車業 日與宗族朋友로 相會하여 或叙情話하고 或  
講書譚論娓誠意謁然人皆醉義薰德各得其歡心一時名流가 皆慕與之遊如尹判書以濟와  
權判書愈와 結爲莫逆交로 終始不替하고 聞人之善이면 若已有之하고 見人之惡이면 如或浼  
之이려니 是故로 善者好之하고 不善者憚之하다 乙巳六月二十二日以疾로 終于正寢하니 享年이

四十五나라 初葬于義城縣西內霞峴負壬之原이려니 癸未에 改窆于同局卯向之麓하나 配永川李氏郡守廷相之女오 參判民寔之孫也라 端莊貞懿하야 基有婦德教養이려니 男女皆有法則하나 生於天啓壬戌七月初四日하고歿于癸卯十一月十八日이나 享年四十二나合窆公墓하나 生五男二女하나 長은休錫이요 次는泰錫이요 次師錫은早夭하고 費錫과 禮錫이라 女는適士人李洙하고 次는適兵使張漢相이요 側室生이 一男二女나 男은 公錫이요 女는適金禮重朴宗仁하고 休錫은 婚縣監 贈參判洪柱天女로 生二男一女하나 長은 德潤次는 德漢이요 後娶는丁瑤의 女나 生一男一女하나 男은 德濬이요 女는適柳後觀이요 貴錫은 婿正郎都慎徵女로 生四男女는適李時昉이며 泰錫의 初娶는 郡守權俏女로 生二男하나 長은 德潤次는 德漢이요 後娶는丁女는適南尚觀禮錫은 婿士人李孝潤女로 生三男二女하나 長은 德演次는 德養德灑德沉이요 女는適南尚觀禮錫은 婿士人李孝潤女로 生三男一女하나 長은 德激次는 德溫德洪이요 女는幼하나 李洙는 生四男하나 長은命龍命龜命麟命鳳張漢相은 生一男一女하나 男은 世審女는適權愬이나 但無后하나 金禮重은 生二男이나 長은益鉉次은 益礪朴鍾仁로 生二男이나 皆幼파 内外諸孫四十餘人이라 嘆아리 以公은 行誼之純篤斗文學之廉備로 終不得取 第霑一命하나 識者莫不嗟惜이려와 意者天之報施其在於後歟 [己丑年洪七日告墓壙內階三尺許誌石六片納于石函埋之]

康熙四十八年己丑六月 曰嘉善大夫慶尚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

使大丘都護府使 洪萬朝謹誌

### 丹厓公墓碣銘

公의諱는 塼이요 字는 方叔이며 號는 丹厓라 姓은 申氏니 鵠洲人이라 生而天資이近道하고 早承庭訓하야 自幼隨長措하야 與凡兒異하라 心嘗孝友之義之修文學之優益求聖賢進修之工하고 竭力盡忠愛君之意하라 官通仕郎하다 丙午에 製進議禮疏하고 無意仕進하야 移居永陽之麻丹村하야 常與士友로 講禮論談하니 蔚然有道義之風이라 鄉黨이 興德行之化하다 遺戒子孫하고 愛其泉石하나니 考終於顯宗壬子三月二十四日하니 距其生光海壬戌하면 壽五十一이려라 禮葬于故山安平蟻谷村後子坐하나 鼻祖諱崇謙謚壯節公號野叟는 高麗開國元勳大將軍이요 起世祖 諱益休는 門下侍郎이니 以軍功으로 封鵠洲君하나 是爲貫祖也오 諱允濡는 版圖判書諡貞肅이니 中祖也이려라 高祖諱壽는 參奉이요 會祖諱元祿은 號悔堂이니 教授며 贈戶曹參議하고 旌表閭하며 錄三綱行實하다 祖諱允은 永嘉教授며 贈左承旨하고 考諱悅道는 號懶齋하나니 姿性如玉이려나 遊鄭寒岡鄭愚伏兩先生門하다 丙午與伯氏虎溪公諱道로 同榜進士하고 甲子에 文科하여 博士典籍司憲府掌令知製敎을 戊辰에 拜冬至使書狀官하여 入中朝하고 仍還而歷宰鏡城蔚珍醴泉綾州하나니 皆有頌思碑하고 享丹邱書院하나니 始는聞韶金氏니 浩女며 文忠公鵠峯先生誠一의 孫이요 配는 夏城曹氏니 承仕郎承孝의 女며 忠貞公靜齋先生尚治의 八世孫이려라 生辛丑하야 丙戌卒하고 墓는 河陽阿沙前山坤坐요 配永川李氏廷奭의 女라 墓는

祐公兆下 하다 男은 斗錫 이니 通德郎 이요 有文行하고 萬錫은 有孝行하고 重鎬의 女는 南享夏尹  
東輸李濬 이요 斗錫의 男은 以濟以漸以浚以淨以澤이요 萬錫의 男은 以潛以澁以湜以  
濯이라 以下는 不載하노라 今距公之世三百餘年이라 累變滄桑하야 文獻이 散佚하니 罷不歡  
哉아 其後孫이 奉遺狀하야 請余顯刻之文이라 辭之固호대 以囑之懇矣<sup>로</sup> 感其諸君慕祖之  
誠하야 據其狀而銘曰

簪纓世家는 惟孝友之則也요 指讓進退는 修禮義之勅也요 尊一賢衛道는 養士林之職也요  
爲一先豎碣은 過子孫之誦也<sup>로다</sup>

西紀一九八二年丙戌 四月 日 成均館典學 光州 盧漢容 謹撰

### 機溪公墓碣銘

從仕郎 鵝洲申公의 冠履之藏이 在善山府東星峴下塔洞枕亥原<sup>하나</sup> 後孫基秀基文錫基基  
福等이 將伐石하야 貢飾美道而謁銘于余에<sup>는</sup> 余累辭不獲則遂按本而謹叙之<sup>하오리</sup> 公의 謂는  
垿이요 字는 敏叔이고 號는 機溪니 麗朝에 有諱益休－金紫光祿大夫<sup>하니</sup> 乃受貫之祖<sup>러라</sup> 累傳하야  
諱祐<sup>는</sup> 退齋<sup>을</sup> 按廉使니 麗社屋에 隱於尚州望京山<sup>하다</sup> 親歿에<sup>는</sup> 盧墓三年<sup>이러니</sup> 血淚處에<sup>에는</sup> 有  
雙竹之異<sup>라</sup> 事聞에<sup>는</sup> 執閣하고 立院<sup>하다</sup> 入李朝하야 謂錫命<sup>은</sup> 生員이니 月中丹桂詩<sup>－</sup> 膾炙于世<sup>하니</sup>  
於公의 皆六世以上也<sup>라</sup> 曾祖諱元祿<sup>은</sup> 陶山門人<sup>이요</sup> 贈戶叅하니 世稱悔堂先生<sup>이요</sup> 祖諱

佗은 號城隱이니 贈左承旨하고 考諱悅道는 號懶齋니 文掌令하고 享丹邱院<sup>하다</sup> 姮는 淑夫人  
聞韶金氏니 父는 波이요 鶴峰先生의 孫女<sup>러라</sup> 公이 生于仁祖乙丑<sup>하니</sup> 幼而才智超敏하고 容貌  
端正이러니 甫六歲에 見背母夫人<sup>이라</sup> 艱辛養育하여 懶齋公은 官遊京師하고 家又貧窶<sup>라</sup> 暫育  
於龜山姑氏家<sup>하나</sup> 及成童에 文詞<sup>－</sup> 已成하고 經史子集<sup>을</sup> 靡不貫通<sup>하며</sup> 筆法이 又精妙<sup>라</sup> 懶翁이  
甚愛之<sup>러라</sup> 庚辰에 移居于善山禮谷<sup>하니</sup> 遠近士友莫不推重而惟張聽天堂과 張南坡諸賢이  
道交最密焉<sup>이라</sup> 累捷鄉試<sup>로대</sup> 不得一命<sup>이라</sup> 人皆惜之<sup>러라</sup> 己亥에 遭外艱<sup>하니</sup> 與霞村丹崖  
二兄<sup>으로</sup> 居喪盡禮하고 丙午에 還于聞韶仲氏之宅傍<sup>하여</sup> 朝暮湛樂하며 講質經義<sup>하야</sup> 以遂終  
老之計<sup>하나</sup> 辛亥十月二十七日에 終于世<sup>하다</sup> 夫人은 德水李氏니 贈執義橋의 女<sup>라</sup> 卒癸酉<sup>하니</sup>  
墓는 合封하고 有四男一女<sup>하나</sup> 男은 徵錫徵錫舜錫鼎錫<sup>이요</sup> 女는 適文道亨하고 徵錫의 男은 德  
珠<sup>요</sup> 餘不盡錄<sup>하나</sup> 銘曰

性賦蕙蘭하고 姿成冰玉이로다 家學이 有源이라 早就服習하드라 四字六經<sup>으로</sup> 靡不貫徹이라  
累中鄉解<sup>로다</sup> 西園見屈이라 卷而歸來하야 琴書寓樂하고 噇唱篪酬<sup>하나</sup> 友于宋篤이라 緬仰遺風<sup>하니</sup>  
山高水湜<sup>이자</sup> 載刻貞珉<sup>하야</sup> 永示來百<sup>하나</sup>

檀紀四千三百七年甲寅十月下浣

咸陽 朴在九 撰

## 承旨公事實

公의諱는 姊 이요 初諱는 坡 이요 字는 重叔 이니 三栢堂公의 子 라 器宇豪俊에 早承家學하다 十五  
歲에 當父喪 하여 訓禮를 如成人하고 寓感先公手植三栢하야 重修先堂하고 日哦其間에 壇友  
有唱酬詩하고 撰外祖金公紳의 行狀하나 與府使朴以樟과 金聖佐諸公으로 為道義交하다 贈通  
政大夫承政院左承旨하다

### 自足齋公墓碣銘

并序

公의諱는 凤錫이요 字는 錫予요 姓은 申氏니 鵝洲人이나 其九世祖高麗按廉使諱祐와 高祖  
贈戶曹叅議諱元祿이 俱以孝로 旌閭하고 有尸祝之祠하나 曾祖諱仁은 司憲府監察이요 祖諱  
師道는 隱德不仕하고 考諱堅은 資憲大夫知中樞府事요 姮는 貞夫人平山申氏孝誠의 女요 進  
士宗輔의 孫이라 公이 生以崇禎辛未하야歿以甲申하니 墓在縣西蟻谷午向原考妣墓下하다  
公이 幼有志操하야 自七歲始學에 每至明君忠臣事면 必彈臂讀之하나 十有三에 承親命하야 觀  
魚梁이려니 惟持一鯉進曰不忍盡物取之하나 其仁性이如此하나 孝廟乙未에 應製居魁하  
特賜第하니 旋以臺論으로 止賞賜호대 公은 不以介意하나 常有濟世志하니 顯廟丁巳에 抗章  
特賜第하니 旋以臺論으로 止賞賜호대 公은 不以介意하나 常有濟世志하니 顯廟丁巳에 抗章

陳時弊五條하고 又擬疏하야 言大同法하니 盖韋布忠愛之誠이 謹如也하나 性이 至孝하야 當中  
樞公疾에 嚴冬沐浴하고 禱天하며 嘗糞하고 及遭喪에 哀毀踰制하나 既殯에 貞夫人이 寓二十里  
女家라 公이 每朝哭訖하고 往省하야 日不忘하니 同歲에 貞夫人이 又下世라 公이 盡禮合壙하고  
逐日省墓하야 終三年도록 如一日하다 與兄弟로 析產에 自取荒瘠하고 教子女에 有義方하고 哄  
不服華麗하나 少學族叔禾谷公在之門이라니 及其卒에 心喪三年하고 老亦往與其祭하나 自少로  
勑躬勵行하야 動循禮義하나 聞人喪하곤 不御酒肉하며 無故不殺鷄豚하고 手不折方長之木하며  
迅雷雨엔 雖夜도 必冠服危坐하고 便旋에 不向日月하나 試以自足으로 名其齋하고 作說以自  
志하니 可見其平生也하나 配는 宜人安東金氏鏡之女요 大司諫係行之后로 有婦德하다 舉五  
男四女하나 長은 淳이며 次는 滉이며 次는 濡이며 次는 泌이며 以孝友趾其美하고 女는任  
世杰朴東稷鄭碩老趙隆凡이요 内外孫男女幾人이되 銘曰  
旣孝于家하고 欲忠於國이라 於物廣愛하고 在己多足이라 自幼及老히 積而爲德이라 不違何  
病가 百世餘祿이로다

### 羅浮公行狀

崇禎甲申後八十五年上元日

進士 永川 李秀 泰謹撰

官至版圖判書。有子諱祐。官至全羅道按廉使。值世昏濁。獨持廉潔。居喪泣血。生墓前。事聞旌閭。服享于尚州之涑水書院。入本朝。有諱士廉。陽縣事。有子諱錫命。國子上庠。有詩名。兩事蹟。載輿誌。至曾孫諱元祿。號悔堂。以至孝篤學。贈戶曹參議。又旌表門閭。士林奉安于藏待書院。即我府君。高祖也。曾祖諱。允。號城隱。贈左承旨。有士友望。從游於旅軒張先生之門。送諸子受業焉。祖諱達道。號晚悟。官至修撰。贈都承旨。以經術風節。顯於世。丁卯狄亂。斥和議。考諱在。號禾谷。以行義。薦官至泰仁縣監。妣。豐山沈氏。右議政。聽天堂。諱守慶。玄孫。右副承旨。諱曆。女。戶曹判書完山李公諱溟。之外孫女也。壺儀閨範。無一不合於禮。府君。崇禎癸酉八月二十一日生。自。生而性質。寬厚。志氣。堅確。孝友之行。廉潔之操。本乎天得。處己接物。惟誠信。自勉。而喜怒不形於色。早業程文。有場屋間。聲而不以得失。爲意。壬辰夏。先府君。宦遊京師。府君。奉母夫人。趨侍焉。母夫人。風瘦之症。經年危餞。府君晝夜侍湯。至誠救護。不解衣。不交睫者。凡歲餘。而未或有倦疲之色。外王考承旨。公。嘗撫其頂。曰。鵝洲之申。孝友傳家。此兒能趾其美。申氏之福。蓋未艾也。自少。往來外門。外門人。多顯者。屢薦行誼於朝。府君笑曰。朝家薦人之道。必擇經。

明行修者。以爲需用之資。而今以魯莽滅裂者。爲之公薦。則是豈臣分之所可安耶。自此。吾無以舉顏於世也。癸巳冬。先府君。知泰仁縣事。本縣。素稱湖南佳麗之地。凡聲色玩好之物。無不悅人耳目。而府君未嘗或近。惟靜處子舍。讀書而已。壬寅。以先府君命。往拜許文正公之門。請晚悟府君墓銘。文正公。一見敬禮。許其撰述。未幾。易簣。府君。以不得一筆。責揚先德。爲深恨。己亥。丁母夫人憂。癸卯。丁先府君憂。前後之喪。一遵禮制。有一弟妹。未及成長者。辛勤撫養。誠心教導。嫁娶之節。資生之道。一如己之子女。至如親戚友朋之間。見其有窮乏急難處。則亦必盡心賙給。鄉里爲之稱服。京居尹公。以觀。即府君姑母夫也。客歿甥館。不得返櫬。權寢於縣西數十里之地。子孫。遠居。香火。或闕。府君。爲置墓奴。禁其樵牧。使時節。往來。不廢奠獻。府君之妹兄李公東老。成公碩。夢。嘗歎曰。申君高義。求之古人。鮮有其儔。爲尹公後者。其可忘此恩乎。中歲以後。有所不樂。移居于縣南之羅浮山下。自號羅浮山人。杜門養閑。文酒自娛。以爲終老之計。丙寅。因事詣京。歲末。乃還。素患飽滿之候。轉成脹症。以己巳十月二十一日。奄棄不肖。享年五十七。翌年正月十二日。永寢于善山府東。博谷西向之原。嗚呼痛哉。府君平生。倜儻有氣節。不肯苟合於世。而畦畛。不設。

於接應하고 憶幅을 昇露於言語하고 不以卑賤而忽之하고 每加矜恤之意하며 不以愚迷而絕之하고 益盡指教之方하며 平居에 未嘗言人過失而如見人之有悖理之行則雖素嘗愛重者과必加嚴責하야 不少容貸하니 其和厚善信之資와 強方嫉惡之行이 盖如此하니 凡世之深知府君者皆以遠大로 期之而連中鄉解호대 得不成名하고 屢登薦剡호대 未展所蘊하니 然豈非命也歟아 姉恭人恩津宋氏는 左叅贊諱麟壽之五代孫女也하니 會祖諱는 荣祚니 珍山郡守요 祖諱錫圭는 成均進士요 考諱之瓊는 通德郎이요 外祖는 禮曹正郎 贈都承旨茂松尹公諱昀先妣以 崇禎壬申二月二十八日生이라 天性이 慈仁和柔하야 罷詈不及於人이라 歲庚寅에 彸于我府君하야 事舅姑以誠하고 奉祭祀以禮하니 上下俱得歡心하고 宗族이咸稱懿德이라 丙寅我從祖父透齋公이 出宰于高靈縣하고 曾祖妣淑夫人李氏는 荣養于任所하니 一日命王考府君曰汝居丹丘하고 汝二弟는 居山雲하니 吾每以汝兄弟之散處로 爲念이라 聞南村之長登는 長登即東近山雲하니 汝若卜居於斯則汝兄弟之團會을 可得源源이요 且念汝新婦宋氏는 孝友賢淑之行이 甚得婦道하니 吾將挈置膝下하야 俾成一門閨壻之儀法하느니 汝其圖之하라 王考府君이 即營一室于長登하야 以爲奉侍之計矣하니 會祖妣遽下世於是縣이라 臨終에 語諸子曰孫婦之賢孝如此而終未得其養하니 此爲吾臨死一限也하니 先妣每以此起感하사 時時流涕하니라 府君이 有賤妻子女하니 撫愛之을 無異已出하니 人皆稱德이라 丁亥以癟患出寓村舍하니가 以宿惠으로 上之四年七月 日

沉縣數朔하야 考終於是年六月二十四日하니 享年이 七十六이라 是歲十月十二日에 穿先考墳左邊而合窆焉하나 有二子一女即長는 不肖孤濂也하니 己卯忝得司馬名하나라濂이 有一男二女하나니 男曰重模니 乙未生員하나니 女長은 適士人李之烜하고 次는 適生員李柱大요 重模가生二男二女하나니 男長은 曰煒이요 次曰熿이요 女長은 適士人李繕하고 次幼李之烜生一男하나니 行遠이요 李柱大가 生一男幼하고 次男는 曰淳이니 生二男一女皆幼女適柳後葉이라 生一男四女하나니 男은 早夭하고 女爲申萬寬尹斗七權德行妻요 一幼하나니 内外孫曾總若干人이라 啼呼라府君之歿이 已過三十年이요 先妣之歿이 且將數十餘載而窆誌阡表을 并闕焉이라 不肖無狀이 見今年迫七十이라 死亡無日하니 深恐潛德幽光之湮沒無傳하야 略述家庭之所得하니 鄉里之所傳者하야 請銘于當世秉筆君子하노니 伏惟幸垂察焉하소서

不肖孤濂泣血謹狀

從孫 正模

### 芝軒公行狀

吾家一世不壽하야 比正模生에 獨伯祖府君이 在世耳하니 追憶當時의 招呼拊弄이 宛然如前日事而歲月이 侵尋하야 伯祖下世하니 居然四十五年이라 感念今昔에 罷任愴慕아 一日에 堂弟義模等이 以家傳相托하나니 顧正模孤蒙이요 重此懦約이라 其何能收召精魄하야 從事於筆硯間哉아

祇以家門敘述有非他人之比故不敢辭而畧記如左  
府君의諱는禹錫이요字는龜瑞요  
鵝洲人이라始祖版圖判書諱允濡이直道顯하고以按廉使諱祐의孝感名으로俱載麗史  
及三綱錄勝覽等書하다高祖諱元祿은聞道於周慎齋門下하니亦以至孝로旌門하고  
贈戶曹叅議하니號는悔堂이요曾祖諱允克述孝弟하며好善而文이려니  
道는早捷蓮榜이나遂不事舉選하야累以齋郎徵호대不就하고以丁丙扈從勲으로除祥雲郵  
官이라旋即棄歸하고除健元陵叅奉이라肅謝하나有士林重望하고號는虎溪이요考諱塚는中  
進士하니行誼文章이爲世推重이요妣는安東權氏니學諭諱宣之孫이며湖陽處士諱益昌之  
女라柔嘉貞淑하야女德茂備하야爲婦爲母에皆可取法이려니少敏  
悟惠和하고孝友以類라與我祖考<sup>至</sup>克述詩禮하며埙唱篪하고人이目爲難兄弟의天性이介  
潔方直하야見人有非違면輒面斥不少貸하나宗黨이咸敬憚之이文辭筆翰이俱清麗端楷라  
嘗屢中鄉解하고或居魁而輒見屈於禮部하니知舊無不咨惜而府君은等視窮通하야不少介  
然也이려니自少로有玄晏之癖이려니旣老而溫柔深篤하고中夜起坐하야怕誦四子韓歐等文하고以  
自家家貧으로瓶米或罄而靖坐竟日하야未嘗問有無焉이려니歲乙丑에我祖考<sup>一</sup>喪逝라府君이  
深以獨行踽踽로爲悲하야遂謝去病聲工專意於訓誨子弟하니不幸以乙亥二月十一日終하니  
春秋一五十八이려니噫乎라清文懿行으로迄未免沉屈하고又不享耆耋者는天果何心哉아府  
爾로라

### 宣務郎公墓表陰記

君이初娶延安李氏通德郎世美女하니甚有婦道하고產二男二女하고歲戊申에歿하나繼娶星  
山孝氏學生某之女하니亦賢淑有行하고產一男이려니歲庚申에歿하나延安李氏는葬于後洞  
坐異之阡하고府君及星山李氏는連窆于鐵坡向卯之原하나男長은德潤이니無子라以義模로  
爲后하고次는德海니有三男이라義模器模禮模이禮模이亦出后하고季는德津니早歿하고有  
二男하나益模貲模오女는權得泰宋煦니俱有一子하나側室子一人曰德溶이니亦早夭無后하나  
竊念府君의言行之美必多有可述者而即今家長老零落已盡하니以正模謏聞으로何能  
發揮其萬一哉아聊記其始終하야俾雲仍으로畧有所考据而追慕하야以爲乞銘庇後之資  
爾로라

妣亡永川李氏—니郡守廷相之女—이요參判民寅之孫也—이리라公이性仁孝하야自幼稟로唯以愛親爲心하리니比長에行誼—益篤이라見者莫不敬慕하야皆曰申氏孝子復出矣이자하라癸卯에大夫人이以微恙暴卒하니公이以養不逮로爲終身慟하고哀毀踰制하라未暮而通德公이寢疾久斗公이憂遑하야殆廢寢食積을二年도록不少懈하고亦不使子弟僕御로替其勞하라疾極에焚香祝天하야願以身代하고至嘗糞以驗之하니通德公이每對人에輒曰吾兒誠孝若此하니坳亦何恨가하다既喪에殮殯葬祭를一於禮無憾하고枕塊泣血하야未嘗見齒하리니鄉黨이感其孝하야告于邑宰하여薦于方伯하나可謂光繼先烈者矣로다早失怙恃하니諸弟妹多稚弱難保者—라悉皆撫養이以時婚嫁하나通德公이慮田可疑民不足均子女遺命在女子에有差하니及折著에公이令諸弟로先擇其優者하고自取其餘而加厚於娣妹之貧無資者하니聞者噴噴이리라公이素貧幾不振하야饋粥을或不給而處之泊如也호래至於祭祀之需則極力營辦하고務盡豐潔하니其奉先之誠을此可見一端矣로다公於外氏에有鞠育恩이라當其喪하야以義起服하야朞而心喪以終三年하니蓋亦孝之推也—이리라公이弱冠에委禽於先君子之門이라不佞之從公遊—久矣—라天稟이溫恭沉靜하야不妄言笑하고雖嫋隸有過라도未嘗恚罵하고與年少群居에不設戲狎之色하고雖有犯之者라도不與之校라先君이嘗愛之重—리라讀書에本乎徑傳하고爲文에主於理勝하며雖憂阨流離之際라도講論不輟하니蓋不專爲博士業而已—리라惜乎라天不假其年而卒無所施也—로다公이生於崇禎庚辰十一月五日하야卒于壬子閏七月十九日하니

享年이三十三이리라以蔭受宣務階하고配는豊山洪氏—니即吾伯姊也—니先君의諱는柱天이며陽城縣監이요贈議政府左贊成하고王考諱는灑이니南原府使요贈左叅贊하고會祖諱履祥은大司憲이요贈領議政이며先妣는贈貞敬夫人安東金氏—니寔同知中樞府事贈領議政諱光燦之女也—이리라以崇禎戊寅三月三十日生하니性이柔順孝敬하야每事에母違夫子하고雅不喜修飾爲世俗婦女態—리라既嫁에遠居嶺外라嘗誦風人語曰女子有行은遠父每兄弟하고輒至潛然出涕而對人에未嘗見於言色이라雖娣姒婢僕로鮮有知者리라凡稱未亡人者—四十年而董治家業하야以奉蘋蘩하고訓誨女子하야以畢婚嫁者는皆吾姊之力也—이리라顧余—曾莅花山하고又按嶺節에奉迎任所하야白首湛樂이리니相別未幾에奄隔幽明이라到今追思에不禁淚軟簌下로다辛未十二月十三日考終于義城山雲之正寢하니享年이七十四—리라翌年二月에葬于義城縣西內霞峴卯向之原하니即通德公의墓側也—리公이初葬于同縣德川이리니至是하나合窆焉하나德涵은娶通德郎洪叙猷女하야生二男하나學模聖模요德泳은娶生員都爾望女하니無后요李時昉은生三男二女하나男長은德涵이며進士—니即以狀請文者요次는德泳이요女適李時昉하나德涵은娶通德郎洪叙猷女하야生二男하나學模聖模요德泳은娶生員模는娶佐郎權希說女하야生二男二女하나男은永熙요餘皆幼하고聖模는娶都事金萬柱女하야生二男一女하나男은命熙慶熙요女는幼하다元吉은娶府使李益懿女하야生一女하나幼—리라呼—리公之至行厚德이於是乎食報而將見子孫之衆多門戶之昌大歟——(庚己丑年初燔先府君誌石庚寅三月初七日理于德川墓)

前內陪妾已遷葬特出置齋舍舅氏進入先妣始終添修誌文而未及改蟠

上之三年癸卯三月日元年

崇政大夫行議政府左叅贊兼判義禁府事知春秋館事

世子左賓客洪萬朝謹記

### 芝隱公行狀

不肖孫正模

府君의諱는文錫이요字는鳳瑞요鵝洲人이니上世에有諱允濡이爲麗朝版圖判書하야以清直著名하고生諱祐하니爲麗朝按廉使하고父卒에盧墓泣血하니有雙竹이抽生이라以孝感으로聞하야朝廷이旌其閭하고士林이尊尚之하야享涑水院하다六世至諱元祿하야奉親孝思不克追祖武자亦聞事에旌閭하다早遊周慎齋之門하야得傳學問淵源하다贈戶曹參議하고享藏待院하나兩世懿行이俱載三綱行實이라人目爲孝友家하나於府君에爲高祖요會祖諱允號城隱이니壬辰에與伯氏倡義하고戊申에爲晦齋先生伸辨疏하며辛亥爲退溪先生辨誣疏하고嘗除永嘉教授하고贈左承旨하나祖諱適道는進士니從寒旅兩先生하야得聞旨訣이러니丁卯丙子에倡義陳疏하다嘗赴祥雲郵官하고又除健元陵叅奉이라肅謝하니號는虎溪요考諱採는中進士하나文行이超世하야有士林重望이라以六行으로累入齊郎薦하니號는忍齋요妣는安東權氏니湖陽處士諱益昌之女라奉承家訓하야有幽閑之德이라宗族皆矜式焉이러나

府君이以辛巳二月二日生하나生有美質하야溫潤聰穎하나少多病하야不能刻意讀書라既長에能奮志文學하야不惟屑意於詞章而必以敦行孝弟로爲先하고其視聲利紛華에澹如也라文詞清麗하고筆法이亦端重이라流輩이咸期以遠到而累屈場屋하야終未成一舉名하나世皆咨惜而府君은不以介意하고方益加溫習하야爲暮年活計하고且訓誨子弟하야期以無墜先業이러니不幸寢疾經年하야以乙丑十一月十七日로終하나春秋이僅四十五이라噫하나以府君慈詳之質과敏悟之行而既不果立揚하고又嗚其壽命하니天之報施이果安在哉아配는月城孫氏니吏曹判書諱仲暾之后며忠義衛諱鉉之女라仁恕高明하고多識前言往行하야配府君에無違德하고事舅姑以孝하마訓子弟以義하야有古女士之風焉이러나府君沒세에先伯考이僅受室하나自餘稚弱이滿前이라祖妣이痛念早寡無賴하야既勤蠶績하고又篤於訓誨하야以能持門戶併先業하나歲庚午己丑에先伯考及先考이又相繼早世하나祖妣荐遭悲疚하야衰疾沉篤이러니以庚寅十二月二十五日棄世하나享年이七十이러나府君이初葬于縣西新洞하고祖亦各葬于縣南文巖이러니歲乙未에移合于遜道洞午向之原하나男女各三人이니妣이長은德溢이요次는德浩이요次는德洵이요女는李英中權惺李厚謙이러나伯考이二十七而歿하고有二男하나即彥模正模이仲父有一男인데仲父歿後에亦夭이라以堂兄之子禮模로爲后하고先考이年三十에無子而歿이斗祖妣命正模爲后하다李氏는一子니憲柱이요權氏는二子니長師正次는師閔이요李氏는三子니長은基稷이요次는洪胄이요次는洪源이러니正模이猥承餘慶하야早

竊科第<sup>하니</sup>俄而<sup>요</sup>獲謫南遷<sup>하여</sup>再移而到忠原者<sup>이</sup>今七年<sup>이</sup>竊念府君歿<sup>이</sup>己五十餘年<sup>이</sup>諸父<sup>이</sup>皆已早世<sup>하고</sup>諸孫等<sup>이</sup>又無逮事者<sup>라</sup>故只記其族世子孫<sup>이</sup>乃其才德言行則無以攷述其詳<sup>이라</sup>執筆攬涕<sup>하니</sup>愴慕曷極<sup>가</sup>

### 龍巖公行狀

不肖孫 一模

公의諱는 泰錫<sup>이</sup>宇는 泰之<sup>니</sup>鵝洲人<sup>이라</sup>高麗版圖判書<sup>요</sup>諱允濡之後也<sup>라</sup>判書公의子諱는  
祐<sup>니</sup>官은 高麗按廉使司憲府掌令<sup>이라</sup>判書公이卒에 墓于墓側<sup>하야</sup>朝夕號哭<sup>에</sup>有二竹이生  
于墓前<sup>이라</sup>事載<sup>國乘及三綱行實</sup><sup>하니</sup>是公之九代祖也<sup>라</sup>高祖의諱는 元錄<sup>이</sup>號는 悔堂<sup>이</sup>  
以孝<sup>로</sup>旌閭<sup>오</sup>官至<sup>贈戶曹參議</sup><sup>요</sup>奉享于藏待書院<sup>하니</sup>世稱申氏<sup>는</sup>以孝傳家云<sup>이라</sup>하다  
曾祖의諱는 乾<sup>이</sup>號는 城隱<sup>이</sup>官至<sup>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sup><sup>라</sup>祖의諱는 達道<sup>요</sup>號는 晚  
悟<sup>니</sup>擢魁科<sup>요</sup>持風節<sup>이라</sup>爲仁廟朝名臣<sup>이</sup>官至弘文館修撰<sup>이</sup>以丁卯<sup>에</sup>扈<sup>하나</sup>聖功<sup>이라</sup>  
贈都承旨<sup>라</sup>考의諱는 故<sup>니</sup>不屑舉業<sup>하고</sup>專心爲已之學<sup>하야</sup>學識雅望<sup>이</sup>爲士林領袖<sup>라</sup>娶郡  
守李廷相女<sup>하야</sup>生五男<sup>이</sup>文學孝友<sup>이</sup>克紹前美<sup>하니</sup>鄉里以馬家五常<sup>이</sup>荀氏八龍<sup>이</sup>하나  
目之公은 即第二也<sup>라</sup>風骨이 異常<sup>하고</sup>穎悟出天<sup>하야</sup>自學語에 已解文字<sup>하고</sup>不好戲嬉<sup>하고</sup>嶄  
然<sup>이</sup>異凡兒<sup>라</sup>早喪慈夫人<sup>하고</sup>就養於外王考郡守公家<sup>하야</sup>甫九歲<sup>에</sup>隨郡守公往洛中<sup>하니</sup>

人之見之者<sup>이</sup>莫不驚異焉<sup>이라</sup>郡守權公脩<sup>이</sup>抱置膝上<sup>하고</sup>以案上木果<sup>로</sup>誇示曰汝<sup>이</sup>能作  
詩<sup>면</sup>吾當以此<sup>로</sup>賞汝<sup>하니</sup>라<sup>라</sup>公이 即對曰案上一木瓜<sup>尋賞我文章好</sup><sup>라</sup>其夜<sup>에</sup>適大雨<sup>하야</sup>又以  
爲題而使賦之<sup>한대</sup>公이 又即對曰誰將東海水<sup>하야</sup>散作萬馬聲<sup>고</sup>權公이 大奇之<sup>하야</sup>至十四  
歲<sup>에</sup>以其女<sup>로</sup>妻之<sup>하니</sup>其動容周旋<sup>이</sup>儼有長者風儀<sup>라</sup>公이 自兒時<sup>로</sup>不好華靡<sup>하고</sup>新婚時  
服飾<sup>를</sup>悉皆辭謝<sup>하다</sup>適有乞客<sup>이</sup>來于主家而寒衣甚單薄<sup>이</sup>公이 解所着細衣而給之<sup>하다</sup>往  
赴外王考金川任所<sup>라</sup>가<sup>逢胡使</sup><sup>하야</sup>犯路<sup>한대</sup>胡使<sup>이</sup>發怒<sup>하야</sup>使招致之<sup>往見胡長</sup><sup>할새</sup>揖<sup>이</sup>  
不拜<sup>하니</sup>胡使<sup>이</sup>見其風骨<sup>하고</sup>大異之<sup>하야</sup>迺延坐而問曰我與爾<sup>로</sup>君見爾<sup>어</sup>君<sup>은</sup>亦加敬<sup>이</sup>이다  
爾何唐突<sup>이</sup>如是<sup>오</sup>公<sup>이</sup>徐對曰我<sup>이</sup>國은 朝廷에 有儀節<sup>而</sup>草野에 無禮法<sup>이</sup>하니 胡使<sup>이</sup>出橐  
中雜貨而給之<sup>어</sup>公<sup>이</sup>却不受<sup>라</sup>胡使<sup>이</sup>入洛<sup>하야</sup>語接伴使曰我入朝鮮<sup>하야</sup>見第一人物<sup>이라</sup>  
此人<sup>이</sup>當出將入相<sup>이</sup>名滿一國<sup>하니</sup>라<sup>라</sup>自此<sup>로</sup>聲名이 藉甚<sup>하야</sup>人皆有一識之願矣<sup>라</sup>公<sup>이</sup>氣  
甚豪俊而侍於親側<sup>에</sup>洞洞屬屬<sup>하야</sup>少不違志<sup>라</sup>伯氏의諱는 休錫<sup>이</sup>素有遷學至行<sup>이라</sup>公<sup>이</sup>  
凡於言行<sup>을</sup>必就質於伯氏而正焉<sup>하고</sup>爲文專事氣格<sup>을</sup>無一點陳腐語<sup>하고</sup>筆法<sup>을</sup>亦遒勁  
蒼<sup>하니</sup>古雖漫詠之小韻<sup>과</sup>赫號之短札<sup>을</sup>人皆傳誦而愛玩焉<sup>하고</sup>嘗赴鄉試<sup>에</sup>嵬捷而語人  
曰<sup>이</sup>近來科舉<sup>는</sup>取士<sup>에</sup>先文藝而後<sup>에</sup>德行<sup>이</sup>非有志者<sup>이</sup>所可從事<sup>요</sup>且場屋之中<sup>에</sup>雜類  
混濁<sup>하니</sup>至於皂隸之賤<sup>이</sup>肩比士流<sup>과</sup>朱夫子雖云科舉<sup>는</sup>不累人而一人<sup>이</sup>其中<sup>이라</sup>하니 自不  
得不累矣<sup>라</sup>自是<sup>로</sup>絕意舉業<sup>하고</sup>著工聖賢之書而交結一代名流<sup>로</sup>講磨義理<sup>라</sup>先府君<sup>이</sup>寢

疾彌留에 공이 衣不解帶하고 目不交睫하고 盡夜扶侍하야 未嘗少怠라 及其遭喪也에 柴毀骨立하야 殆至滅性이오 外除之後에 病勢漸重이어늘 醫言이 此病은 非刀圭之劑라도 所可打疊이리니 必收心養性하야 含默三年而後에 可以自愈而人之執心이 恐雖如此라하니 公이 曰苟利於病에 何難含默이라오 自此로 遂閉口不言하고 若有不得已事則以文字로 書示하니 傍人이 雖常侍左右者라 不聞語音이 過三年에 痘果愈라 人服其志操堅確이려和平生에 慕清陰金先生氣節이라 見清陰集에 盡手敬讀曰花山一境에 宜有清陰安靈之所而尚無士論하니 極可慨惜이라하니 傍人이 雖常侍左有人이 詆謗이라오 公이 正色叱之曰清陰節義는 昭如日星이라 雖婦孺奴隸라도 亦皆知之어늘 君之見及이 不及奴隸耶아 其人이 色沮而退라 公이 雖廢舉에 守志라 若無意當世而於國家事에 常眷眷不已라 歲丁卯에 進一疏而累累數千言에 一曰得民心이오 二曰堅聖意이오 三曰求人才요 四曰雪羞恥라 五曰崇節義라 六曰繕器械라 公之先王考修撰을 公이 於丁卯之亂에 力斥和議故로 周甲之歲에 自不勝愴感而有此疏焉已라 憂國家不幸이 中殿廢處에 私第朴學士泰輔—以諫死하고 一邊人이 當國에 只半日이廷請而罷어늘 公聞之하고 泣然流涕曰 君上에 虽有過과 舉在朝之臣이 無一抗諫하고 朴公之亦不申救하니 今之在朝者이乃是名教中罪人矣라 公이 與當國諸人으로 有素至是하고 皆貽書絕之라 與夢窩金公昌集兄弟斗丹巖閔公鎮厚兄弟와 大巖鄭公浩와 判書와 李公健命知縣과 金公鎮華와 相從道內之持一邊論議者—謗毀不已而公이 小不撓라 知縣黃應—이 疾公特甚이어늘

因事窘辱에 公이 翟家於一善地하야 與善倅金萬增과 李承旨東溟과 結交라 丁丑에 大巖鄭公이  
來莅本縣이어늘 公이 自一善還頓하나 乃末路倫紀壞絕하고 人道幾於熄滅이라 扶植節義—惟  
此時로 為急이라하고 乃與道內同志로 相議하야 立六臣祠하고 仍以己巳三賢合享하니 盖此縣에  
有成先生遺址舊號故也라 大巖이 與道伯李公彥紀로 與之合謀而出力하야 終至竣事焉이라  
時에 有沙溪金先生從享之論而自 上斬允이어늘 公이 唱擧一道章甫하고 陳疏固請하세其  
疏에 金某는 早從賢師하고 親承嫡傳而於禮經一書에 尤致力이오 其講明纂述者—一依朱  
文公家禮而至於古今之異—宜品節之難解處와 折衷諸家斟酌하야 時宜撰爲備要問解等  
書라 冠婚喪祭之儀—燦然復明이라 國朝典章에 私家經變이 皆有援據하고 少無差謬라 其  
裨益世教—有功斯文者—雖濂洛諸賢之配侑 聖廟者—亦似無踰어늘 從享之舉에 不可一  
日緩也라 跖奏에 上批曰豈不知道學之尊而予之斬元는 宗出於慎重之意라 庚辰春에 自  
桃園으로 移家于山雲할세 晚悟公의 遺址에 擇其地勢平廣하야 四面均正處而作舍曰此基正  
如我心이오 家後山에 有龍巖이어늘 取其名而自號를 龍巖居士라 하다 鑿開小池하고 種植花卉하고  
滿壁圖書가 玩賞自怡하고 或開戶獨臥에 經旬不言하고 或擁衾儼思에 夜分不寐오 每有意會輒  
發에 吟咏有詩曰長安大道日奔馳拖紫橫金揔小兒라 誰識山雲高臥客이 閒吟烟月任情爲아  
其曠遠之懷—有不可度也라 辛巳에 聞兩南儒生이 跖請에 沙溪從享而醜正之疏斗又出於  
道內에 는 公이 抗憤陳疏曰文元公金某는 其道德之醇正과 學文之淵源이 已悉於前後章甫之

封章則今不必更爲架疊이오。蓋其證禮著說에垂示後學者，爲一代儒宗而崇報之。典에尚  
 今未舉하니，豈不以一種訛謠之說<sup>로</sup>有所參錯於其間而然耶？아頃에 曰：「殿下答諸道儒生之  
 跖에 有曰：非不知道學之尊則，殿下之知金某<sup>를</sup>可謂深矣。」伏願 殿下亡快允多士之  
 請<sup>하사</sup>函舉金某躋廡之<sup>하소서</sup>禮疏入에下批에 曰：省疏具悉은予之斬俞。豈有他哉？宗出  
 於慎重之道也。八月에 聖母賓天에 公이號痛殊甚하고 因山時에而望哭拜하고 姑素春年하라  
 盖傷慈聖中罹變故<sup>로</sup>衷赤이 自激而然也。時에 沙溪先生從享之論이 出於搢紳而南相  
 九萬과 柳相尚運과 及尼山立異。自上持疑未決이어늘 公이 又掇前疏之意而封章曰：「殿  
 下」若不知金某之學<sup>을</sup>謂不合於從享則已<sup>어니와</sup>。既知其道之可尊則獨橈於三大臣持難之  
 說<sup>과</sup>終使垂成之盛典을 睦而不行이면 臣은爲 殿下惜之하오이다 諸臣<sup>로</sup>不論道學이 只以歷  
 代之未久<sup>과</sup>時論之有歧<sup>로</sup>爲一大持難之端이。此則誠有所不然者는某之沒이。雖六十餘年  
 而諸生之請從享은于今二十餘年이오 文正公臣宋時烈은以某之門人으로 建此議於章甫之  
 間하니 伊時在廷大臣이 有若金壽恒과 閔鼎重이咸以爲可<sup>요</sup>雖趨向不同之人은無一橫議則  
 時論之大同이 如是而數年來<sup>이</sup>異言喧逐<sup>과</sup>一種醜正之徒가 侵侮正學하고 疑亂聖聰하니  
 殿下<sup>이</sup>若徒<sup>록</sup>知慎重之道而不思所以衛道閑邪則臣는恐義理無時可明이며 邪說이無時可  
 息이리니 豈不火可惧哉<sup>리요</sup>。疏奏下 温批에 館學儒生<sup>이</sup>相繼陳疏而蒙允이苟非公慕賢  
 之誠之至<sup>이</sup>何能感動？天意而辨得斯文之盛事耶？癸未初에 判書朴世堂이 掖拾尹鑄之

餘論<sup>하여</sup> 改註四書<sup>斗</sup>悔毀朱子<sup>斗</sup>又於白軒李相之神道碑銘詰辱<sup>과</sup>尤菴老先生至比於少正  
 卵又以鴟梟目之<sup>을</sup> 公이聞之<sup>하고</sup> 不勝憤歎<sup>하야</sup> 與金鎮華李光朝<sup>로</sup>書에 曰：朴也！有子死節  
 而又守恬退之志하니 若善其晚節則當得令名而聚會京中에 士子教以浮薄之習하고 加之以  
 侮賢醜正<sup>하고</sup> 自喪身名<sup>하니</sup> 其心所存<sup>를</sup>誠不可知오 尤翁이 嘗以大尹黨鑄言이必稱春秋之  
 義는先治其黨이 與此<sup>면</sup>亦黨鑄餘論者也。繙紳章甫<sup>이</sup>卞誣斥邪之舉<sup>이</sup>亦不可已也<sup>斗</sup>有一  
 人曰：公이 尊慕其子立祠하고 請額而訛毀<sup>하니</sup> 其父豈有是理오 公曰：以夏禹之聖而以鯀爲  
 父<sup>하고</sup>舜이 殒鯀而傳天下於其子則豈可以子而恕父乎？丙戌에 知縣沈公漢柱<sup>가</sup>設老人  
 宴<sup>하고</sup>邀公甚懇이어늘 公이 往赴之夜深에 相與歌詠<sup>할세</sup> 公이 所製末聯에 有曰芳筵醉罷拚  
 辭去하니 恍似瑤臺一夢空이라 沈公이 憐然曰：末聯之語가 虛知促恐이오 或爲詩讖也<sup>하니</sup> 果未  
 久에 卒逝하니 呕呼痛哉<sup>라</sup> 公의 身長이 十尺餘<sup>오</sup> 疎眉修頰이오 眼閉閉이。雖在千萬人中이<sup>라</sup>도  
 岸精神이 映蔽一座하고 若整冠歛膝而坐則雖素所親知者가 莫敢仰視而雖倉卒急遽間이라도  
 未嘗有疾言遽色<sup>하며</sup> 擇友<sup>를</sup>必卓犖魁嵬之士而其於接待人物에 亦溫厚和平이오 人雖有  
 忤<sup>斗</sup>必諄諄開諭而不以呵責이라 加之隣邑에 有一漢이 以強惡으로 著聞遠近士族이 無不  
 受其侮辱이오 官長<sup>도</sup>亦不能治<sup>라</sup> 公이 因事招致하니 其漢이 窃有肆惡意<sup>라</sup>가 及至見公儀容하고  
 合瓜叩頭<sup>하야</sup>唯唯而退<sup>斗</sup> 語人曰：天神<sup>도</sup>可慢이<sup>라</sup> 此兩班은 不可忽矣<sup>라</sup> 朴參議聖輅이 嘗  
 語人曰：余<sup>이</sup>幼時에 在義興衙에 見一大이 來見家親而衣麗布着耳<sup>라</sup> 掩偃臥撫鼻에 自然嚴

畏 하야 入坐狹房而不敢出云 이라 嘗寓居於忠原新塘 이 與黃江 으로 不遠 이라 遂菴權先生 이 源來訪 하야 討論義理 에 竟日遠夜 하고 極加敬重 이라 每曰此人 는 規模宏大 하고 風旨凜肅 하야 似有文正公嚴嚴氣像 이 撤寓後 에 移書曰嶺南儒宗之責 이 自有所歸云 이 晚年 에 有脚患 하야 不能騎馬 하고 每乘草轎而出入 이 嘗往忠原寓所中路 에 乏僕 하야 招野人而使之擔轎 斗 耕夫耘漢 이 見公儀容 이면 莫不奔走 斗 承命轉次擔昇而無一人怨苦 하고 成曰我等 이 雖虧半日農功 이나 得異異人轎子 리 心中 에 如有所得於此數 이 欽可知公學力之深邃 와 氣宗之不凡矣 라 家一清寒 에 饪粥 이 或不繼而愛人喜施 하고 隣里親戚 이 或當吉凶之事而貧無以爲資則必極力相助 하고 有若自己親當雖乞丐之容 이라 聽其情勢而可矜則罄儲以給 이 少無吝惜之意 斗 家畜一婢子 — 善琴歌 하니 有一親舊 — 見而悅之 여전 即呼出載去 하나 方伯守令 이 時或優送筆墨節扇而盡散於座上之客 하고 一不留家 하니 李公世載 — 按本道 에 聞公貧窮 하고 帖送別會穀六十餘石 이 公 이 歎謝不已 오 即送唐鑑一部 하나 庚辰 에 大嚴秉銓 이 以道薦 으로 擬於齋郎 이 辛巳 에 李公頤命 이 又擬齋郎 이 俱來 에 蒙 — 天點 이 甲申 에 一擬四山鑑役 하고 一擬水庫別提 에 亦未蒙 — 點 이 京中諸宰 — 相與歎曰 — 國家 에 脱有緩急 이면 此人 이 可當一面而四擬 라 末班 이 終 斬天點 하니 可惜 이라 大臣 이 欲陳達於榻 前 이나 不循資格而薦拔矣 러니 未久 에 公 이 遽卒 이라 公 이 生于癸未十月二十一日 이 卒于丙戌六月初五日 하나 享年六十四 라 是年月日 에 葬于山雲蘇洞負艮之原 하니 嘴呼 파 以公宏大之志氣 와 卓著人耳目者 — 如右以備 하니 當世秉筆者 — 採擇焉 이라

越之才學 으로 若能展布於世 則 其做措事業 이 必有大過人者而早拋舉業 하고 不得一第 라 晚登薦剡 에 未霑一命 하고 畢竟瓠瓜徒懸井渫不食 하니 此豈非有命存乎 아 其間而不能容人力也耶 아 然而身居草野 에 名動京華 하고 名公巨鄉 에 倒屣相迎 하고 兒童走卒 이 詠知景仰 하니 苛非崇學積中 이면 英華發外 에 有儀有則 이 可畏可象則亦何以致此哉 아 不肖孫一模 — 見識普督 하고 文辭藻拙 로 於公事行 에 不能模寫其萬一而竊恐年代漸遠 에 事蹟 이 終泯 하니 聊記著人耳目者 — 如右以備 하니 當世秉筆者 — 採擇焉 이라

### 百忍堂公事實

公의諱는 禮錫 이 字는 敬夫 호 號는 百忍堂 이니 晚悟公의 孫 이고 系華谷公子 다 宣務郎垓纔免懷에失慈育 하고 九歲에 丁父病 하야 曰夜侍湯 하고 遭憂而哭踊如禮 하여 具衰經哀號 하고 事兄 을 如嚴父 하다 成童前에 己有孝友聲 하고 早肄博士家言 하야 屢中鄉解 하고 而己 오 歎曰今親不在矣 리 不復就舉 하다 辛未 에 拜遂庵權先生于黃江 하야 得聞心學之訣 하고 又徃從金農嚴鄭文嚴 하야 講磨質疑 하다 性度寬厚에 不立崖岸 하고 尤眷眷於表贊尚德 하야 與仲氏龍巖公 으로 創鶴山書院 하야 奉祝辭於黃江 하나 平生 에 以恨未先夫人衰服 하야 五十五歲 에 行追服 하니 苛非天性摯孝 면 能如是乎 아 丙戌 에 龍巖公遘厲 에 獨不疑懼入救 하니 人 이 以病不染 으로 糜之 하다 以行義 으로 屢登鄉道剡章 하다

### 韓公墓誌

公의 姓은 申氏<sup>호</sup>諱는 德涵<sup>이버</sup>字는 仲游<sup>니</sup> 鵝洲人이라 上祖諱祐는 仕高麗爲按廉使<sup>려니</sup> 考判書公이 卒에 居喪<sup>하니</sup> 蘆墓<sup>하니</sup> 有雙竹이 生于拜展處<sup>라</sup> 事聞에 旌閭<sup>하나</sup> 五世祖諱元祿은 贈戶曹叅議號悔堂<sup>이니</sup> 又以孝行<sup>으로</sup> 旌閭<sup>하나</sup> 高祖諱允<sup>은</sup> 贈左承旨<sup>으</sup> 曾祖諱達道는 遭遇 仁廟<sup>하야</sup> 出入三司<sup>하야</sup> 望重一時에 世稱三學士<sup>하니</sup> 盖指趙公綱과 尹公煌及公也<sup>—</sup> <sup>리라</sup> 官止弘文館修撰<sup>하고</sup> 贈都承旨<sup>으</sup> 王考諱瑩<sup>는</sup> 通德郎<sup>이요</sup> 考諱休錫<sup>은</sup> 以蔭受宣務階<sup>하고</sup> 以孝行懿德<sup>으로</sup> 有行狀誌文<sup>亦하고</sup> 載輿地勝覽<sup>하다</sup> 姉는 豊山洪氏<sup>니</sup> 縣監<sup>은</sup> 贈議政府左贊成諱柱天女<sup>며</sup> 贈領議政諱履祥<sup>之</sup> 曾孫이려라 公이 崇禎後丙申五月二十日에 生于外王考京城馳駱洞第<sup>하고</sup> 庚戌四月初九日에 正席整襟卒于義城山雲之挹清堂<sup>하니</sup> 享年이 七十五<sup>리</sup> 令孫孤永熙<sup>—</sup> 泣血請誌曰是年六月十五日에 葬于義城縣西下川坊內霞峴卵向之原<sup>하니</sup> 即宣務公墓前云이려라 而顧余義不可終辭<sup>—</sup> 斗 敢揮涕屬筆而叙之曰嗚呼<sup>라</sup> 公이 生有奇質<sup>하고</sup> 英悟絕人<sup>하야</sup> 纔離襁褓<sup>에</sup> 輒解文字<sup>하나</sup> 受學於先公外祖考郡守李廷相<sup>하니</sup> 不煩課督<sup>하고</sup> 如竹受刀이려니 七歲에 作寒食賦<sup>하니</sup> 曰忍火食於今日이라<sup>하니</sup> 先生長者<sup>—</sup> 皆驚嘆以爲神<sup>이려라</sup> 及稍長에 貫穿經史<sup>하야</sup> 育中今古로 發爲文章<sup>하니</sup> 到底通透<sup>려라</sup> 壬子에 遭先府君喪<sup>하니</sup> 雖在髫

訖이니 哀毀如禮<sup>하고</sup> 葬祭之事<sup>를</sup> 必敬必誠<sup>하야</sup> 無毫髮差恨<sup>하니</sup> 人皆繡善居喪<sup>이려라</sup> 至甲子<sup>하야</sup> 中生進兩試<sup>하니</sup> 前後科解<sup>에</sup> 輒居魁<sup>라</sup> 居亞者<sup>—</sup> 數十數<sup>리</sup> 己卯<sup>庭試에</sup> 大提學崔錫鼎<sup>이</sup> 得公作<sup>하고</sup> 嘆曰近古所未有<sup>라</sup> 欲置第一<sup>이려니</sup> 院吏有受賂行私者<sup>—</sup> 匿卷<sup>하야</sup> 竟未第<sup>라</sup> 京鄉<sup>이</sup>聞而莫不嗟惜而公은 不以一毫歎恨<sup>으로</sup> 加諸意曰是有命焉<sup>이라</sup> 辛卯<sup>에</sup> 丁內艱<sup>하니</sup> 哀有餘而禮無愆<sup>하고</sup> 三年居廬<sup>에</sup> 未嘗見齒<sup>하다</sup> 平生에 嫉惡<sup>을</sup> 不啻探湯<sup>하야</sup> 凡人之有不忠不孝<sup>면</sup>雖素所相從者<sup>라</sup> 未嘗以辭色假之<sup>려라</sup> 公은 天質이 莊重<sup>하야</sup> 終日儼然<sup>하고</sup> 坐立이 有常處而未嘗跛倚<sup>하며</sup> 語默<sup>이</sup> 有常節而未嘗戲玩<sup>하고</sup> 雖鄉里後生<sup>이</sup> 來拜<sup>라</sup> 躬自爲禮<sup>하야</sup> 如對元賓<sup>하니</sup> 自凡人視之<sup>면</sup> 殆若不可頃刻自安者而公은 泰然終其身<sup>하니</sup> 雖在倉卒<sup>이라</sup> 亦未嘗少變<sup>이려라</sup> 居家에 孝友篤至<sup>하야</sup> 每日鶴鳴盥漱<sup>하고</sup> 往先夫人所<sup>하야</sup> 問房燠寒<sup>하고</sup> 若出入則必入拜而告其所遊之方<sup>하고</sup> 先夫人이 或顏色不和則必拱立左右<sup>하야</sup> 跟蹠若無所容<sup>하야</sup> 埃其意舒而後<sup>에</sup> 乃退<sup>하니</sup> 盖自膝下<sup>로</sup> 白首如一而甘旨之供<sup>을</sup> 極力營辦<sup>하니</sup> 至於酒饌方文<sup>과</sup> 廣改行者<sup>려라</sup> 及其析產<sup>也</sup> 自取瘠田老僕而讓其美於弟妹曰爾<sup>는</sup> 非此<sup>면</sup> 無以存也<sup>—</sup> <sup>라</sup> <sup>하나</sup> 弟家破產而貧窶<sup>면</sup> 則出家資而資之<sup>하야</sup> 未使乏絕令<sup>하고</sup> 親族之窮而無所歸者<sup>를</sup> 繫眷於家<sup>하야</sup> 或辦其粧奩而婚嫁<sup>하고</sup> 或資其產業而濟活<sup>하며</sup> 雖平生素昧者<sup>라</sup> 若有水火盜賊喪葬之事而來乞者<sup>면</sup> 則必極力救助<sup>하야</sup> 未嘗計家力之羸歉焉<sup>이려라</sup> 衣冠은 潔而不華<sup>하고</sup> 飲食은 淡而不

豐<sup>화</sup>若行祀事則必前期三日<sup>하야</sup>正衣冠坐於中堂<sup>하야</sup>不與外事<sup>하다</sup>乃取論語中庸<sup>하야</sup>書  
讀而夜誦<sup>하고</sup>或抄其緊語<sup>하야</sup>作小帖而袖藏之<sup>하야</sup>於出入之際<sup>에</sup>手閱而心念<sup>하다</sup>讀書而若  
遇古人<sup>의</sup>嘉言善行<sup>이면</sup>未嘗不三復而致恩<sup>하려</sup>以至星曆算數兵書<sup>에도</sup>無不曲暢方通<sup>이려</sup>  
七十之後<sup>에</sup>轉動<sup>이</sup>艱難而必身親將事<sup>하야</sup>未嘗使人代之<sup>하고</sup>嘗曰天之所以賦余者<sup>이</sup>不貧而  
處而不修德行<sup>하고</sup>出而不立事切者<sup>는</sup>甚可既也<sup>—</sup><sup>—</sup>世之以儒名者<sup>—</sup>或大言而無當<sup>하야</sup>하고  
清淡而傲世而叩其處家之事<sup>와</sup>治身之方<sup>则</sup>終未免趨趣而止耳<sup>나니</sup>此則好爲大而無宗學  
之過也<sup>—</sup>凡人之有藝<sup>—</sup>一行<sup>五</sup>若已有之<sup>하야</sup>雖卑下之人<sup>이라도</sup>必闡揚焉<sup>되다</sup>判敦字洪  
公舅氏<sup>는</sup>即一代名卿也<sup>라</sup>三典劇邑<sup>하며</sup>九按藩節<sup>이로</sup>而每有疑獄難事<sup>면</sup>必質問而決焉<sup>하고</sup>  
常曰其人也<sup>—</sup>可合百餘年廊廟材矣<sup>라하나</sup>公이<sup>—</sup>嘗道遇雨<sup>하야</sup>避于友人園亭<sup>이라니</sup>震摯庭前  
樹<sup>하니</sup>火光霧氣閃鑠于座中<sup>하야</sup>人皆僵仆昏絕而公은<sup>—</sup>坐不移席<sup>하고</sup>色不少變<sup>이리라</sup>嘗棄舟  
涉江<sup>이리니</sup>中流而舟破<sup>斗</sup>舟中人이<sup>—</sup>錯愕失操<sup>하야</sup>或散髮而痛哭者而公則整衣冠曰可得正  
而斃令<sup>이라하니</sup>俄而舟掛淺灘而卒無事<sup>하니</sup>其操履如此<sup>러라</sup>公之文章은<sup>—</sup>根於六經而發爲  
繪采<sup>라</sup>雖極言竭論而無艱難辛若之態<sup>하니</sup>每一篇出<sup>에</sup>人皆傳誦<sup>하고</sup>雖善文者<sup>도</sup>未嘗敢易一  
字<sup>혀라</sup>嘗論古人處變之得失<sup>하야</sup>作處變權衡二卷<sup>하고</sup>又有雜著六卷<sup>하나</sup><sup>(藝指文集)</sup>所交遊<sup>—</sup>皆名  
公巨卿而人皆以大受期之<sup>러니</sup>至晚年未第則銓官聞而惜之<sup>하야</sup>再擬於齋郎而終未受<sup>—</sup>點  
令<sup>이리라</sup>金相昌集<sup>斗</sup>李相濡<sup>와</sup>李相世<sup>白</sup><sup>과</sup>宋判相琦<sup>는</sup>皆公表從叔<sup>이라</sup>或秉銓衡<sup>하고</sup>或居三

事而深知公之才與學<sup>하야</sup>欲薦之於朝則公曰非吾意也<sup>—</sup>窮與達<sup>을</sup>莫非天<sup>이라</sup>何可逆天  
而強爲<sup>아</sup>乃謝之<sup>하다</sup>自此<sup>로</sup>謝絕世事<sup>하고</sup>不與人交<sup>하고</sup>自號聾瘡以見志焉<sup>이라</sup>噫<sup>라</sup>以公  
行誼之純篤<sup>斗</sup>文章之兼備<sup>로</sup>終不得取一第霑一命<sup>이라</sup>識者<sup>—</sup>莫不嗟惜<sup>하니</sup>意者<sup>전대</sup>天之報  
施其在於後歟<sup>아</sup>配<sup>는</sup>南陽洪氏<sup>니</sup>通德郎諱叙猷之女<sup>요</sup>監司諱得一曾孫也<sup>—</sup>端莊貞慤<sup>하야</sup>  
甚有婦德<sup>하야</sup>每事<sup>에</sup>無違夫子意<sup>려라</sup>歿于先公三十三年<sup>하니</sup>丁丑三月二十四日<sup>이라</sup>葬于義  
城縣南佳音坊石室已向之原<sup>하나</sup>生二男<sup>하니</sup>長<sup>은</sup>學模<sup>니</sup>娶佐郎權希說女<sup>하야</sup>生二男二女<sup>하니</sup>  
男<sup>은</sup>永潤益潤<sup>요</sup>女<sup>는</sup>李禎郁<sup>이라</sup>次<sup>는</sup>聖模<sup>니</sup>娶都事金萬柱女<sup>하야</sup>生二男一女<sup>하니</sup>男<sup>은</sup>命  
澐慶澐<sup>요</sup>側室子一人<sup>이</sup>敬模<sup>요</sup>庶女三人<sup>이니</sup>孫雲鳳閔鎮緯<sup>요</sup>內外孫男<sup>이</sup>若干人<sup>이라</sup>噫<sup>라</sup>  
上之七年庚戌五月日<sup>雍正八年</sup>通政大夫前承政院都承旨知製教兼<sup>—</sup>徑筵參贊官春秋

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尚瑞院正 媽弟 淳昌趙彥臣 謹誌

### 退澗公墓碣銘

同福吳光運<sup>樂山</sup>

聖上三十年七月己丑<sup>에</sup>慶尚道觀察使臣金尚星<sup>은</sup>謹啓<sup>하나이다</sup>道內儒生進士李憲復等五  
百餘人<sup>이</sup>言義城<sup>에</sup>故生員申濂<sup>은</sup>即麗末直臣放圖判書允濡孝子按廉使祐之後孫<sup>이오</sup>本朝  
孝子<sup>—</sup>贈參議元祿之五代孫<sup>이오</sup>丁卯斥和臣弘文館修撰達道之曾孫也<sup>斗</sup>生有至行<sup>하야</sup>便

旋에 不向日月。其大父患瘧에 七歲侍湯餌에 不暫離하니 有強盜夜劫財。十五歲兒一能以身捍賊刃。衛其父得出하고 又求其母에 其母已辟而已不知也。하야 左右捨賊中에 以求之。하니 賊刃亂卜하야 血被肩背로 대見其母而後에 始覺其刃傷也。하다 其事父母에 自扇枕調餌로 以至衣祫浣濯에 僕御之役을 麻不躬親焉하고 侍父病에 壯年而髮盡白하며 及父喪營窓에 雀立霜雪中龜經無完膚不脫經不啓齒하야 三年如一日하고 既登司馬하야 杜門養母에 家貧歲儉호대 脣美常溢度閑하고 左右承將에 爲嬰兒容하고 及後喪에 己過不毀之年而持律嚴苦。如前喪하니 此其至孝之使人有聞者也。하나戊申에 逆亂이 起하니 年己七十이라 慨然流涕曰此吾輩一死報國之日也。하나 一鄉多士。素服其忠孝하야 遂薦爲義兵將하니 即奮起臨陣於杏壇之下而節義凜然에 有足以立懦也。하나 其天資粹美하야 不欺屋漏而又沉潛性理書。老而彌篤하니 其實踐可知。有士如此而無表章之典하니 其何以興起後學乎。臣尚星은 謹昧死以聞事하노이다 下籌司에 光運이 奉居具僚하야 與聞未議하니 僉曰 一鄉一善之有稱於世教者도 不可沒이 온대况忠孝之行이 卓然爲一道表者를 又曷可少也。리오 遂轉送于禮部하니 禮部이 議以褒贈奉教可其龍起龍慶이 又得李處士光庭所爲狀하야 屬銘於光運曰 亡祖之行은 自士林而方伯自方伯而 天聽하니 亦顯於當世矣。하나 請所以顯諸後者라 할세 光運이 辭以匪其人而終不獲하야 謹按公의 字는 學源이니 申氏本出鵝洲從義城하나 大父의 謂는 在니 以行義로薦하야 仕至泰仁縣監하고 考諱는 夏錫이니 隱德不出하고 號는 羅浮山人이오 姉는 恩津宋氏左

參贊麟壽之後 | 通德郎之璣之女也。하나 公이 以孝廟八年丁酉十月十七日에 生하야 以丙辰歲除日로卒하니 葬于縣南古老斗牛山辛坐之原하다 配는 豊山柳氏니 謙庵雲龍之后將仕郎世鳳之女也。하나 生長法家하야 端莊有範하나 先公十八年而卒에 一子는 重模니 生員이오 二女는 適士人李之烜生員李柱大오 重模는 二男一女니 男은 龍起龍慶이요 女는 適士人李褚오 内外會孫이 若干人이라 公之純孝精忠은 按察之狀에 大畧盡矣。하나 其得之於家狀者에 曰公이 風儀峻整라고 氣局이 淳厚하여 端莊靜坐에 如山岳하고 望之에 知其爲碩德巨人하나 其爲舉子時에 隳守之爲高官者। 有密語於公하니 公이 正色拒之하고 猶嫌其形迹하야 遂不就試하나 其隸業京師에 有貴家子丨慕與之游하야 欽甚이라 公이 不一謝하니 外黨之任柄者丨有推轂意하니 公이 不可之하나 親戚交友丨雖所嘗親重者라도 及責用에一字不通하고 彼有問에 裁謝而已하나 跡遠恤諸族에 傾囷賣田하야 竭其力之所至하니 家漸旁落이라 夷然曰 吾道固如是也。하나 而公이 十에 不廢參廟하고 日誦論孟數篇을 如課하니 此公之疏節而人之所難能也。하나 皆可以銘이로다 銘曰 童而壯烈에 踏刃衛親하고 老而孺慕에 噎粥毀身이라 視國有賊을 如室之冠하고 护國有難을 如父是救하나 盡忠報國이 孝道之移하나 萬駟千鍾은 一芥之推오 喬嶽潤物은 不廷而鄉이라 聞悅覲醉에 没世不忘이라 抱道窮廬丨何損於公이여 励世榮典이 何加於公자 公之所性은 實踐于躬이라 凡百慕公은 母外伊내하나倘余不信이면 有斯石在라

## 老圃公墓碑文

府君의 謂는 德海요 字는 浩然이요 號는 老圃요 姓은 申이래 而氏는 鵝洲라 顯祖는 高麗按廉使諱  
祐로서 孝感雙竹으로 旌閣하고 享涑水書院하다 歷五世에 至元祿하니 號는 悔堂이나 又孝旌復  
戶하야 贈戶曹叅議하고 載三綱錄하다 享藏待書院하나 於府君에 爲五代祖요 高祖는 乾이며  
號는 城隱이라 贈左承旨요 曾祖는 適道이라 號는 虎溪니 進士라 丁卯胡亂에 倡義하야 特授祥  
雲察訪하고 丙子에 又倡義하야 除健元陵叅奉하고 太上丙寅에 以道學忠節로 贈吏曹叅議하고  
享丹邱書院하다 祖採는 號가 忍齋이니 進士로서 以六行으로 贈되고 享丹院하나 考는 禹錫이요 號는  
芝軒이라 從孫縣監正模가 撰行狀하다 姉는 延安李氏父司僕寺正世美요 姉는 星山李氏라 府  
君은 以 顯廟丙午에 生하고 以 景宗壬寅九月二十九日에 卒하야 葬于上八智后洞先妣塋  
右已坐하나 配는 恭人眞城李氏判官天培의 女로 戊申生이요 辛酉十月二十日卒하야 墓在下  
八智案山心字形壬坐하나 男長이 義模이나 系伯父德潤하고 次는 器模요 季는 禮模이나 系堂  
叔德浩하고 孫은 世烈이요 曾孫晋教요 玄孫은 冕奎와 冕璋와 冕琦요 義模의 男은 宗烈과 東烈이요  
禮模의 男은 廷烈이라 餘는 在譜可按나리라 知今芝軒派는 皆府君氣脈이요 遜道派亦幾半이 爲  
府君之出이니 岂非生平修德之致乎아 然이니 世代已遠에 中衍盡逸하야 事行之美를 無由詳

說하니 不明不仁之罪는 難逃奈何요 要余以陰記하니 何敢自外요 惟不能是懼하야 只攷上下  
世系而序次如右云爾하느라

辛酉(一九八一)九月

日 出系七世孫 翼煥謹撰

## 靜齋公行狀

從子 正模

府君의 謂는 德溢이요 字는 大哉며 鵝洲人이라 麗朝版圖判書諱允濡以清直名於世하니 寅爲鼻  
祖요 按廉使諱祐는 即判書公之子이니 遭喪廬墓하고 泣血三年에 有雙竹이 抽于墓前이라  
聞에 表其宅하나 其後에 移居于聞韶元興洞하니 有諱元祿號悔堂은 天資近道하고 學於周慎  
齊하나 奉親孝思－ 邇追先祖라 朝廷이 又褒錄之하고 因 贈戶曹叅議하니 兩世懿行이 既載  
於三綱行實하고 士林이 又俎豆之하나 高祖諱乾은 號城隱이니 恳恂孝讓하야 稱爲厚德長者요  
贈左承旨하다 生三子하나 長의 謂는 適道이니 於府君에 爲曾祖요 天分이 甚高하야 早中司馬하고  
杜門養閑하니 宰執이 高其行하야 累辟齋郎이 ト대不就하고 除祥雲郵하니 遍踏關東名勝하고 旋  
即棄歸하니 號는 虎溪요 祖諱採는 進士니 以文行見重하야 賞應館薦而卒不顯하니 號는 忍齋요  
考諱文錫은 聰明穎悟하야 克世家學而有才無命하야 四十五而卒하다 娶月城孫氏하니 明廟  
朝名臣諱仲敏之六世孫이며 忠義衛諱鉉之女라 以甲辰四月四日 生府君하니 少穎秀異凡

兒하고且外內訓誨—克哲且嚴이라耳擣目染하야敦行孝弟하고記性이又甚敏하야文業日進하니  
 流輩—皆自以爲莫及이러라宗戚鄉黨이方期以遠到而內舅孫公汝斗—尤奇愛之하야貽書  
 勸勉하야動以古人相期하니孫公은固望士而其言이如此하니即府君之伏一世를可知已로다  
 歲乙丑에聘宣城李氏하니故持平諱珙之曾孫이며學生諱星者之女요花山大姓의權公諱○  
 ○之外孫也—以壬寅九月十一日生하니生長名家라飽聞女戒하니既歸我府君에祖考適  
 有疾彌留라府君이與妣三船親粥藥하고夙夜焦遑이려니至仲冬하야奄遭巨叛하니府君이以  
 畜養之促으로爲至痛하야居喪에極毀瘠하고送終에盡情禮하라旣閥制에孝養祖妣하야敬愛  
 無失하고退又勸課羣弟하야相與誦詩禮하니所以로克家而爲政者無間然矣하라不幸於庚  
 午六月에得疾하니卒革時에頗疑染瘟하야人莫敢八視어늘獨宗從兄德潤德海等이素重府  
 君이라直入救視하야病至難爲然後에去리라遂於二十六日에棄世하니得年이只二十七이라  
 時에一兄은纔畔오正模는方在娠이라先伯妣—痛念早孀靡依하야將欲自裁同穴이라가顧念  
 老親與幼孩하고低徊而不忍也—이러라兄弟旣免水火에又念非現不友之戒하야日夜痛加程督  
 曰汝等은須百倍其工이라僅可以比父教之萬이하나不肖等이天稟鶻劣하야雖不能一  
 遵教戒而到今粗陋魚魯는秋毫도皆伯妣賜也—리正模一年二十九에偉占巍第하니宗黨이以  
 為榮而妣는不色喜曰吾悲獨見此慶也—라하고因以出身事主之忠과守拙嘗世之道로慙惓  
 教戒焉하다逮正模—得娥林에奉板輿往赴하니無幾何에小醜竊發於鄰邑하야出其不意하야

長驅迫城하니時에吏卒이一空하야無奈賊에何라迺於寅夜에背負—하야粗伸私憚而其志則  
 將欲圖後效하야以贖厥罪하니方伯이不諒하야啓罷라西上하야俟罪于金吾門하니自上으로  
 憐其意하며恕其罪하야徒配未一年而全釋이러니庚戌冬에繡衣—冤以誣語로搏啓하야再就  
 理하야島配于興陽하고乙卯에用王世子誕慶하야移于錦山하고又一年에付處于忠原하니奔  
 走惴約이首尾八九年이라妣—驚憂震剝하야積慮成疾而尚冀鷄竿이式遄하야歸侍有日이러니  
 嘘乎라其如正模不孝之罪—上通于天에何哉—己未春三月에妣—感疾深篤이라兄이獨侍  
 憂遑하야至於斷指嘗糞而猶不得回天하야竟以其月二十九日로辭堂하니享年이七十八이라  
 天乎天乎여有罪如正模者는直爲降殛於其躬이면足矣라何忍移之於老母也오疾而未得  
 侍하며殮而未得憑하고過升許日하야方始奔哭하나此生此恨을曷其可忘가府君歿에葬于葛  
 畔嶺向丁之阡하고及妣喪에又祔葬而以墓東地勢不便으로祔于墓西而稍下하나長은彥模니  
 有二子二女하고季即正模니以祖妣命으로出后于季父하니有三子一女하다竊念府君의敏德  
 鏡行이必多有可述者로대不肖等이旣未承事하니固不敢沾沾稱道이니와至於先伯妣則五  
 十年承事之久라豈敢懼其嫌而沒其善哉아靜淑而幽閑하며敦重而端嚴은妣之天得也—오  
 處患之堅貞과訓子之純切은妣之行蹟也—요自餘日用常行且無不暗合於理하고至其鎮服  
 之量과細大之務에周悉備具하야無不宜之는古所謂女士者도殆無以過之라此非私言이라  
 宗族之所公誦也—로다敢記世系志行之櫻槧하야以俟世之直而不華者하야以爲乞銘垂後之

資하느니 至於溢美而爽實則正模之所大懼而不敢者也 | 三

### 槃窩公行狀

從子 正模

仲父의 謂는 德浩<sup>오</sup> 字는 聖欽<sup>이</sup> 오 檻窩는 號也 | 鵝洲之申이 著於 高麗<sup>하니</sup> 有按廉使諱祐<sup>一</sup>見  
王氏運訖<sup>하고</sup> 與治隱吉先生<sup>으로</sup> 携歸鄉里<sup>하니</sup> 號를 退齋<sup>라</sup> 以孝聞<sup>한대</sup> 朝廷이 疆錄之<sup>하고</sup>  
鄭文莊公이 表其墓<sup>하여</sup> 享涑水書院<sup>하다</sup> 六世而至諱元祿<sup>하야</sup> 號를 悔堂<sup>이니</sup> 嘗遊諸先生之  
門<sup>하여</sup> 得聞淵源之學<sup>하고</sup> 以孝로 聞하야 旋間<sup>하고</sup> 又載錄三綱<sup>하며</sup> 贈戶曹叅議<sup>하고</sup> 享藏待書  
院<sup>하다</sup> 生諱允<sup>하니</sup> 號城隱<sup>이</sup> 壬辰에 與伯氏<sup>으로</sup> 倡義師<sup>하고</sup> 辛亥에 爲退溪先生抗辨<sup>誣疏</sup>하다  
贈左承旨<sup>니</sup> 於公에 爲高祖<sup>斗</sup> 會祖諱<sup>는</sup> 適道<sup>니</sup> 號는 虎溪<sup>니</sup> 國子<sup>로</sup> 上庠<sup>하야</sup> 早從寒旅兩先生  
門에 得承旨訣<sup>하고</sup> 丁卯丙子<sup>에</sup> 倡義斥和<sup>하야</sup> 除祥雲郵官<sup>하고</sup> 旋即棄歸<sup>에</sup> 除健元陵叅  
奉<sup>하야</sup> 即謝<sup>하다</sup> 祖諱<sup>는</sup> 塚<sup>니</sup> 早擢上庠<sup>하야</sup> 累登館薦<sup>하니</sup> 文章行誼<sup>—</sup> 爲士林重望<sup>하고</sup> 號를 忍  
齋<sup>리라</sup> 考諱<sup>는</sup> 文錫<sup>이니</sup> 孝友文行<sup>이</sup> 克世家學<sup>하고</sup> 娶月城孫氏吏判愚齋仲敏<sup>后</sup> 忠義衛諱鉉  
之女<sup>니</sup> 以甲寅十二月二十日<sup>로</sup> 生<sup>하다</sup> 天稟이 慈詳孝友<sup>하야</sup> 歲乙丑<sup>에</sup> 祖考棄背<sup>하니</sup> 府君時  
年이 十二<sup>라</sup> 執喪<sup>에</sup> 哀憐<sup>이</sup> 如成人<sup>하니</sup> 見者<sup>—</sup> 咸異之<sup>하다</sup> 逮庚午<sup>에</sup> 伯考<sup>—</sup> 又早世<sup>하니</sup> 時에 大  
喪<sup>이</sup> 相繼<sup>하여</sup> 家事無津<sup>이라</sup> 府君이 年未勝冠<sup>而</sup> 能服勤奉養<sup>하고</sup> 教育幼孤<sup>와</sup> 一家衣食之須<sup>—</sup>

旣皆由府君出而乃若不肖等<sup>이</sup> 早免水火<sup>에</sup> 終下魚魯<sup>—</sup> 又皆仲父賜也 | 間以餘力<sup>으로</sup> 治舉  
子業<sup>하니</sup> 亦清麗可觀而屢舉不中<sup>하고</sup> 晚得龍額一選而亦未克大闈<sup>하니</sup> 鄉黨이 皆稱惜<sup>호대</sup> 府  
君은 不以屑意<sup>하고</sup> 專意奉親閑養<sup>하야</sup> 見人役役於名利<sup>로</sup> 爲之羞愍若浼<sup>하다</sup> 性이 厚重寡  
默<sup>하야</sup> 未嘗出俚言<sup>하고</sup> 亦未嘗言人過失<sup>하여</sup> 有來言者<sup>三</sup> 亦勿酬答<sup>하고</sup> 嘗往遊於葛菴李先生  
之門<sup>하야</sup> 得聞爲學之方<sup>하고</sup> 旣還<sup>에</sup> 隱然有求道之志<sup>하야</sup> 潛心經籍에幾至忘寢食焉<sup>하다</sup> 先考  
於一府君<sup>에</sup> 爲季弟而又於己丑<sup>에</sup> 短促<sup>하니</sup> 府君이 怕以獨行<sup>으로</sup> 爲悲<sup>하여</sup> 且問其無后<sup>하야</sup> 白  
于祖妣<sup>하고</sup> 以正模<sup>로</sup> 爲后<sup>하다</sup> 祖妣年深多病<sup>하야</sup> 有時危傾<sup>어문</sup> 府君이 輒血書禱天<sup>하야</sup> 願以  
身代<sup>하니</sup> 歲庚寅<sup>에</sup> 祖妣<sup>—</sup> 下世<sup>하니</sup> 府君叩叩遑遑<sup>에</sup> 哀動傍人<sup>하고</sup> 附身附棺<sup>을</sup> 麻有遺憾<sup>하다</sup>  
府君이 旣躬行孝悌<sup>하고</sup> 教子弟<sup>에</sup> 又循循有法<sup>하다</sup> 正模得科時에 尚少年<sup>이라</sup> 府君이 不色喜  
而深以爲懼<sup>하여</sup> 常以行身事君之義<sup>로</sup> 早夜戒飭<sup>하니</sup> 此可見隨事警誨之一端也 | 晚年에 移  
居于縣南考槃洞<sup>하야</sup> 構茅屋數椽<sup>하고</sup> 偏以槃窩<sup>라</sup> 取古人適軒之意<sup>라</sup> 去故里十里而遙<sup>하여</sup>  
正模等이 每以不得同居娛侍<sup>로</sup> 爲恨<sup>하다</sup> 戊申之變<sup>에</sup> 慨然流涕<sup>하고</sup> 與上舍兄濂確<sup>으로</sup> 議倡  
義<sup>하야</sup> 推上舍公爲盟主<sup>하고</sup> 竭誠募兵<sup>에</sup> 賛畫<sup>이</sup> 甚多<sup>로</sup> 대 未克發旋復罷<sup>하다</sup> 是歲<sup>에</sup> 正模出宰  
居<sup>에</sup> 烈以遭變<sup>호대</sup> 全母薄<sup>謹</sup> 謹而旋釋<sup>하니</sup> 府君이 益灰心爵祿<sup>하야</sup> 欲携挈子姪<sup>하고</sup> 八峽奠居  
而未以果<sup>하고</sup> 以庚戌正月十日<sup>로</sup> 終于寢<sup>하니</sup> 享年纔五十七<sup>이라</sup> 是年二月<sup>에</sup> 葬于安平朴谷  
異向之原<sup>하다</sup> 仲叔母李氏<sup>는</sup> 即延安大姓縣監軫之五世孫<sup>이</sup> 儀處士聖裕之女<sup>니</sup> 淑慎和溫<sup>하야</sup>

配府君無違德<sub>하나</sub> 庚子七月六日에 年이 四十三而歿<sub>하야</sub> 褒葬于遜道洞王考妣墓下<sub>하나</sub> 府君이 仁恕溫和<sub>는</sub> 自是天得<sub>이라</sub> 虽未果進爲於世而所以在家爲政<sub>이</sub> 良有可觀者矣<sub>斗</sub> 待丘嫂<sub>을</sub> 如事親闡<sub>하고</sub> 恤他子<sub>를</sub> 必先己出而至若奉先之孝<sub>와</sub> 重宗之誠<sub>은</sub> 則固已卓然高人數層矣<sub>오</sub> 尤篤於周窮卹匱<sub>하야</sub> 當春則必以斗斛<sub>으로</sub> 隨緩急分俵於親戚<sub>하여</sub> 因以推及鄰里下賤故<sub>로</sub> 卒之日에 無論親疎貴賤<sub>이</sub> 皆出涕相弔曰善人亡矣<sub>라하니</sub> 噫<sub>斗</sub> 此可以食報於天而夷考平生에 絶無好事者<sub>는</sub> 何哉<sub>오</sub> 長子善模<sub>는</sub> 先府君夭<sub>하고</sub> 次子俊模<sub>一</sub> 亦夭<sub>하나</sub> 從伯子彥模<sub>一</sub> 上言于朝<sub>하야</sub> 以堂從子禮模<sub>로</sub> 爲子<sub>하나</sub> 謹模慎模<sub>모</sub> 一女<sub>는</sub> 適金宗鐸<sub>하나</sub> 竊念府君之歿<sub>이</sub> 今以十餘年이라 其間에 正模<sub>一</sub> 又遭重劾<sub>하야</sub> 流移南北<sub>하나</sub> 孤露餘生<sub>이</sub> 更無所憑<sub>이라</sub> 輒書志行捷槩<sub>하야</sub> 以爲永世寓慕之資云<sub>이라</sub>

### 遜道齋公墓表

府君의 姓은 申이요 譚는 德洵이요 字는 君允이요 遜道齋는 追號也<sub>오</sub> 鵝洲는 貢鄉也<sub>라</sub> 上世에 有曰 譚는 祐<sub>요</sub> 號는 退齋<sub>신대</sub> 麗朝全羅道按廉使<sub>니라</sub> 其父版圖判書諡貞肅公諱允濡卒에 盧墓三年<sub>하야</sub> 淚血<sub>이</sub> 入地에 雙竹<sub>이</sub> 抽出<sub>이라</sub> 以孝旌閣<sub>하고</sub> 事載三綱錄<sub>하였다</sub> 享涑水院<sub>하였다</sub> 其孫士廉은 彦陽縣監<sub>이시고</sub> 是生諱錫命<sub>은</sub> 成均生員<sub>인데</sub> 自尚州<sub>로</sub> 移居義城元興<sub>하였다</sub> 子諱俊禎<sub>은</sub>

承仕郎<sub>이고</sub> 子諱壽<sub>는</sub> 除寢郎不赴<sub>하였다</sub> 其子諱元祿<sub>은</sub> 號悔堂<sub>이시고</sub> 登溪慎<sub>二</sub> 先門<sub>하였다</sub> 以孝旌閣<sub>로</sub> 載三綱錄<sub>하였다</sub> 享藏待院<sub>하였다</sub> 其子諱允<sub>은</sub> 號城隱<sub>이신대</sub> 壬辰倡義<sub>로</sub> 贈左承旨<sub>하시고</sub> 其子諱適道<sub>는</sub> 號虎溪<sub>이신대</sub> 進士<sub>로</sub> 登寒旅兩先生門<sub>하여</sub> 得聞旨訣<sub>하였다</sub> 仁廟丁丙亂<sub>에</sub> 倡義斥和<sub>로</sub> 贈吏議<sub>하였다</sub> 享丹邱院<sub>하나</sub> 其子諱採<sub>는</sub> 號忍齋<sub>이신대</sub> 成均進士<sub>라</sub> 以文學<sub>으로</sub> 有士林重望<sub>하야</sub> 享丹邱院<sub>하였다</sub> 其子諱文錫<sub>은</sub> 號芝隱<sub>이신대</sub> 潛心性理<sub>하야</sub> 隱居求志<sub>하였다</sub> 其三子諱德洵<sub>은</sub> 有文行而肅宗庚申生<sub>으로</sub> 乙丑九月二十一日年三十而卒<sub>하시여</sub> 宕于八智遜道坊山九一陽地戊坐原<sub>하였다</sub> 配碧珍李氏<sub>는</sub> 生壬戌<sub>하고</sub> 卒丁亥三月十日<sub>하야</sub> 與府君墓<sub>로</sub> 雙墳<sub>하고</sub> 繼配咸陽朴氏<sub>는</sub> 生丙寅<sub>하고</sub> 庚寅三月十九日卒<sub>하시여</sub> 附于府君墓下<sub>하였다</sub> 其後王母月城孫氏之命<sub>으로</sub> 以其長次孫諱正模<sub>로</sub> 嗣後<sub>하니</sub> 正模<sub>의</sub> 號는 二恆齋<sub>로</sub> 以道學文章<sub>으로</sub> 名於世而官至府使<sub>라</sub> 가歲英廟四年以構誣<sub>로</sub> 連繫戊申之禍<sub>하야</sub> 二度貶謫<sub>하시다가</sub> 終未得雪冤而謫逝<sub>하시니라</sub> 呴呼<sub>斗</sub> 彼蒼天者<sub>여</sub> 禍於吾門<sub>이</sub> 無奈甚乎<sub>아</sub> 於此兩代之事<sub>를</sub> 實記而傳於世則人孰不淚雨漆襟也<sub>리라</sub> 惜乎<sub>斗</sub> 竊念以吾府君之聰明才智<sub>로</sub> 如得壽位而立於廟堂之上<sub>이였던들</sub> 彼所謂權奸之輩<sub>가</sub>迺我二恆齋祖<sub>를</sub> 安敢構誣貶謫之事乎<sub>아</sub> 此莫非吾門運數所致<sub>斗</sub> 恨何及哉<sub>아</sub> 一寒一暑<sub>三</sub> 亦天也<sub>라</sub> 爾後數世之間<sub>에</sub> 貧寒孤獨<sub>이려니</sub> 自吾王考主靜窩諱相憲公晚年伊來<sub>로</sub> 令纔裔孫<sub>이</sub> 職其職食其食而數亦不少<sub>라</sub> 未遑阡表<sub>을</sub> 今茲諸孫誠合樹立<sub>하야</sub> 以戒樵牧<sub>하니</sub> 此亦父祖所有意未成之蔭佑也<sub>斗</sub> 不昧英靈<sub>은</sub> 春花秋月<sub>에</sub> 風馬雲車<sub>로</sub> 陟降左右<sub>하야</sub>

配府君無違德<sub>하나</sub> 庚子七月六日에 年이 四十三而歿<sub>하야</sub> 褒葬于遜道洞王考妣墓下<sub>하나</sub> 府君이 仁恕溫和<sub>는</sub> 自是天得<sub>이라</sub> 虽未果進爲於世而所以在家爲政<sub>이</sub> 良有可觀者矣<sub>斗</sub> 待丘嫂<sub>을</sub> 如事親闡<sub>하고</sub> 恤他子<sub>를</sub> 必先己出而至若奉先之孝<sub>와</sub> 重宗之誠<sub>은</sub> 則固已卓然高人數層矣<sub>오</sub> 尤篤於周窮卹匱<sub>하야</sub> 當春則必以斗斛<sub>으로</sub> 隨緩急分俵於親戚<sub>하여</sub> 因以推及鄰里下賤故<sub>로</sub> 卒之日에 無論親疎貴賤<sub>이</sub> 皆出涕相弔曰善人亡矣<sub>라하니</sub> 噫<sub>斗</sub> 此可以食報於天而夷考平生에 絶無好事者<sub>는</sub> 何哉<sub>오</sub> 長子善模<sub>는</sub> 先府君夭<sub>하고</sub> 次子俊模<sub>一</sub> 亦夭<sub>하나</sub> 從伯子彥模<sub>一</sub> 上言于朝<sub>하야</sub> 以堂從子禮模<sub>로</sub> 爲子<sub>하나</sub> 謹模慎模<sub>모</sub> 一女<sub>는</sub> 適金宗鐸<sub>하나</sub> 竊念府君之歿<sub>이</sub> 今以十餘年이라 其間에 正模<sub>一</sub> 又遭重効<sub>하야</sub> 流移南北<sub>하나</sub> 孤露餘生<sub>이</sub> 更無所憑<sub>이라</sub> 輒書志行捷槩<sub>하야</sub> 以爲永世寓慕之資云<sub>이라</sub>

### 遜道齋公墓表

府君의 姓은 申이요 譚는 德洵이요 字는 君允이요 遜道齋는 追號也<sub>오</sub> 鵝洲는 貢鄉也<sub>라</sub> 上世에 有曰 譚는 祐<sub>요</sub> 號는 退齋<sub>신대</sub> 麗朝全羅道按廉使<sub>니라</sub> 其父版圖判書諡貞肅公諱允濡卒에 盧墓三年<sub>하야</sub> 淚血<sub>이</sub> 入地에 雙竹<sub>이</sub> 抽出<sub>이라</sub> 以孝旌閣<sub>하고</sub> 事載三綱錄<sub>하였으며</sub> 享涑水院<sub>하쳤다</sub> 其孫士廉은 彦陽縣監<sub>이시고</sub> 是生諱錫命<sub>은</sub> 成均生員<sub>인데</sub> 自尚州<sub>로</sub> 移居義城元興<sub>하쳤다</sub> 子諱俊禎<sub>은</sub>

承仕郎<sub>이고</sub> 子諱壽<sub>는</sub> 除寢郎不赴<sub>하였다</sub> 其子諱元祿<sub>은</sub> 號悔堂<sub>이시고</sub> 登溪慎<sub>二</sub> 先門<sub>하였다</sub> 以孝旌閣<sub>로</sub> 載三綱錄<sub>하였다</sub> 享藏待院<sub>하였다</sub> 其子諱允<sub>은</sub> 號城隱<sub>이신대</sub> 壬辰倡義<sub>로</sub> 贈左承旨<sub>하시고</sub> 其子諱適道<sub>는</sub> 號虎溪<sub>이신대</sub> 進士<sub>로</sub> 登寒旅兩先生門<sub>하여</sub> 得聞旨訣<sub>하였다</sub> 仁廟丁丙亂<sub>에</sub> 倡義斥和<sub>로</sub> 贈吏議<sub>하였다</sub> 享丹邱院<sub>하나</sub> 其子諱採<sub>는</sub> 號忍齋<sub>이신대</sub> 成均進士<sub>라</sub> 以文學<sub>으로</sub> 有士林重望<sub>하야</sub> 享丹邱院<sub>하였다</sub> 其子諱文錫<sub>은</sub> 號芝隱<sub>이신대</sub> 潛心性理<sub>하야</sub> 隱居求志<sub>하였다</sub> 其三子諱德洵<sub>은</sub> 有文行而肅宗庚申生<sub>으로</sub> 乙丑九月二十一日年三十而卒<sub>하시여</sub> 宕于八智遜道坊山九一陽地戊坐原<sub>하였다</sub> 配碧珍李氏<sub>는</sub> 生壬戌<sub>하고</sub> 卒丁亥三月十日<sub>하야</sub> 與府君墓<sub>로</sub> 雙墳<sub>하고</sub> 繼配咸陽朴氏<sub>는</sub> 生丙寅<sub>하고</sub> 庚寅三月十九日卒<sub>하시여</sub> 附于府君墓下<sub>하였다</sub> 其後王母月城孫氏之命<sub>으로</sub> 以其長次孫諱正模<sub>로</sub> 嗣後<sub>하니</sub> 正模<sub>의</sub> 號는 二恆齋<sub>로</sub> 以道學文章<sub>으로</sub> 名於世而官至府使<sub>라</sub> 가歲英廟四年以構誣<sub>로</sub> 連繫戊申之禍<sub>하야</sub> 二度貶謫<sub>하시다가</sub> 終未得雪冤而謫逝<sub>하시니라</sub> 呴呼<sub>斗</sub> 彼蒼天者<sub>여</sub> 禍於吾門<sub>이</sub> 無奈甚乎<sub>아</sub> 於此兩代之事<sub>를</sub> 實記而傳於世則人孰不淚雨漆襟也<sub>리라</sub> 惜乎<sub>斗</sub> 竊念以吾府君之聰明才智<sub>로</sub> 如得壽位而立於廟堂之上<sub>이였던들</sub> 彼所謂權奸之輩<sub>가</sub>迺我二恆齋祖<sub>를</sub> 安敢構誣貶謫之事乎<sub>아</sub> 此莫非吾門運數所致<sub>斗</sub> 恨何及哉<sub>아</sub> 一寒一暑<sub>三</sub> 亦天也<sub>라</sub> 爾後數世之間<sub>에</sub> 貧寒孤獨<sub>이려니</sub> 自吾王考主靜窩諱相憲公晚年伊來<sub>로</sub> 令纔裔孫<sub>이</sub> 職其職食其食而數亦不少<sub>라</sub> 未遑阡表<sub>을</sub> 今茲諸孫誠合樹立<sub>하야</sub> 以戒樵牧<sub>하니</sub> 此亦父祖所有意未成之蔭佑也<sub>斗</sub> 不昧英靈<sub>은</sub> 春花秋月<sub>에</sub> 風馬雲車<sub>로</sub> 陟降左右<sub>하야</sub>

以據生世之冤限乎아

歲在檀紀四三一二年己未陰月日

前安東郡守民選大田市長后孫基勲謹撰

遜道齋公墓表

府君의 姓은 申이고 諱는 德洵이며 字는 玄允이고 選道齋는 追號이며 貞鄉은 鵝洲다。上세에 謂祐는 號가 退齋로서  
麗朝에 全羅按察使를 지내시고 先公은 版圖判書로서 直肅公인 謂允濬의 喪에 三年을 庇墓사시는데 淚血이 入地해서  
樊竹이 난異蹟이 있으니 旋閭가 내리고 「三綱行實」에 發載가 되었으며 漢水院에 尊享되었다。그의 再傳 謂士廉은  
彦陽縣監이고 그의 生諱 锡命은 成均生員인데 尚州에서 義城元興으로 移居하였다。그의 生諱는 俊穎이나 承仕郎이고  
子의 諱는 壽니 疾郎으로 任命되어도 赶任하지 않으셨고 그의 生諱 元祿은 號가 悔堂이나 淑憐二先生의 門下에서 受  
學하여 孝道로서 旌閭되었음이 「三綱錄」에 登載되고 藏待院에 尊享되었으며 生諱 仁是은 號가 城隱인데 壬辰亂에 儒義  
를 해서 贈左承旨하고 生諱는 選道니 號가 虎溪로서 進士를 하시고 寒旅兩先生의 門下에 다니면서 斯道의 要訣을 들  
으시고 仁祖대丁丙의 胡亂에 儒義를 해서 和議를 反對하였다。贈吏曹叅議로서 丹邱院에 尊享되었으며 生諱는 塘니  
號가 忍齋로서 成均進士를 하고 文學으로서 士林에서 名望이 있어 丹邱院에 尊享되었고 生諱 仁是은 文錫이나 號가 芝隱  
인데 隱居해서 性理學을 研究하였다。府君은 그의 第三子로서 肅宗庚申(西紀一六八〇年)에誕生하여 己丑(一七〇九年)  
九月二十一일에 壬午三十으로서 遊去하시어 八智遺坊山九一陽地 成坐의 原에 葬封하였다。  
配는 碧珍李氏니 壬戌生으로서 丁亥三月十日에 爭하다.府君의 墓와 雙墳이고 繼配는 咸陽朴氏니 丙寅生으로서 庚  
寅三月十九일에 爭하시어 府君의 墓下에 葬葬하였다。無后하므로 그의 祖母에 孫氏가 그의 長次孫에 正模를 後嗣로  
하였다. 그래서 爨子에 諱正權은 號가 二聖齋나 道學文章으로서 一世에 名聲이 있는데 文科로서 府使가 되시어 英祖  
四年에 謂陷을 받아 戊申年の 禍를 받고 두번이나 流配되었다가 마침내는 雪冤을 하고 遊去하였다.

아아! 저蒼天이여! 우리집에 어찌 이처럼 禍를 주었는가. 이兩代의 事蹟을 記錄해서 世上에 傳하면 누가 능�能  
을 헤치지 않을까?可惜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府君의 聰明과 才智로서 萬若에 壽를 해서 政府高官에 오르셨  
다면 그들 奸臣輩가 우리 三恆齋先祖를 어찌 敢히 謀陷해서 夺향보냈을까? 이것의 모든 우리집 運數의 所致이니 忽  
恨한들 뉏었 할까요. 一寒이 지나면 一暑가 오는 것도 또한 運數인 것이다. 그后勤로 數世동안에는 貧寒하고 孤獨하더  
니 우리 王考에 主靜齋府君의 晚年以來로는 子孫들이 그 職을 갖고 그 祿을 먹는 者의 數도 不少하였으나 墓表에暇  
及도 못하다가 至今 이에 諸孫들이 誠意를 고아서 碑石을 세우고 樓量牧堅를 禁하니 이것 또한 父祖께서 뜻이 있으니  
이루지 못하시다가 薦佑하신 것이다. 不昧하신 英靈께서는 春花秋月에 風雲을 라시고 陟降하시며 生時에冤恨을 풀  
으시옵까.

檀紀四三一二年己未 月 日

前安東郡守民選大田市長后孫基勲謹撰

錦南公墓碣銘

并序

恭惟吾申之于開日이 自府君始 하니 府君의 謂는 淵이오 字는 汝臨이오 號는 錦南이나 系出鵝  
洲하시니 高麗金紫光祿大夫門下侍郎 謂益休以軍功으로 封鵝洲君 하심에 子姓이 仍貫焉하니 四  
傳諱允濡奉翊大夫版圖判書 謂貞肅이오 生諱祐號退齋全羅道按廉使지니 持身廉潔하시고  
親至孝하야 貞肅公이 没에 蘆于墓側하야 血泣三年에 雙竹이 生于墓前이라 事聞旌褒하고 名其  
里曰 孝子里 하니 事載三綱行實錄 하니 享涑水書院하고 入朝鮮朝 中廟之際에 有諱元祿號  
悔堂이시니 天資近道하야 始學于慎齋周先生하야 聞爲學之要하시고 晚乃贊謁于退溪李先生  
悔堂이시니

門 하야 問禮講學하사 博其見聞에 篤學實行이 有士林重望하고 又以孝로 著하야 旌門閭하고 贈  
 通政大夫戶曹參議 시내享藏待院 하시다 府君之五代祖也 오 高祖의 謹心號興溪司憲府監察 이오  
 曾祖諱尚道軍資監判官이오 祖諱偉資憲大夫同知中樞府事요 考諱君錫不仕業儒하시고 姮  
 成陽朴氏仁建女貞靜有德하시다 府君이 生于 肅廟癸亥 하시니 資性이 慎厚하시고 氣宇軒  
 昂하셔며 早承庭訓에 潛心力學하시며 事親而極其志體之養하고 處族而盡其敦睦之誼하며 與族  
 兄退澗公濂으로 戊申倡義하시자 嘗冀親患에 百方調護하시고 號天痛哭에 祈以身代하시고 及其  
 遺故에 附身附棺之物을 克謹克誠하시고 衷葬祭奠을 如禮無違하시니 人皆難之 러리 以 英廟  
 丙寅三月七日로 卒于寢하시니 享年이 六十四이시고 葬于上開日齋宮谷池內枕丙原하고 配平  
 山申氏漢久女시니 墓齊宮谷堤下寅坐이고 男에 大模有文行하고 模男重煜重變出하고 煙男弼  
 奎祥奎弼男冕縉冕文祥男冕琯冕碩冕壽冕鎬冕鉉餘不盡錄이리 呸呼라 府君之懿蹟이 可  
 傳於後世者多而世波益翻하고 遺徽漸遠이라 恐其愈久愈泯하야 將豎石而刻之 할새 七世孫富  
 煥이 專擔其力하니 闔族이 孰不感其篤誠也哉아 謹依遺事而叙之하고 系以銘曰  
 天賦敦厚에 持心不忒이리 篤行彝倫이오 力究經籍이리 時事不利에 輜光斂跡이라 怡然托趣에  
 一區泉石이라 屢孫力蔑에 尚闕顯刻이라 今纔豎珉에 昭示千億이라

光復後歲庚申天寧節 六世孫 應植謹撰

### 陶厓公行狀

上舍退澗申公이 以厚德令望으로 重於嶺以南이라 虽隱論功이 不見於世而教獨行於家也라  
 有一子克肖하야 其訓世方以公之不做於時謂天道在此子라 不幸年四十二에 纔成小名而  
 卒하나 時에 退澗公이 在堂이라 世尤爲公悲言福善之道無徵이라 君之孤煙燭兄弟가 方以文  
 學으로 世其家라 不以光庭老淪無識하고 以退澗公之狀으로 見屬하고 且曰吾父志行이 恐無以  
 表見於世라 願長者는 哀之하라 光庭이 辭之固而其請이 益至라 遂不敢辭하라 君家世는 已具退  
 澗公事中이라 君의 謹重模字는 士範이라 以 明陵癸亥七月二十八日生하다 幼有美質하야  
 舉止異凡兒라 五六歲에 侍宿羅浮公이다 公이 素溺器라 虽睡熟이나 必警起跪而進之하니 羅浮  
 公이 以爲異라 七歲에 受十九史하야 初讀至燧人氏하야 問曰地皇氏以火德王하니 天下固有火  
 累月不食肉하나 人益奇之하나 嘗遊嬉에 出先公所藏繪絃桑弧라 先公이 呵之하니 自此로 虽瑣  
 小物하나도 必稟而用之하니라 先公이 性嚴하야 其教之에 不以一子而少假하니 君이 惟恐失父母  
 之心이라 視膳之餘에 講讀不怠하야 十二三에 已通經史百家語하야 文藝日進이라 儕流自以爲

不如也。鄭相浩가 時에 知縣이라 於先夫人에 爲中表。兄弟見君奇之曰美秀才。非老丘壑者。라하고 因宴會要君。하니 先公이 欲試君。하야 問大夫有請而往乎。아 君이 跪曰公庭은 非童子所往來이라。先公이 喜曰而能如此。면吾無憂矣。라 하시라。丁亥에 先公이 入京師하고 宋夫人疾이 卒。瓴이라。君晝夜扶視湯餌。하야 不解衣者一月餘日。이하先公이 歸하나 宋夫人이 泣曰微而兒어늘吾幾不見而矣。라 하더라。宋夫人이 卒에 君이 悲痛不自勝。하야 春年을 不御酒肉하고 不入私室與家人言語하니라。時에 先公이 已及不毀之年이라。猶孺子慕君入視餐粥之節出則經紀襄具이라。同爨總이라。朋友總이라。吾於姊兄總可矣。라 李君大人密菴翁이 歎曰是庶幾無於禮而其禮中者。라하고 泣謂其孫行遠曰而舅氏之義을 不可忘也。라 行遠이 幼孤하고 諸父多夭折하니。君이懼其不祥하야 即絜致家教之。호래撫受加己出이라 泣語之曰使汝有立。이하吾不負而翁而責塞矣。라 行遠이 稍長에 道此語하고 時時流涕。君이 程文이 蚊詣。라 既累屈鄉舉라 或有以關節。로勉君者。라 正色曰凡士之決科는 將以事君이라。未立身而先欺君乎。아 已而 오連占大小解兼兩試하고 乙未에 選國子。라 人이 賀한대。君이 笑曰丈夫事業不在此。라 하더라。戊戌에 先夫人疾이 弗留。君이 皇皇飲泣。하야 寢食俱廢하고 夜輒齊沐祈天。하야 請代者數月이라 當喪絕而復甦하야 哀毀成疾。하야 須人轉側而猶不廢晨昏。하니 朝夕之禮에 每過先夫人所寢處에 嘴咽涕下。라 三年如一。

日이라 君이 素有手足瘻癆之疾。이라니 及是而劇하야 遂成沉痼하야 終至於不可救。라 當病值寒食節曰吾病淹하야 不拜墓久라 將扶病一展이라 未至하야 疾力不可前이라。鳴泣曰欲未死訣吾母而今不可得이로다。天乎天乎아 甲辰二月二十一日에 君이 卒臨沒에 神氣不變이라。先公이 在旁이자 가 亟令煖粥進之。하라 奔奄就盡이라. 忽閉目視先公曰兒今爲不孝子。라 願大人母兒念하소顧二孤日我死者而勿傷은父意也。라하고 恬然而逝하니라。遠近聞者爲出涕하고 縣令不知君者。라 爲廢銜曰賢士亡矣。라 五月庚午先公이 葬君于善山博谷枕甲之原하니 從先兆也。라 君이 神采가 精粹하야 如明珠炯然照人이라。志行이 端潔하야 勇於爲義하고 楫於爲利。라 好善嫉惡는 出於天性이라。苟善矣。雖疎賤이라도 推許如不及하고 不善인면 虽隣里라도 亦不與之接하니。以此로間有不悅君者卒乃悔服無怨言하니라。事先公四十年에 安其寢處하고 樂其心志하야。非甚病이 어려워 未嘗去側이라。先夫人疾에 有庸醫誤下藥이라. 及喪終身不復對其人하니라。生朝에 設酒食하고 輒嗚咽曰吾今知古人當倍悲痛之語하고 爲甚悲하야 不忍下咽也。라 伯姊早寡라悶其貧甚하야 使之就食하고 雖痼病中이라도 遇一佳味에 必附便以饋하고 未附에 亦不入口하더라。家居에 謹男女之別하야。雖姊妹나도 非居父母之側이면 不與并坐하고 常戒子弟曰禮에 不同席하고 不共食이라。男女之別이 嚴矣。아 著以爲訓하다。待婢僕에 威而恕하니。見一女奴偷어늘 徐曰使汝爲此는 吾之過也。라 不問其所하니。偷者感伏하야 戒其同輩曰若曹는 慎母欺賢主公也。라 家居에 言不及貨財하고 無毫毛私貯하고 身沒에 只有弊篋에 藏古先墨蹟。

而已。嘗見子弟語及泉布<sub>하그</sub>正色曰王衍<sub>하그</sub>不過清談一流而平生<sub>에</sub>不言錢<sub>이라</sub>若輩<sub>는</sub>學聖賢書<sub>호대</sub>不知謀利之爲可恥也<sub>로다</sub>見女奴拾一銀環進之<sub>하고</sub>亟還之曰非其義<sub>면</sub>一介<sub>斗三</sub>者<sub>면</sub>輒日有老親<sub>하니</sub>於心<sub>에</sub>安乎<sub>아</sub>戒不復進也<sub>하라</sub>性<sub>이</sub>喜酒<sub>호대</sub>不及醉居第傍<sub>에</sub>有孤松特立<sub>이라</sub>君<sub>이</sub>愛之<sub>하야</sub>遇佳辰令節<sub>에</sub>必携一二冠童<sub>하야</sub>從容觴詠<sub>하고</sub>北有巖石奇者<sub>라</sub>名陶唐<sub>이라하고</sub>常命酒遊賞<sub>하야</sub>自號陶居散人<sub>이라하고</sub>酷好陶靖節歸去來辭<sub>와</sub>諸葛武侯出師表曰天地間<sub>에</sub>不可無此等文字<sub>차하고</sub>時令兒輩諷誦一過<sub>하면</sub>想象其人<sub>의</sub>心事<sub>라</sub>不喜與流俗俯仰<sub>하고</sub>又不肯從顯者交懽<sub>하고</sub>所與往還不過憔悴閭巷間人<sub>이나</sub>然人之見君若無不愛悅忻慕<sub>斗</sub>洪舍人萬遇<sub>가</sub>適責南海上<sub>이라</sub>歸路<sub>에</sub>訪君深器之曰吾來南<sub>에</sub>始得申某上舍公<sub>하나</sub>不少矣<sub>라</sub>君<sub>이</sub>平居<sub>에</sub>簡默無所猷爲<sub>하고</sub>唯兢兢孝友詩禮之訓慕古清節高行之士<sub>하야</sub>常自砥礪激昂<sub>이요</sub>其一言一行<sub>을</sub>必欲進法前人家有藏書萬卷優游其間凡歷代史東國典故貫穿無不通<sub>하고</sub>至句語事跡<sub>之</sub>出於稗家小記者<sub>을</sub>歷歷如在目前<sub>하고</sub>善談論文章容<sub>을</sub>至抵掌語古今剖析肯綮<sub>에</sub>能說到人不能說者<sub>하그</sub>常以爲秦漢以來太史公諱昌黎柳柳州最大家<sub>을</sub>自少用力<sub>하여</sub>必以數家爲準<sub>하고</sub>自宋以下<sub>는</sub>不數也<sub>라</sub>當遊密菴之門<sub>하야</sub>聞君子爲己之方<sub>하니</sub>密菴<sub>이</sub>甚期許之<sub>하고</sub>且曰申某是眞文章家手段<sub>이라</sub>加以歲月之功<sub>이면</sub>未易量也<sub>하나</sub>君<sub>이</sub>爲文<sub>에</sub>必精深簡奧<sub>하야</sub>不作世俗語<sub>하고</sub>先進之評<sub>을</sub>未嘗不以古文<sub>으로</sub>期之也<sub>라</sub>

中歲喜讀朱子書<sub>하야</sub>雖疾病羸悴<sub>라</sub>堪其苦而猶日披閱不倦<sub>하고</sub>命煙讀之曰此斯學之指南也而能熟讀精思<sub>하면</sub>心與理會<sub>하야</sub>進學修業之基<sub>에</sub>未必舍此而他求也<sub>리요</sub>君<sub>이</sub>清通豈弟<sub>하야</sub>篤於親親<sub>하고</sub>謹於喪祭<sub>하고</sub>爲學<sub>에</sub>一以孝弟<sub>로</sub>爲本而恥以崖岸詭矯之行<sub>으로</sub>取名於世<sub>斗</sub>於世間利害得失<sub>로</sub>一無所入於其中<sub>하고</sub>自少<sub>로</sub>名譽藉甚無不期以大展<sub>이라</sub>既疾病沉綿八九年<sub>에</sub>益無意進取<sub>하고</sub>日聚村秀子弟<sub>하야</sub>講習前言往行<sub>으로</sub>以自娛<sub>하니</sub>君<sub>이</sub>娶鐵城李氏<sub>하니</sub>衰憲公原之後<sub>요</sub>正郎後榮之女<sub>요</sub>觀察使李公淳翼之外孫<sub>이라</sub>正郎公<sub>이</sub>簡重<sub>하야</sub>不苟訾譽於人而於君<sub>에</sub>必起敬<sub>하야</sub>許以遠器也<sub>라</sub>君<sub>이</sub>有二男二女<sub>하니</sub>男<sub>는</sub>即煙<sub>과</sub>燭<sub>이요</sub>女長<sub>은</sub>適士人李稽<sub>하고</sub>有一男一女而置季未笄而夭<sub>하고</sub>煙<sub>은</sub>無子女<sub>하고</sub>燭<sub>은</sub>有一男一女幼<sub>라</sub>君<sub>이</sub>不喜著述<sub>하고</sub>間作<sub>에</sub>亦不用藁<sub>라</sub>只有詩文若干云<sub>이라</sub>光庭<sub>이</sub>僻居固陋<sub>하야</sub>與君交臂而失之<sub>하고</sub>未曾有文墨之雅而從知友間<sub>에</sub>聞其推詡宿矣而今平生之友俱間然思一時所嚮徃其志業<sub>이</sub>可爲當世任<sub>이요</sub>爲後世範者<sub>을</sub>率蹇滯不偶<sub>하고</sub>或不得天年<sub>하니</sub>運氣之不幸<sub>이</sub>有如此者而世且無徵顯闡幽之君子揄揚其德美而垂諸久遠者如光庭<sub>은</sub>何足道<sub>이리요</sub>於二君至誠之請<sub>에</sub>猶不能無動<sub>일세</sub>敢依其家錄而稍鑒括如此<sub>하느니</sub>幸秉筆之不以其無足取而加采擇焉<sub>이라</sub>上之<sub>(英祖十)</sub>十七年二月乙卯

平原 李光庭 謹狀

## 二心齋先生墓碣銘

并序

世之所極難者 | 忠孝也 | 莫盛者 | 學問也 | 苟有以兼行之者 | 朱夫子所謂巍乎凜然其遺事也 | 光明正大 | 其君子也 | 近古二心齋申公 | 即其人也 | 先生의 謂는 正模요 | 字는 景楷요 | 號는 二心齋요 | 姓은 申氏니 | 系出鵝洲하다 | 上祖에 謂는 祐仕高麗官按廉使니 | 父版圖判書諱允濡卒에 | 盧墓泣하야 | 血有雙竹抽生之異하니 | 以孝感聞于 朝載三綱行實하고 | 仍旋閣하여 | 享涑水院하고 | 至諱元祿하야 | 號는 悔堂이니 | 又以孝로 | 載三綱續錄하고 | 享藏待院하여 | 子允之 | 又以孝로 | 贈左承旨하고 | 子適道는 進士니 | 以丁丙 | 廪從功으로 | 除郵丞하니 | 是爲公高祖니 | 贈吏議하고 | 享丹邱院하며 | 曾祖諱는 塚니 | 以六行으로 | 累入薦剡하고 | 享丹邱院하며 | 祖諱는 文錫이요 | 老諱는 德溢이요 | 姮는 宣城李氏니 | 持平珙之曾孫處士星考之女 | 以明陵辛未正月四日에 | 生公於安東豐山新池洞祝館하다 | 時에 | 先公下世 | 纔七朔矣 | 公이 | 生有至性하야 | 四歲에 | 聞他兒呼父하고 | 問于母夫人曰 | 人皆呼父어늘 | 我誰呼爲父오 | 又請暫啓父櫬하야 | 一見父顏하니 | 後欲行追服之 | 制諸父老據止之하다 | 十歲以前에 | 能知事親敬長之道하야 | 晨起拜廟하고 | 溫清于重幃하야 | 務悅親心하고 | 作自叙以示意하여 | 又作敬說室慾存心二箴하다 | 讀近思錄에 | 日事紬繹하고 | 抄朱書爲看閱計하나 | 庚寅遭王母孫夫人下世하야 | 治喪凡節을 | 一依家禮하고

癸巳에聘夫人安氏 | 甲子五月에 | 安氏未見廟而卒하고 | 乙未作定志說하다 | 夏拜書에 | 息山李公萬數 | 論爲學節次하고 | 丙申五月에 | 再聘夫人鄭氏하고 | 丁酉春에 | 作遣懷詩하니 | 末句云擬將林泉分我食하야 | 求作清高物外이라하니 | 仙其澹然無意於名利를可知也 | 申提學眞望이爲邑宰하야 | 問才行兼備之人하니 | 獻官以下皆以公對하야 | 己亥春에 | 赴增廣東堂會試하야 | 以對策으로 | 居魁하고 | 庚子六月에 | 肅宗昇遐에 | 分隸槐院하고 | 十月에 | 入都하니 | 菊圃姜公樸이 | 來賀曰景楷는 | 脚踏實地人也 | 一月에 | 乞暇歸覲하고 | 以心近性理朱書節要大學衍義로 | 日爲體認하니 | 三月에 | 有資益하다 | 十一月에 | 亟歸觀하고 | 以心近性理朱書節要大學衍義로 | 日爲體認하니 | 三月에 | 答慵窩柳公升鉉書와 | 密菴李公栽來冰溪하야 | 賦書要見하여 | 公이 | 即往候하고 | 甲辰赴道南講會하여 | 與清臺權公相 | 一과 | 李息山諸公으로 | 講近思錄하다 | 六月에 | 入持平末擬하고 | 又入正言首擬하다 | 八月에 | 景宗이 | 升遐에 | 參哭班하고 | 丁巳에 | 答密菴論戒懼兼動靜說하고 | 丙午正月에 | 入說書薦하고 | 八月赴京遞即還하야 | 又除江原都事兵曹正郎에 | 頃不赴하고 | 丁未十二月에 | 除居昌하니 | 公이 | 爲便養發肅行하야 | 戊申正月에 | 謝恩到任所하야 | 二月에 | 奉板輿爲治하고 | 以程伯子視民如傷四字로 | 爲準則하다 | 三月己巳에 | 聞清州賊報하고 | 庚午에 | 賊警이 | 漸騷而監兵이 | 鎮三營하야 | 無發關戒嚴之令이라 | 公이 | 憂之欲報營하니 | 吏校皆言不可以道聽으로 | 遽報요 | 惟待上司發關而有人이 | 歷傳賊書而乃安陰賊酋熊輔希亮等所送也 | 라 | 辭旨絕悖에 | 公이 | 不覺膽掉髮豎하야 | 促令捉入則已逃矣 | 2 | 公即齋其書하야 | 驳報三營하니 | 時에 | 母夫人이 | 嬰疾在衙하야

公이 念忠孝 | 本無二致而緩急이亦自有間故 | 乃陪出暫接於佛峽中 | 而急還府過樸嚴 | 村民이 遍道曰賊이 購急하니 願明府을 少遲其行하소서 | 皆一心防備而報營回題 | 尚寂然이라 | 又構狀急送家僮于上司하고 又急書於知禮星州하야 諭以合力討賊하니 邑民이 散而復聚에 | 軍容이 稍成하야 方赴陣而方伯罷報 | 至하니 蓋方伯이 深於黨論이라 因此擠陷하야 只以到付 | 二字로 題送하고 又不許發軍固守하나니 公이 以離官全母爲咎하야 待罪金吾에 以徒三年照律而判堂이 以不可離親遠謫으로 定配於軍威하다 到配所에 吟一絕曰白雲阻咫尺하고 丹極夢嵯峨라 忠孝平生志가 其如兩缺何오 己酉自上으로 特命放釋하니 作自訟箴하다 辛亥正月에 繡衣李渝이 以戊申事構誣로 啓하여 競謫湖南興陽縣하니 僮在海隅라 聞公至하고 請學者衆이라 自號를 二恥齋라니 益離親去 國에 忠孝俱缺이 爲二恥라하고 有齋銘하다 乙卯에 以元子定號慶으로 量移錦山하고 三月以 元子冊封慶으로 付處忠州하다 戊午에 序四書撮要圖說하고 己未三月에 丁母夫人憂하야 四月에 奔喪하고 八月에 還配所하다 庚申四月에 夫人鄭氏 | 許至하야 八月에 又歸葬하고 即還配所하다 壬戌三月己亥에 氣不平하야 庚子에 漸飴하고 辛丑에 痘粒이 見이라 壬寅夜에 口呼古詩一篇하고 庚戌에 謝諸友하고 壬子에 考終於謫所하다 享年이 五十二라 十月에 返櫬하야 明年癸亥四月壬申에 葬于縣南五土山璋龜峰向丙之原하나 至是에 承全釋之命矣라 呴呼라 公이 以棟樑之材而不遇盤錯하고 琉璃之器而終處坎屯하니 惜乎未試其廊廟籌謀笙簧黼黻之治而生平著述이 無非古聖相傳心法이요 最中敬

說室慾存心二箴과 素行錄戒懼兼動靜說 | 四書撮要定志說前所稱學問中事也 | 賊警漸騷에 先離病親하고 急還徵軍에 書報上司하야 爲國效命하니 前所稱忠孝一般也라 前後三遷所至에 學者全集而皆誠心教導하고 常曰聖賢謨訓에 布在方冊하다 何必強立己見하야 別建論述也리오하니 蓋出於謙挹不自居之意而所著詩若文이 其傳於世無疑也라 配는 順興安氏文懿公後處士履順之女요 再配는 東萊鄭氏 贈判書龜齡後處士之銖之女니 有三男一女에 男長은 邦烈次는 光烈弘烈이요 女는 適趙居正이라 邦烈이 一男瑞教요 四女는 金學東南時潤李星龜南憲龜요 光烈의 一男은 成教요 二女는 鄭鍊墩南朝喆이라 弘烈男某今來請銘者는 五代孫相憲也라 不可以老洫으로 辭를 세 銘曰 爲忠爲孝 | 本無二致 | 緩急小間에 學問推理라 臨亂赴陣하야 罷官奪符라 黨禍孔慘에 再構投裔라 十年賊鵬一遲唱雞라 西神作堅하야 南音永閼라 士哭樑推하야 野悲山頽라 甲子澇運에 復官告廟라 此彼龜嶺에 有儀四尺이라 銘焉不朽하니 過者必式이라

戊戌八月上澣

正憲大夫原任工曹判書知 義禁知 經筵春秋館成均館事後學 玉山張錫龍 謹撰

二恥齋先生墓碣銘

世上에서 極難한 것은 忠孝고 莫盛한 것은 學問이니 萬物에 兼善者가 있다면 朱夫子의 이론바 『보고 严한 그 遺事며 光明正大한 그 君子자』고 할 것이나 近古에 二恥齋申公이 바로 그려 人物이다。 先生의 謂는 正模고 字는 景楷이다

二恥자는 그號고申은 그姓이니系은 鵝洲에서 나온 것이다。上祖에 謂祐는 高麗대 벼슬에서 官爵이 按廉使로서 純行實에 登載되었고 이어서 旌閭閣을 세우고 淳水院에 尊享되었다。 그 後에 謂元祿은號가 悔堂인데 肇孝誠으로서 士人에 尊享되었으며 그의 子인 仁道 또한 孝道로서 左承旨의贈職이 내렸고 그의 子인 適道는 進士인데 丁卯丙子의 胡亂에 虞從한 功으로 鄙丞에 官任되었으니 그가 公의 高祖로서 贈吏曹叅議가 되고 丹邱院에 尊享되었으며 그의 謂는 文錫이고 考의 謂는 德溢이며 姨는 宣城李氏니 持平洪의 曾孫이고 處士星者的女다。

그리고 分散되었든 邑民을 다시 모아 軍容이 조급 整備가 되어 方今賊陣으로 가려는 차에 道伯이 罷免하는 通報  
를 해왔다. 대개 道伯은 漢論에執烈해서 이로써 謀陷하여 다만 「到付」二字를 题送하고 또한 發軍해서 固守할을 不  
허한 것이다. 公은 官府를 떠나 母親만 安全하게 被았음이 過失이 되어 閣下에 서 待罪하니 法律에 비추어서 三年流刑을  
보내는데 刑官들도 老親을 떠나서 멀리 보낼수는 없다고 해서 軍威로 定配하였다. 그래서 配所에 와一絕의 詩를 지  
어 말하되『白雲이 残상을 가리우니 孤心의 그 꿈은 賦하고』다. 忠孝는 平生의 내 뜻이나 父兄질을 當해서 어찌할가』

고한 것이다.己酉년에 王의 特命으로 解放이 되니 「自詮箴」이 지었다. 辛亥年正月에 御史 李漁이 庚申年으로서 虞僞의 誣啓를 용려서 마침내 湖南의 興陽縣의 僕在 한 해閣로 流配를 가게 되었다. 그래서 配所에서는 公이 운다는 을 듣고 受業을 請하는者が 많이 왔던 것이다. 自號를 「二聖齋」라고 하였으니 그는 대개 老親을 떠나고 國家에 등재 서 忠孝가 다 안 되었음을 二恥로 하였기 때문이니 그 齋銘도 지은 것이다. 乙卯年에도 元子의 定號한 麗重로서 錦山으로 移配되었고 三月에는 元子를 冊封한 慶事로서 忠州로 再轉하게 되었다.

戊午年에는 「四書攝要圖說」에 序文을 썼고 己未年三月에는 母夫人的 衷을 當해서 四月에 萌農하였다가 八月에 配所로 돌아갔고 庚申年四月에는 夫人鄭氏의 葬音이 오니 八月에도 贈葬하고는 바로 配所로 갔다.壬戌年三月己亥日에는 氣가 不平하더니 그翌日에는 더욱 疲困하고 또 그翌日에는 痘粒이 보이니 그翌日에는 古詩一篇을 口呼하고 諸友에게 読하여 謂하니 그에 이르러 完全히 解放하는 王命이 내리었으니 言고 賊의 「敬說」「室慈存心」二篇 「素行錄」「戒懼舉動靜說」「四書攝要」「定志說」등은 前에 慘한 바 謂學問中의 事業이 였고 賊의 告警報가 점점 驚亂해지자 먼저 病親을 풀기고 急히 와서 軍丁을 徵發하고 上司에게 報告해서 國家를 為하여 목숨을 바 치려는 것은 前에 慘한 바 忠孝의 一般이었다. 前後에 세번이나 옮겨 流配할 때 간곳마다 學徒가 모이니 다 誠心으로 教導하시였다. 노상 殘하되 「聖賢의 教訓이 書籍에 떠올랐는데何必自己의 所見을 세워서 特別히 論說을 세울가」고 하였으니 그는 대개 謙遜하여 自處하지 않는 뜻에서 나온 말이나 所著한 詩文이 世上에 傳할 것은 無疑한 것이다.

前配는 順興安氏니 文懿公의 後로서 處士履順의 女고 後配는 東萊鄭氏니 贈判書龜齡의 後로서 處士之武의 女인데 三男一女를 生하였으니 長男인 邦烈의 一男은 成教고 四女는 金學東, 南時潤, 李星龜, 南寒龜등에게 각각 出嫁하였으며 光烈의 一男은 成教고 二女는 鄭鍊歌, 南朝喆에게 出嫁했으며 弘烈의 男은 莘다. 至今에 와서 銘을 請하는 이는 五代孫에 相憲인데 老昏하다고 辭免할 수는 없기 때문에 銘하니

忠誠하고, 孝道함은, 本是 別個의 것이 아니라 緩急差는 있는거다. 謂問으로, 推理하고, 臨亂래선, 赴陣하다.

### 衿溪公墓碣銘

公의 謂는 器模으로 字는 君用 이요 號는 衿溪며 姓은 申니 贊은 鵝洲니라 高麗版圖判書로 謂는 貞肅이신데 謂는 允濡之後니라 判書의 子요 謂는 祐로 官은 按廉使며 號는 退齋이온 韓運이 訖에 與治隱先生으로 남하하야 隱尚州丹密望京山하나 親喪으로 泣血處에 生雙竹하니 孝로 旌閣하나 愚伏鄭先生이 表其墓하고 享凍水書院이나 有諱하니 元祿의 號는 悔堂이라 遊退陶慎齋兩先生門으로 建學齋하고 成書院하나 事親至孝하야 墓終制하나 事聞 旌閣하고 享藏待書院하나 生諱危호는 城隱인데 文學重望하고 壬亂에 倡義旅로 贈左承旨하나 生諱適道니 號는 虎溪요 遊寒旅兩先生門하나 得聞旨訣丁卯倡義勤王에 朝家로 以異數으로 除祥雲道察訪하고 丙子에 又爲義兵將하야 詣南漢陳疏하고 斥和로 除齊陵健元陵奉이나 皆辭不就하고 隱於玉山微谷하야 以採薇偏軒으로 贈吏叅하니 是爲公 高祖요 會祖 謂는 塚로 進士나 號는 忍齋인데 旅軒張先生門人으로 窮性理書하야 銘聖學十圖하나 以六行의 被薦이나 不赴하나 大山李先生이

※ 張錫龍 玉山人 売宗十二年文科壯元 官至工曹判書 知義禁府事 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 謂文憲 (張澤相氏祖父)

銘其墓하고兩世는俱享丹邱書院하나 祖의諱는禹錫이요 號는芝軒인래 有學行하고 考의 諱는  
 德海요 通德郎이시며 號는老圃이라 有學行하나 姮는眞城李氏요 父는判官이요 天培며 以  
 肅宗乙酉六月日生公于丹邱道下里第하나 自幼少로 見事明理하나 無不通曉하나 以家學으로  
 自任問難于再從兄二恆齋하야 沉潛講究하고 嘗語子弟曰庸學二書는我의 從高祖懶齋先生  
 聘命朝時에 得賞者也나 敢不世寶나라 早遊場屋에 屢中鄉解하나 未得科第하나 人多慨惜이나  
 自是로 潛心於性理之書하고 事親至孝하여 躍辨甘旨하고 惟以篤倫理하사 紹先緒啓後生으로  
 爲己하고 任及丁憂에 哀毀踰制하나 日省墓所하고 三棟融和하야 子侄及門子弟를 教以義方  
 으로 宗族이 悅服으로 鄉黨이 圭其盟하나 詔州一境에 令聞藉苑이라 芝後  
 三從叔退澗公到比安에 陳罷歸하나 卒丙申五月二十二日이요 享年이 七十二로 葬八芝後  
 洞乾而之原이나 配는 清州鄭氏父泰中生丙辰하고 卒癸巳十月十四日하나 墓는 元興洞池  
 內負良原하나 生一男二女하나 男은 世烈이요 女는 金慶一金相宏 世烈은 男이 晉教로서 男은  
 冕奎冕璋冕琦女는 盧周焯요 冕奎의 男은 遠祜며 冕璋의 男은 永祜 文祜 正祜인데 出이요 晚祜요  
 女는 李進求金順善요 張教駿는 縣監이라 冕琦의 男은 锡祜命祜는 出이요 晚祜요  
 達이 與其四從姪龍鎬로서 將謀堅碣하고 因請顯刻之銘하야 不敢承當이나 然이나 在外孫之  
 列에 亦不可固辭한나 系之以銘曰 家學承傳에 赫赫其緒하고 世值傾亂에 蘭蘭其思로나 智山  
 之原은 衣履之丘라 春露秋霜이 已經百秋이나 乃謀伐石하야 顯刻幽微하나 庶幾千載를 不泯

不渝하소서

壬戌(一九八二)十月

外后孫 眞城 李壽洛謹撰

## 述軒公碣陰記

公의 諱는 邦烈이요 字는 成甫니 號는 述軒이라 姓은 申氏니 系出鵝洲하나 當王麗李韓之際하야  
 有諱祐하니 號는 退齋요 官止全羅道按廉使하나 見麗運將訖하고 隱於尚州之望京山하야  
 墓終制하나 其淚痕處에 有雙竹之異하야 以孝聞旌閭하고 享涑水院하나 子諱는 光富니 仕李  
 朝하야 文科軍器寺主簿요 予諱士廉은 縣監이요 是生諱錫命하나 生員으로 移居于義城之元興  
 里하고 三傳而有諱元祿하나 教授요 號는 悔堂이나 從周慎齋李退溪兩先生學하야 以至孝篤  
 學으로 旌其閭하고 贈戶議享藏待院하나 生諱允은 號가 城隱이니 壬辰倡義로 贈左承旨하고 生  
 諱適道는 進士요 號는 虎溪나 遊寒旅二先生門하다 丙子亂에 爲義兵將하야 上疏極陳和議之  
 非하야 除祥雲察訪而이러니 爾後除官不就하고 痛哭入山하야 以終餘年하다 贈吏議하고 享丹邱  
 院하나 生諱採는 號가 忍齋니 問學早詣로 一捷蓮榜이나 不求仕進하고 深究性理之學하야 以  
 六行으로 累薦泮宮이되나 上命製進聖學十圖銘하고 享丹邱院하나 子諱文錫은 號가 芝隱이우자  
 諱는 德洵이나 早卒無嗣하야 率兄子正模하야 系后하나 即公之考하나 文科府使로 號는 二恆齋으

妣는順興安氏履順女니无育하고繼는東萊鄭氏之鉞女니俱有婦德하니라. 公이 生景廟辛丑하니  
旱承先訓하야 文名夙達而與季芝庵公光烈三聯牀攻業하니 人多以二難稱之. 一自先公  
遭禍之後로 隱痛在心하야屢欲爲親訟冤而恐反有害於居謫之道故로 未果하니. 先公이 自謫  
卒于匪所하니. 公의 時年이 二十二라. 曰夜號哭에 纏成地殯하고 呈書陳情于忠清伯이려니. 時에 監  
司李公宗城이 見書墮淚하고 許以喪具하야 軍丁糧資人馬一切를 備給하고 又轉囑嶺伯하야 使  
之遞運返襯而深居廢出하고 痛父之冤而未嘗笑語見齒하고 以終三年하야 每值喪餘則輒慄  
然危坐하야 竟日以達曙焉하니라. 以七十七壽之丁巳四月十五日로 卒하니 葬于遜道谷上池  
山向丙原하나 配恭人은月城李氏弘高女니生甲辰하고卒庚午六月九日하니壽三十七이라. 墓는  
遜道谷池內葛景峴乙坐니라. 育一男四女하니 男은瑞教女는金學東南時潤李星龜南憲龜라  
瑞教은無男하야 率再從子冕綏爲嗣하니라. 學東의 男은普運이요 女는李奎燮李重益이요 時潤의  
男은鍾文이요 星龜의 男은 時在憲龜의 男은始恒이라. 餘不盡錄하노라. 於乎! 公이以聰明出倫  
之姿로 生忠孝積厚之門하야 承襲坏樸하니 宜其進就之無量而天不佑仁하야 降霜威於陽春  
之弱草하고 受重任於翻覆之滄桑하야 上憂先世之緒業하고 下保子孫之性命하야 竟不墮恁麼  
光景於今日者는槩莫非公之聯狀畏約動忍增益之力也니 岂非於積源而發之無窮者耶! 아惜  
乎! 其遺文之逸而無傳也로다. 其從後孫前安東倅基勲氏與其本孫基春甫로 訪余寓庄하야

責以羨道之文하니 鎮國은素非其人이라. 固辭不獲命하야 謹按狀而畧加鑒括하야 書之于陰하니

大韓民國之戊午(一九七八)臘平節

春城 李 鎮 國 謹識

述軒公碑文

公의 謂는 邦烈이고 字는 成甫며 號는 遜軒이고 姓은 申氏요 系出鵝洲하니라. 麗朝末李朝初사이에 謂祐는 號가  
退齋니 全羅道按廉使로서 麗運이 將次. 다해감을 알고서 尚州의 望京山으로 隱遁해서 親喪에 墓를 사는데 그 泪痕이  
묘인곳에서 双竹이 乃奇蹟이 있어서 孝道로 旌閭가 되고 淀水院에 尊享되었다. 生諱 光富니 文科로서 軍器寺  
主簿고 生諱는 士廉이니 縣監이며 그의 生諱에 錫命은 生員이니 義城의 元興里로 移居하였다. 三傳해서 謂元祿은 教  
授니 號는 悔堂이래 周慎齋李退溪兩先生에서 受學하여 至孝와 篤學으로서 旌閭가 되고 贈戶曹參議로서 故侍院에 尊  
享되었고 生諱는 佐이니 號는 城隱으로서 壬辰亂에 倡義해서 贈左丞을며 生諱는 道達니 進士로서 號는 虎溪인데 寒岡  
旅軒의 門下에 다녀 丙子亂에 義兵將이 되어 上疏를 하고 極力으로 和議等反對한 뒤에 祥雲察訪으로 任用되었으나  
다시는 就任하지 않고 痛哭하며 山中으로 들어가서 幾年을 마치니 贈吏曹參議로서 丹邱院에 尊享되었다. 生諱는 塘니  
號가 忍齋로서 學問이 早成해서 첫번째로 登科하였으나 仕宦은 求하지 않았고 性理學研究해서 行文으로서 여러번  
成均館에 推薦되어 王命으로 「聖學十圖銘」을 製進하고 丹邱書院에 莳享되었다. 生諱는 文錫이니 號는 芝隱이고 生諱  
는 德潤이니 甫卒 해서 無子하여 兄子이 正模가 入嗣하니 바로 公의 先考로서 文科府使니 號가 二忍齋며 姓는 順興安  
氏니 屢順의 女로서 無子하고 繼妣는 東萊鄭氏니 鉞의 女로서 모든 婦德이 있었다.

公은 景宗元年 辛丑(西紀一七二一年)에 生하사 일찌기 家訓을 받아서 文名이 크게 났는데 季氏에 芝庵公光烈과 같  
이 工夫를 하여 世人이 二難이라고 稱道하였던 것이다. 先公이 誣禍를 當한 뒤로는 寂痛해서 어려운 漱寢을 하려다가  
드디어 謫所에 害나 될까 걱정해서 送行하지 못하고 先公이 謫所에서 簡銘을 지어서 警戒를 하였는데 謂意가 衰切하  
니 사람들이 보고는 모두 놀랄 줄 알았다. 先公은 艱險함을 다 침고 아직 雪冤을 하기로 前에 謫所에서 作故하시니

公은 그때 나이 二十二歳로서 畫夜로 肖哭하며殯葬을 하고는 忠清道伯에게로 陳情書를 올리니 그때 監司는 李宗城  
공인에 그것을 보고 落淚를 하면서 衷具와 軍丁人馬등一切를 내려주고 또한 麁尚道伯에게付托를 해서 遷柩를 하게  
되어 返葬을 하였다. 그 후로는 절이 隱居해서 父冤을 哀痛해서 일찌기 喜笑한 일이 없이 三年을 마치고 每年忌日을  
當하면 문득 跪坐해서 痛을 보였다. 七十七歲의 寿로서 正祖二十一年丁巳(西紀一七九七年) 四月十五일에卒하니  
遞道谷上池山丙向의 原에 葬事하였다.

配는 恭人 月城 李氏니 弘禹의 女로서 甲辰年に 生해서 庚午六月九일에卒하니 寿가 三十七歳로서 遷道谷池内 葛景  
峴乙坐의 原에 있다. 一男四女를 生하니 男은 瑞教고 女는 金學東南時潤 李星龜 南窓龜에게로 각각 出嫁하였다. 瑞  
教는 無子해서 再從侄에 罷歸를 入하고 普運이고 女는 李奎燮 李重益에게 가고 時潤의 男은 鍾文이고  
星龜의 男은 時在여 憲龜의 男은 始恒이니 그外에는 다 記錄할 수 없다.  
아아! 公은 聰明이 出衆한 資質로서 忠孝의 家門에 나서 그의 承襲한 바가 無量하게 進就할 것인데 天運이 잘못되  
어 陽春의 弱草에 서리가 온듯 滄桑의 變을 만나서 위로는 先世의 遺業을 積정하고 아래로는 子孫의 性命을 保存하여  
마침내 失墜됨이 없이 今日에 이르렀음은 모드가 公의 勤心忍性하신 힘이었으니 이것이 어찌 源流에 싸아서 無窮하게  
나는 것이 아닌가。 可惜하게도 그의 道文은 傳하지 못하였는데 그의 徒後孫에 前安東令 基勳氏가 그의 本孫에 基春甫  
와 같이 나를 찾아와서 墓碑文을 付托하니 나는 그에 適任이 아니라 因辭를 해도 免하지 못해서 爲가 行狀를 보고 조  
금 加減을 해서 碑陰에 쓰는 바이다.

大韓民國 戊午(西紀一九七八年) 腫平節 春城 李鎮國謹識

## 芝菴公碣陰記

府君의 謱는 光烈<sup>이요</sup> 字는 輝甫<sup>니</sup> 號는 芝菴<sup>이요</sup> 姓은 申氏<sup>니</sup> 鵝州人<sup>이라</sup> (鵝洲는 本新 羅巨濟屬縣) 麗季<sup>에</sup> 按  
廉使諱祐가始自開城<sup>으로</sup> 移尚州<sup>하야</sup> 爲入鄉祖<sup>하니</sup> 號는 退齋<sup>호</sup> 官止全羅道按廉使<sup>하다</sup> 嘗曰忠

臣은 不事二君이 라하고 與姪婿吉治隱再로並響南下而治隱은 入金烏山<sup>하고</sup> 府君은 隱於尚州望  
京山<sup>이 러니</sup> (一云萬<sup>頃山</sup>) 其時에 先府君貞肅公이卒이라 墓終制하야 其垂淚處에 生雙竹之異라 故로  
朝廷이 特表旌閭하고 名其洞曰孝子里<sup>라니</sup> 俗稱館洞이 是也<sup>라</sup> 享涑水院<sup>하다</sup> 自是二傳而有  
諱士廉<sup>하니</sup> 宗親府典籤彥陽縣監이요 是生諱錫命<sup>하니</sup> 成均生員이 라 始移居義城之元興<sup>하다</sup>  
三傳而諱元祿은 教授<sup>요</sup> 號는 悔堂이니 早遊周慎齋李退溪兩先生門하야 以孝聞 旌閭하고 贈  
戶議享藏待院<sup>하다</sup> 是生諱允<sup>하니</sup> 號는 城隱<sup>이라</sup> 壬辰倡義<sup>로</sup> 贈左承旨하고 是生諱道<sup>하니</sup> 進  
士<sup>요</sup> 號는 虎溪<sup>니</sup> 遊寒旅兩先生之門<sup>하니</sup> 丙丁亂에 以義兵將<sup>으로</sup> 除健元陵叅奉<sup>과</sup> 祥雲察  
訪하고 贈吏議享丹邱院<sup>하다</sup> 是生諱採<sup>는</sup> 成均進士<sup>요</sup> 號는 忍齋<sup>니</sup> 深於性理之學<sup>하야</sup> 以六行으로  
累薦泮宮에 上이 命製進聖學十圖銘<sup>하고</sup> 享丹邱院<sup>하다</sup> 子諱는 文錫<sup>이니</sup> 號는 芝隱<sup>이요</sup> 子諱는  
德洵<sup>이니</sup> 俱隱不顯하다 無男<sup>하야</sup> 以伯兄諱德溢子正模<sup>로</sup> 爲嗣<sup>하니</sup> 登文科<sup>하여</sup> 官至府使<sup>하고</sup>  
號는 二恆齋<sup>니</sup> 有德學重望이 라 英祖丁未에 莊任居昌<sup>하야</sup> 未滿三月至戊申에 黨人이 搞誣<sup>하야</sup>  
自幼로 克蓮先而無子弟之過焉이 라 先府君이 以五十二歲로卒于謫所<sup>하니</sup> 府君의 時年이  
八<sup>이자</sup> 哀毀過禮<sup>하야</sup> 以終三年하고 常恨孝不終養하야 事伯兄諱邦烈에 友愛尤篤하야 至老不  
衰<sup>하니</sup> 黨人이 稱之<sup>러라</sup> 以丁未四月五일로卒<sup>하니</sup> 享年六十三이 라 葬于鳳陽之楓林山卯坐

原하다 配는缶林洪氏壽溢之女라癸丑에 生하고 庚寅十二月二十四日에卒하니 享年三十八 이요  
墓는 遂道谷下池陽山九一淑人塋左亥坐니라 生一男二女하니男은 成教요 女는 適鄭鎊墩南  
朝詰하고 繼順天張氏重鍾之女하야 育一男에願教니 及其子冕命이 皆出爲失踪하고 成教의  
男은 冕璧이요 冕璧의 男은 昌協이요 昌協의 男은 相憲相和니 餘不盡錄이요 於乎라府君이 生  
吾家文獻之世하야 以二恆齋爲父하고 述軒爲兄而中遭先世罔極之痛하야 未得伸雪則一家  
維支之策이 政如一髮引千鈞이 어날 而况值年荒하고 染疾이 猶獗하야 轉避索居에備經無限困  
苦로 대而得保子孫於桑海垂死之日者舉多先大妣積誠感天之致요 今幸粵裔之更振京鄉各  
地者도 亦莫非府君積厚之餘蔭이라 爲子姓者는 盡思所以闡揚先徽而世遠澤斬하야 文籍이  
掃地無遺하니 屢孫之痛이 庸有極乎아 紛敢奉承先世之遺志하야 略抄世系鄉貫墓所忌日於  
譜牒中所載如右하야 而刻之碣陰하니 非敢闡述而多之也라 第恐其愈久愈泯하야 敘其顛末  
如此云爾라

## 西紀一九七八年 戊午冬至節

前慶山清道安東郡守·忠南忠北全北管財局長·民選大田市長

后孫基勲 盟手謹撰并暨

## 芝庵公墓碑文

府君의 諱亡光烈이고 字는 輝甫며 號는 芝庵이고 姓은 申氏니 鶴洲(新羅) 巨濟縣의 所屬人이다。麗宋에 謂祐가

開城에서 尚州로 移居한 入鄉始祖니 號는 退齋고 官은 金羅道 按廉使였다。 일찌기 晉始하되 『忠臣은 不事二君이라』  
고 하그 侄婿에 治隱吉再와 데북에서 南下하여 治隱은 金烏山으로 들어가고 府君은 尚州의 望京山에 읍으시니 그  
때에 先府君에 貞肅公이 卒하다 三年을 墓사하는데 그 늄를 떠나 진곳에 双竹이 난 吳蹟이 있으니 政府에서 旌閭를  
하고 그의 洞名을 「孝子里」라고 改稱하니 俗稱館洞이 이것인데 淒水院에 尊享하였다。 그후 二傳해서 謂士廉은 宗親府  
典錢 延陽縣監이었고 生諱은 成均生員인데 비로소 義城의 元興으로 移居하였으며 三傳해서 謂元祿은 教授로  
서 號는 悔堂이니 早年에 周慎齋 李退溪兩先生의 門下에서 受學하였는데 孝道로서 旌閭되고 贈戶曹叅議며 藏待院에  
尊享되었다。 生諱에 佐은 號가 城隱이니 壬辰年に 優義해서 贈左承旨고 生諱 道道는 進士로서 號는 虎溪니 寒岡旅軒  
兩先生의 門下에서 學問하여 丙丁의 亂에 義兵將을 지내고 健元陵祭奉 祥雲察訪을 歷任하고 贈吏曹叅議며 丹邱院에  
尊享되었다。 生諱에 佐은 成均 進士로서 號는 成均 忠齋니 性理學에 通해서 文行으로 여러번 成均館에 推薦되어 王命으로  
「聖學十圖錄」을 製進하고 丹邱院에 尊享되었으며 生諱는 文錫이니 號는 芝隱이고 生諱는 德洵이니 모득 隱德으로  
출仕하지 않았는데 無子해서 伯兄에 諱德溢의 子인 正模가 入系하였는데 文科府使로서 號는 二恆齋니 學德으로서 重  
望이 있는데 英祖丁未年에 居昌에 赴任하여三個月도 不滿에 戊申年亂을 만나 當人들의 謀陷으로 問責을 당하고 大閱  
에 가서 上疏하여 特히 忠孝家라는 批評 받았으니 府君에게는 先考이시고 姉는 順興安氏에 履順의 女와 東萊鄭氏에  
之銕의 女니 府君은 鄭氏의 所生이다.

英祖元年 乙巳(西紀一七二五年)에誕生하시니 風采가 豐厚하고 器局이 優秀하여 幼年부려 家法을 따라서 子弟의  
過失은 있지 않았다。 先府君이 五十二歲으로서 誘所에서 遊去하시니 府君은 그때 十八歲로서 哀毀가 過度하게 三年을  
마치고 恒常 오래 孝奉하지 못했음을 遺恨으로 하사 伯兄이신 諱邦烈을 深기는데 友愛가 더욱 萬實하사 老年까지 衰하  
지 않으니 鄭人들이 称頌하였다。 正祖十一年 丁未(西紀一七八七年) 四月五日에 遊去하시니 壬年이 六十三歲였다。 凤陽  
의 枫林山 卯坐의 原에 葬事하였다。 配는缶林洪氏니 壽溢의 女로서 癸巳年에 生하사 庚寅年 十二月二十四日에卒하  
시니 壬年이 三十八歲로서 墓는 遂道谷下池谷陽山九一淑人の 墓左亥坐의 原에 계시다。 一男二女를 生하니 男은 成教  
고 女는 鄭鎊墩南朝詰에게 가고 繼配는 順天張氏니 重鍾의 女로서 一男을 生하니 願教고 그의 子에 冕命도 出嫁해  
失踪하였다。 成教의 男은 冕璧이고 冕璧의 男은 昌協이며 昌協의 男은 相憲과 相和니 그 外에는 다 記錄이 없는

것이다.

아아! 府君은 우리집 文獻家에 사시와 二胞齋를 父로 하고 遷軒을 兄으로 하사 中年에 先世의 困極한 痛을 當해서 마치 伸冤을 하지 못할때는一家를 維持하는 計劃이 참으로 艱難하였는데 데구나 凶年을 만나서 瘡疫이 盛하니 그걸 을 轉避하는데 无限한 困苦를 다 겪으시와 桑海의 變局에서 子孫을 保全하였으니 그 또한先大妣의 積誠이 感天한所致로서 至今은 多幸히 後裔가 菲盛해서 京鄉各地에 있으니 이것 또한府君이 쌓으신 陰德이니 子孫들者가 어찌 그의 先績을 閐揚하지 않아서 될까마는 世代가 오래지나 文籍의 없어졌으니 後孫의 痛이 너무도 極합니다. 이에 敢히 先世의 遺志를 带들어 대장 世系鄉貫墓所 息日 등을 講牒中에서抄出하여 위와같이 記錄해서 碑石에 새기오니 敢히 賴이 閨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래되면 없어질까 두려워해서 그의 顯末를敍述하나이다.

西紀一九七八年 戊午冬至節 前安東郡守

民選大田市長 後孫에 基勲謹撰堅碑

### 竹隱公行狀

麗初忠臣壯節公諱 | 崇謙이爲肇祖而至諱 | 益休는 金紫光祿大夫鵝洲君이오 諱 | 英美는太子太師오 諱 | 晉升은 散員同正이오 諱 | 得昌은 令同正이오 諱 | 允濡는 官至判書에 謂 | 貞肅이오 生諱 | 祐하니 號는 退齋오 文 | 官至按廉使니 以忠孝로 旌其閭하니 今商山館洞孝子里 | 是也 | 享杜門涑水兩書院하고 生諱 | 光富하니 文 | 官至內府令이오 生諱 | 士廉은 官至彥陽縣監이오 生諱 | 錫命은 成均生員이요 生諱 | 俊禎은 承仕郎教授오 生諱 | 壽는 除慶基殿叅奉不就하고 有士友重望하니 慎齋周先生이 誌其墓하고 生諱 | 元祿은 號悔堂이니 聞道於慎齋

退陶兩先生之門하야 有淵源之正하고 又得聞理學於南冥曹先生之門하야 達學齋倡書院하고 以孝學으로 事聞 旌閭하야 繼三綱行實하고 行三邑訓導하다 贈戶叅이니 享藏待院하고 逸하니 永嘉教授오 號城隱이니 千贊에 倡義하야 贈左承旨오 生諱 | 適道는 號는 虎溪니 中進士하고 遊寒旅兩先生之門하야 得聞旨訣하고 仁廟丁卯北亂에 首倡義旅하야 以異數豆除祥雲郵丞하고 丙子에 又爲數邑義兵大將하야 詣南漢圍疏斥和議之非하니 亂定後에 尋拜齊陵健元陵叅奉不就하고 退隱于鶴山之薇谷하야 以採薇軒名以終하니 今 上朝丁卯에 以道學忠節卓異로 繡使 | 啓聞하야 贈吏叅하고 享丹邱院하다 生諱採하니 號忍齋오 成均進士니 窮性理書하야 與仲兄元齊公으로 早登旅軒先生之門하고 又遊太學하야 以文章行誼로 有館薦六行之備하고 製進聖學十圖銘하야 有聖明之優賞하고 以士論으로 享丹邱院하며 大山李先生이銘其墓하나 生諱 | 文錫은 號芝隱이오 有文望하니 府君之高祖과 曾祖諱는 德浩오 號槃窩니 有德義文望하야 聞道於葛菴李先生之門하고 戊申에 倡義하나 從子二心齋 | 撰行狀하고 祖諱禮模을 考諱廷烈이니 俱有孝友文行하고 姉月城孫氏應九의 女오 愚齋先生后니 有婦德하나 英祖壬辰에 生府君于召文面考槃窩하야 後移居竹洞하나 府君이 生以容貌 | 端莊하고 才思又聰穎하야 以家庭詩禮之學으로 益篤懋修하야 遊場屋에屢捷鄉解호대 一不 大捷하니 付之天數하고廢舉業하니 時人이 多惜之也하나 凡於事親奉先에 至誠克孝하고 及丁憂에 甚哀痛하야 制禮喪葬을 取文公家禮하고 甚嚴肅敬行하고 與伯仲兄으로 日省墓所에 環繞哭泣하야 寒暑不廢하니

人稱孝友敦篤焉하고 訓子姪以에順德義方하고 御儕僕에以恩愛嚴威하여 府君以恕己之心  
 怨人하고 己所不欲을勿施於人하며 於黨於鄉에少無間言하니 實兼有德君子之也라 府君의  
 姓은 申氏오 譚는 行教오 字는 爾文이오 自號는 竹隱이나 有孝友文望하고 德行兼備하여 而平生  
 所著述이 不爲不多而因家火失不傳하니 不肖輩盡宵間每想也에甚可痛可歎之事也러니 日에  
 伯兄이命余以記狀之하나 承命飲泣而畧述如右하야 以謹傳焉이라 府君이 旅 正宗辛丑으로  
 考終于正寢하나 享年七十이라 葬于竹洞元燈乙坐之原하나 配河陽許氏諱演의 女니 有婦行하야  
 事舅姑以孝하고 奉君子以敬하나 生 英祖辛丑하야 卒 正祖癸未而葬安平朴谷先兆下乾  
 坐之原하나 享年七十이라 葬于竹洞元燈乙坐之原하나 配河陽許氏諱演의 女니 有婦行하야  
 修오 次는 南陽洪宅海次는 密陽朴必魯次義興朴泰礪오 儂一女니咸安趙星祜오 子는 性琇며 系  
 男斗祜오 儂一男一女니 男에斗祜는 出系오 男에 正祜이며 生父冕琦오 女는 光山金顯相이오  
 儀는 一男一女에 男은 萬祜오 女는 咸陽朴載淳이오 道修의 一男은 晚一이오 宅海는 一男二女인데  
 男秉蓍오 女는 張斗植金明鎮이오 泰礪의 男은 植祐이오 斗의 男은 政植이오 攸植은 出하고 女는 延  
 安李禹性이나 男은 哲均이오 正의 男은 敏植이오 女는 朴海珠오 萬祜의 系男은 攸植이오 餘는 幼  
 不錄也

歲丁丑黃花節 不肖男冕儂 泣血敬書

### 年春堂公行錄

驪州 李 宅 頭城庵

公의 譚는 宅敎오 字는 性安이오 號는 年春堂이오 姓은 申氏니 鵝洲人이라 高麗壯節公諱崇謙이  
 爲肇祖而至十二世諱益休하야 以軍功으로 錫封鵝洲君하니 子孫이 因以爲貫하나 三傳하야 諱  
 允濡는 官版圖判書諡貞肅公이니 生諱祐하니 官按廉使오 號退齋니 以至孝로 旌閭하고 享凍  
 水院하나 懿伏鄭先生이 撰墓表하고 樸巖蔡先生이 撰遺墟碑銘하니 今孝子里一是也하나 有諱  
 毒는 除寢郎不就하나 慎齋周先生이 撰墓誌하고 是生諱元祿하나 號悔堂하니 遊退陶慎齋兩先  
 生門하고 以孝行學門으로 事聞에 旌閭하고 享藏待院하나 生諱仁하니 號는 興溪오 司憲府監  
 察이나壬亂에 與弟城隱公으로 倡義旅하다 生諱泳道하니 通德郎이며 號鰲潭하니 受學于旅軒張  
 先生之門하고 生諱炯하고 是生諱天錫하고 是生諱泮하니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니 是爲公之  
 會祖오 祖諱忠國模오 考諱는 光玉이나 俱有孝行하나 姮는 月城朴氏니 萬渭의 女요 有婦德하나  
 純祖辛酉生公하니 儀容이 秀俊하며 性質이 方嚴하고 平居에 好讀書하며 四子經傳을 手書日誦하고  
 又抄性理書好語하여 以資省覽焉하다 事親養志하고 奉先生을 誠하고 友于兄弟하며 睦于族黨하다  
 及丁憂에 哀毀踰制日하고 三省墓하니 人稱善居喪이더라 通政大夫承折衝將軍行龍驤衛副  
 護軍이시다 公의 平生所著述이 不爲不多而累經兵禍하야 惟幼蒙編一局遺在曾孫鉉植家

藏하나乃命與時達하니捷遜林泉하야莘野之志와武侯之事를亦未嘗一日忘諸懷而惟以訓子姓勅門少述先業啓後進하니身之顯晦有何加損於是哉아公이卒丁丑하니享年이七十七이요墓在慶州竹長面梧舍里寺谷甲坐原하나配는淑夫人岳林洪氏니漢泰의女라生丙寅하야卒戊辰하니享年이六十三이요墓在舍谷面漁池谷巽坐原하나生二男三女하나男은冕井冕軫이요女는商山金敬器英陽南桂先商山金敬昌이요冕井은生二男二女하나男은滿祐盈祜이요女는義城金盛洛烏川鄭致德이요滿祐는生三男一女하나男은宰植鍾植源植이요女는商山金相洛이려盈祐는生一男三女하나男은缸植이요女는慶州金鎮石咸安趙鏞大真城李福守이자宰植은系真變하고鍾植은四男一女하나男은世勲贊變이요重變은出하고吉變이며女는永川李源植이려金相洛은四男二女하나男은鐘熙道熙在熙遺熙이요源植은系重變하고女는咸安趙鏞鳴이니生三男一女하나男은永變九變이요真變은出하고長變이려内外會玄以下는幼不錄也하느라

### 愚隱公墓碣銘

公의諱는冕鎧이요字는禪鳴이요愚隱은其號也라高麗壯節公諱崇謙之後十二傳而諱는益休로有功於朝하야受封鵝洲故로子孫에因貫焉하나入李朝有諱하나悅道이요號는懶齋하나

早登上宰에儕流가推重이요受業于鄭寒岡鄭愚伏兩先生之門하야官至司諫이니於公에爲七世祖요高祖의諱는瀨이요號는學窩이요曾祖의諱는正標이요光憲과必教는祖若考也라妣는文化柳氏士人諱景源女로愚隱公은賦性이仁厚하고氣稟이陽明하니自幼少時로言笑游戲가異於等倫이니라壬申丁內難에戚易備至로逐日省墓하여不廢寒暑하니鄉有未炊之憂와失期之婚이면錢穀以濟<sup>三</sup>得其歡心하고屢捷鄉解하나憲宗丁酉에登科殿試하야丙午正月에除龍驤衛副司果하고四月에遷成均館典籍하고八月에拜宗簿寺主簿하고十二月에除司憲府持平으로製經筵勸學疏하고圖進中庸九經大學八條等說이나未達宸聽이라外에此有若干著述而亦經亂으로致失하니士林惜之하나生正宗甲寅이요卒은憲宗戊申하니享年이五十五나마墓는在舍谷面大甘川負甲之原이니라配는淑人安東權氏諱正模女요吏判諱鸞后하나淑人昌寧曹氏는諱가錫教의女로林溪諱景溫의后니라但有婦德하야生一男一女하나曹氏出也라男은漢宗이니通德郎이요女는權必經漢宗의男은泰榮과晋榮과吳榮이요女는權在奎李龍久金鎮行朴在機金浩天이요泰榮의男은煥宇와煥文이요女는南相泰와曹秉均이요晋榮의男은煥周煥麟煥慶이요女는權鍾律金泰昇이요吳榮의男은煥澳煥稷이니女는沈厚澤이라煥宇의嗣男은世基이요女는張在稷金時馥洪泰憲煥文의男은世基로서出伯父하고後의承基와格基는出伯父后하고隆基오煥澳의男은福基와興基와炫基니女는任泰彬任成赫이요煥稷의男은哲基

性基潤基<sup>요</sup>女는閔丙昭<sup>나라</sup>蓋公은立心制行에孝友爲本而讀書以充養之識<sup>으로</sup>在清要<sup>하야</sup>榮顯其身<sup>하고</sup>此實无媿於古之君子而克自樹立者也<sup>斗</sup>壬子冬에世基以門老命<sup>으로</sup>持煥文氏所爲遺事<sup>하고</sup>來請余<sup>하다</sup>銘曰篤乎其彝倫之則也<sup>요</sup>淵乎其致用之學也<sup>斗</sup>庸讚懿蹟<sup>에</sup>來者是告<sup>하느라</sup>

光復後二十八年癸丑三月 日立

歲癸丑仲春節 眞城 李 國 源 謹撰

### 茶庵公行錄

公의諱는冕儉이오 字는思彥이오號는茶庵이오姓은申氏니鵝洲人이라鵝洲得貫이自高麗壯節公後至諱益休하야以征亂功으로受封而貫焉<sup>하다</sup>有諱允濡<sup>하니</sup>以清直으로著<sup>하여</sup>謚를貞肅이오官至判書<sup>하니</sup>是爲鵝洲君의玄孫也<sup>라</sup>生諱祐<sup>하니</sup>號는退齋<sup>오</sup>官至按廉使<sup>하여</sup>以忠孝로事聞旌閭하고享涑水杜門兩書院<sup>하다</sup>太祖<sup>-1</sup>以潛邸舊誼<sup>로</sup>屢徵不起<sup>하고</sup>退隱商山之丹密望京山<sup>하다</sup>鄭愚伏先生이表其墓<sup>하고</sup>有諱元祿<sup>은</sup>號悔堂<sup>이니</sup>遊退陶慎齋兩先生門<sup>하여</sup>以孝學旌閭<sup>-1</sup>載續三綱錄<sup>하고</sup>享藏待書院<sup>하다</sup>是生諱允<sup>은</sup>號城隱<sup>이니</sup>壬亂에倡義勤王<sup>하여</sup>贈左承旨<sup>하고</sup>是生諱道<sup>는</sup>號虎溪<sup>나</sup>中進士<sup>하고</sup>遊寒旅兩先生門<sup>하여</sup>得聞旨訣<sup>하고</sup>丁丙兩胡亂에首倡

以公之碩德懿行<sup>으로</sup> 壽不及大耋<sup>하고</sup> 貴不得一命<sup>하야</sup> 老死於林下<sup>에</sup> 年近六十九而終<sup>하니</sup> 悲夫<sup>라</sup> 卒 今上己卯七月二十四日<sup>하야</sup> 葬安平朴谷會祖塋下乾坐原<sup>하나</sup> 配<sup>는</sup> 潘南朴氏<sup>니</sup> 父<sup>는</sup> 南源<sup>이오</sup> 生一男一女<sup>에</sup> 男<sup>은</sup> 斗祜<sup>니</sup> 出系<sup>하고</sup> 男<sup>에</sup> 正祜<sup>요</sup> 女<sup>는</sup> 光山金顯相<sup>이오</sup> 正祜<sup>의</sup> 男<sup>은</sup> 敏植<sup>이오</sup> 女<sup>는</sup> 順天朴海珠<sup>요</sup> 金顯相<sup>의</sup> 男<sup>은</sup> 魯直<sup>이오</sup> 二女<sup>는</sup> 幼<sup>하고</sup> 餘不錄<sup>이라</sup>

歲庚辰三月

日三從姪錫祜謹撰

## 大松公行錄

出后孫相夏

府君의 謂는 冕九<sup>으</sup> 字는 君弼<sup>이오</sup> 號는 大松<sup>이라</sup> 宅邊有松이 高可十丈<sup>이오</sup> 大可一圍<sup>으</sup> 蔭可庇  
數畝<sup>나</sup> 遠近士友<sup>—</sup> 見府君之氣像之有方<sup>하야</sup> 謂曰 大松丈<sup>이라하고</sup> 遂以爲號<sup>하다</sup> 吾申之貫鵝洲<sup>—</sup> 自壯節公十二世諱益休<sup>—</sup> 有大勲勞於麗朝而受封焉<sup>하고</sup> 有諱允濡<sup>—</sup> 官版圖判書<sup>에</sup> 清名直節<sup>이</sup> 著於中朝<sup>하고</sup> 子諱祐<sup>는</sup> 全羅道按廉使<sup>니</sup> 見麗政亂<sup>하고</sup> 與姪婿吉治隱<sup>으로</sup> 南下<sup>하야</sup> 治隱<sup>은</sup> 入善山金烏<sup>하고</sup> 公及商山望京<sup>하니</sup> 今館洞孝子里<sup>—</sup> 是也<sup>라</sup> 太祖龍興<sup>에</sup> 三徵不起<sup>하고</sup> 號<sup>를</sup> 退齋<sup>라</sup> 事親至孝<sup>하야</sup> 盧墓淚滴處<sup>에</sup> 雙竹生<sup>하야</sup> 事<sup>聞</sup> 旌閣<sup>하고</sup> 享涑水書院<sup>하다</sup> 子諱<sup>는</sup> 光富<sup>니</sup> 始仕本朝<sup>하고</sup> 是生諱士廉<sup>하니</sup> 縣監<sup>이오</sup> 生諱錫命<sup>하니</sup> 生員<sup>이니</sup> 始居義城之元興洞<sup>하다</sup> 生諱俊楨<sup>하니</sup> 訓導<sup>으</sup> 生諱壽<sup>하니</sup> 除寢郎不起<sup>하고</sup> 生諱元祿<sup>하니</sup> 號는 悔堂<sup>이니</sup> 從退陶慎

黨이至今誦之不衰(자하다) 配는永陽李氏니 有貞靜端一之德이로대 不幸无育하야 以三從弟冕  
 瑋之仲子命祜(조嗣焉하니) 即相夏의 本生考也 라 娶安東金氏精進女(하야) 生相夏하고 府君이甚  
 喜之(하야) 即命名曰是(이) 吾宗侄之嗣也(자하다) 自幼懷養이無所不至하고 至入學에 劸課日篤(하야)  
 論謂不肖曰學은須得門路端的이라사 乃可成就니 吾見大祥柳丈은有道君子라 俟汝甫冠(하야)  
 宜就學焉이라 吾之所望이 在汝(하니) 期汝續吾家舊緒也(자하니) 是蓋誠於衛宗篤於牖戶 1非至  
 誠而能之乎아 癸丑夏에 府君率不肖輩上雲嵐寺(하야) 留十日而還하고 後幾日에 偶因泄患沉  
 劇(하야) 竅以是年九月三日(토) 終于正寢(하니) 享年이 七十二(라) 於乎慟哉(라) 府君之實德懿行이  
 有可以傳後者而第恐歷世既久則其蹟이 漸泯(일세) 無敢略叙顛末(하야) 以冀世之知德君子니  
 有所攷據而立言云爾(라)

### 市南公墓碣銘

安東權相圭

憲宗乙巳八月十八日에 同副承旨市南申公이 殤(하니) 安永山坐良原其墓也(斗) 顯銘之責이 晚  
 及於相圭(할대) 辭不獲하야 遂強耄昏叙之(하느라) 按公의 謂는 冕周오 字는 成之오 姓은 申氏니 籍  
 鵝洲(라) 高麗版圖判書允濡(一) 以直臣으로 著하고 按廉使祐(一) 以至孝로 旌閭(하나) 我鮮에 訓導贈  
 戶議元祿이 以孝友(로) 旌閭(하나) 號悔堂이오 贈左承旨允(이) 跖斥仁弘(하야) 參寧社勲(하니) 號城隱(이요)

修撰 贈都承旨達道(一) 錄寧社勲(하니) 號晚悟(니) 遊趙月川柳西厓張旅軒諸先生門(하고) 衛學  
 在(의) 號는 禾谷(이니) 遊鄭愚伏先生門(하니) 於公의 五世以上이오 高祖濂(은) 生員(이니) 贈持平이오  
 曾祖重模(는) 號陶厓(으) 祖爌(은) 通德郎(이나) 號尼西(오) 考弘教(는) 通德郎(이나) 號南園(이오) 姉는 豊山  
 柳氏文忠公成龍(의) 后豈昌君瀅(之) 女니 英廟戊子七月二十二日亥時에 公이 生(하니) 五歲에  
 受學(하고) 八歲에 能綴文(하며) 十四歲에 魁道司選藝(하고) 三十一에 中生員(하야) 三十八에 釋褐(하고)  
 歷正字察訪典籍正言兵吏佐郎副司果文宣傳文學持平都事(하니) 爲持平者再修撰者四  
 副修撰者再執義者再校理者再輔德弼善者并一(으) 副護軍者(이) 至同副承旨而終(하니)  
 此則公官職踐歷也(으) 幼有至性(하나) 親之所不欲을必不爲(하나) 道選賞賜(之) 日에 珍羞陳前而  
 獨不下箸曰父母在(에) 不敢先口(하나) 遭内外難에 易戚이 備至(하고) 與伯兄市隱公(으) 占漁洞  
 別墅(하야) 聯床講磨(에) 至樂融洩(하니) 此則公孝友之根天性也(으) 其在玉堂에 路進遇灾修省之  
 道而尾之(以) 大殿警戒(하야) 顏子四勿中庸九經敬學淵源四圖以陳勉焉(하고) 侍書筵而講小  
 學(하야) 以明治亂之機孝悌之本(하나) 此則公引君當道之忠也(라) 人道莫大於忠孝(하니) 使公而  
 處鈞衡之位(하고) 責治平之效(면) 亦只合推廣是道也而乃栖遲下僚(하야) 不得展施其所蘊(하니) 不  
 能不爲世道慨然也(라) 配淑夫人昌寧成氏(는) 士人彥秉의(女) 生一男(하니) 命協은 通德郎(이나)  
 殆(하고) 後配淑夫人眞城李氏(니) 士人濟東女(라) 系男(에) 謩協(이나) 通德郎(이오) 二女(는) 崔雲昌李晚  
 億(이오) 命協系男(은) 泰植(이오) 女(는) 崔炳奎(오) 謩協(이나) 通德郎(이오) 會孫(이하) 以下는 不錄而今來

請銘者玄孫碩基也。銘曰：胄筵輔弼之銜，大朝喉舌之職。孰不曰清選要秩而終不能任鉤衡而經邦國。用賢不能盡其才，繄誰之責？是不能無千古志士之惜。

### 韶隱公行畧

府君의姓은申氏。諱는冕璋。字는國瑞。號는韶隱。이니 鵝洲人이라。高麗壯節公崇謙의後니  
至諱益休。하야 金紫光祿大夫。니 是爲鵝洲君이라。以軍功으로 始受封。仍貫焉。하니 三傳諱允濡는  
官判書謚貞肅。이니 以清直으로 著하고 子諱祐는 號退齋。官至按廉使。하야 見麗季政亂에 與  
吉治隱으로 携手南歸。하야 隱尚州丹密望京山。하나 親喪廬墓三年에 淚滴處生雙竹。하야 事聞旌  
閣。하니 今孝子里一是也。라 鄭愚伏先生이 表墓文하고 享涑水書院에 以孫愚齋金開嚴趙黔澗  
諸先生으로 配焉。하나 生諱光富는 文科內府令이요 生諱士廉은 官至縣監。이오 生諱錫命은 成  
均生員이요 生諱俊禎은 承仕郎教授。生諱壽는 有士友推重하고 慎齋周先生이 誌其墓。하나  
是生諱元祿은 號悔堂이니 遊退陶慎齋兩先生門하야 以篤孝旌閭。事載三綱錄하고 享藏待  
書院。하나 是生諱允。號城隱。이니 王亂倡義。하야 贈左承旨하고 是生諱適道。號虎溪。ニ 遊寒  
旅兩先生門하야 丁丙兩胡亂에 首倡義旅。하니 朝家以異數로 除祥雲郵丞하고 又除齊陵健元  
陵叅奉에 不就。하며 退隱鶴山薇谷。하야 以採薇。扁軒。하나 贈吏叅이요 生諱採。號忍齋。을 成

均進士。四窮性理之學。하야 著聖學十圖銘하고 有館薦六行에 固辭不赴。라니 大山李先生이 銘其  
墓하고 兩世一俱享丹邱書院。하나 生諱禹錫은 號芝軒。이니 崔勉庵撰碣銘하고 生諱德海는 通德  
郎이니 號老圃。有學行。하니 是爲府君高祖。라 曾祖諱器模는 號衿溪。ニ 有孝友文行하고 戊申에  
倡義。하니 李葛庵門人。이오 祖諱는 世烈。이오 考諱는 晉教。ニ 俱有隱德하고 姉는 昌寧曹氏。니 父成  
九。忠貞公尚洛의 後。라 甚有婦德。에 隣里欽仰。하나 生府君于丹邱道下里第。하니  
正宗七月  
日也。라 府君이 自少로 聰穎出衆。하야 以家庭詩禮忠孝之學으로 自任하고 不遊師門而文譽夙  
就。하야 遠近來質하고 遊場屋에 屢捷鄉解。로 대 未得科第。하나 事親至孝하고 友于兄弟하고 睦于族  
黨。하니 一門이 化之하고 遠近이 推重焉。하나 及丁憂에 甚哀痛。하야 幾至滅性。하니 人稱至孝。라  
日省墓所。雨雪不廢。하니 以孝薦聞에 因憲廟賓天。하야 不見允하고 憲宗丙申에 疾篤。하야 會門  
親子姓하고 以先事之未了로 物力拮据와 先集之未刊을一一提說하고 因遁然而化하니 乃十  
一月二十九日也。라 享年이 四十五。葬八智山越佛米燈負良原하고 配延安李氏。니 父光現  
이오 松塢軫의 後。니 有婦德。하야 事舅姑에 至誠하고 奉君子에 無違。하나 生丙辰이요 卒丁卯二月二  
十五日。하니 墓는 合堋。이니 啼呼。라 府君之碩德懿行이 見稱於人者。多。나 然而壽不滿五十而  
終。하니 仁善無祿이 良可痛也。라 小子。受命以來。로 服膺勿失。하야 深懼夫府君當日遺戒之或  
墜者。今四十一年也。라 戊申三一齋之重建。과丙辰丹邱院之叛建。과丁卯虎爺之。贈爵。이莫  
非府君誠孝冥佑之致也。오 虎忍兩先祖遺稿繡梓를 尚未完就하고 安平墳墓之頽圯에 墓碑之

改豎<sup>를</sup>亦未遂<sup>하니</sup> 小子夙夜靡寧者一此也<sup>斗</sup> 府君이 生三男三女<sup>하니</sup> 男에 長은 不肖錫祐<sup>호</sup>  
次命祜<sup>는</sup> 出하고 次晚祜<sup>요</sup> 女에 長은 延安李進求安東金舜善仁同張教駿<sup>이니</sup> 縣監<sup>이오</sup> 不肖는  
一男一女에 男이 相乙<sup>이오</sup> 女昌寧成宗汶<sup>이며</sup> 晚祜의 一男一女는 男이 相翊<sup>이오</sup> 女義興朴泰章  
韓山李學求李進求<sup>는</sup> 一男이니 道性<sup>이오</sup> 金舜善은 三男에 壽鵠壽鵠壽湊<sup>이오</sup> 張教駿의 一  
男은 德顯<sup>이오</sup> 餘는 幼不錄<sup>이라</sup>

晚學齋公墓碣銘 并序

歲丙子十月日不肖男錫祐泣血敬書

晚學齋公墓碣銘

并序

歲丙子十月日不肖男錫祜泣血敬書

肇自勝國源深流長繼述家聲于祖有光寬洪之量仁厚之姿嘉行懿德永世可垂不斬餘澤覃及後昆視此貞珉懿綿椒蕃

光復後初壬戌八月上浣

仁同 張炳 達謹撰

晚學齋鵝洲申公 墓碣銘

嶺南에 있는 義城郡은 鄭魯의 鄉인에 古家에 盛族으로는 반드시 鵝洲申氏에게 돌아가니 先世의 美蹟들이 衰替하지 않고 내려왔다. 處士에 晚學齋가 있으니 謂는 級璧이고 字는 王玉인에 元系는 高麗에 壯節公 謂 崇謙에서 나왔다. 累傳해서 謂益休는 金紫光祿大夫로서 鵝洲君으로 受封해서 本貫이 된 것이다. 그리고 五世를 내려와 謂祐는 號가退齋니 親喪에서 三年동안 墓을 살아서 竹이나고 淚로 處하는 異跡이 있었기 때문에 孝道로서 旌閭되었는데 高麗의 운이 라 할 때를 當해서 治隱先生과 더불어서 南下하여 尚州의 丹密에 와 살았어 終身토록 벼슬하지 않는 데 淚水書院에 尊享되었다. 三傳해서 謂錫은 尚州에서 義城으로 와서 元興洞에 살았으셨고 또 三傳해서 謂元祿은 號가 慨退溪兩先生의 門下에서 受學하여 贈戶曹叅議로서 藏侍書院에 尊享되었었다. 그의 生諱는 乾이니 號가 城隱인데 壬辰亂때 儒義를 해서 贈左承旨고 또 生諱는 道道니 號가 虎溪로서 우리 旅軒先祖와 寒岡先生의 門下에서 受學하여 學問의 旨訣을 들었는데 丙子胡亂때에 儒義해서 和議를 反對하였는데 贈吏曹叅議며 生諱는 執니 號가 忍齋인 채 成均進士로서 學行이 있어서 父子分이 같이 丹邱書院에 尊享되었고 生諱는 文錫이니 號가 芝隱이며 再傳해서 謂正樸는 文科로서 府使가 되었는데 朋黨싸움판에 誣告를 받아서 流配되어 諭所에서 作故하였다니 號가 二聖齋인데 公에게는 曾祖시다. 祖의 謂는 光烈이니 通德郎이고 考의 謂는 成教니 號가 愚軒으로서 前後配가 있으니 義城金氏 泰運의 女와 坡平尹氏 德述의 女인데 公은 後妣의 所生이다.

純祖癸亥十一月初一日 八智里第에서 生하니 幼時부터 先公에게 受學하였는데 才質은 비록 鈍한듯해도 學業에 誠

心이 있었기 때문에 雖의 배우의 늘에는 험쓰지 않고 걸이하고 들어가는 데만 힘을 쓰셨다. 또한 家難한데 老親이 계셔서 學業에 만족할 수가 없겠으나 間或是 詩文을工夫하는데 着心하셨다. 또한 仁厚하고 寛大한 性格이 있어서 남의 長短이나 是非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冲和한 氣가 恒常動靜과 語默에 넘치었다. 그리고 事親에는 峯로써 하고奉先에는 誠으로써 하였기 때문에 鄉人이나 宗族들이 모였다君子라고 称道하였다. 純祖丙戌年에는 外艱을 당하고 庚寅年에는 內艱을 당하여 前後의 艱에 한 節次가 禮制에 遺憾이 있게 하였다. 庚戌年에는 子 솜의 逆慘을 當하였으나 理性으로서 排遣하여 慈情의 哀痛에 傷하지는 않았으니 修養한 바가 있음을 可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虎溪書院에 奉祀하는 禮와 二聖齋의 雪冤하는 일은 平生의 所願인데 그것을 다遂成하였으니 어찌 至誠이所致가 아닐까. 公은 본래 병리 咳喘症이 있어서 대대로 添損이 있었으나 孫子인 相憲으로 하여금 計富公에게 가서 「倡義錄」序文을 付托하였다. 遊去하시던 저녁에는 近隣에 諸族을 請해다가 古今에 嘉言善과 門事家政을 말씀하시는 데 連해서 지치지는 않았으나 夜深에 罷會하고는 枕席에 누워서 忽然히 長逝하시니 그때는 庚辰年十一月二十九日인데享年이 六十六歲로서 遊谷先塋 左便乾坐의 原에 箬事하였다가 엄마인 되서 軍威召保面 西京洞山二十四異坐의 原으로 移葬하였다. 配는 永川李氏니 魯宗의 女로서 墓는 下에 楓林先塋左便 乾坐의 原에 있는데 一男二女를 生했으니 男은 昌協이고 女는 義城金重輝와 또 義城金鎮聲에게 出嫁하였다. 昌協의 男은 相憲과 相和고 金重輝의 男은 翼周翰周翹周翹周의 男은 駿後洛後이며 相憲의 男은 世煥啓煥紀煥이고 相和의 男은 祖煥이며 玄孫男은 基德基喆 基勲在杰在德이고 玄孫女는 清州鄭國鎮宣城李準燮 金海金永斗동에게로 出嫁하였는데 以下은 너두드 菲多해서 더욱다 記錄할 수 없다. 아아! 公의 玄孫이 基勲은種種 만나는 나의 親友로서 여의郡守를 지내고至今은 老退해서 절에 있는데奉先하는 誠이 篤實해서 그의 先王考主靜窩相憲의 지은 遺狀을 가져와서 나에게 碑文을 付托하니 비록 나는 그를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본래 先誼가 重한데 또한 友誼도 莫하니 어찌 敢히 固辭할까? 이에 銘하노니

前朝부려 비롯하와 潤源길고 繼述해온 그家聲은 祖에 더워 빛이 났네。  
冤洪하신 度量이고 仁厚하신 威應로서 嘉行하신 그懿德은 永遠하게 내려가니  
그道澤이 안풀기어 後孫들에 미처장은 이碑石을 불지이다 기리蕃盛 하위로다.  
光復後壬戌八月望前에 仁同張炳達謹撰

## 野隱公事實

公의 姓은 申氏<sup>오</sup> 謂는 翼升<sup>이니</sup> 鵝洲<sup>君</sup> 謂益休<sup>의</sup> 后也<sup>라</sup> 傳十二世 謂佖 은 司憲府監察<sup>이니</sup> 號는 興溪<sup>오</sup> 又三傳 謂鳳錫 은 宣教郎<sup>이니</sup> 早遊泮宮<sup>에</sup> 應製居魁<sup>하고</sup> 號自足齋<sup>니</sup> 鄭夷采撰行狀<sup>하고</sup> 又三傳 謂震鳴 은 實公之考也<sup>오</sup> 姉는 慶州崔氏<sup>니</sup> 英廟丙申<sup>에</sup> 生公于新湖第<sup>하다</sup> 自幼少<sup>로</sup> 志于學<sup>하야</sup> 中鄉解<sup>하고</sup> 競未售有司<sup>에</sup> 晚構精舍於澤畔<sup>하고</sup> 同六昆季逍遙其中<sup>하야</sup> 以終餘年<sup>하니</sup> 即純祖戊子月日也<sup>라</sup> 墓는 安平巨村墨麻谷良坐原<sup>이오</sup> 配는 興陽李氏<sup>니</sup> 墓祔<sup>하고</sup> 生二男<sup>에</sup> 命老述老<sup>오</sup> 命은 二男二女<sup>니</sup> 洛休洛夏<sup>오</sup> 鄭命烈朴尚利<sup>오</sup> 述은 一男一女<sup>니</sup> 洛羲<sup>오</sup> 宣城李秉德<sup>이라</sup> 嘆呼<sup>斗</sup> 公之文獻實蹟<sup>이</sup> 杷宋無徵<sup>하니</sup> 重可惜哉<sup>라</sup>

### 可軒公墓碣銘

并叙

安東權相圭

公의 謂는 錫祜<sup>오</sup> 字는 德文<sup>이오</sup> 號는 可軒<sup>이오</sup> 姓은 申氏<sup>니</sup> 高麗壯節公崇謙<sup>이</sup> 爲肇祖<sup>오</sup> 歷十二世至諱益休<sup>하야</sup> 以軍功<sup>으로</sup> 食采于 鵝洲<sup>하야</sup> 因以爲貫<sup>하니</sup> 四傳 謂祐<sup>는</sup> 官按廉使號退齋<sup>니</sup> 麗運訖<sup>에</sup> 南下<sup>하야</sup> 隱尚州望京山<sup>하다</sup> 親喪廬墓泣血處<sup>에</sup> 生雙竹<sup>하여</sup> 事聞旋間<sup>하고</sup> 享涑水院<sup>하다</sup> 有諱元祿<sup>은</sup> 號悔堂<sup>이나</sup> 遊退溪慎齋兩先生門<sup>하야</sup> 以孝旌閣<sup>하고</sup> 享藏待院<sup>하여</sup> 生諱允<sup>는</sup> 號城

隱이니壬辰亂<sup>에</sup> 倡義旅<sup>하야</sup> 贈承旨<sup>하고</sup> 生諱適道<sup>는</sup> 號虎溪<sup>니</sup> 遊寒旅兩先生門<sup>하야</sup> 丁卯<sup>에</sup> 倡義旅<sup>하고</sup> 丙子亂<sup>에</sup> 又舉義勤王<sup>이려니</sup> 開下城盟<sup>하고</sup> 陳疏斥和<sup>하여</sup> 除齊陵參奉<sup>에</sup> 不赴<sup>하고</sup> 隱于鶴山之薇谷<sup>하야</sup> 以採薇名軒<sup>하니</sup> 贈吏叅<sup>하다</sup> 生諱採<sup>는</sup> 號忍齋<sup>니</sup> 窮性理學著聖學十圖銘<sup>하야</sup> 兩世<sup>-1</sup>俱享丹邱院<sup>하다</sup> 三傳 謂器模<sup>는</sup> 有孝友文行<sup>하고</sup> 戊申亂<sup>에</sup> 赴義<sup>하니</sup> 是爲公高祖<sup>라</sup> 謂世烈<sup>는</sup> 諱晋教<sup>는</sup> 謂冕璋<sup>는</sup> 其曾祖祖彊<sup>오</sup> 延安李氏光現<sup>의</sup> 女<sup>는</sup> 其大夫人<sup>也</sup> <sup>라</sup> 公儀表魁梧<sup>하고</sup> 氣宇剛明<sup>하며</sup> 才思又聰穎<sup>하야</sup> 八歲就學<sup>에</sup> 十年之間文譽夙就<sup>라</sup> 遊場屋<sup>에</sup> 不以小成<sup>으로</sup> 自期<sup>호대</sup> 屢赴庭試而竟不中<sup>하니</sup> 親友<sup>多慨惜<sup>하다</sup></sup> 公曰命也<sup>라</sup> <sup>하고</sup> 遂絕意榮途<sup>하며</sup> 專以篤倫理紹先緒<sup>을</sup> 爲家計<sup>하야</sup> 養親至孝<sup>하고</sup> 友子弟愛而教之<sup>하며</sup> 訓子姪有法度<sup>하여</sup> 門庭<sup>이</sup> 肅然<sup>에</sup> 無敢妄言嬉笑<sup>려라</sup> 親戚朋舊<sup>-1</sup> 窮不能自聊者<sup>를</sup> 周恤而極濟<sup>하니</sup> 無不畏其威而懷其惠焉<sup>하나</sup> 甲寅<sup>에</sup> 築鳳亭于黃鳥山下<sup>하야</sup> 居之<sup>하니</sup> 丙辰<sup>에</sup> 議鄉道士林<sup>하야</sup> 建丹邱祠<sup>하고</sup> 享虎溪懶齋二先生而以忍齋公<sup>으로</sup> 配食<sup>하고</sup> 悔堂翁所建三一齋<sup>-1</sup> 有不善持守之歎<sup>하야</sup> 公이 帶任三年<sup>에</sup> 推覲其土庄<sup>하고</sup> 繕修其棟宇<sup>하여</sup> 悔集之重刊<sup>斗</sup> 虎翁之贈爵<sup>과</sup> 聖翁之復職<sup>이</sup> 皆公誠力之所致也<sup>라</sup> 高宗丙寅<sup>에</sup> 有洋騷<sup>하야</sup> 大院君이 將銳意斥洋<sup>아려니</sup> 柳相公厚祚<sup>-1</sup> 薦公爲慶尚捐補錢都有司<sup>하니</sup> 公이 慨然曰此正先國後家之時<sup>라</sup> 乃通諭于道內校院<sup>하야</sup> 講定敦事<sup>하니</sup> 其幹局範圍<sup>-1</sup> 見重於人<sup>을</sup> 可想仰也<sup>라</sup> 丙子春<sup>에</sup> 鮮日修好條約<sup>이</sup> 成<sup>하니</sup> 公이 同崔益鉉洪在鶴黃載顯抗疏力爭<sup>하야</sup> 雖言不見<sup>允</sup> 而直聲<sup>이</sup> 動中外<sup>라</sup> 大院君이 嘘歎贈詩曰經學文章當世

高에 布衣遊洛播聲高과嶺中今日多賢士에 獨扶邦綱節義高과하나自後國事一無可爲矣과하고  
遂高臥鳳亭하야 有詩曰處畝樂宜任聖志니 臥廬睡足孔明假과 寓樂山水에 消遣世慮하니 當  
世名碩如柳溪堂李肯庵金拓庵金雪巢司空南隱李根弼諸公이 皆道義相許하고 又有京鄉  
交遊錄五十六人이 皆一時名公碩儒也과 辛巳正月二十八日에 終하니 其距生丙子에 享年六  
十六이라 葬八智案山先墓下負良原하다 配는 聞韶金氏德熙의 女니 墓合封이요 生一男에 相  
乙이오 一女는 適成宗汶하고 相乙은 三男에 珪煥琪煥이오 星煥은 出하고 成의 男勲鎮健鎮時鎮이오  
餘는 不錄也과 珪煥之孫龍鎬一謀堅石而今來請者星煥之男基能甫와 冒祀玄孫鍾雲也과 銘  
曰工文而不售于有司하고 幹局而莫需于時하니 命道之違也과 身擔斥洋之任하고 名登斥倭之  
章은 令聞之長也과 持琬琰易羊皮는 公之所不爲니 亦何用爲公歎咨아

### 錦溪公墓碣銘

族后孫 在洙

閱歷上世에 文學孝行은 惟吾鵝申之長物也과 有光而無忝者는 近世에 有諱國祐하니 字는  
光汝호는 錦溪公이 是也과 天性이 頴悟明敏하야 與其兄芝巖公으로 趨庭之暇에 益篤征邁하야  
造詣日長하니 鄉隣父老一無不愛重而期之以遠大也려나 於乎라 公之才之能이 如得可爲之  
地則其於治平에 庶幾近之而未展所抱하고 終老林泉하니 彼天之不佑斯文이 果若是歟아 生

於憲宗丁未하야 卒於壬寅十月二十一日하나 年纔五十五라 人無不歎惜之而及葬에 鄉隣士  
友輓誄之文이 多至數百首라 葬于韶州南飛鳳上谷坐艮原하다 世德則高麗元勲壯節公諱崇  
謙이 肇祖오 十二傳至益休하야 以軍功으로 封鵝洲君하나 子姓이 仍以爲貫焉하나 累傳至允孺  
官奉翊大夫版圖判書니 諡貞肅이오 生諱祐는 號退齋니 司馬文科로 奉常大夫司憲府掌令全  
羅道按廉使니 盧墓雙淚落處에 生雙竹之瑞하야 事聞旌閭하고 名其里曰孝子里라하야 刻石以  
表하니 事載續三綱하고 享尚州涑水院하다 生諱光富는 李朝文科로 生諱士廉은 通訓大夫彥  
陽縣監이오 生諱錫命은 生員이오 生諱俊禎承仕郎行義城訓導로 生諱壽는 燕山朝에 除慶基  
殿參奉에 不就하고 中宗이 除獻陵叅奉에 亦不赴하나 生諱元祿은 號悔堂이니 受業于退溪慎齋  
之門하야 以孝로 旌表門閭 1載續三綱하고 享藏待書院하다 生諱允는 號城隱이니 贈通政大  
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이오 生諱適道는 號虎溪니 受業于寒岡旅軒門하고 生諱採는  
號忍齋오 成均進士니 享丹邱院하다 子文錫은 號芝隱이오 子德溢은 號靜齋오 曰彥模는 號晚  
香齋오 曰問烈은 號文潛堂이오 曰承教曰冕羲는 號耘埜堂이니 公之高曾祖父之諱也과 姮는 永  
川李氏簡發의 女이오 配는 南陽洪氏中樞浩燮女니 生乙巳하야 卒己巳十月二十八日하니 褒公  
墓하나 有三男二女에 相說이오 相文은 系伯父源祜하고 相奭이오 女는 洪在協朴文植이오 相說의  
男은 璸煥이니 號嶺吾禹煥喆煥時煥이오 女는 張斗煥權重煥이오 璸煥의 男은 基永基胤載鶴  
載穆이오 女는 朴秀鳳李敏杰이오 禹煥의 男은 基中基生이오 女는 金浩聲曹慶煥洪九杓朴承

佑  
喆  
煥  
의  
男  
는  
基  
鶴  
墓  
千  
이  
오  
女  
는  
朴  
春  
錫  
朴  
時  
赫  
이  
오  
時  
煥  
의  
男  
는  
基  
華  
基  
承  
在  
允  
이  
오  
女  
는  
李  
永  
榮  
朴  
鍾  
守  
朴  
建  
錫  
趙  
晟  
允  
이  
오  
惠  
煥  
의  
男  
는  
基  
卓  
이  
오  
基  
永  
의  
男  
는  
命  
鎬  
燦  
鎬  
棒  
鎬  
杰  
鎬  
이  
오  
基  
胤  
의  
男  
는  
武  
鎬  
元  
鎬  
이  
오  
基  
千  
의  
男  
는  
壹  
鎰  
元  
植  
元  
男  
는  
元  
壽  
文  
圭  
東  
杰  
이  
오  
基  
中  
의  
男  
는  
宣  
基  
春  
基  
點  
基  
明  
基  
活  
基  
世  
오  
女  
는  
李  
鍾  
萬  
이  
오  
義  
煥  
의  
男  
는  
基  
華  
의  
男  
는  
碩  
鎬  
青  
鎬  
宣  
基  
의  
男  
는  
仲  
鎬  
銘  
日  
이  
오  
餘  
는  
不  
錄  
이  
라  
日  
에  
會  
孫  
基  
永  
이  
袖  
公  
遺  
事  
하  
고  
託  
余  
以  
銘  
曰  
吾  
先  
子  
遺  
命  
이  
在  
吾  
座  
하  
니  
願  
吾  
座  
는  
勞  
不  
辭  
하  
라  
余  
—  
縮  
然  
而  
思  
之  
하  
니  
族  
丈  
環  
煥  
氏  
는  
非  
但  
族  
親  
의  
誼  
하  
少  
與  
甚  
善  
하  
니  
尋  
常  
語  
及  
于  
此  
에  
余  
—  
辭  
以  
不  
文  
이  
려  
니  
未  
遂  
其  
言  
而  
遽  
作  
古  
人  
하  
니  
恨  
莫  
及  
矣  
라  
今  
又  
基  
胤  
의  
來  
에  
義  
何  
敢  
他  
諸  
아  
遂  
驟  
括  
數  
語  
하  
야  
以  
塞  
幽  
明  
之  
託  
하  
고  
系  
之  
銘  
曰  
偉  
哉  
我  
公  
이  
文  
學  
孝  
行  
이  
라  
一  
生  
慥  
慥  
에  
不  
墜  
家  
聲  
이  
라  
窈  
彼  
上  
谷  
에  
埋  
我  
碩  
德  
이  
라  
慎  
勿  
陵  
壞  
니  
戒  
爾  
樵  
牧  
이  
라  
銘  
以  
徵  
之  
하  
야  
大  
書  
深  
刻  
이  
라

### 雲樵公墓碣銘

并序

抱  
需  
世  
之  
才  
生  
功  
令  
之  
世  
牢  
臥  
東  
岡  
與  
物  
無  
競  
高  
麗  
朝  
奉  
翊  
大  
夫  
版  
圖  
判  
書  
諡  
貞  
肅  
이  
오  
諱  
가  
祐  
이  
호  
號  
가  
退  
齋  
로  
서  
行  
全  
羅  
按  
廉  
使  
하  
고  
有  
至  
孝  
하  
야  
以  
血  
泣  
處  
에  
生  
竹  
之  
異  
트  
旌  
褒  
其  
閭  
하고  
享  
涼  
水  
書  
院  
하  
나  
至  
諱  
士  
廉  
은  
通  
訓  
大  
夫  
彥  
陽  
縣  
監  
이  
오  
至  
諱  
元  
祿  
은  
受  
業  
于  
周  
慎  
齋  
와  
李  
文  
純  
兩  
先  
生  
之  
門  
이  
려  
니  
特  
蒙  
獎  
誨  
하  
야  
通  
政  
大  
夫  
贈  
戶  
曹  
參  
議  
하  
고  
享  
藏  
待  
書  
院  
하  
나  
諱  
가  
心  
은  
號  
는  
興  
溪  
로  
서  
宣  
務  
郎  
으  
로  
司  
憲  
府  
監  
察  
이  
오  
諱  
尚  
道  
는  
宣  
教  
郎  
으  
로  
軍  
資  
監  
判  
官  
이  
오  
諱  
璋  
는  
資  
憲  
大  
夫  
中  
樞  
府  
事  
이  
며  
諱  
淵  
은  
號  
가  
錦  
南  
으  
로  
有  
黔  
婁  
之  
孝  
하  
고  
戊  
申  
變  
에  
與  
族  
兄  
退  
淵  
公  
諱  
濂  
으  
로  
并  
義  
討  
逆  
이  
나  
謙  
退  
酬  
勲  
之  
席  
하  
나  
人  
多  
壯  
之  
하  
다  
自  
分  
明  
洞  
으  
로  
移  
于  
甲  
藏  
里  
하  
니  
抑  
非  
時  
平  
而  
藏  
其  
甲  
者  
歟  
아  
是  
는  
公  
의  
五  
世  
祖  
也  
라  
高  
祖  
의  
諱  
는  
大  
模  
요  
曾  
祖  
의  
諱  
는  
重  
煜  
이  
요  
祖  
는  
祥  
奎  
요  
考  
의  
諱  
는  
冕  
鉉  
이  
나  
有  
文  
行  
하  
나  
妣  
는  
慶  
州  
朴  
氏  
春  
彙  
의  
女  
요  
舞  
溪  
敏  
樹  
의  
后  
로  
有  
閨  
範  
하  
나  
日  
에  
生  
公  
于  
甲  
藏  
寓  
第  
하  
나  
丹  
穴  
祥  
毛  
요  
已  
自  
不  
群  
甫  
로  
舞  
勿  
하  
고  
已  
知  
愛  
敬  
之  
道  
하  
나  
就  
傳  
攻  
에  
若  
端  
恭  
하  
야  
執  
贊  
年  
長  
者  
하  
니  
皆  
謂  
而  
推  
之  
하  
나  
致  
曲  
護  
할  
새  
此  
는  
蓋  
急  
人  
之  
義  
이  
나  
授  
業  
于  
拓  
庵  
金  
公  
之  
門  
하  
나  
金  
公  
이  
每  
加  
起  
余  
之  
歎  
이  
나  
庚  
戌  
國  
耻  
에  
奮  
然  
有  
委  
身  
沙  
漠  
之  
志  
而  
在  
侍  
之  
地  
有  
難  
에  
自  
專  
其  
身  
故  
으  
로  
爲  
自  
守  
標  
榜  
之  
하  
야  
物  
政  
于  
家  
而  
使  
不  
染  
于  
新  
潮  
하  
고  
至  
於  
一  
切  
榮  
枯  
를  
泊  
然  
無  
所  
介  
이  
나  
及  
當  
重  
牢  
之  
年  
에  
季  
君  
이  
先  
我  
而  
逝  
하  
야  
隻  
影  
이  
遲  
回  
에  
容  
有  
做  
樂  
爲  
也  
리  
苟  
非  
其  
積  
於  
中  
者  
로  
篤  
於  
彝  
倫  
則  
烏  
能

如是也。庚寅八月十一日考終享年八十一。松溪金公爲文以祭曰忠孝積中。英明。發外鄉黨儒紳之操文致祭者可百數也。葬桃谷良坐原。配慶州朴氏顯佑。女。柳村從男。高宗己巳七月二十五日。生。丁亥五月二十三日。卒。墓。雙封。育四男三女。男。應植。樟植。命塚。爰植。女。適李佑馥。金相元。鄭富鉉。應。男。永燮。女。安炳龍。朴八龍。樟。男。壽煥。富煥。女。金鎮賢。命。男。在煥。煥。熙雨。璣。男。永燦。同燦。永。男。基承。基殷。男。載原。壽。男。基伯。富。男。榮基。升基。鍾基。在。男。玉基。正基。秉基。熏。男。弦起。容周。熙。男。棟圭。燦。男。基榮。基惠。同。男。基淳。玄孫。不錄。銘曰。

才之穎而兼學之篤。行敏而兼志之確。胡值平陽九之剝。山河異目。此千秋志士之所慕。公。痛惜。铭曰。

歲壬戌五月上浣

慶州金亨鎮謹撰

### 童蒙教官墓碣銘

公。諱。春協。字。元謙。姓。申氏。麗朝功臣壯節公。諱崇謙。后。以勲。封鵝洲

君諱益休。二十一世孫也。有諱祐。號退齋。文掌令。以孝旌閭。生諱光富。文科。生諱士廉。縣監。有諱元祿。號悔堂。亦以孝旌門。贈戶議。有諱悅道。號懶齋。文掌令。知製教。生諱壇。號丹厓。通仕郎。生諱斗錫。通德郎。諱學標。諱光燦。諱應教。諱免。俱隱德不仕。即公。高曾祖考也。妣。達城徐氏。相浩。女。純廟庚午。舉公于清河鳴巖里第。自幼至。姿性。謹懿。及長。事親竭力。奉先極誠。其學文則蓋餘力所推也。癸巳冬。丁內難。哀毀之極。至滅性。丙申。又遭外艱。祥祭。一遵家禮。易戚。備至。吊者。咸悅。自後。克幹家事。恢張門戶。賙窮恤貧。壬戌。以五百金。助軍器修繕。且捐三百鎰。又以半千銅。充社米。以立本。又值丙子大歉。傾困救一境溝壑之命。且捐三百鎰。補別砲軍用。本郡。有褒彰。乙酉。又當大凶。助聖廟享需之資。事聞巡營。蠲減雜役。公之懿跡。此可據也。朝家。用優典。除朝奉大夫童蒙教官。公之天餉福祿。優如矣。高宗乙酉正月四日。卒于寢。享年七十六。葬于鳴巖左麓。負壬原。恭人密陽朴氏。孟守。女。歿。先公六年。即己卯正月三十日。墓。鳴巖水。鐵谷。壬坐。有四男。宅桂。宅東。宅均。宅秀。嗣男聖煥。男。聖煥。出。吳煥。宅均。郡守。男。昶煥。暎煥。台煥。釋煥。周煥。慶煥。正煥。明煥。道煥。宅秀。男。聖煥。章煥。聖煥。男。基澈。基胄。會玄。以下。不盡錄。公之孫周煥氏。使其從姪基淳。

澈<sup>至</sup>齋家狀而請謁銘於膺河<sup>하니</sup>辭不獲已<sup>와</sup>按其蹟而叙次之<sup>하고</sup>系以銘曰 自天神休<sup>라</sup>壽富貴多男子<sup>로나</sup>墓地出捐救濟<sup>하니</sup>恤大慈惠<sup>라</sup>竟成志業<sup>하니</sup>傳世無替<sup>어다</sup>褒著事行<sup>하니</sup>垂史不愧<sup>로나</sup>

歲辛巳秀英節聞韶

金膺河謹撰

## 仁齋公墓碣銘

昊天이不恤<sup>하야</sup>府君之棄不肖輩<sup>一己</sup>一紀于茲矣<sup>라</sup>蓼我慟深<sup>에</sup>安敢濡筆而述府君之行治之萬一哉<sup>아</sup>嗚呼<sup>라</sup>府君諱湜祐<sup>호</sup>字樂中<sup>락중</sup>號仁齋<sup>라</sup>系出金紫光錄大夫門下侍郎<sup>이라</sup>諱益休<sup>斗</sup>食采于鵝洲<sup>하야</sup>仍爲子姓之鄉貫<sup>이라</sup>至諱允濡<sup>호</sup>諡貞肅<sup>씨</sup>高麗朝奉翊大夫版圖判書<sup>파</sup>諱祐<sup>호</sup>號退齋<sup>라</sup>全羅道按廉使<sup>라</sup>性至孝<sup>하야</sup>親喪泣血<sup>하니</sup>有生竹之異<sup>라</sup>旌表其閭<sup>하고</sup>事載三綱行實<sup>하며</sup>享涑水書院<sup>학</sup>至諱士廉<sup>호</sup>通訓大夫彥陽縣監<sup>하나</sup>至諱元祿<sup>호</sup>號悔堂<sup>이라</sup>贈通政大夫戶曹叅議<sup>하고</sup>授學于周慎齋李退溪兩先生之門<sup>하나</sup>特蒙獎誨<sup>하고</sup>享藏待書院<sup>학</sup>諱仙<sup>호</sup>號興溪<sup>라</sup>宣務郎司憲府監察<sup>이라</sup>諱尚道<sup>호</sup>宣教郎軍資監判官<sup>이라</sup>諱璋<sup>호</sup>資憲大夫中樞府事<sup>라</sup>至諱淵<sup>호</sup>號錦南<sup>이라</sup>數朔親劑<sup>로</sup>嘗冀禱天<sup>에</sup>鄉人<sup>이</sup>比之以黔婁之孝<sup>라</sup>戊申之變<sup>에</sup>與族兄退澗公諱濂<sup>호</sup>倡義征亂<sup>에</sup>功成身退而不居錄勲<sup>하다</sup>自分明洞<sup>에서</sup>移于甲藏<sup>하고</sup>角

巾藜杖<sup>으로</sup>相羊泉石悠然有出塵之遐想<sup>하니</sup>於府君爲五世祖也<sup>라</sup>高祖諱大模<sup>호</sup>曾祖諱重煜<sup>호</sup>祖諱祥奎<sup>호</sup>考諱冕竑<sup>호</sup>以孝行<sup>으로</sup>聞于世<sup>하다</sup>妣慶州朴氏<sup>라</sup>父春彙舞溪敏樹<sup>라</sup>后<sup>라</sup>有淑行<sup>하다</sup>庚辰四月二十五日<sup>에</sup>府君生于<sup>하니</sup>樂有之庭<sup>이라</sup>性和氣秀自幼<sup>三</sup>無子弟過<sup>라</sup>惟謹惟飭不慕外榮<sup>하고</sup>暇力學文<sup>에</sup>不務貪多<sup>하고</sup>奉親而有負米之孝<sup>하니</sup>事兄而有大被之樂<sup>하고</sup>慎進合族<sup>에</sup>修誼相恤<sup>하고</sup>雖絲泣之微<sup>라</sup>必稟于伯公而行之<sup>하니</sup>伯公之所以愛杖者<sup>一</sup>非古所謂人不間者耶<sup>아</sup>不肖罪逆<sup>하야</sup>遽爾觀化于丙戌九月二十日<sup>하니</sup>壽止六十七歲<sup>라</sup>先民制禮<sup>을</sup>不敢過之而奉窆于桃谷先兆下乙坐原<sup>하나</sup>配綾城具氏克備壺儀<sup>라</sup>父公<sup>의</sup>諱炳祖<sup>호</sup>蹈海窟公諱讓之后也<sup>라</sup>生己卯十二月二十日<sup>하고</sup>卒于丁亥四月三十日<sup>하니</sup>享年六十九歲<sup>라</sup>葬于家后山辰坐<sup>하다</sup>孤露終天之慟<sup>이</sup>容有其極<sup>가</sup>育有二男四女<sup>하니</sup>長灘植次在植女適趙國濟朴斗璡朴榮煥南雲採<sup>라</sup>灘植男圭煥焯宇煥熒煥五煥正煥彰煥女適<sup>에는</sup>金倉九朴永哲<sup>이라</sup>在植男甲煥熙泰熙元熙郁熙健<sup>이며</sup>女適李宣和蔣鳳煥<sup>이라</sup>圭煥男載輪載輝<sup>이요</sup>焯男載樂載衡載銖<sup>며</sup>宇煥男載範載億載鶴<sup>이요</sup>熒煥男載軒載軫<sup>이며</sup>五煥男基赫正煥男基憲<sup>이라</sup>熙元男基樹於乎不肖無文<sup>으로</sup>無以贊述府君之德行而略記世系及平日言行之一二<sup>로</sup>以鐫于石者<sup>一</sup>只欲徵深目於來後則他日歸侍於地下<sup>에</sup>或可以小洩罔極之慟也耶<sup>아</sup>

歲壬戌

月 日

不肖孤在植泣血謹識

晚守堂公墓碣銘

開韶金道和 指庵

鵝洲之申이皆胄於高麗版圖判書允濡하고是生按廉使諱祐有至行하야雙竹이生墓하고中世有諱元祿하니號는悔堂이라以學行으로著하고三世에有諱達道는弘文館修撰이니遊月川旅軒之門하야以經術로顯하니皆聞祖也오高祖光祐는號篤齋오會祖大奎는文學德望이見重於鄉하고祖冕祖는亦孝行으로稱하고考東協은有學行하고妣는南陽洪氏兩國의女니德性貞婉에媲德無違하다仁陵庚寅에公이生于傳巖里第하니眉目清潔하고才性穎拔하야異於凡兒하니及成童에詞藝日進하야駸駸有步驟의即往拜族祖市南公하니公이甚奇之曰異日門戶之望이在此兒也하나一日에往候雲谷李公하니公이亦以佳子侄로稱謂하고因賜筆墨以獎之하다時에洪侯鍾浩設白于朝陽館하야多士雲集이하公이以弔角으로晚到하니門者不納이하公이排闥直八하야操筆立就하니觀者咸稱英氣逸才非流輩所及也라하다道伯金公學性이廣選齋儒에公이魁選하고將行에趙公龍震이以詩送之曰賊世無遺才하니名韁須穩步하니非徒勸勉而其敬重之意如此하니居齋屢歲에前後道伯이多惓惓接引者하나申相錫愚詩에曰英材於樂居其一에義理差毫謬以千이라李相敦榮詩에曰明時誰把天人策고舊業相傳性理書하니當世名卿之相與勸獎이又如此하나壬申에先公寢疾彌留하니公이夙夜扶侍에洞洞

不懈하니一日에先公이思鯉魚하니時當盛冬에冰雪堆積이라公이直赴洛東하야求得一隻에未暮而還하나癸酉에遭大故하야哀毀過制하야暮年으로不近草木之滋리라既而오移築于城南舊址하고扁之曰晚守堂이라하여蓋取朱夫子晚守東崗之意而兼寓世守勿墜之戒也하야晚又卜山雲之位梅하니取其地勢幽曠에松杉密邇하야以頤性靈而育子孫也라自是閉戶潛處優遊自適하야取先儒箴警揭壁以觀省하고又以晚悟公遺集이尚在巾箱하니實子孫之責也라하고文論派內族親하야收聚物力爲待年鋟布之計하니丙寅에洋夷侵陵이라公이作傷時吟曰魯連東海月이오彭澤北窓風이라氣數天無奈니英雄計亦窮이라하니其慷慨憂傷之意를又可見也하나壬寅四月日에以疾終于寢하니享年이七十三이라葬于漆谷架山負子之原하나配은咸安趙氏彥祜之女니葬이與公同原하나生一男하니鳳燮이오二女는姜隣欽金在練이오繼配는月城孫氏應祚之女니生二男하니鷹燮道燮이요二女는金志鍾任慶宰라鳳燮의嗣子는載休오鷹燮의男載休니出하고載善이오道燮의男은載鑛載鍾이라嗚呼하니公이以端詳之質로襲詩禮之教하야平居率循에鮮有畔於矩度하고日用動作이未嘗見其怠慢하며其事親也에盡孝於終始하고其追遠也에致誠於豐潔하여持身有度하고處族以睦하며文足以需於世하고才足以適於用而屢舉鄉選에輒匍匐而歸하야白首窮廬에竟爲無聞之人則君子所謂有命焉이라爲之何哉오今以挽誄諸篇으로觀之면或曰遺業詩書在오惇風孝友餘하고或曰其宅心也恬淡而絕技求하고其制行也一醞藉而無驕馭이라하고或曰涉世應物에弦韋兼佩하니此皆出於一

時知己之評이라亦足而見公矣<sup>트다</sup>余以管屨之交<sup>로</sup>所居稍間에雖未得源源傾蓋而屢接芝字<sup>하야</sup>於心不忘者久矣<sup>리니</sup>孤胤君鳳燮이持遺事拔涉而來<sup>하야</sup>囑余銘其墓<sup>하니</sup>誼有不忍辭者<sup>—</sup><sup>크세</sup>遂撮其槩而銘之<sup>하느라</sup>銘曰孝由天得이오學須才廣이라歲暮林園에樂我閑放이라安窩五喜<sup>오</sup>榮啓三樂이라歸息於此<sup>하니</sup>無敢躡躅<sup>가</sup>

### 矩庵公墓碣銘

安東 權命燮

公의諱는相夏<sup>오</sup>字는繼舜<sup>이</sup>號는矩庵<sup>이라</sup>姓은申氏<sup>니</sup>其先是出於平山<sup>이니</sup>高麗壯節公崇謙이爲上祖<sup>으</sup>後世에有曰益休<sup>하니</sup>受封鵝洲<sup>하야</sup>遂爲鵝洲人<sup>하나</sup>十一傳而至悔堂先生諱元祿<sup>는</sup>贈戶議<sup>으</sup>是生城隱<sup>하나</sup>解<sup>하니</sup>八歲에本生王考大松公이口呼命書春帖子에不錯一字<sup>하고</sup>十四五에遍讀七書<sup>하고</sup>連四代學問名節이爲儒林矜式<sup>하다</sup>考曰寅協<sup>이</sup>本生考曰命祜<sup>니</sup>生而穎秀<sup>하야</sup>甫受學<sup>에</sup>便領解<sup>하니</sup>是年<sup>에</sup>柳先生<sup>이</sup>歿<sup>하니</sup>公이恨其晚而登門後遠失依仰<sup>하야</sup>復從同門先進<sup>에</sup>多旁及馬史韓歐文<sup>하야</sup>辭理夙就<sup>하고</sup>二十三에摯謁定齋柳先生<sup>하야</sup>爲學半月에親切問難<sup>하야</sup>有日受錄<sup>하니</sup>是年<sup>에</sup>柳先生<sup>이</sup>歿<sup>하니</sup>公이恨其晚而登門後遠失依仰<sup>하야</sup>復從同門先進<sup>에</sup>多所講質<sup>하야</sup>體厥師訓<sup>하고</sup>黜去虛文<sup>하며</sup>由事親達于接人<sup>하고</sup>由家以及鄉黨<sup>하야</sup>罔敢不盡其心故<sup>로</sup>出言而人<sup>이</sup>信<sup>하고</sup>遭拂難而不迷<sup>하나</sup>自少講學<sup>에</sup>樂與士友<sup>로</sup>同方<sup>하야</sup>叢堂里塾<sup>에</sup>彬

彬有興起之效<sup>하고</sup>窮而在下<sup>에</sup>亦不忘世<sup>하나</sup>甲申에爲士林草衣制疏<sup>하야</sup>反覆致貢慮之意<sup>하니</sup>觀察使李鑪永嘗差公爲本邑鄉約長<sup>하고</sup>判書申觀浩<sup>이</sup>推以爲宗中善士則其望實<sup>을</sup>可知也而惜乎其無所遇而終也<sup>로다</sup>公<sup>이</sup>生憲廟己亥<sup>하야</sup>歿于丙午三月二十二日<sup>하니</sup>享年이 六十八<sup>이라</sup>葬所居聞韶治之八智洗朴谷負壬原<sup>하나</sup>配<sup>는</sup>義城金氏南陽洪氏聞韶金氏延安李氏<sup>니</sup>有二男三女<sup>에</sup>男周煥成煥<sup>이</sup>女<sup>는</sup>金繕秉李炳奎吳永煥<sup>이</sup>周煥의男基萬<sup>이</sup>女<sup>는</sup>李元肇<sup>오</sup>成煥의男<sup>은</sup>基瑞基哲基元基活<sup>이라</sup>日에成煥이訪余請有以表其塋<sup>하니</sup>余言何足輕重<sup>이</sup>리<sup>오</sup>顧自有公之自銘<sup>에</sup>依爲之一幾矣哉<sup>라</sup>銘曰來也惟天<sup>이</sup>去也惟天<sup>이</sup>來去任一 天<sup>하니</sup>於乎其達識定見<sup>이</sup>能不迷於死生之大變也<sup>트다</sup>

### 主靜窩公墓碣銘

并序

主靜窩處士鵝洲申公以我前韓國蔑之明年辛亥正月二十九日德化于所居義城八智里第享壽七十前年七月公聞合併之報與同志人士相聚痛哭特書日月江山等字付壁以矢罔僕既以聞響山李公殉死則爲之誅有東魯陷海西山採薇之句亦以衷心所企慕也時又自新政有稱恩金頒給耆老而及於公公嚴拒不受於是自思無所容於域內遂決浮海高舉之計使仲子啓煥相地經營未就而公忽以一夕呻吟旦即溘逝一時聞者莫不異之逮其葬也多以殉國

見之詞句下至舉夫役徒編戶氓庶爭爲之致力而甚或身爲異役者亦從以獻獎蓋素服其爲人故也然而公之志事固未易測斷也公長子世煥据其所見錄爲遺而事傳之家今且六十年世煥氏之嗣孤基德方寓在湖南懼其久而或歸諸泯沒也躬八耋齡遠涉訪余請表銘于墓余聞而贊之不復敢以不文病廢辭公諱萬憲後改相憲字續甫初號慕庵取古人終身慕父母之意而主靜則其晚年進修之扁誠也申氏受貫始自高麗金紫光祿大夫益休胙封鵝洲五傳而允濡官版圖判書謚貞肅其子按廉使祐麗命革遷居望京山親喪致孝感旌閭享祠又三傳而生員錫命始移義城又三傳而訓導元祿游陶山門以孝贈叅議享藏侍書院是號悔堂其孫虎溪適道由上庠除郵丞寢郎南漢難倡義抗疏退築採薇軒以終贈吏曹叅議又四傳而二恆齋正模明陵末登第除郡縣爲黨論所構遷謫卒死是於公爲五世祖而光烈成教冕璧昌協其中間四親也妣永川李魯義女憲宗壬寅公生生而聰明穎悟加之沉潛簡默上學多被長老期待九歲喪所怙家甚寒匱而奉先祀事重堂及偏闈撫育一弟二妹咸盡其道問學之餘兼治紺樵勤儉十年卒能置郭田成家業然後復致力先事旣伸恆齋祖誣冤隨布遺集刻壙碑又上及虎溪祖遺文繕寫校整以待力到弟旣產傾敗分所有以給之死則恤其孤而成就之隣有婚喪皆施補助里有意外之變處置安頓其見於疏節者此類甚多而平日所得於信服者可知其有爲之本也娶義興朴氏泰龍女貞靜有婦德於公承順無違人稱宜家之効三男世煥啓煥紀煥二女爲李玲金溟鎮妻孫男基德基詰基舜基勲皆仲房出而基德嗣伯房基舜後季房在

杰在德伯房之晚出也外孫李鍾根鍾仁金應漢宅漢自餘内外男女多不能具悉公之卒三月初葬八智梨峴山同年八月遷厝于傍邑比安屏山枕西之阡夫人墓別兆郡之安平蟻谷云銘曰

本乎慕孝之爲德主乎靜學之致力我日我月我江我山我戴我處宜其生順而死安也

年 月 日

義城 金 楠 撰

主靜窩墓碣銘并序

主靜處士鵝洲申公께서 우리前韓이滅亡한 다음해辛亥正月二十九일에 居處하시던 義城八智里本第에서 優化하시니享壽하신것이七十이셨다。전해七月에 公께서 合併되었라는 訊道를 들으시고同志人士들과 서로 모여痛哭하시고特히 8月江山▼동굴자리를 냄새 범에 블며 놓아閑饌할 것을 명세하였고、영마루에 燭山季公께서殉死하였다는 말을 들으시고東晉踏海와 西山採薇등의 文句로서 謂하였으나 이 또한 褒美之心으로企慕하던 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대에 王新政으로부터 老者에게 恩金을 頒給하면서 公에게도 미친니公께서 埋葬히 拒否하시고 받지 않으셨다. 이로써 墓내에서 容納될 수 없음을 생각하시고, 드디어 淳海高舉의 뜻을決定하시고 仲子啓煥으로써 입을만한 곳을 찾으라고 하셨으나 이를 成就하지 못하고 公께서忽然히 하복저의呻吟하시다가 아침에 이르러 멀안간 遊去하시니 한때에는 이들이 異常히 죽기 거지 않는 이가 없었고 葬事례가 되어서는殉國하신 절로 보아 吊司에 賦이 나와났으며 妻舉弓과 徒夫들이며 送迎의 沈默사람들까지 다 둑어 험을 炮矣을뿐 아니라 異役이 된 자들까지 또한 따라서 청송하였으니 대개 부디 너희 公의 사금 품위에 친목하였던 배운이다. 그러나 公의 意忘와 事理에는 진실을 쉽게 测斷할 수 없을 것이다.

公의 長子世煥이 그 브대로에 依據하여 遺事를 記敍하여 佛敍경이 이제 純한 六十年이다。世煥氏의 嗣孤基德이 方

今湖南에寓居하였거늘 그 오래되므로 해서涅漠하고 막지 않음까 두려워하여 八耋의 高齡으로 몸소 멀리 나에게 찾아와 墓所에 表銘함 것을 請하는 지와 내 듣고 아름답게 여겨 다시 중을 모르고 病이 있다고 해서 救히 因辭할 수 없었다.

公의 謂는 萬憲이 신데 뒤에 相憲이라 고쳤으며 字는 讀甫이시고 震號는 慕菴이시니 古人の 離을 때까지 父母를 思慕한다는 意味에서 取한 것이고 主靜이란 것은 그 晚年에 進修한 것이다.

申氏가 實籍을 받은 것이 高麗의 金紫光祿大夫 益休께서 鵝洲에 封爵되는데서 비롯하였으며 五代째 내려와 允瀟께서 版圖判書의 벼슬을 지내시고 謐을 貞繡이라 하였고 그 아들 按廉使를 지내신 祐께서는 高麗가 亡한 뒤에 萬頃山에 숨어 계셨으며 親喪을 當하시여 壮威의 所致로서 旅館하고 桐院에 祭享하였으며 또 三代째 生員을 지내신 錫命께서 비로소 義域에 移居하셨고 또 三代째 訓導를 지내신 元祿께서 陶山門에 다녔으며 孝誠으로서 參議의 贈職을 請所에서 遊去하였다가 이봉이 公에게 五世祖가 되신다. 高祖에 光烈、曾祖에 成教、祖에 罷璧、考에 昌協이시다. 시어 藏待書院에 享祀하시니 이분의 號가 懷堂이시고 그의 孫虎溪(號) 道遜께서는 上庫을 거쳐 鄭丞、襄郎의 벼슬을 받으셨으며 南漢의 亂에 義를 提唱하여 抗疏하였고 물려 나와서는 採薇軒을 建築하여 거처하시다가 遊去하신에 李曹奈議에 贈職되었고 또 四代째 二恥齋(號) 正樸께서 明陵末年에 及第하여 郡縣의 守令을 지내시다가 當論에 誣構되어 諱所에서 遊去하였다가 이봉이 公에게 五世祖가 되신다. 高祖에 光烈、曾祖에 成教、祖에 罷璧、考에 昌協이시다. 姦에는 永川李氏魯義의 딸님이시며 憲宗壬寅에 公을 낳으시니 生後로 보리 聰明悟하시고 沉潛簡默하시어 入學한 후에는 長老들의 期待로 바 많았다. 九歲에 父母喪을 遭하고 家勢가 삼회 어려웠으나 祖先의 祭祀를 받들고 重堂과 優厚를 살기며 一弟와 二妹를 摻育하는데 그 道理를 다 理解하며 學問하는 데가에 農業에 헌身 勤儉한지 十年에 마침 内田地를 이룩하고 家業을 成功한 뒤에 다시 祖先의 일에 헌身하여 二恥齋의 誉構된 것과 伸冤한 다음 遺集을 頒布하고 遗壇碑를 세웠으며 또 虎溪祖의 遺不을 精書校整하여 험이 미철 빠를 기다렸다.

아우가 分財 받은 것을 敗散하였음에 所有의 財產을 나누어 주었고 죽은 뒤에는 조카들을 거두어 成就시켰으며 이웃에坡、妻이 잊은 데면 모득 補助해 주었고, 마에 뜻밖에 变故가 있을 때는 安頓하게 处置하여 사이가 면 사돈들에게 가지 이리한 일이 많았으니 平日의 信服을 염은 것이 그 쓸모가 있는데 根本한 것을 가허 알게다. 義興朴氏 泰龍의 따님에게 장가드시니 貞靜賢淑하시어 婦德이 있었고 公에게 承順함에 어감이 없으니 사람들이 좋은 德行의 보람이라고 한다. 銘하여 가로대

慕孝의 德이 되는 데 근본하였고、  
靜學의 翩을 다하는데 主로 했다。  
나의 해 나의 끝이며、  
나의 江 나의 山을.  
이라고 한다. 銘하여 가로대

墓孝의 德이 되는 데 근본하였고、  
靜學의 翩을 다하는데 主로 했다。  
나의 해 나의 끝이며、  
나의 江 나의 山을.  
내가이고 내가 살았으니  
마땅히 그 살아서 휴하고 죽어서

폐할 진저!

〔註解〕 ① 葬碣銘 || 葬에 새겨 넣는 글, 묘장이란 부령 앞에 새우는 동그스름한 작은 돌비. ② 處士 || 벼슬을 아니하고 便安하고 있는 선비

③ 前韓 || 舊韓國. ④ 併化 || 世上을 데리고 올랐다는 높임명. ⑤ 合併 || 侵國이 우리 나라를 합친다. ⑥ 國僕 || 故國의 臣民이 되지

않음. ⑦ 鵝山李公 || 退溪李滉의 後孫인 李晚濟의 號. ⑧ 純死나라를 위하여 自殺함. 純節과 같은데, ⑨ 東魯踏海 || 中國戰國時代

齊나라魯仲連이 차라리 東海外에 뛰어 들어 踏을 저어 경秦나라의 臣民이 되지 않았다」 (寧踏東海而死矣不秦庭)의 引用. ⑩ 西山採薇 || 周의 武王이殷의 爪를 치러 장례伯夷와 叔齊兄弟가 誣하다가 들어가 고사리 박리를 개어 먹다가 죽었음. ⑪ 踏 || 踏을 裹停하여 그 行蹟을 踏으로서 나라는. ⑫ 新政 || 朝鮮總督府. ⑬ 者老 || 者는 六十세, 老는 七十세.

⑭ 浮屠高舉桔盛衰의 世을 떠나 閑寂한 곳에서 지나고 거향. ⑯ 異役 || 意思와 處世 王는 身分과 當을 異하게 하는 자. ⑮ 聰 || 재사통 빙는 아들. 만아들. ⑯ 退修 || 老年을 뜻하고 學業을 調양. ⑰ 扇識 || 加르는 진 縣板에 王靜이 라해 불더 스스로 경제함. ⑲ 謐號 || 공卿・相儒賢通이 죽은 뒤 그 行蹟을稱頤하여 지어 주는 이름周公의 制定에 비롯함. ⑳ 孝感 || 奉行의 德으로서 神人・禽獸・獸等을 感動시킴. ㉑ 旌閭 || 孝子・忠臣・烈女 등을 王정하기 위하여 마을 거리에 旌閭을 세우고 그 안에 事實을 기록한碑, 또는 縣署등에 있음. ㉒ 陶山門 || 退溪李滉의 門下. ㉓ 上庠 || 太學館 || 成均館. ㉔ 南漢鄭 || 李朝仁祖의 丙子胡亂(清의 朝鮮侵攻)으로 인하여 父祖인 南漢山城으로 蒙慶(避難)하였다. ㉕ 琉疏 || 拔起하여 講하고 하려는 것을 反對하는 言을 우리 批辨. ㉖ 明政 || 肯宗의 陵號. ㉗ 重堂 || 祖父母. ㉘ 義城 || 金 榮 摄

## 夢山公行狀

真城 李 中 輓 晚谷

公의諱는敦植이요字는敬安이요夢山은其號也。申氏以平山壯節公崇謙을爲鼻祖하고至十二世孫諱益休하야封鵠洲君始分貫하나其後에有諱祐하니按廉使號退齋。有孝行하야雙竹異感에旋閣享涼水院하고累傳至諱元祿하나號는悔堂이니遊陶山門享藏待院하고孫諱는適道。호는虎溪나丁丙에倡義斥和하야贈吏議享丹邱院하나高祖諱는廷烈이니贈司僕寺正이오。會祖諱는鐸教니贈承旨。祖諱는冕洛이니贈右尹이오考諱는泰協이니同知中樞府事。妣貞夫人은義興朴氏璋發의女니以憲廟戊申四月二十一日에生하나公의姿性이寬厚하고言語簡重하야己自孩提時로不與人爭辯하고朝夕啖噉之外에不入中門하나父母有疾에憂形于色하야侍側唯命하고如遇時果則輒進長者하야藏爲祭需하고其爲學也에恒思奮勵하야不待教督而勤做하니文詞夙就하나又嘗往來於祝庭하야以廣聞見하고兼治舉業에馳名場屋間而累屈不售則乃曰有命焉이라不可力致니曷若從吾所好하나고扁其所居室曰不得已하고又別起一亭而曰碧樓이라하나靜處其中하야惟以書史를自娛하고不知老之將至하니以壬申三月十八日에終于寢하나享年이八十五라葬召文坊霞洞紫山壬坐原하나配는義興朴氏述祖의女니丁卯에卒하고繼配는義城金氏在正의女니先公八年乙丑五月晦日에卒하나育二

男二女에男은寅煥命煥이요女는柳貴榮李世馥이요寅煥의男은基鳳이요命煥의男은基寧이요内外會玄은多不盡錄이라。公의儀貌清秀하야不似染跡於塵世間而內實恭儉하야怠慢之容이不設於身하고鄙背之言이不出於口하며。處事周詳하고接人款厚하야親疎遠近에各適其賅恤하고門戶闊大에第展常盈而一心悃愞하야無間知否하고如對文人高士之有補於談討者則留連晤懷於亭榭山水之間하야積成篇軼하고又嘗留意於追先事業하야退齋城隱虎溪忍齋槃窩遺稿。久在巾衍에廣乞闡幽之文하야次第壽世하고分貫後尚闡譜系하야支宗難別이려니一瓶發修譜之論而底績하고其他壇碑之未遑者를豎之하고儀物之廓然者를新之하고若有閒隙이어든無時不對案開卷而每遇意會處에便欣然忘食하고抄出前輩格言至訓하야書揭座右以爲觀省之資而必使子姪를誦習하고平生에不以作者自居而又不喜蓄儲하야隨得娓娓에揚抱이古今하야常恨川塗脩夏에盍簪이未易하니今又以各天茫茫乎아南望歸雲에自不禁欷歔沾襟이려니迺者에公之孫基鳳君이以叙狀으로請하나蓋追念兩際而不以文取也。吟病之暇에略綴大槩如右하나 ○貞山金東鎮이撰碣銘曰霞山四尺이處士之藏이라處士德嫋하야不埋耿光이라仁善及人하나人傑韶鄉이오詩禮裕后하나后昆令芳이라種積餘慶이永世熾昌이라我撮其大하야垂諸無壇이라

祥原郡守公墓碣銘

公의 헌는 宅均이요 字는 大淵이요 姓은 申氏니 出平山壯節公 헌崇謙하나 其上祖에 有諱益休  
以金紫光祿으로 封鵝洲하야 分貫焉하나 至諱祐는 號退齋하나 至諱元祿은 號悔堂이니 生諱允하나  
號는 城隱이며 贈左承旨하고 生諱悅道하니 文科掌令하니 世所稱懶齋先生이니 是生諱溥하나  
通仕郎이며 號丹崖로 生諱斗錫하고 生諱以濟하고 生諱學標하나 公五世呂上也 이래  
燦이 自義城으로 始移于清河鳴岩하다 會祖諱는 應教요 祖諱는 冕日이요 考諱는 春福이니 都事요  
妣는 恭人密陽朴氏니 孟守의 女로 以憲廟辛丑正月二十日生公하나 自幼聰慧하야 受學에 曉  
解分明하고 及長에 老恢하고 性孝하야 事父母에 能竭其力하려니 遭前後艱에 易戚이 備至하고 與  
兄弟로 友篤하야 分土에 必自薄하고 教子侄에 不掩義하려니 處宗族에 盡其睦하고 以至交人에 忠  
信하여 賢貧에不惜하나 鄉隣이 称式焉이려니 庚寅에 除義禁府都事하고 辛卯에 行龍驤衛副司  
果하고 兼成川鎮營兵馬同僉節制使平壤營將하고 尋拜祥原郡守하니 以病으로 謂還하나 高宗  
乙未六月九日에 考終于寢하니 享年이 五十五라 以大夫禮로 葬于鳴岩長谷山申坐原하나 配는  
淑人金海金氏니 父는 光祿이요 生庚子하나 丙戌六月十九日에 卒하니 墓拊同坐하나 配는 淑人  
學城李氏니 萬鎮의 女라 丁未生하나 壬申四月十二日에 卒하니 墓는 鳴岩西岳嶺壬坐하라 生九

男四女하니 昶煥 啟煥 焕台煥 煥釋煥 周煥慶煥 正煥明煥 煥道煥 李承會朴東浩朴炳翰李龍久  
昶 煥의 男은 基煥이요 啟煥의 男은 基壽基富基貴基潤基日基文이요 女는 孫晋厚吳桓이요 台의 男은  
基弘이요 基燁은 出하고 女는 朴斗徹李學雨姜浩遠이요 釋의 男은 基俊이요 女는 黃在演金守鎮  
朴鳳傳이요 周의 男은 基善基達이요 女는 李漢久秋錫燁崔元壽孫永哲裴鎮鎬徐鍾洙慶의 男은  
基確基運基烈基彥基祚基中이요 女는 卍先出金濟洛曹鎮國沈相洙이요 正의 男은 基太基永基  
海基龍基鎬이요 女는 裴仁述金成昊裴達鳳이요 明의 男은 基洛基澤基河基奉이요 女는 李東晉  
李基雨이요 道의 男은 基東이요 女는 金好洙李鍾守琴宗憲羅采澤이려니 李承會의 男은 廣林이요  
朴東浩의 男은 順祚이요 朴炳翰의 男은 圭錫南錫英錫이요 李龍久의 男은 錫起錫允이요 餘는 幼라  
撰이요 际余日此文字 1浩多하야 難容片石이라 幸略採以惠하나 顧此洫無文이 亦豈刪人備  
凡內外會玄이 百餘니 可驗公의 積累之德也 1려니 公之胤周煥道煥이 以金斯文膺河의 所  
述가辭之固나 終不獲이라 乃強按隱括하고 銘曰 凡得一爵而爲榮身猶患其失或積宜蔭而爲  
遺後以俟其發하나 乃武乃文하야 資階并躋는 公之榮이備之요 多子多孫하고 區宅昧連은 公  
之蔭이 厚矣로니 詩云孝子不匱라 永錫爾類라 又하고 云無念爾祖아 車修厥德이라하니 宜其來  
系는 勿替是易이어다

丙戌十月日(檀紀四二七九年) 成均進士 鶴林金太燮 撰書

## 嘿隱公事實

公의 謂는 尚炫 이자 應三 이니 自足齋 謂鳳錫의 八世孫也。以上世系는 備載譜冊하니 今不必申複而公이 端方其狀貌을 貞固其品行이라 孝於親友子弟此其天性也。言不妄行不錯是爲一生家計。且不喜著述에 隨所得而遂棄하고 只以嘿隱二字를 簡其所居室하야 拈韵하니 一時名碩이 多和之者하니 去庚寅變亂에 畏入兵燹하니 可勝歎哉。

## 學圃申公墓碣銘

并序

歲甲子秋申君基熟訪余葛馬精舍寒暄畢曰有謁也出示其先大人學圃公遺事曰先人有志行而不幸不得施蘊不肯懼遂泯沒嘗於舊址立石爲表而墓尚無碑今來請予幸無辭君俊士也少知名士友間自嶺移湖在嶺也嶺之人稱道曰申氏有子其移湖也湖之人亦相語曰吾黨有人余居近熟且久顧朋友之義不可以不任終辭公諱啓煥字敬禹號學圃鵝洲人系出高麗鵝洲君諱益休自後爲貫有子諱英美權知戶長檢校太子太師四傳而諱允濬版圖判書謚貞肅生諱祐號退齋官按廉使麗衰隱望京山以孝聞 旌閭載三綱行實錄享凍水書院入朝鮮朝有諱元祿師事慎齋退溪兩先生以孝 旌閭 贈戶曹叅議享藏待書院生諱允亦以孝

矣公生以 高宗辛未六月二十四日卒于 韓亡後甲申七月二十三日壽七十四葬于茂朱  
 郡雪川面三公里堂谷七峯山六十番地下庚原(異坐<sub>로</sub>誤刻)配義城金氏父春植先公卒墓在  
 義城郡金城面勝芳洞案山百二十九番地酉坐原生四男三女長基德出嗣伯父次基喆次  
 基舜出爲季父后季即基勲歷官慶山清道安東郡守忠南北全北管財局長民選大田市長女  
 鄭國鎮李準燮(碑石에<sub>는</sub>後<sub>로</sub>誤刻)金泳斗基喆三男三女永鎮大鎮喜鎮女安晋鎬鄭昇和張世纘鄭  
 婦陸軍大將也基勲以喜鎮爲嗣以下繁不盡錄銘曰  
 維公挺峙承襲庭訓內而孝友外而聲聞菊史松坡是伯是季俱名學問鄉黨莫比生丁不辰國  
 非其國莫試其蘊歸勤稼穡或嘯或詠山月隴雲出處行藏公亦有云奉先之篤大小備盡啓迪  
 後人於斯無憫有子四鳳毛羽燦明猗歟季君人曰善鳴七峯之下有崇四尺我銘非侈過者踧  
 跖

### 光復後初甲子仲冬上澣

河濱李聖道撰

#### 學園公墓碣銘

甲子(一九八四)年 가을申君基勲이 나를 萬馬精舍로 찾아와 인사하고 보러 왔다면서 그의 先考學園公의 遺事를  
 내보이면서 말하기를 先人志行이 있었으나不幸하게도 抱負를 베풀지 못한지라 不肖가 드디어 混沒할까 두려워 일찍  
 이 엣 려에 풀을 세워 表하였으나 墓에는 아직 碑가 없기에 이제 자네에게 請하노니 사양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더라

君은 俊士라 절여서 士友間에 이름이 알려졌다. 嶺南에서 湖西로 옮겼는데 嶺南에 있을 때는 嶺南 사람들이 말하기  
 를 中氏는 華東한 아들이 있다고 했고 그가 湖西로 옮겨서는 湖西 사람들이 또한 서로 말하기를 유타 사이에 사람  
 있다고稱道하다 내가 가까이 살고 또 親熟함이 오래라朋友의 義를 돌아다 보면 즐을 써 주지 않을 수 없구나. 公  
 의 謂는 啓煥이요, 字는 敬禹요, 號는 學園이신데 鵝洲人으로서 系代가 高麗때 鵝洲君 謂益休로서 이로 부터 費을  
 했다. 아들이 있으니 謂는 英美로서 벼슬이 檢校太子太師요 四代를 遞하여 謂允淵는 版圖判書로서 謂는 貞  
 肅이시다. 아들의 謂는 祐요, 號는 退齋이신데 벼슬이 按廉使로서 高麗가 亡할 드렵 望京山에 숨으셨다. 孝로서 나와  
 에서 旌閣를 내리고 三綱行實錄에 실렸는데 漢水書院에 尊享을 받으시었다.

朝鮮朝에 들어와 謂元祿은 周慎齋 李退溪兩先生을 스승으로 삼기고 孝로서 旌閣를 내리고 戶曹叅議의 贈職을 받고  
 藏侍書院에 尊享을 받으며 아들 謂允은 壯士 左承旨의 贈職을 받았으며 慎齋와 退溪兩先生의 辨誣疏를 나라에 옮겼으  
 며 아들 謂道는 跡가 虎溪이신데 丁卯丙子胡亂에 儒義하였다. 講하고 하게 되자 痛哭하면서 玉山에 들어가 採薇斬辱  
 짓고 聲을 올다가 世上을 마치셨다. 그 후 道학과 忠節로서 吏曹叅議의 贈職을 받으셨다. 그 아들 謂採는 進士로서  
 號는 忍齋이신데 六行으로 贈職되시어 父子 虞介丹邱書院에 친우되셨다. 三代 위에 謂正模는 號는 二恆齋요, 通訓大  
 夫 居昌都護府使로서 鄭布亮亂때 黨人들의 搆陷에 걸려 마침내 忠原滿所에서 돌아가셨다. 그 뒤 壹百餘年만인 高宗  
 甲子에 伸冤이 되면서 復職되셨다. 素行錄 三卷이 있어 世上에傳하니 이본이 바로 公의 六代祖이시다. 曾祖의 謂는  
 罷璧이요, 號는 晚學齋요, 祖의 謂昌協이요, 孝의 謂는 相憲이며 號는 主靜齋이신데 學文과 行實로서 이들이 있고  
 集二卷이 있다. 姉는 義興朴氏 泰龍의 女님이시다. 公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公에게 와서 아뢰고  
 이 없었으며 경을 떠나지 않았으며 나가서 스승에게 경을 배우는 데 勉勵를 받지 않았다. 兄弟三人 중에 公이 그 둘째인  
 데 같이 한 冊床에서 즐겨 工夫했더라. 公은 風儀가 빼어났으며 性稟이 寬厚하고 正大하며 사람들이 公을 對하면仁  
 人長者라고 아니하는 이가 없더라. 鄭中에 큰 일이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公에게 와서 아뢰고  
 鄭校나 書院 곳곳에서 반드시 公을 賞譽하여 首任으로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우리들의 多幸이요 賞光이라 하였다.  
 일찌기 살고 있는 곳의 城洞池를 監督하시니 못물을 데는 地域이 넓어 가뭄이 들면 물대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이 쉬  
 지 않는 지라 公에게 이것을 委任하여 주시라고 하였었다. 그리하여 公께서 못사를 놓고 달래기도 하고

制止도 하니 처음에는 좋지 않았던 사람도 마침내는 모두 그公平無私함에 服從하였다. 또 다시 마을사람들과  
相議하여 「법은 물」에 물(池)을 만들어 分水하는 城洞池와 같이 하니 汽土가 되고 豊年이 연한지라 지금까지도 그  
덕을 称頌함이 끊어지지 않는다. 農事에 힘써서 田畝를 다스리니 사람들의 말이 어제 저와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니 公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선비로서 벼슬을 못하면 農事를 하는 것은 옛 사람도 모두 그랬는이라 하다. 조금 생  
活形便이 좋아지니 말씀하기를 이제야 나의 일을 하겠다. 恨스러웠던 것은 일찍부터 爲先事業을 圖謀하지 못한 것이  
다이에 先父祖의 墓를修理하고 못마련한 位土와 石物을 갖추고 斋舍를 지으니 族人들도 劍해 같이 따라했다. 二  
恵齋遺墟碑를 세우며 季公이 따라 碑閣을 짓고 採薇軒을 丹邱로 옮겼는데 이 軒은 元來 玉山 「미곡」에 있었던 것을  
再建하니 일은 크고 功이 뛰어났다. 그런데도 둘보고 鼓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晚年에 편안히 伯季兩公과 자리  
를 휴止에 같이 하니 脩한 흰머리라 목을 울 맞대고 소매를 스쳐면서 춤거울 말로 지내시고 래로는 출장을 친하면서  
詩를 짓기도 하셨으니 그 좋거울이 陶陶한지라 보는 이들이 말하기를 예전에 이르는 바 伯氏는 혼을 불고 仲氏는 지를 복  
는 것이 바로 이천 것이 아닌가 하더라. 벗이 오는 이가 하루도 끊임이 없었으니 近郡 사람까지도至今도록 서로傳하  
기를 손님을 잘 대접하는 데는 中學園집 같으이가 없었다고 한다.

世上을 떠나실 때에 子姪들에게 말하기를 내몸을 쟁고 내 머리를 감기고 내 옷을 젖여 입혀라 내가 장차 世上을 떠  
나았을 때에 子姪들에게 말하기를 조금 소리로 늦죽어 진다라고 하면서 訓戒말씀이 평생 같더니果然 그  
나였더라. 그 날이 저물자 말씀하기를 조금 소리로 늦죽어 진다라고 하면서 訓戒말씀이 평생 같더니果然 그  
나였다.

若干編의 遺稿가 있었더니 六·二五動亂에 繞어버렸다. 출포구나 公과 같은이는 身이 修해지고 家가 齋해졌으며  
德이 많아서 사람들이 服從했으니 말하자면 爾實한君子로라. 公은 高宗辛未年(一八七一)에 나셨고 나라를 빼앗긴  
甲申年(一九四四)七月二十三일에 世上을 떠나시니 寿는 七十四이셨다. 茂朱郡雪川面 三公里 「당풀」 七峰山下山六〇  
番地 废坐(墓前碑石에 異坐로 訳刻)에 장사라다. 配는 義城金氏春植의 아님인데 公보다 먼저 추하였다. 墓는 義城郡金城  
面勝芳洞 앞에 一二九番地 西坐이다. 四男 三女를 낳았으니 長男은 基德인데 伯父에 出系하고 다음이 基誥이요, 다음은  
基舜인데 季父에 出系하고 막내는 基勲으로서 벼슬이 慶山 清道安東郡 守、忠南·忠北·全北管財局長과 民選 大田市  
長이었다. 女는 鄭國鎮 李準燮(碑石에는 俊燮으로 訳刻) 金泳斗다. 基誥은 三男 三女를 두었는데 永鎮 大鎮 喜鎮이요, 女  
나의 銘이 誇張이 아니니 지나는 사람은 공정 할 지었다.

는 安晋錫鄭昇和 張世續인데 鄭婿는 陸軍大將이었다. 基勲은 喜鎮으로 뒤틀이었다.以下の 범례로와 모두 記錄하  
지 못한다. 銘하여 말한다

公께서는挺秀하고 健戒를 이어 받으시니 안으로는 孝와 友며 밖으로는 菩薩가 藉藉하였다. 薦史公과 松坡公은 이  
兄이며 이 아우이다 함께 學問이 높으시니 嫡黨에서 전들이 이가 없더라 데 아닌 대를 만나니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라  
抱負를 평생 가 없어서 돌아와 農事나 지었다 或 豢과 봉或 을으니 山間に 달과 隰上에 그름의 너라 出處의 行藏의 可  
와否는 公 또한 말씀하였다. 爲先事에 專力하니 大小일이 다 갖족었다 後人의 模範이 되니 그야말로 걱정이 없드다  
四兄弟鳳을 들키니 모두가 燦爛하다 종종시고 꼳에 아들을 사람들이 人物이라 하다 七峯山 아래에 四尺높이 무덤으로

行  
列  
圖

(한열도)

希敬—穆—始貞—義甫—朝星—應珍—弘秀—之光—汝恭  
禦侮公—五行(金生水、水生木、木生火、火生土、土生金)順逆  
火生土、土生金順逆，依許由定卦，發音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曉 禦侮公派(安平面馬轉)

三十世	遠重致均	二十四世	炳炫煥
三十六世	鎣銓鉉鉉	二十世	載基
三十七世	淳潤澤泰	三十一世	書在
三十八世	○○○○來杓柱極	三十二世	浩澈海求
三十九世	休燁容性	三十三世	穆述樂榮
四十世	○○○○義坤時達	三十四世	熙輝勲應
四十一世	鑄鑽鍵鋌	三十五世	培壠準善

作名上의

注意

一、先祖의 諱나 跡과同一한 名字, 作號等으로 委發되는 일이  
二、必し 行列字를 使用하여 世代等 分別할 수 있도록 留意할 것  
三、先後代의 行列字를 同時使用하면 世數가 行列에 混同할 것  
주의할 것

能吉	始祖 申崇謙	初諱能山號野叟謙	壯節其先金羅道谷	三十六世	○○○○鎣銓鉉鉉
官元尹	一諱甫官元尹	城人也仕高麗太祖爲開國元勳大將軍	三十七世	淳潤澤泰	
銘有實記	見東國通鑑	○後唐明宗天成二年丁亥從太祖征頭董桐藝之戰爲王代死今大邱市追封壁上虎騎衛太師開國公三重大匡穀景翊戴匡衛治輔砥節底定功臣禮葬於江原春川昭陽江悲芳洞爲三墳世傳疑塚云像事蹟載史本傳李朝受命仍配享廟宇山城太師祠奉安鐵及行狀左贊成公孫舜孝記遺事左公金祖淳撰神道碑文	三十八世	○○○○來杓柱極	
浩	弘尚	官三韓壁上功臣兵部尚書開國公聖帝子文憲公崔沖門人奏請立筭子殿祀蒙允	三十九世	休燁容性	
金浩	金浩	號紹源堂官判門下省事元尹謐文元隨考尚書公居中學當有詩一首零宗四年奏請立養賢庫	四十世	○○○○義坤時達	
學金浩	弘尚	號宜隱官積慶室副使太子太保兼寶文閣大提學竟棄官歸隱文正	四十一世	鑄鑽鍵鋌	
鵝洲申氏悔堂公派世譜	申崇謙	右官承旨同正近侍左見二	三十世	遠重致均	
乾卷(上系)	申崇謙		三十一世	鎣銓鉉鉉	
	申崇謙		三十二世	浩澈海求	
	申崇謙		三十三世	穆述樂榮	
	申崇謙		三十四世	熙輝勲應	
	申崇謙		三十五世	培壠準善	
	申崇謙		三十六世	遠重致均	
	申崇謙		三十七世	淳潤澤泰	
	申崇謙		三十八世	○○○○來杓柱極	
	申崇謙		三十九世	休燁容性	
	申崇謙		四十世	○○○○義坤時達	
	申崇謙		四十一世	鑄鑽鍵鋌	

**命夫** 明昇  
官錄事直長同正早  
棄仕隱德以究經明  
術自喜

**應時** 音時  
官典書以文章明經  
入使中國有術本國  
之勲賜銜國功臣  
謚敬德

**令材** 音裁  
官都官大直朝令創  
國寺上疏切諫因忤  
旨棄官不仕

**楠** 音  
官兵部郎中致仕屢  
微終不赴以直針鈞  
灘遠日因自號消處  
子時人云非無獵車  
難善養老臣屈非師  
禮嚴陵老灘時非還  
值玄直不須歸

**淑** 音  
字義景號東峰  
官朝奉郎兼寶文閣  
大提學屢薦禹易東  
南治平棄仕歸老田  
里謚文亨  
○按南陽洪氏譜及  
華海師全載錄

**行** 音  
字而源號水月軒  
官禮部尚書兼左僕  
衣冠領袖懿宗十四  
年庚辰七月癸未卒  
事蹟載麗史及本傳  
○謹補有二子一曰  
行二曰淑而謹衍有  
子仲明諱淑有二子  
曰益保益休然則舊  
譜之傳疑於斯確辨  
而左僕射公非朝奉  
郎公之下乃朝奉郎  
公之弟也○本註載  
平山譜

**益保** 官右僕射或云同正  
(平山派)  
鵝洲君

**益休** 익 흐  
官右僕射或云同正  
見三

官錄事直長同正早 棄仕隱德以究經明 術自喜	官典書以文章明經 入使中國有術本國 之勲賜銜國功臣 謚敬德	官都官大直朝令創 國寺上疏切諫因忤 旨棄官不仕	官兵部郎中致仕屢 微終不赴以直針鈞 灘遠日因自號消處 子時人云非無獵車 難善養老臣屈非師 禮嚴陵老灘時非還 值玄直不須歸	字義景號東峰 官朝奉郎兼寶文閣 大提學屢薦禹易東 南治平棄仕歸老田 里謚文亨 ○按南陽洪氏譜及 華海師全載錄
官錄事直長同正早 棄仕隱德以究經明 術自喜	官典書以文章明經 入使中國有術本國 之勲賜銜國功臣 謚敬德	官都官大直朝令創 國寺上疏切諫因忤 旨棄官不仕	官兵部郎中致仕屢 微終不赴以直針鈞 灘遠日因自號消處 子時人云非無獵車 難善養老臣屈非師 禮嚴陵老灘時非還 值玄直不須歸	字義景號東峰 官朝奉郎兼寶文閣 大提學屢薦禹易東 南治平棄仕歸老田 里謚文亨 ○按南陽洪氏譜及 華海師全載錄
官錄事直長同正早 棄仕隱德以究經明 術自喜	官典書以文章明經 入使中國有術本國 之勲賜銜國功臣 謚敬德	官都官大直朝令創 國寺上疏切諫因忤 旨棄官不仕	官兵部郎中致仕屢 微終不赴以直針鈞 灘遠日因自號消處 子時人云非無獵車 難善養老臣屈非師 禮嚴陵老灘時非還 值玄直不須歸	字義景號東峰 官朝奉郎兼寶文閣 大提學屢薦禹易東 南治平棄仕歸老田 里謚文亨 ○按南陽洪氏譜及 華海師全載錄
官錄事直長同正早 棄仕隱德以究經明 術自喜	官典書以文章明經 入使中國有術本國 之勲賜銜國功臣 謚敬德	官都官大直朝令創 國寺上疏切諫因忤 旨棄官不仕	官兵部郎中致仕屢 微終不赴以直針鈞 灘遠日因自號消處 子時人云非無獵車 難善養老臣屈非師 禮嚴陵老灘時非還 值玄直不須歸	字義景號東峰 官朝奉郎兼寶文閣 大提學屢薦禹易東 南治平棄仕歸老田 里謚文亨 ○按南陽洪氏譜及 華海師全載錄
官錄事直長同正早 棄仕隱德以究經明 術自喜	官典書以文章明經 入使中國有術本國 之勲賜銜國功臣 謚敬德	官都官大直朝令創 國寺上疏切諫因忤 旨棄官不仕	官兵部郎中致仕屢 微終不赴以直針鈞 灘遠日因自號消處 子時人云非無獵車 難善養老臣屈非師 禮嚴陵老灘時非還 值玄直不須歸	字義景號東峰 官朝奉郎兼寶文閣 大提學屢薦禹易東 南治平棄仕歸老田 里謚文亨 ○按南陽洪氏譜及 華海師全載錄

<b>鵝洲申氏悔堂公派世譜(上系)</b>	
<b>申益休</b> 明昇 官錄事直長同正早 棄仕隱德以究經明 術自喜	<b>子英美</b> 音叫 官權知戶長檢校太 子大師
官金紫光祿大夫門 下侍郎以軍功封鵝 洲君子孫仍以爲貫 墓開城府三岐里 配慶州金氏合祔失傳	官權知戶長檢校太 子大師
竹山朴育章○墓失 傳	典法判書育權祖保 勝將軍奇鳳曾祖典 客令同正元光外祖
金海金珣 政丞沔城府院君 子具榮檢典理判書 按其氏譜配鵝洲 申氏父都染置令晉 升祖太子太師英美 會祖門下侍中鵝洲 君益休外祖平章事	配密陽郡夫人朴氏父 基現義城郡丹密面 清慎洞午坐
金海金珣 政丞沔城府院君 子具榮檢典理判書 按其氏譜配鵝洲 申氏父都染置令晉 升祖太子太師英美 會祖門下侍中鵝洲 君益休外祖平章事	配金海金氏父平章事 珣祖金寧若時興會 祖主簿同正鳳楨 墓合祔失傳
金海金珣 正配蔚州朴氏父彩	官散員同正
女城具藝 初諱留安 官令同正	官散員同正
子得安	子得昌 音昌 圭
女城具藝 正配蔚州朴氏父彩	官散員同正
官令同正	官散員同正
子守	子允濡 音濡 圭
官令同正	本諱元濬避忠宣王 諱改泰翊大夫版圖 校事麗朝以清名直 節比之唐升謚貞肅
子弘	子祐 音祐 見四
官令同正	女吉再海平人號治 隱謚忠節
子勉	官中郎將 女吉再海平人號治 隱謚忠節
官令同正	官中郎將 女吉再海平人號治 隱謚忠節
子仁甫恭愍王庚子 文科掌令與鄭圃隱 同榜无后	官中郎將 女吉再海平人號治 隱謚忠節



六世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 十一世

## 十二世

## 十三世

## 十四世

## 十五世

## 十六世

## 十七世

## 十八世

## 十九世

## 二十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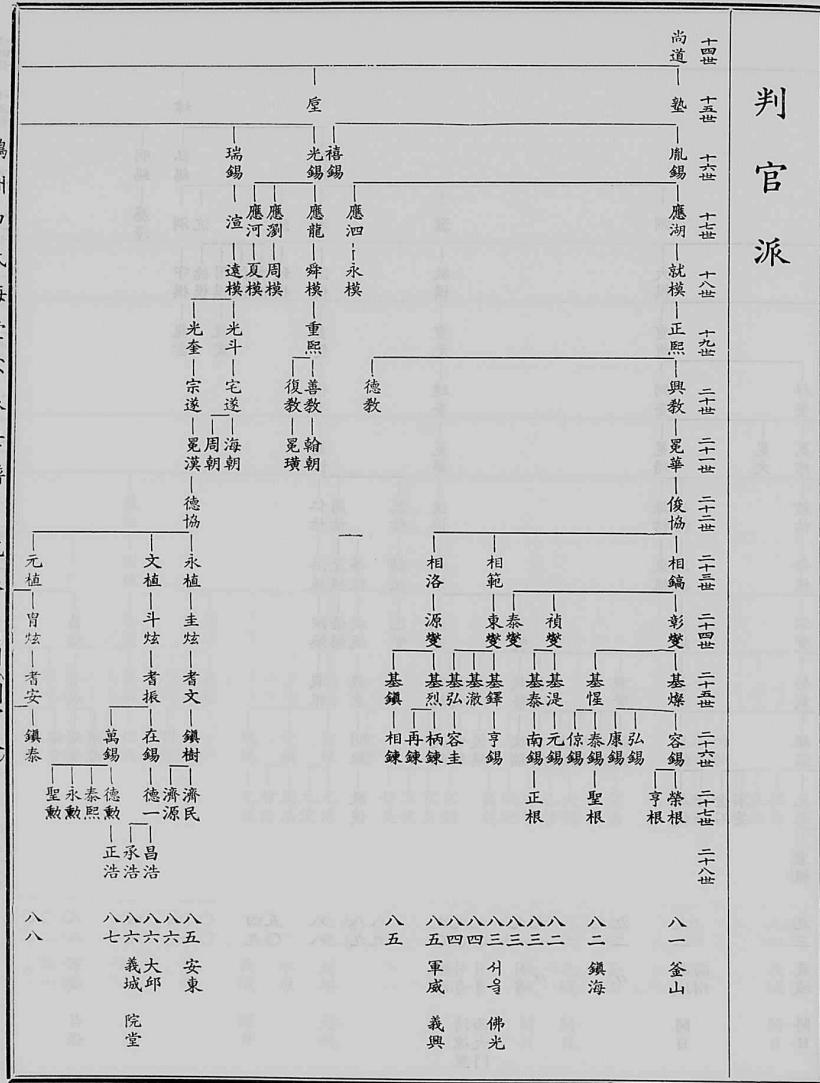
子希忠 河東縣監  
子希敬 禮海將軍  
女信康居義 文善山金誠美  
文東鄭龜齡

子穆 配星山李氏  
子良 習讀  
子坤 禮海將軍司果

子始貞 配宜寧王氏  
子始榮 宇晦根 司果集賢  
子錫周 教授

子義甫 同講及崔訥齋著述  
子己孫 宇復元 倩讀官  
子命周 朝散大夫扶餘龍宮  
子善甫 配令人達城徐氏

壽 见四		子元福		子心		子倜儻		子弘道		子欽道		子尚道		子泳道		子志道		子敏道		子師道		華谷派	
俊 禎 命	字子期	字仲綏	號靜隱	以孝友至行薦除將	中宗丙子生	行教援問	道於退溪慎齋之門	人其心如玉天將玉	汝申其祿矣以至孝	篤學贈通政大夫	戶曹叅議旌表門	開載續三綱行實享	藏待書院有文集	宣祖丙子四月八日卒	享年六十一	墓先考墮下山四八一一	異坐有碣床石	贈淑夫人星山李	配氏父秉節校尉智源	祖贈左通禮永川	李宗林丙子生癸巳	三月十八日卒	
成宗辛丑生燕山朝除	慶基殿參奉不就	仕郎獻陵參奉著孝	亦不赴社門求志遺	命勿書官印	中宗癸巳卒年五十三	墓義邑上八智村	後圓峰下山四八一	一異坐有碣床石慎	齋周世鵬撰墓誌	配義興朴氏父主簿自	儉祖郡守惟昌癸卯	生乙亥卒享年九十	墓合祔	光海乙卯九月二十九	日卒享年六十九	墓義城邑仙岩春谷	達撰墓誌	贈淑夫星山李	配之父正言	贈左通禮永川	李宗林丙子生癸巳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見乾卷		



十一世十二世十三世

十四七

102

配宜人牙山蔣氏父司  
猛壽祖司果嗣宗典  
書成發后辛亥生辛  
酉七月二十七日卒  
享年七十一 墓合  
祔

子道

虎溪派

見坤  
一卷

六

字懼之 號城隱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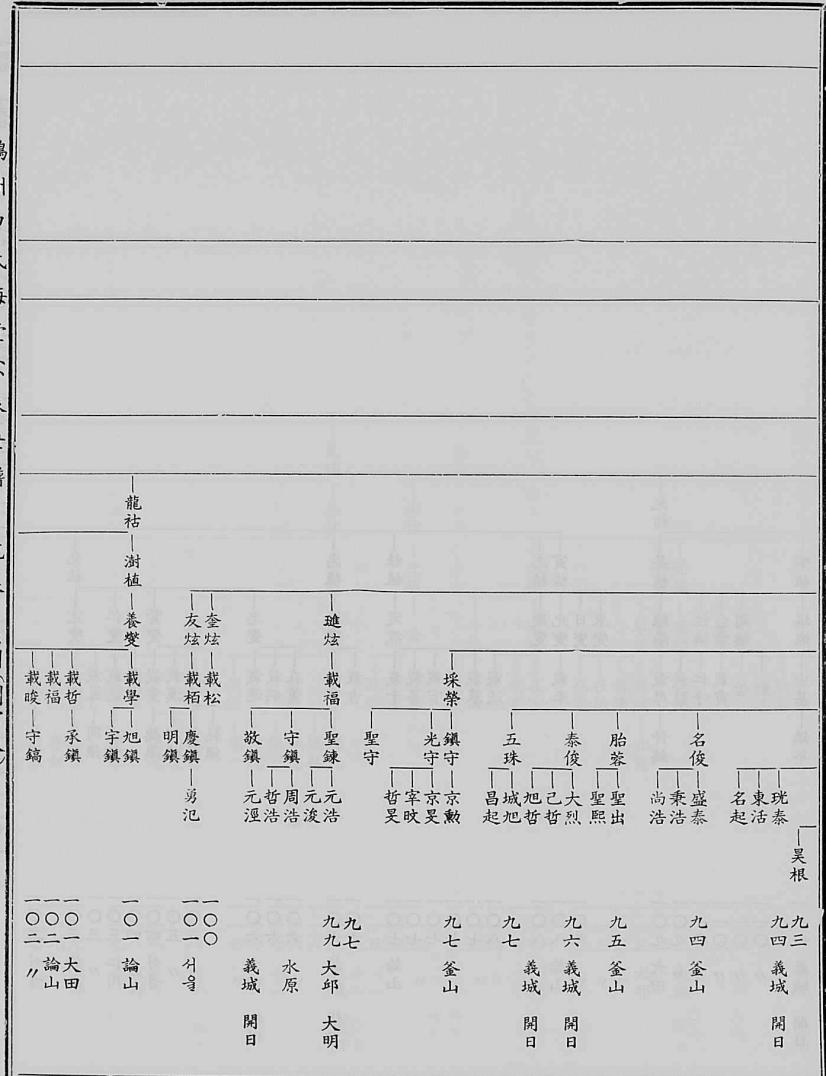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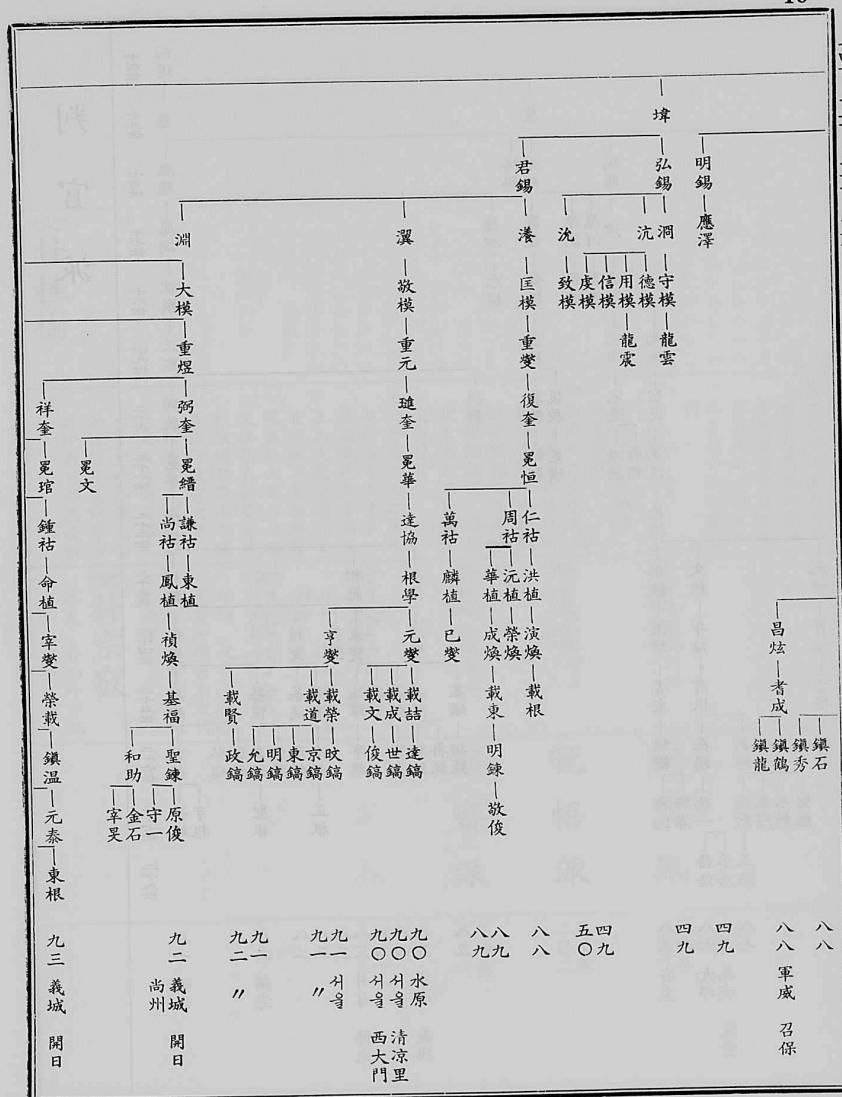
女  
木  
桂  
樹

配  
氏父展力副尉倫和  
余奉季卿同年四月  
洪濬同年生同月四  
月十六日卒墓合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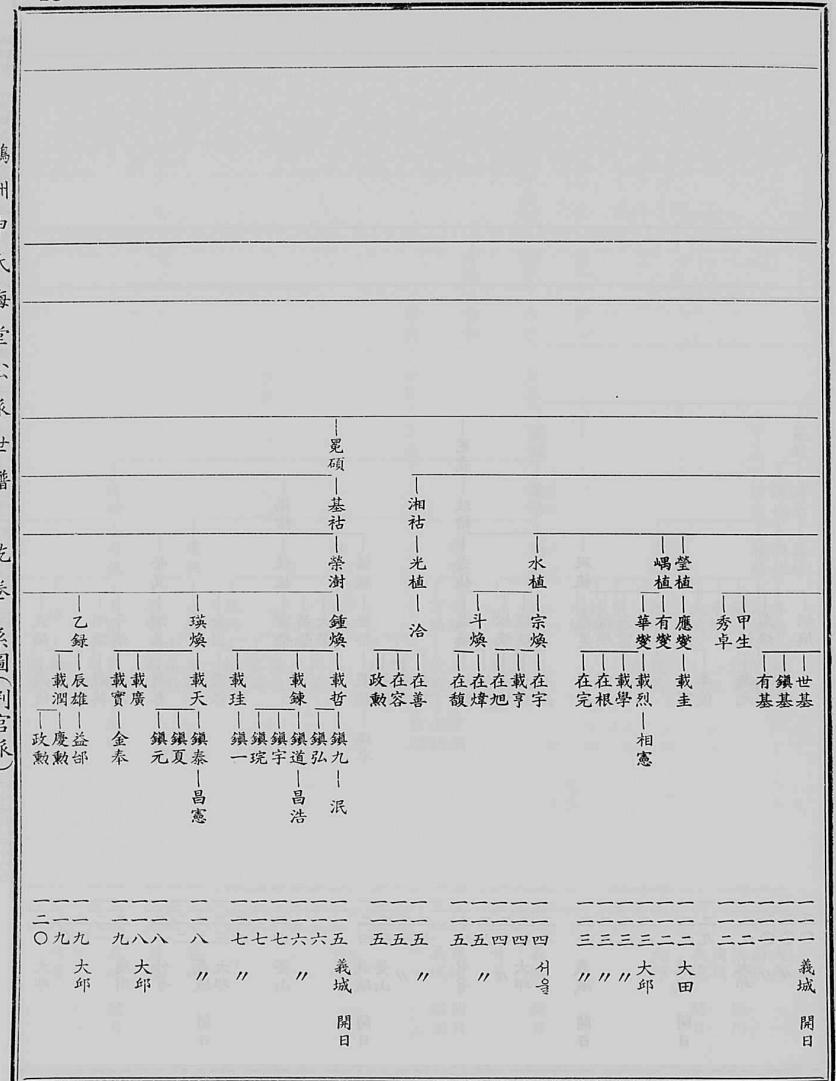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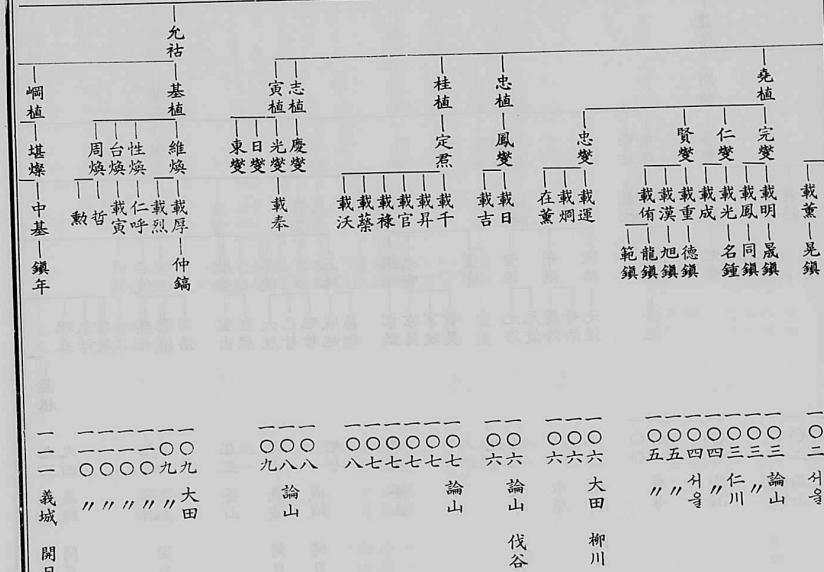
子達道 (달도) 적도  
子適道 (달도)  
子悅道 (영도)  
女善金有曄 (여선김유선)  
女川任乃重 (여천임노중)  
女豈 (여경)  
女朴宗敬 (여박종경)  
女朴翊宋世達崔守約 (여박익송세달최수약)  
女朴翊宋世達崔守約  
序一 父九淵籠岩  
序四 武科主簿子  
景尹世準世憲文博  
士世維世章疏慕醒  
堂世鎮

虎溪派 晚悟派 懶齋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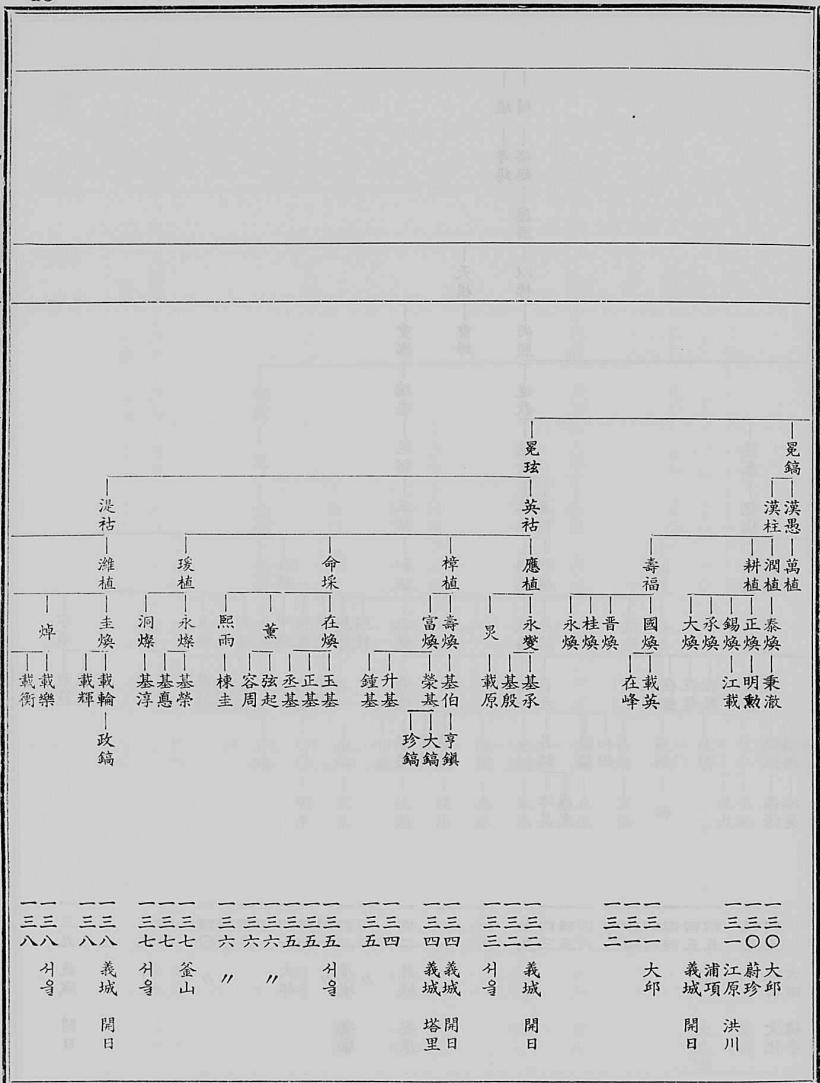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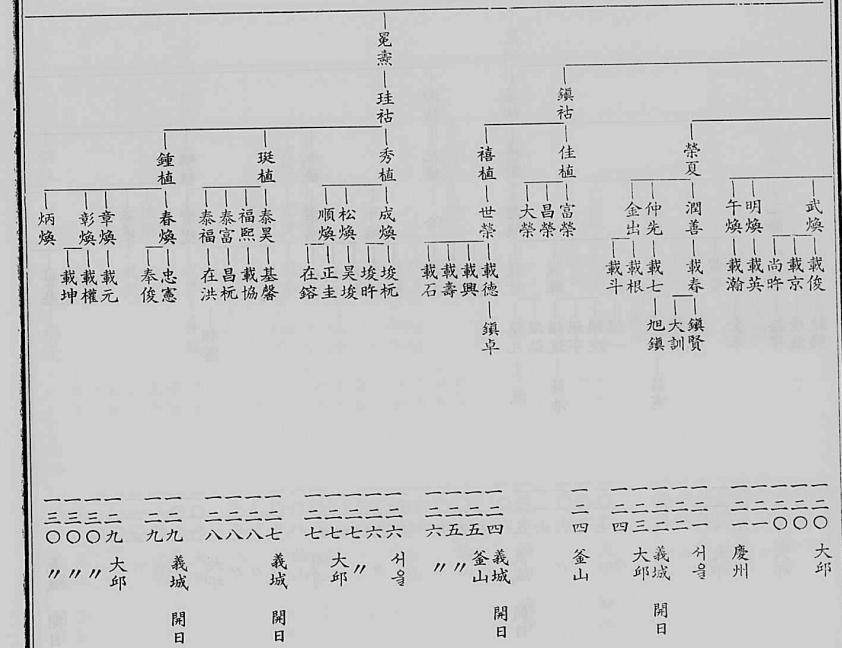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二十七世 二十八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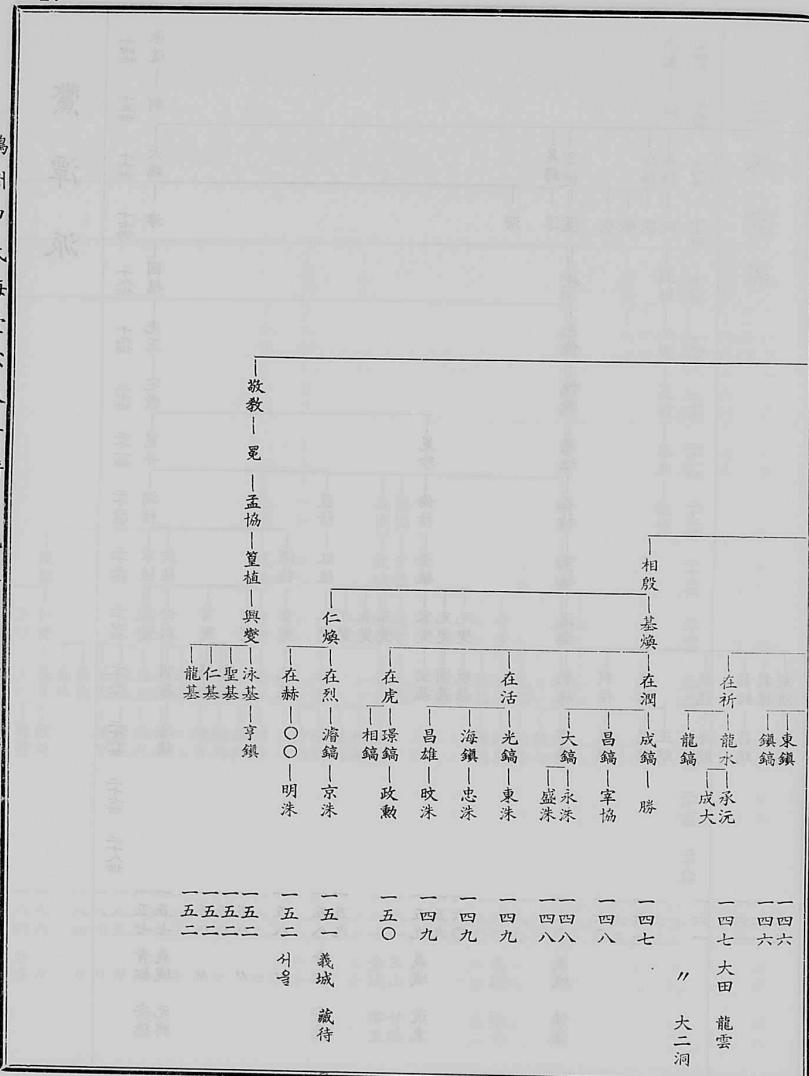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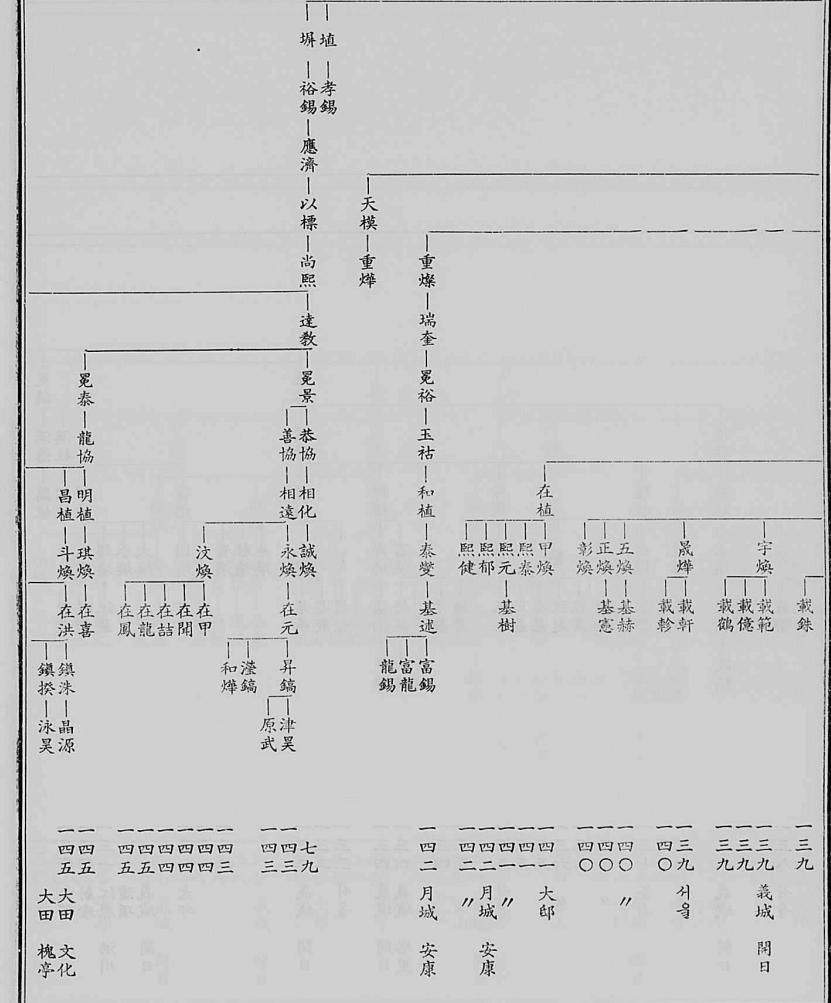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二十七世 二十八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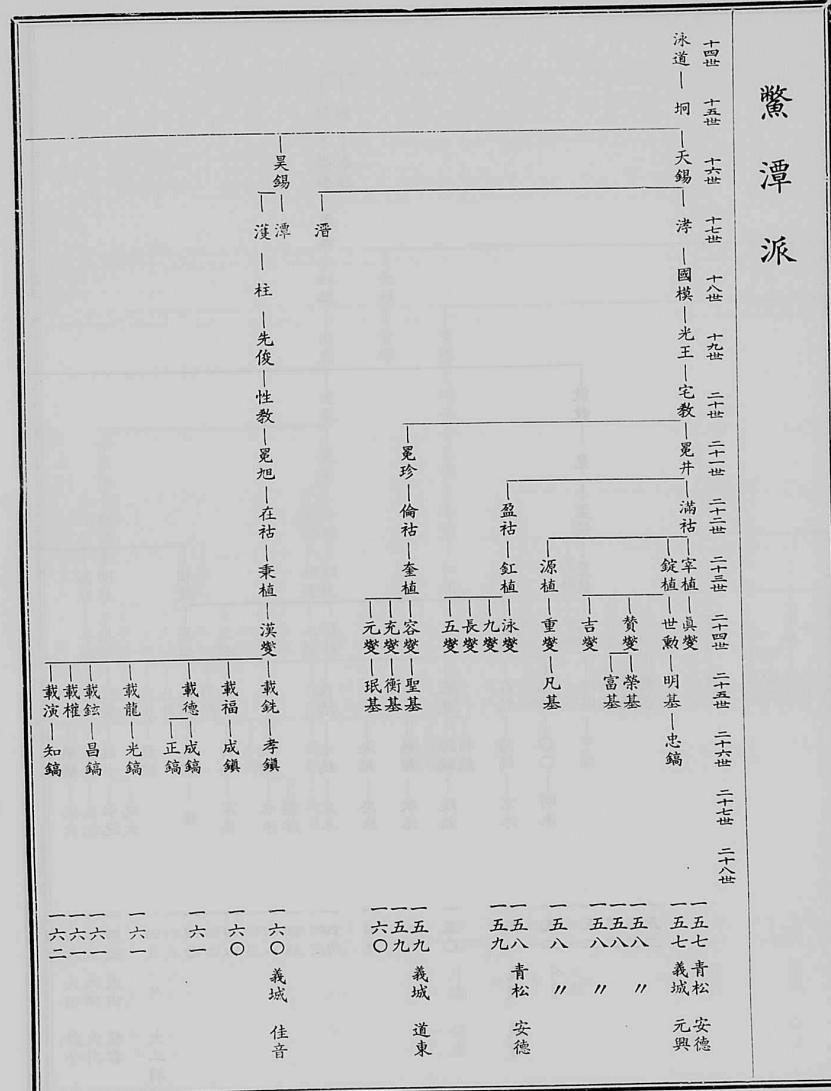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二十七世 二十八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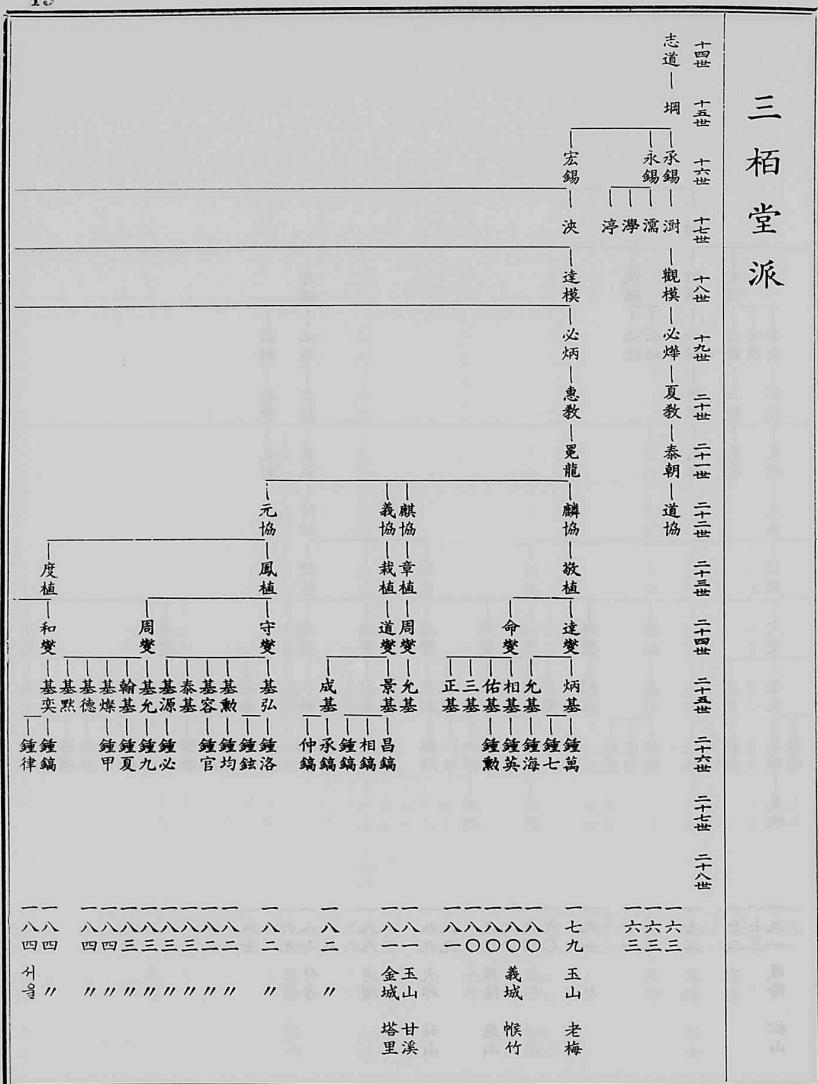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二十七世 二十八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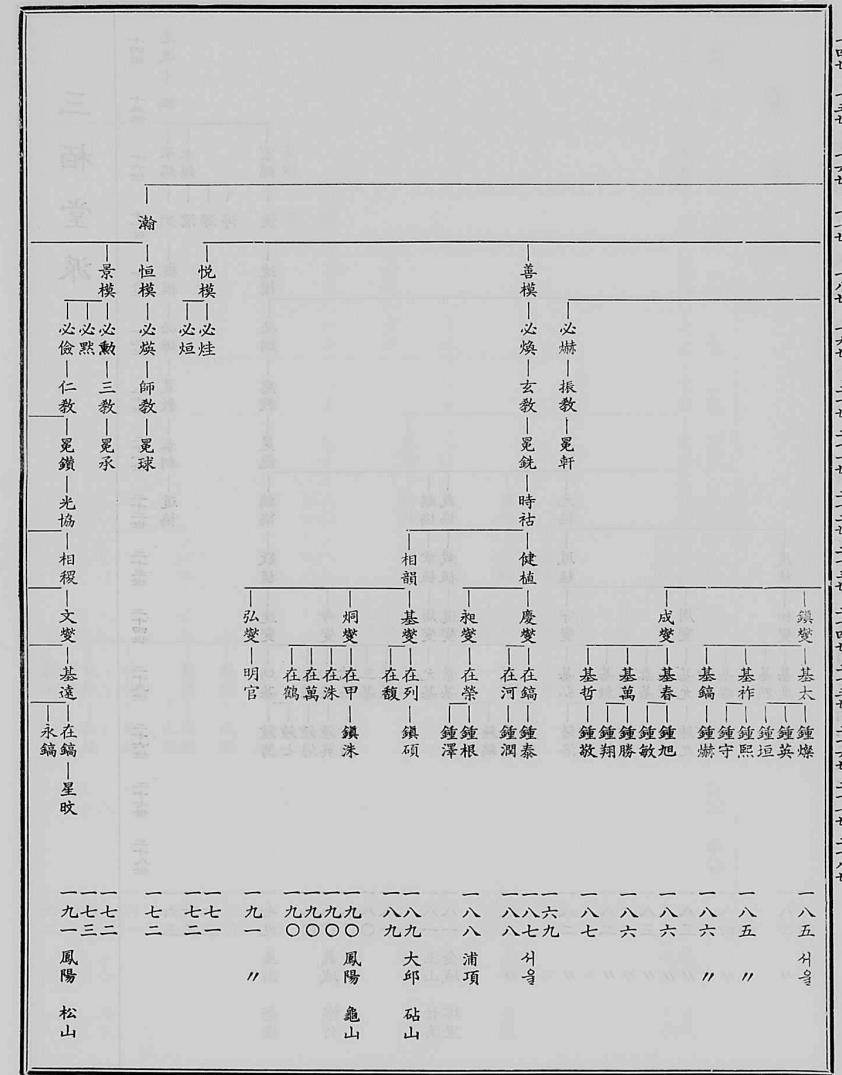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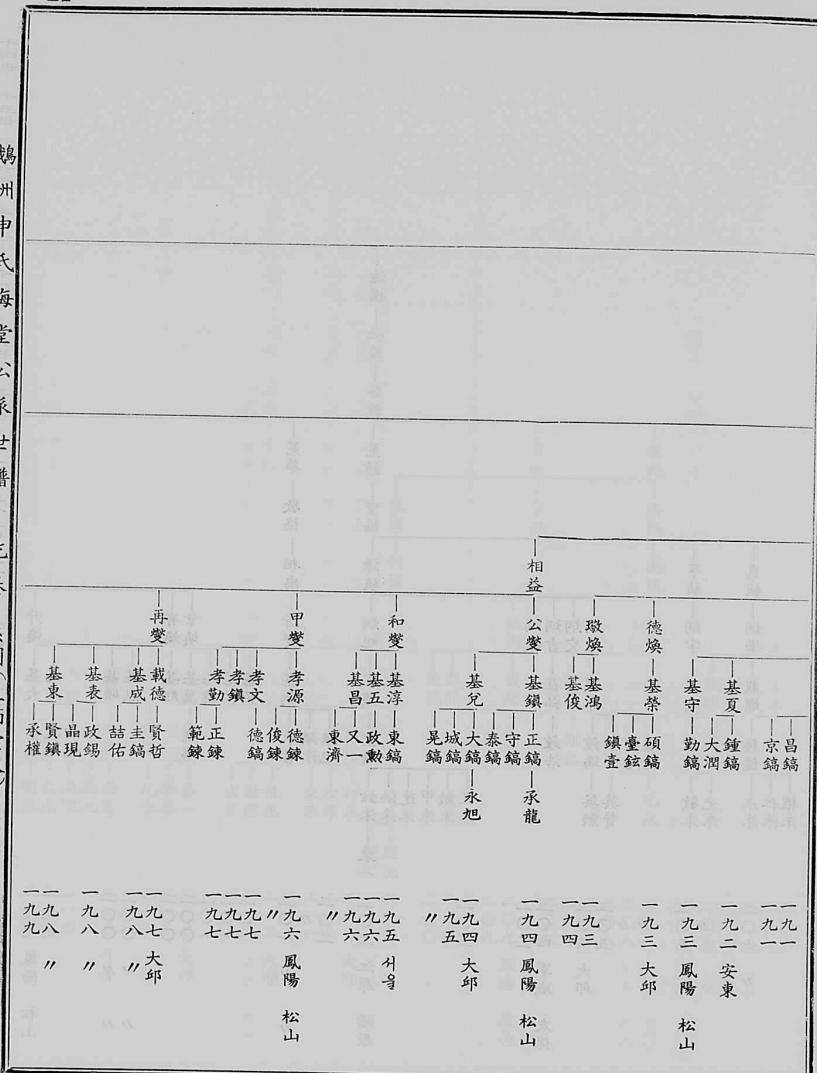


鱉潭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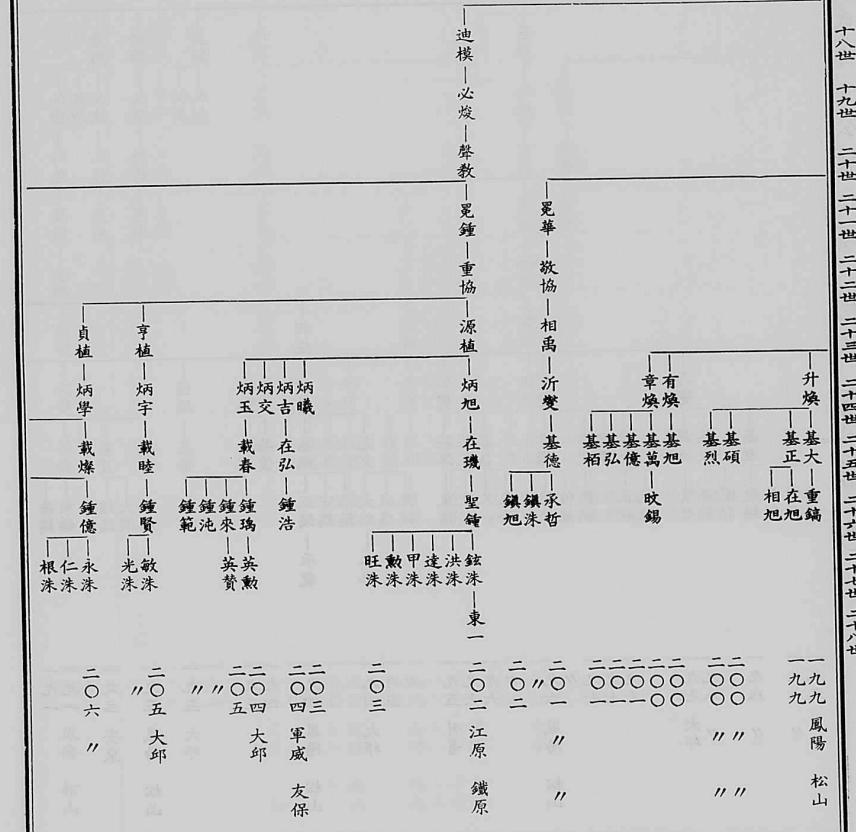


三栢堂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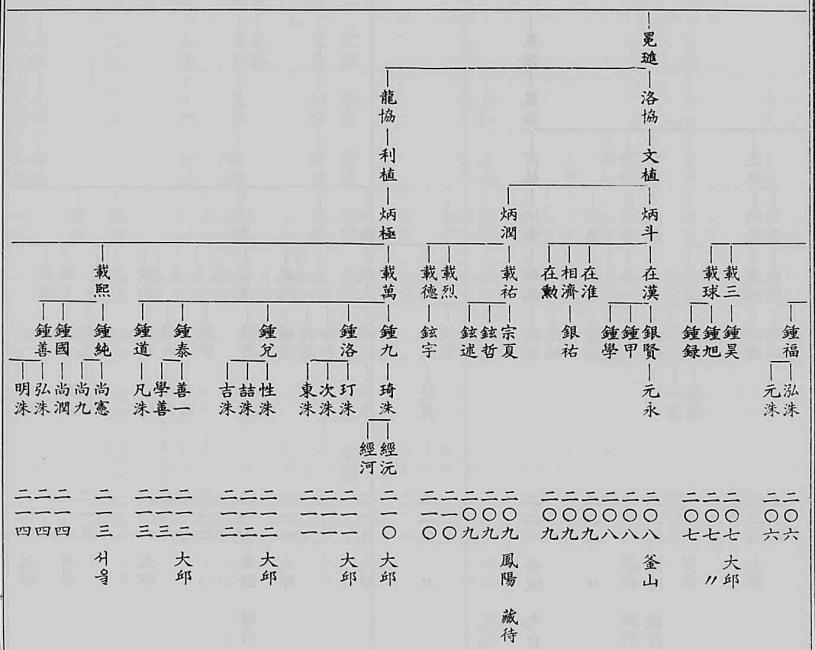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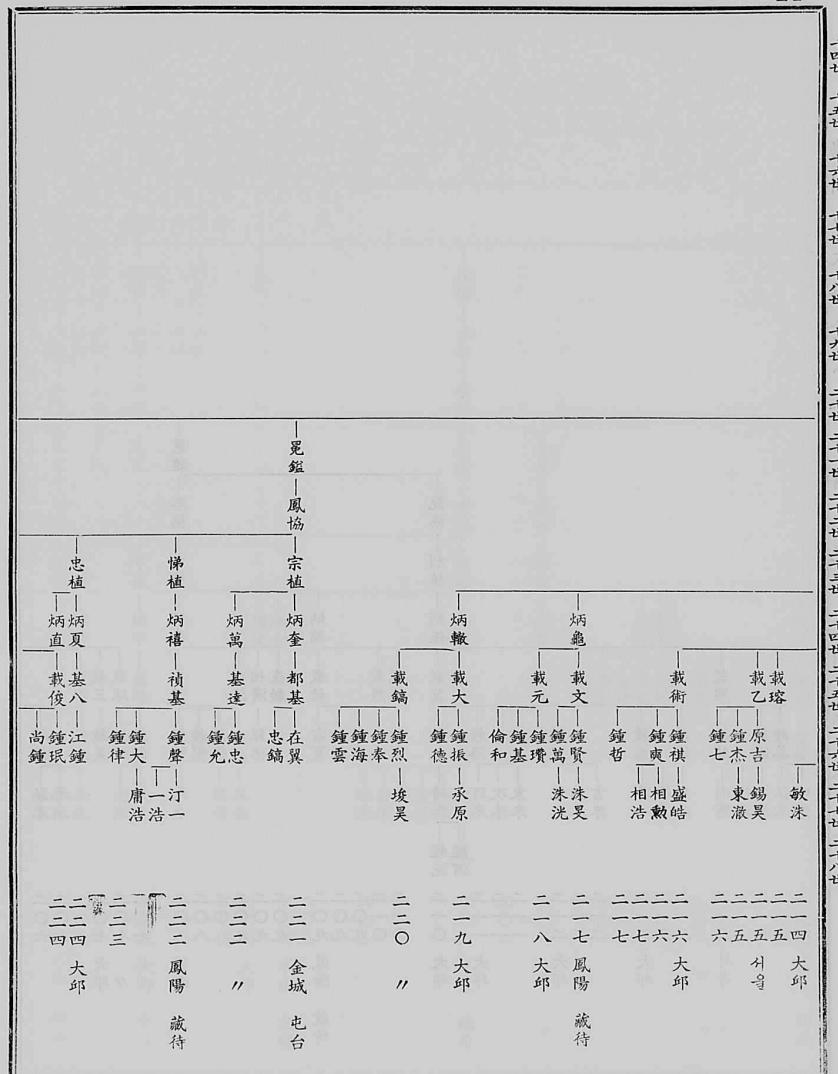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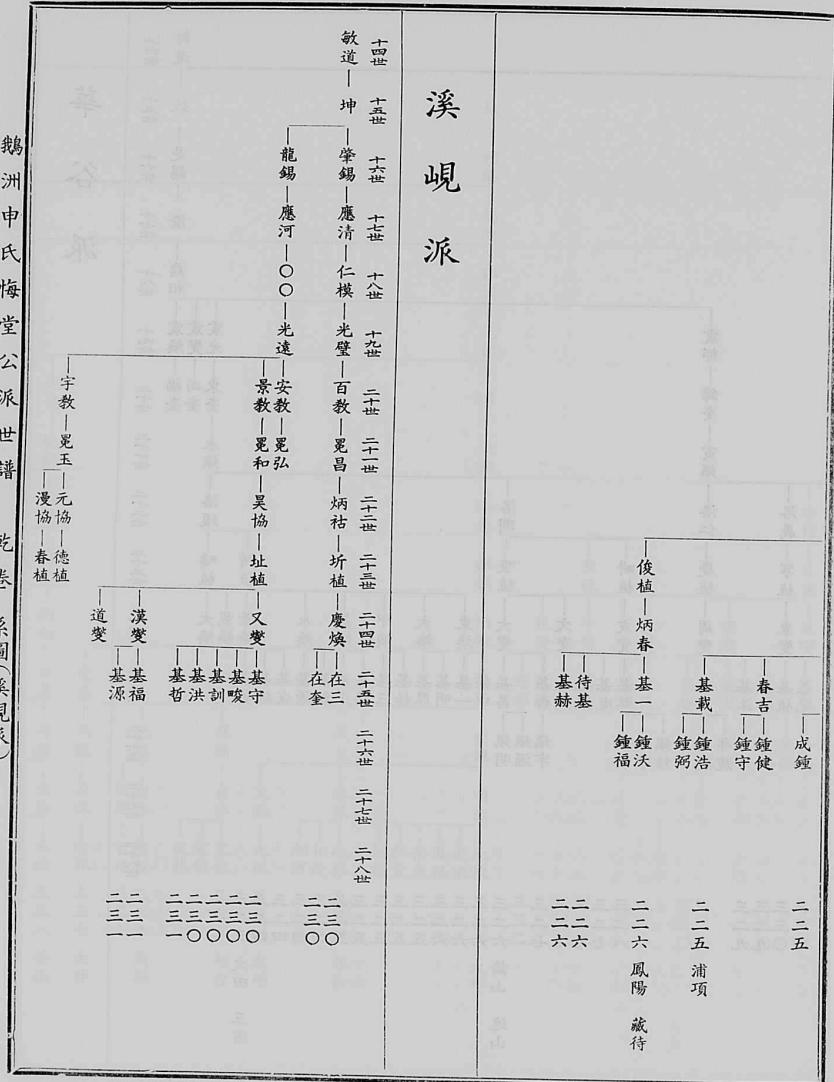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二十七世 二十八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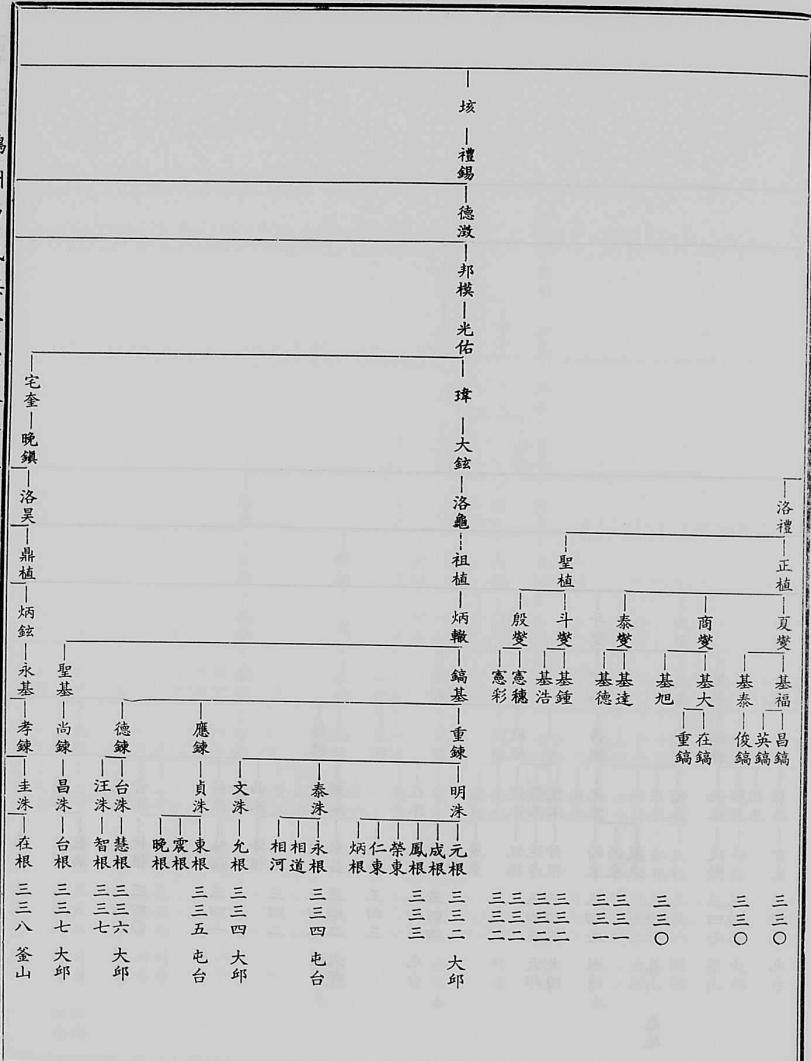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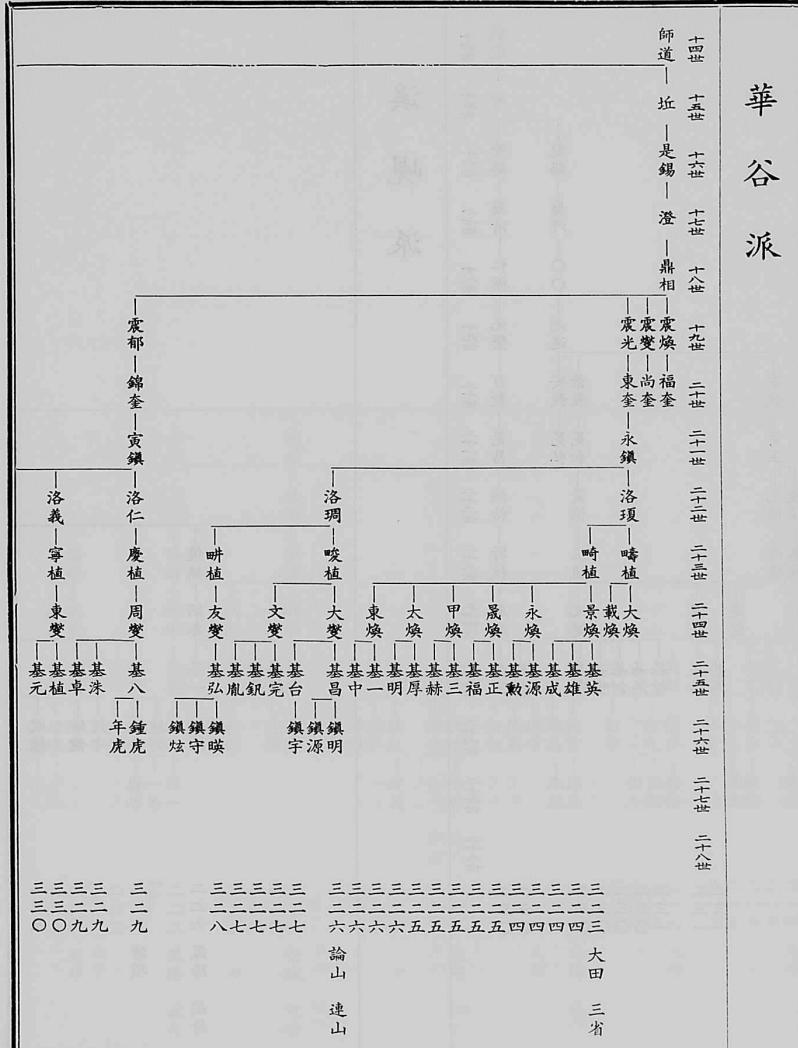
鵝洲申氏悔堂公派世譜 乾卷 系圖(三柏堂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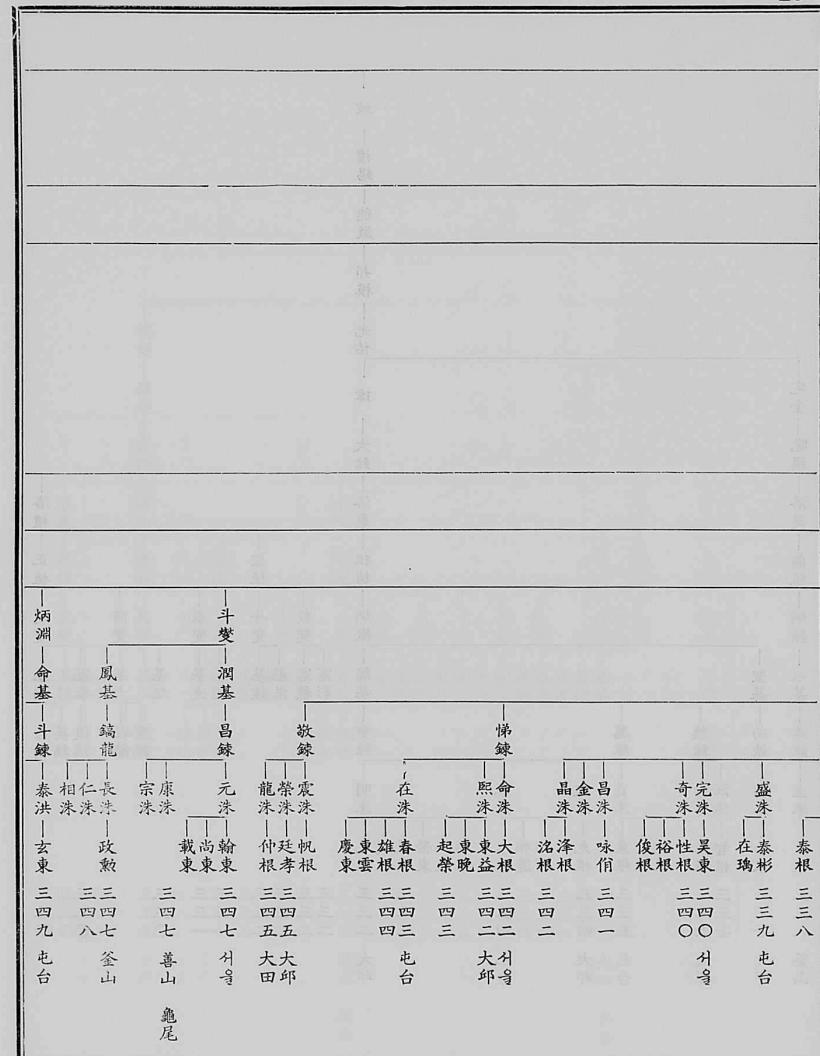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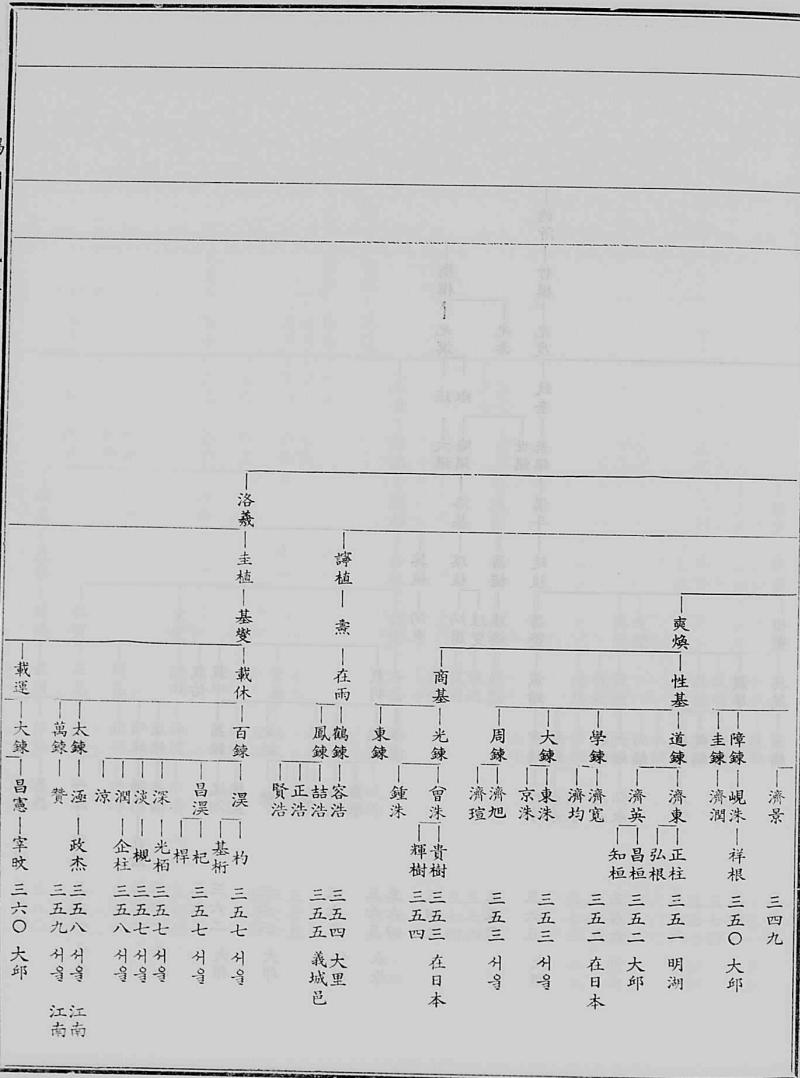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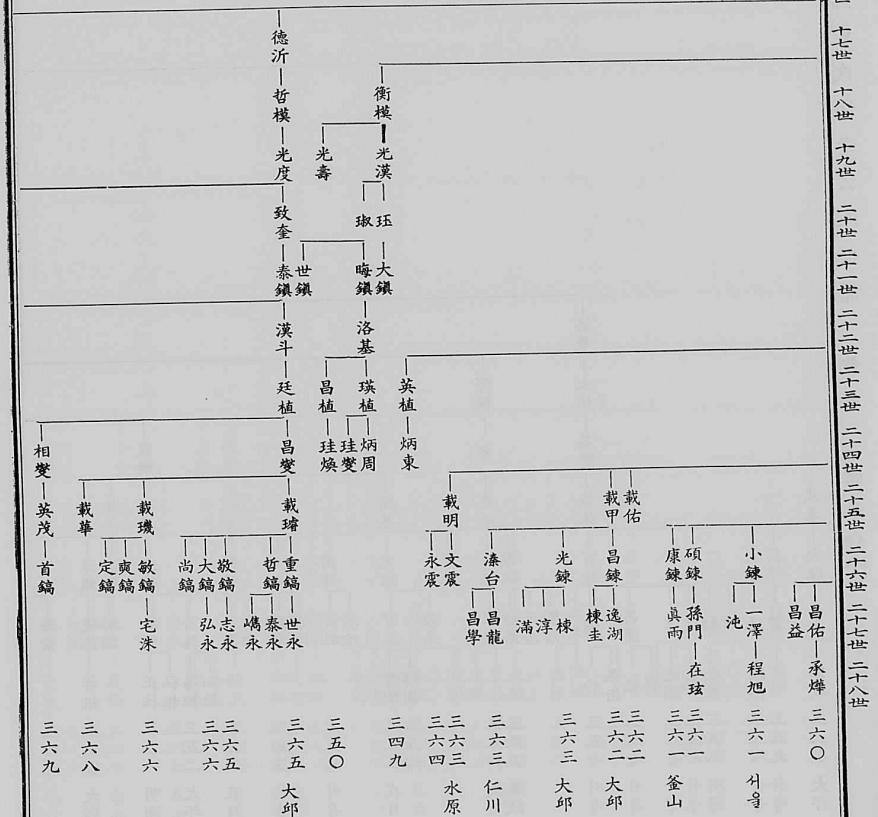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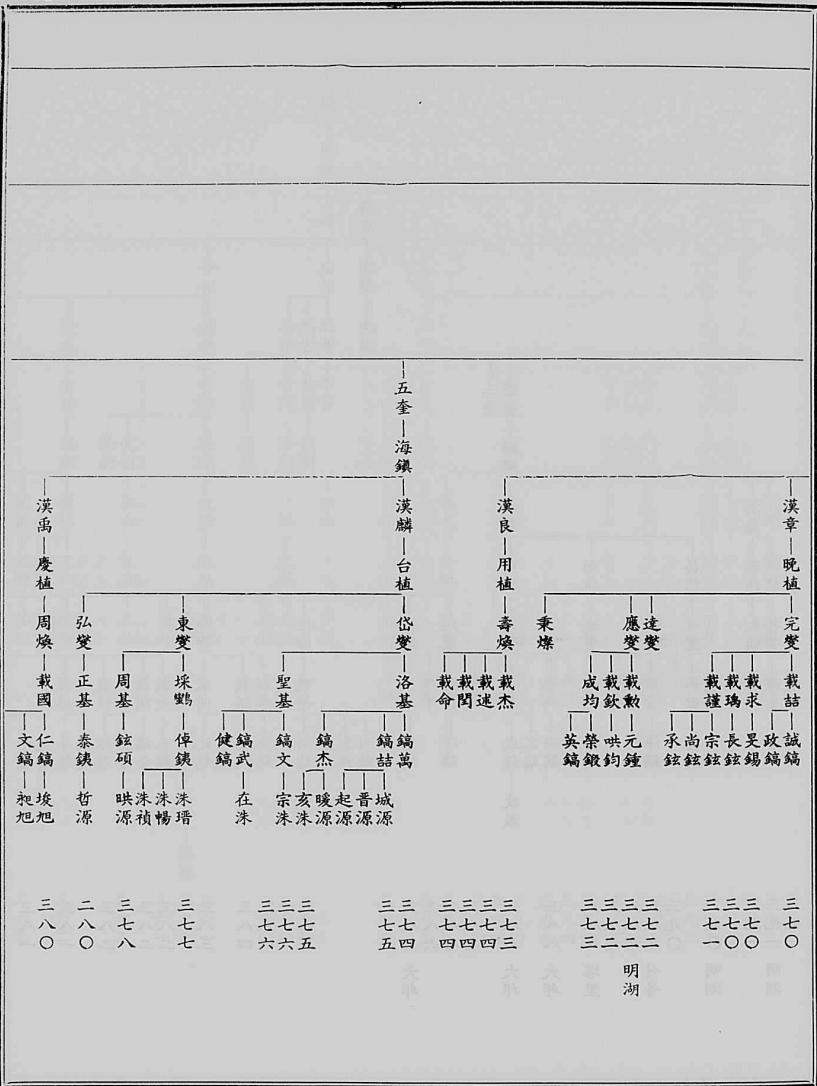


華谷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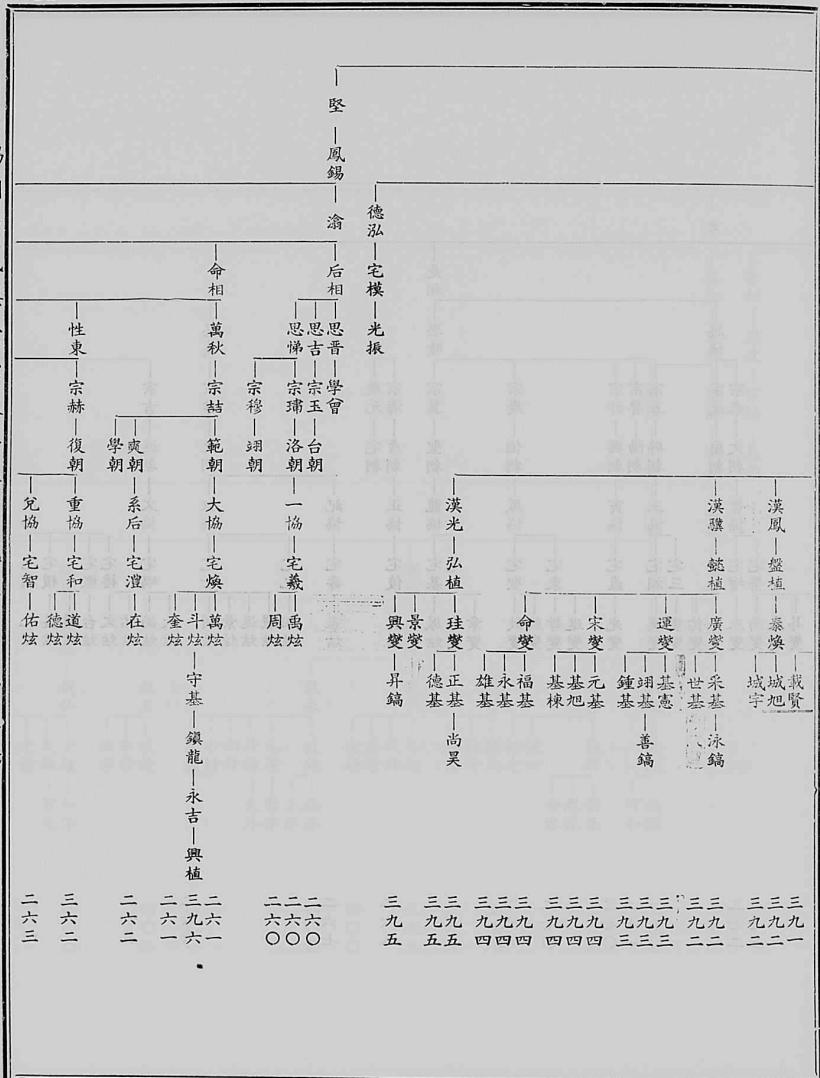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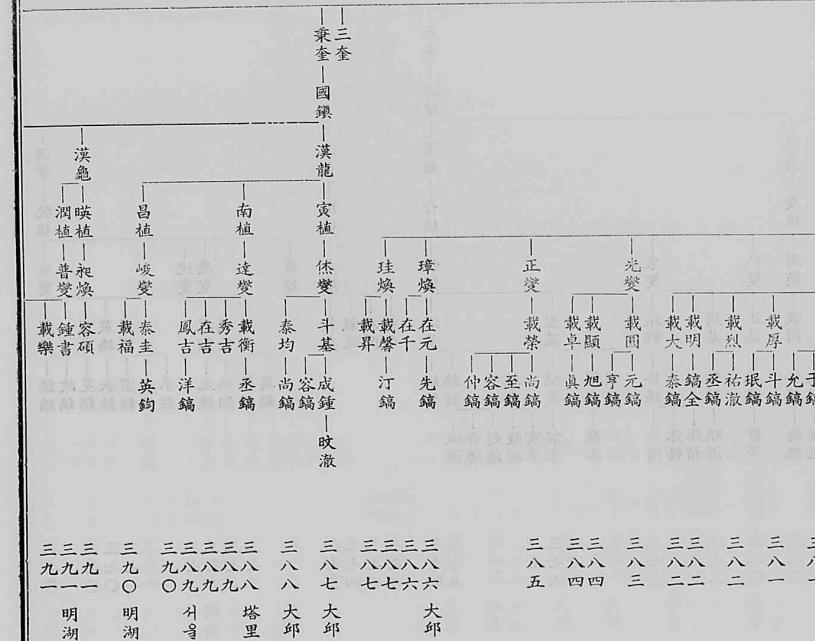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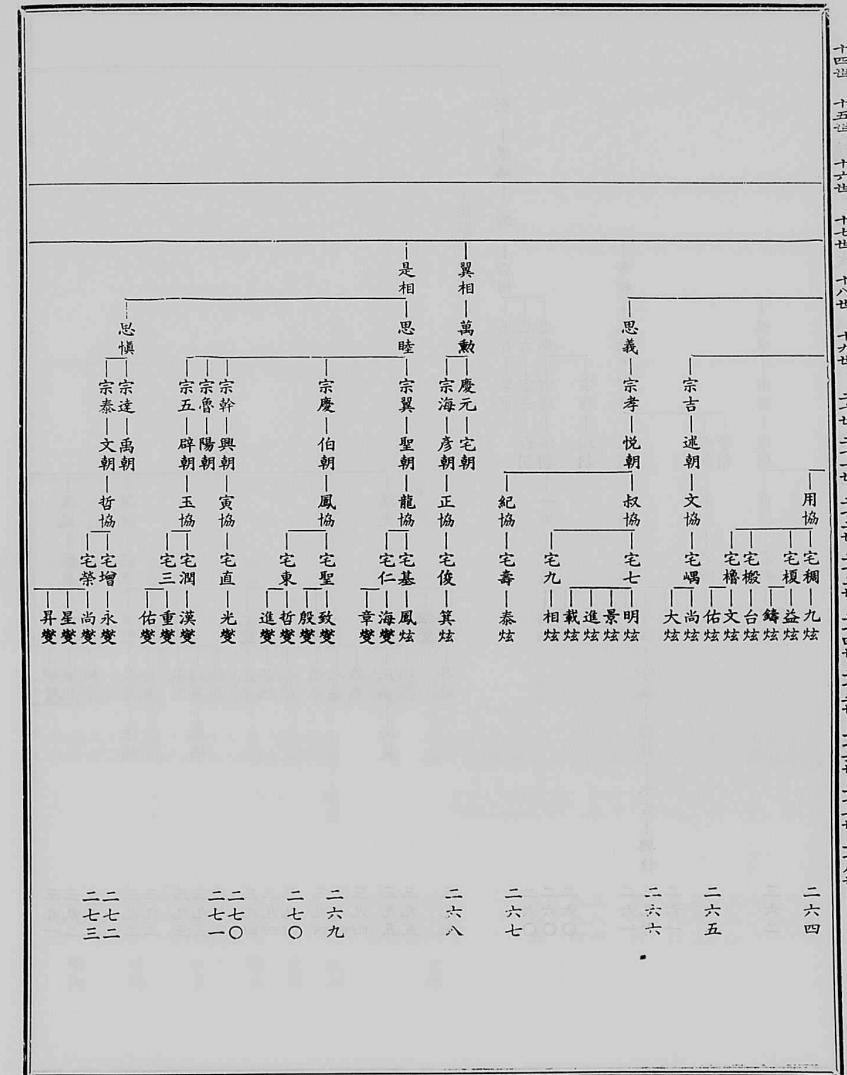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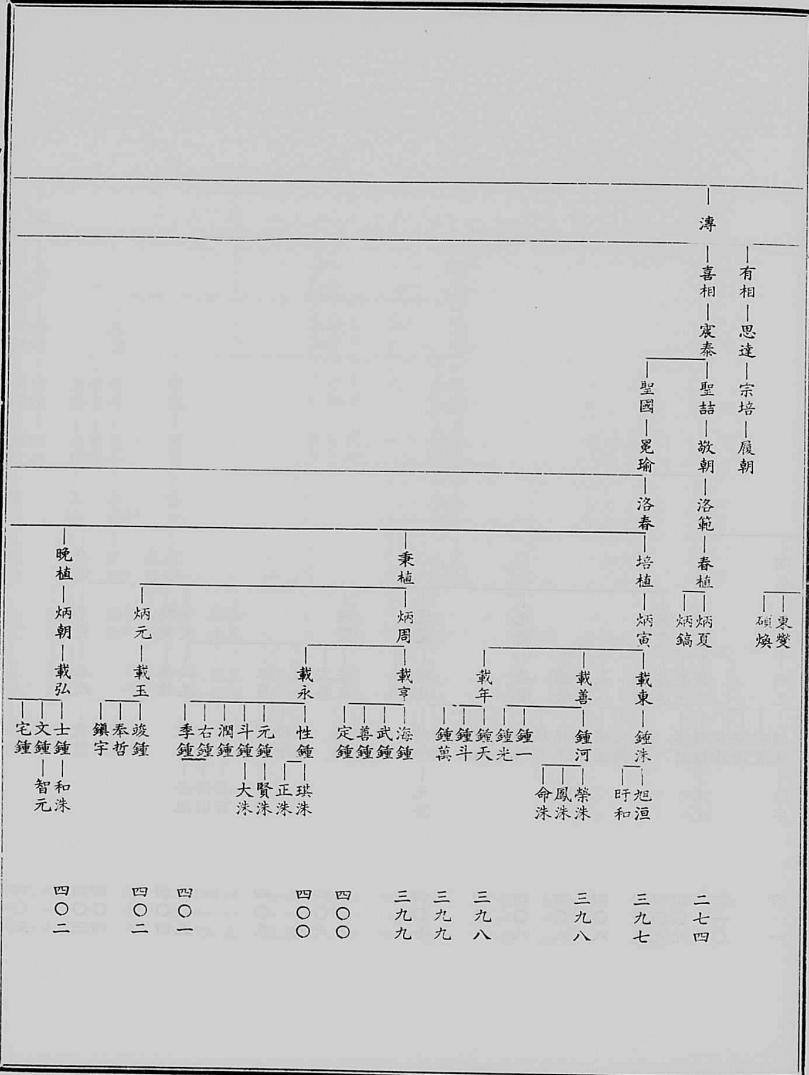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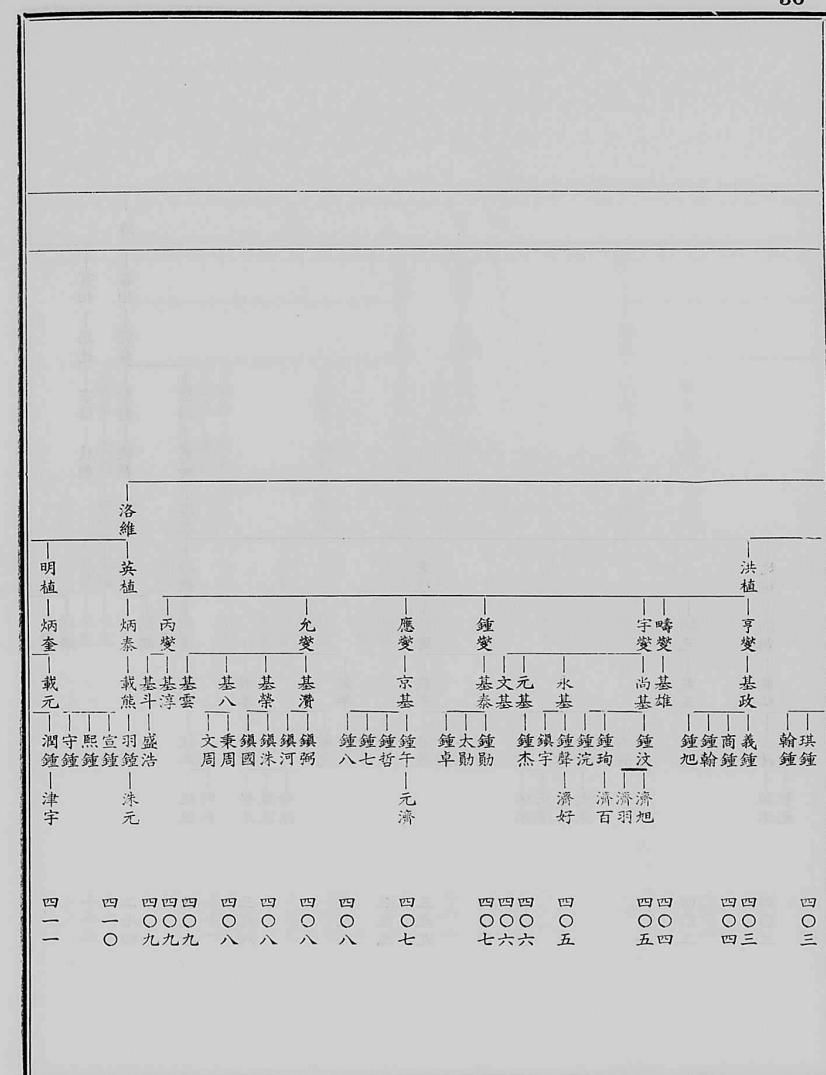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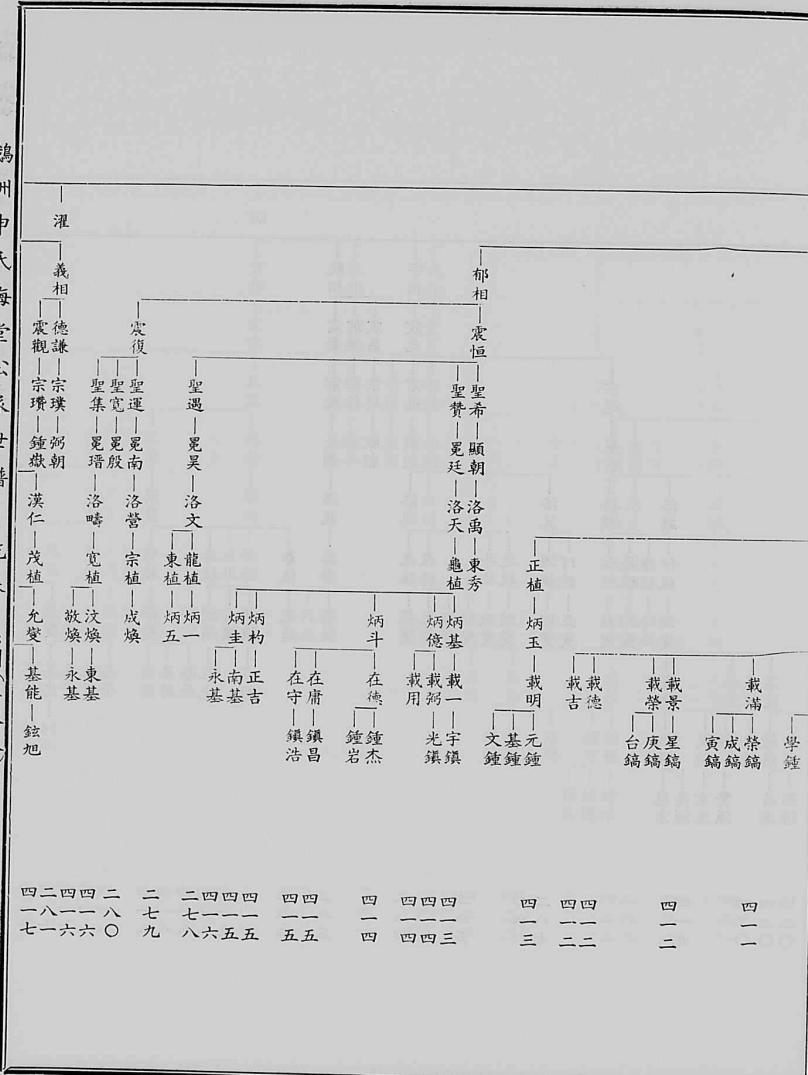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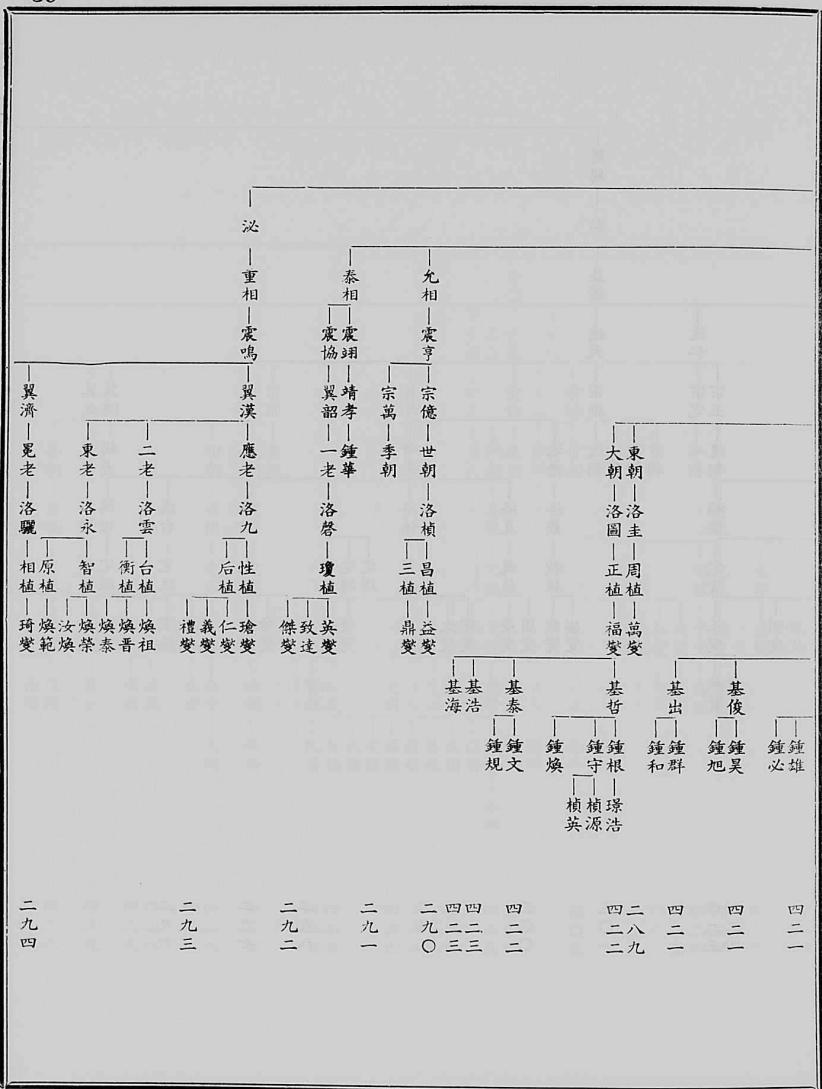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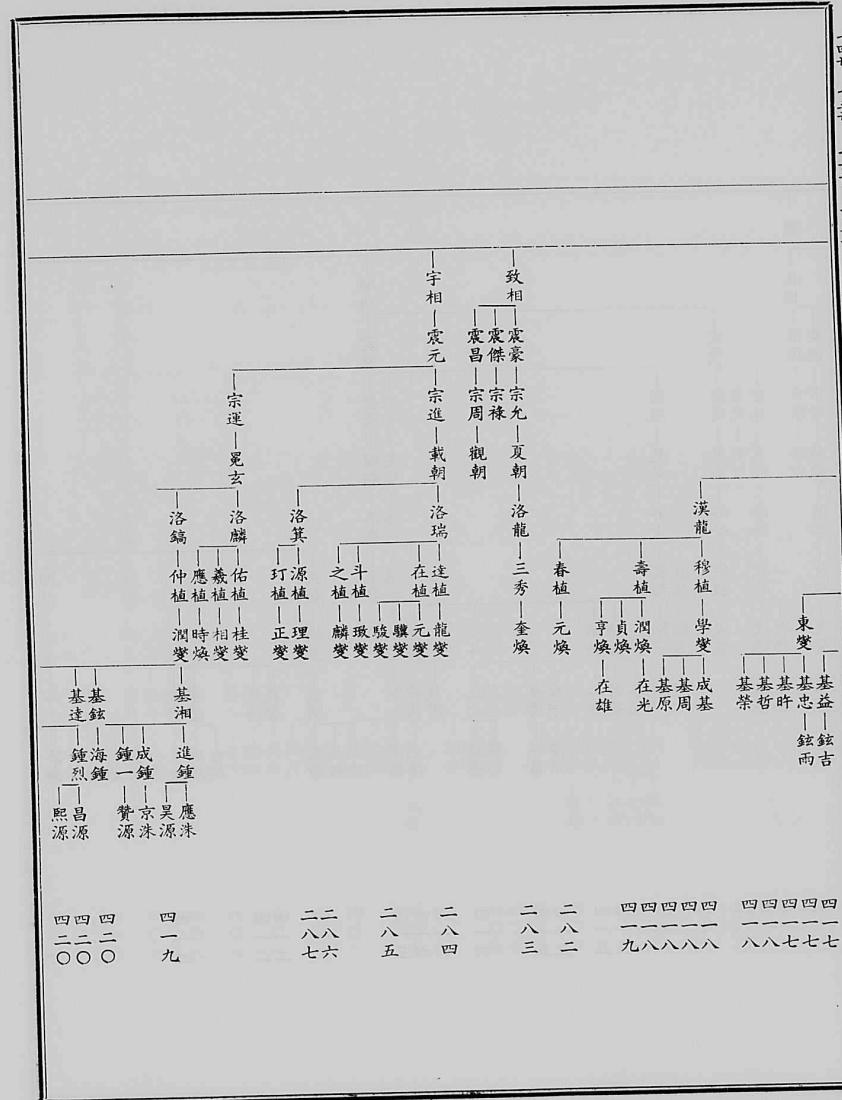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二十七世 二十八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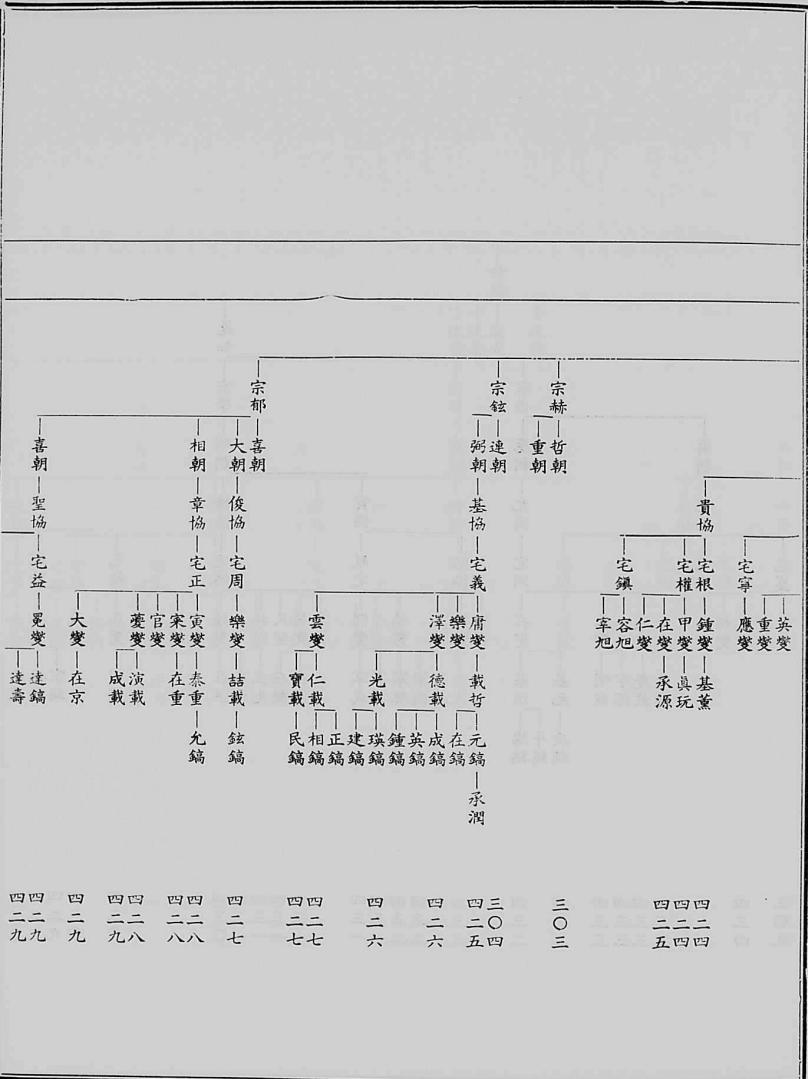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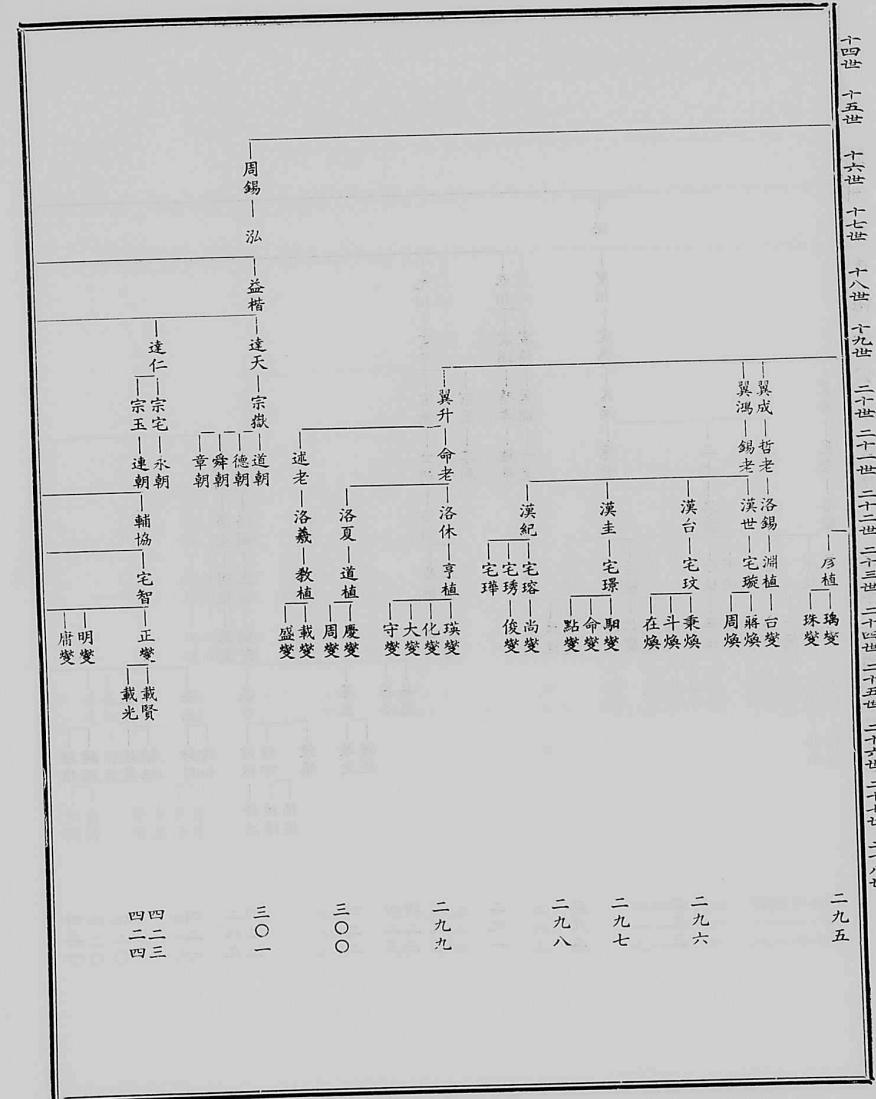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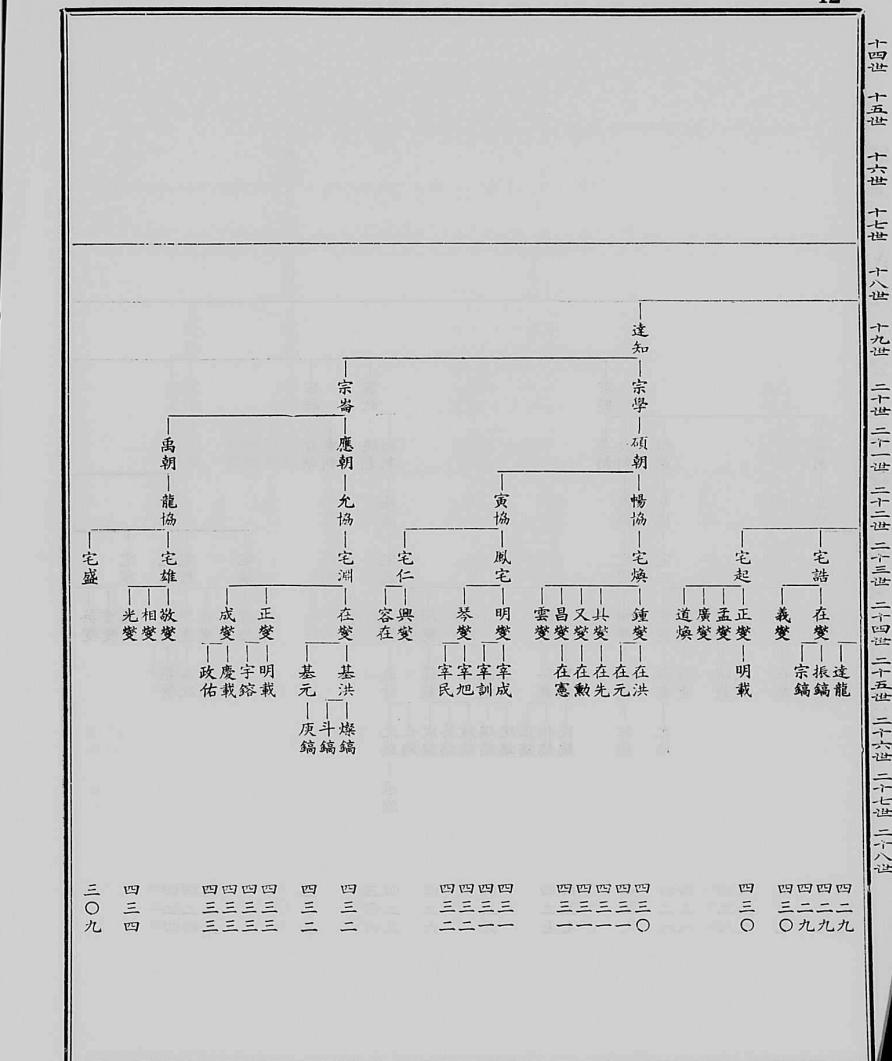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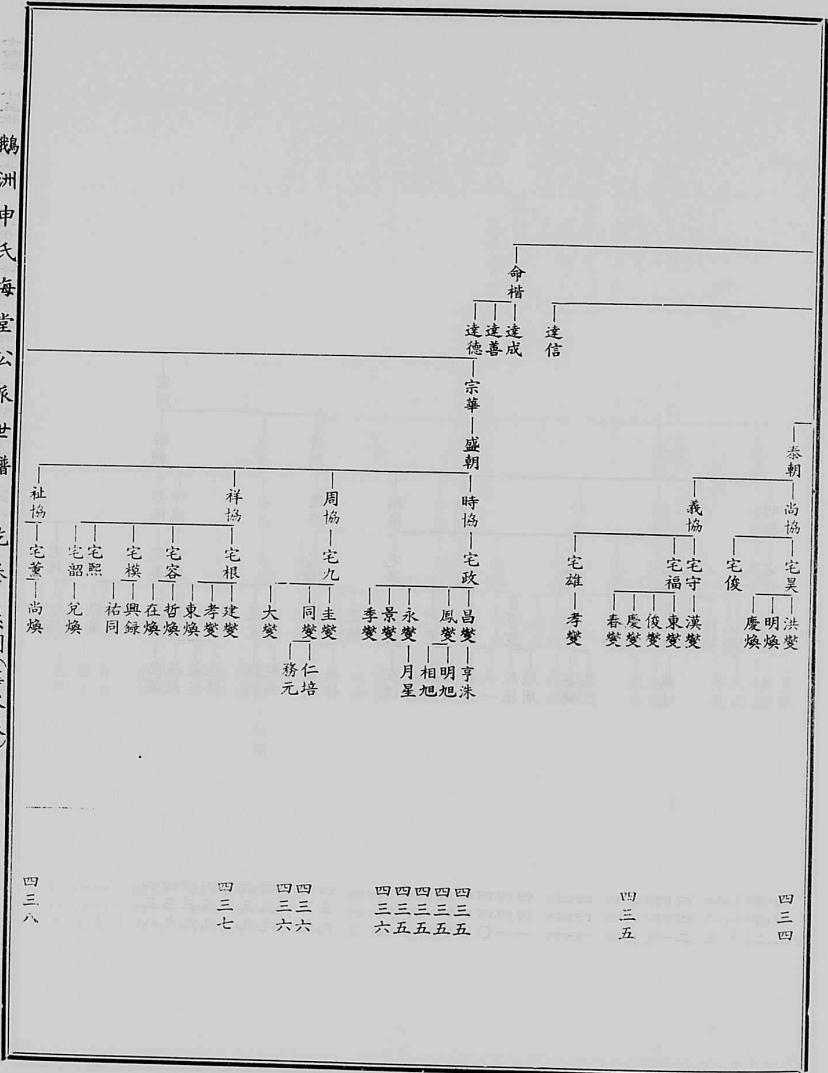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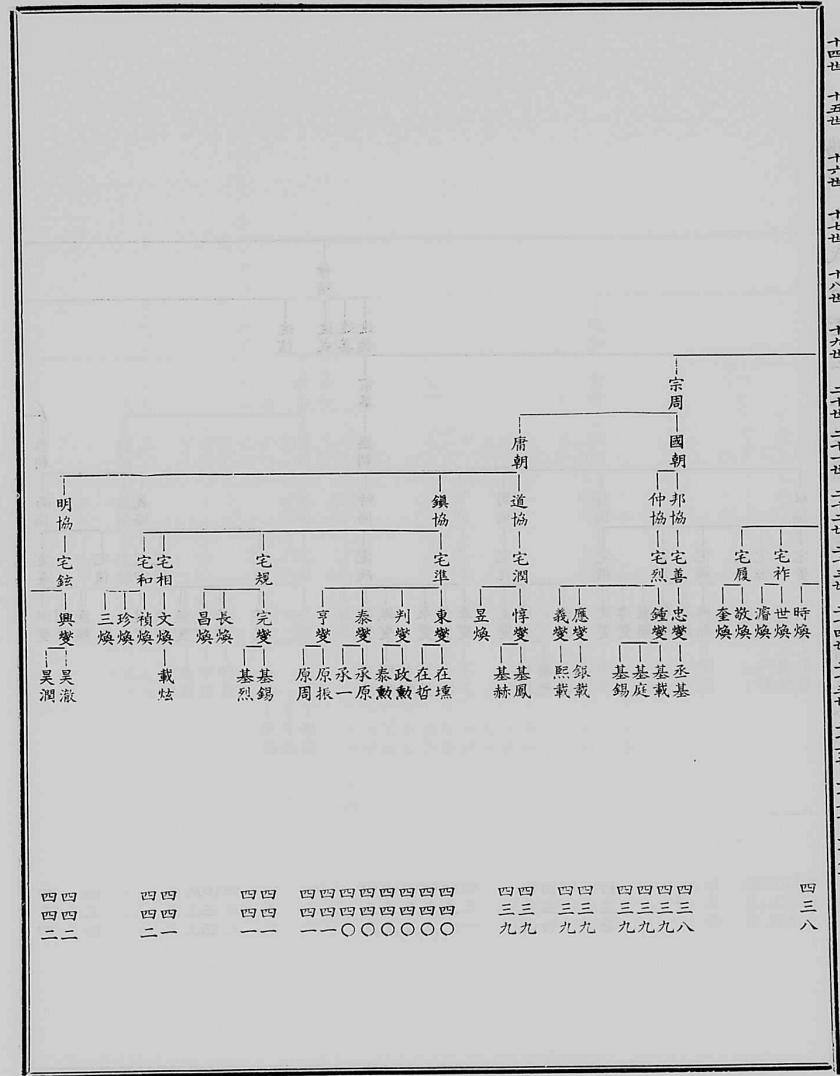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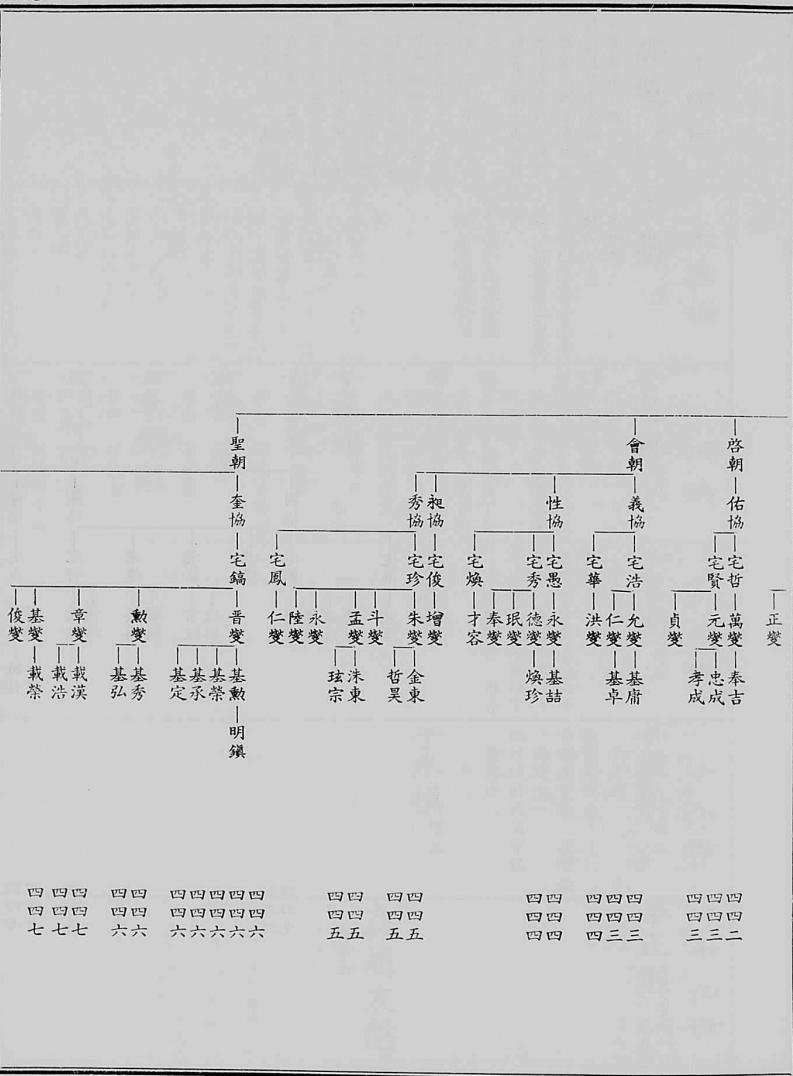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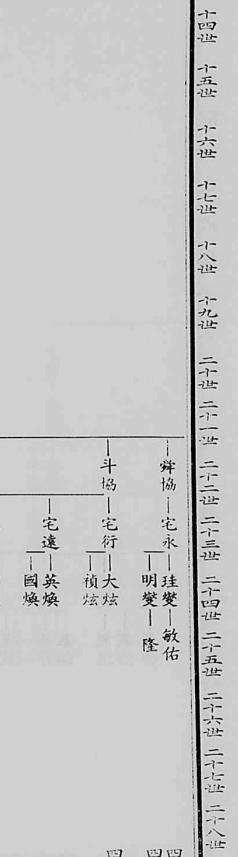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二十七世  
二十八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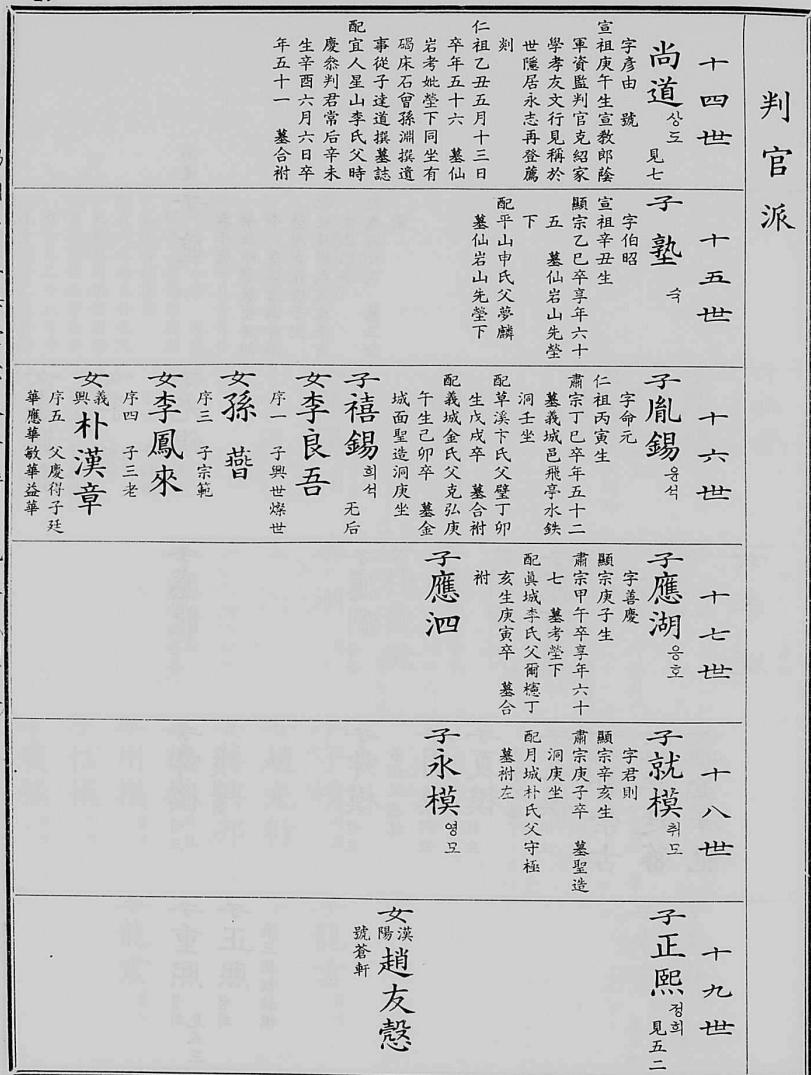




四四二

四四七

四四八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尚道	子 壇	文李興發	子應龍	子舜模	子重熙
	字子原 承仕郎甲辰生癸卯 卒 墓仙岩山考妣	序六 子龜齡	字應龍 生父應潤	字立 生父應潤	音熙 見五三
	配廷日鄭氏父虎士寅 生己巳卒	子光錫	女天順	子周模	系三從叔就模
	墓三合	字光錫 序七 子松齡	李 晞	子夏模	子正熙
	祔		字立 生父應潤	字立 生父應潤	音熙 見五三
			子應河	子舜模	
			字立 生父應潤	字立 生父應潤	
			女天順	子周模	
			李廷蕃	子夏模	
			金澤龍	子舜模	

子 塏	字平仲 仁祖戊申生資憲大夫 肅宗丁卯三月十九日 同知中樞府事	子 裕錫	字致祥 墓豐林乾坐 配成陽朴氏父時和 墓便墳	子 澄	字宜汝 乙酉生乙卯二月八 日卒
子 弘錫	字平仲 秉節校尉英哲府院君天祥后壬子生癸亥 庚午有碣床石 良坐	子 明錫	字致祥 墓豐林乾坐 配成陽朴氏父時和 墓便墳	子 沢	字宜汝 乙酉生乙卯二月八 日卒
子 淗	字平仲 秉節校尉英哲府院君天祥后壬子生癸亥 庚午有碣床石 良坐	子 洞	字致祥 墓豐林乾坐 配成陽朴氏父時和 墓便墳	子 遠模	字天則 庚子生辛亥卒 車輪嶺
子 守模	字平仲 秉節校尉英哲府院君天祥后壬子生癸亥 庚午有碣床石 良坐	子 趙光衍	字致祥 墓豐林乾坐 配成陽朴氏父時和 墓便墳	子 光斗	字天則 庚子生辛亥卒 車輪嶺
子 信模	字平仲 秉節校尉英哲府院君天祥后壬子生癸亥 庚午有碣床石 良坐	子 德模	字致祥 墓豐林乾坐 配成陽朴氏父時和 墓便墳	子 光奎	字致祥 見五四
子 虔模	字平仲 秉節校尉英哲府院君天祥后壬子生癸亥 庚午有碣床石 良坐	子 用模	字致祥 墓豐林乾坐 配成陽朴氏父時和 墓便墳		
子 龍震	字平仲 秉節校尉英哲府院君天祥后壬子生癸亥 庚午有碣床石 良坐	子 蔣興邦	字致祥 墓豐林乾坐 配成陽朴氏父時和 墓便墳		
子 龍雲	字平仲 秉節校尉英哲府院君天祥后壬子生癸亥 庚午有碣床石 良坐				



肅宗辛未九月六日卒  
申九月二日卒  
配草溪鄭氏父海愛壬

字再厚  
仁祖壬子生  
顯宗壬子四月六日卒  
享年六十一年  
墓義  
城邑遞道谷甲坐  
配星山李氏父馨庚戊  
生忌九月十日  
雙墳

乙亥生辛未六月十  
二日卒  
墓義  
配義城金氏父兵使璠  
戌寅生戌寅七月十  
八日卒  
墓雙墳

生父垕  
字命彥  
孝宗甲午生乙未十二  
月十三日卒  
墓鳳  
陽面毫塊洞見踰美  
亥坐  
配宜寧玉氏父潔之士  
辰丁巳五月五日卒  
墓道谷庚坐生一  
男  
配羅州朴氏父務功郎  
文虎癸卯生丁卯卒

字希卿  
甲戌生壬寅平  
墓坐  
配義城金氏父忠甲  
戌生辛丑卒  
墓青  
松方始

子應濟  
字卿  
孝宗甲午生乙未十二  
月十三日卒  
墓鳳  
陽面毫塊洞見踰美  
亥坐  
配宜寧玉氏父潔之士  
辰丁巳五月五日卒  
墓道谷庚坐生一  
男  
配羅州朴氏父務功郎  
文虎癸卯生丁卯卒

字德秀  
甲戌生壬寅平  
墓坐  
配義城金氏父忠甲  
戌生辛丑卒  
墓青  
松方始

子以標  
字正

子尚熙  
字正

見七九

十九世 正熙

生父舜模  
英祖庚寅辛巳坐  
配安東金氏父興根己  
丑生甲午卒年六  
墓合附

英祖辛亥生  
正祖己未三月五日卒  
墓水鍊洞壬坐  
配慶州金氏父春澤庚  
戌丙辰卒  
墓合附

乙巳生乙巳正月二  
日卒享年六十一年  
墓義城邑亭子洞生  
配浙江張氏父麗漢己  
未生乙卯二月十六  
墓合附

己亥生癸丑九月五  
日卒享年七十五  
墓亭子洞山田谷沖  
坐  
配義城金氏父世皓永  
樂齋致寬后己卯生  
乙卯四月十日卒

己未生丙子十一月  
二十三日卒享年七  
十八  
墓忠北報恩  
郡馬老面富坐里後  
萬驚公壬坐有瑞丙  
日卒年五十六  
墓

子相鎬  
字周京  
子楨燮  
字周吉  
子彰燮  
字周吉  
子東燮  
字仁

系仲父相範  
子鎮東  
見八三  
子秉圭  
見八三  
子泰燮  
見八三  
子楨燮  
見八二  
子彰燮  
見八一  
子東燮  
見八一  
子秉圭  
見八一

二十世 女張用五

英祖辛亥生  
字學之  
正祖己未三月五日卒  
墓水鍊洞壬坐  
配慶州金氏父春澤庚  
戌丙辰卒  
墓合附

乙巳生乙巳正月二  
日卒享年六十一年  
墓義城邑亭子洞生  
配浙江張氏父麗漢己  
未生乙卯二月十六  
墓合附

己亥生癸丑九月五  
日卒享年七十五  
墓亭子洞山田谷沖  
坐  
配義城金氏父世皓永  
樂齋致寬后己卯生  
乙卯四月十日卒

己未生丙子十一月  
二十三日卒享年七  
十八  
墓忠北報恩  
郡馬老面富坐里後  
萬驚公壬坐有瑞丙  
日卒年五十六  
墓

子相鎬  
字周京  
子楨燮  
字周吉  
子彰燮  
字周吉  
子東燮  
字仁

系仲父相範  
子鎮東  
見八三  
子秉圭  
見八三  
子泰燮  
見八三  
子楨燮  
見八二  
子彰燮  
見八一  
子東燮  
見八一  
子秉圭  
見八一

二十一世 子冕華

英祖辛亥生  
字致寬  
正祖己未三月五日卒  
墓水鍊洞壬坐  
配慶州金氏父春澤庚  
戌丙辰卒  
墓合附

乙巳生乙巳正月二  
日卒享年六十一年  
墓義城邑亭子洞生  
配浙江張氏父麗漢己  
未生乙卯二月十六  
墓合附

己亥生癸丑九月五  
日卒享年七十五  
墓亭子洞山田谷沖  
坐  
配義城金氏父世皓永  
樂齋致寬后己卯生  
乙卯四月十日卒

己未生丙子十一月  
二十三日卒享年七  
十八  
墓忠北報恩  
郡馬老面富坐里後  
萬驚公壬坐有瑞丙  
日卒年五十六  
墓

子相鎬  
字周京  
子楨燮  
字周吉  
子彰燮  
字周吉  
子東燮  
字仁

系仲父相範  
子鎮東  
見八三  
子秉圭  
見八三  
子泰燮  
見八三  
子楨燮  
見八二  
子彰燮  
見八一  
子東燮  
見八一  
子秉圭  
見八一

二十二世 子俊協

英祖辛亥生  
字應成  
正祖己未三月五日卒  
墓水鍊洞壬坐  
配慶州金氏父春澤庚  
戌丙辰卒  
墓合附

乙巳生乙巳正月二  
日卒享年六十一年  
墓義城邑亭子洞生  
配浙江張氏父麗漢己  
未生乙卯二月十六  
墓合附

己亥生癸丑九月五  
日卒享年七十五  
墓亭子洞山田谷沖  
坐  
配義城金氏父世皓永  
樂齋致寬后己卯生  
乙卯四月十日卒

己未生丙子十一月  
二十三日卒享年七  
十八  
墓忠北報恩  
郡馬老面富坐里後  
萬驚公壬坐有瑞丙  
日卒年五十六  
墓

子相鎬  
字周京  
子楨燮  
字周吉  
子彰燮  
字周吉  
子東燮  
字仁

系仲父相範  
子鎮東  
見八三  
子秉圭  
見八三  
子泰燮  
見八三  
子楨燮  
見八二  
子彰燮  
見八一  
子東燮  
見八一  
子秉圭  
見八一

二十三世 子相鎬

英祖辛亥生  
字聖極  
正祖己未三月五日卒  
墓水鍊洞壬坐  
配慶州金氏父春澤庚  
戌丙辰卒  
墓合附

乙巳生乙巳正月二  
日卒享年六十一年  
墓義城邑亭子洞生  
配浙江張氏父麗漢己  
未生乙卯二月十六  
墓合附

己亥生癸丑九月五  
日卒享年七十五  
墓亭子洞山田谷沖  
坐  
配義城金氏父世皓永  
樂齋致寬后己卯生  
乙卯四月十日卒

己未生丙子十一月  
二十三日卒享年七  
十八  
墓忠北報恩  
郡馬老面富坐里後  
萬驚公壬坐有瑞丙  
日卒年五十六  
墓

子相鎬  
字周京  
子楨燮  
字周吉  
子彰燮  
字周吉  
子東燮  
字仁

系仲父相範  
子鎮東  
見八三  
子秉圭  
見八三  
子泰燮  
見八三  
子楨燮  
見八二  
子彰燮  
見八一  
子東燮  
見八一  
子秉圭  
見八一

二十四世 子楨燮

英祖辛亥生  
字聖極  
正祖己未三月五日卒  
墓水鍊洞壬坐  
配慶州金氏父春澤庚  
戌丙辰卒  
墓合附

乙巳生乙巳正月二  
日卒享年六十一年  
墓義城邑亭子洞生  
配浙江張氏父麗漢己  
未生乙卯二月十六  
墓合附

己亥生癸丑九月五  
日卒享年七十五  
墓亭子洞山田谷沖  
坐  
配義城金氏父世皓永  
樂齋致寬后己卯生  
乙卯四月十日卒

己未生丙子十一月  
二十三日卒享年七  
十八  
墓忠北報恩  
郡馬老面富坐里後  
萬驚公壬坐有瑞丙  
日卒年五十六  
墓

子相鎬  
字周京  
子楨燮  
字周吉  
子彰燮  
字周吉  
子東燮  
字仁

系仲父相範  
子鎮東  
見八三  
子秉圭  
見八三  
子泰燮  
見八三  
子楨燮  
見八二  
子彰燮  
見八一  
子東燮  
見八一  
子秉圭  
見八一

二十五世 子源燮

英祖辛亥生  
字聖極  
正祖己未三月五日卒  
墓水鍊洞壬坐  
配慶州金氏父春澤庚  
戌丙辰卒  
墓合附

乙巳生乙巳正月二  
日卒享年六十一年  
墓義城邑亭子洞生  
配浙江張氏父麗漢己  
未生乙卯二月十六  
墓合附

己亥生癸丑九月五  
日卒享年七十五  
墓亭子洞山田谷沖  
坐  
配義城金氏父世皓永  
樂齋致寬后己卯生  
乙卯四月十日卒

己未生丙子十一月  
二十三日卒享年七  
十八  
墓忠北報恩  
郡馬老面富坐里後  
萬驚公壬坐有瑞丙  
日卒年五十六  
墓

子相鎬  
字周京  
子楨燮  
字周吉  
子彰燮  
字周吉  
子東燮  
字仁

系仲父相範  
子鎮東  
見八三  
子秉圭  
見八三  
子泰燮  
見八三  
子楨燮  
見八二  
子彰燮  
見八一  
子東燮  
見八一  
子秉圭  
見八一

二十六世 子東燮

英祖辛亥生  
字聖極  
正祖己未三月五日卒  
墓水鍊洞壬坐  
配慶州金氏父春澤庚  
戌丙辰卒  
墓合附

乙巳生乙巳正月二  
日卒享年六十一年  
墓義城邑亭子洞生  
配浙江張氏父麗漢己  
未生乙卯二月十六  
墓合附

己亥生癸丑九月五  
日卒享年七十五  
墓亭子洞山田谷沖  
坐  
配義城金氏父世皓永  
樂齋致寬后己卯生  
乙卯四月十日卒

己未生丙子十一月  
二十三日卒享年七  
十八  
墓忠北報恩  
郡馬老面富坐里後  
萬驚公壬坐有瑞丙  
日卒年五十六  
墓

子相鎬  
字周京  
子楨燮  
字周吉  
子彰燮  
字周吉  
子東燮  
字仁

系仲父相範  
子鎮東  
見八三  
子秉圭  
見八三  
子泰燮  
見八三  
子楨燮  
見八二  
子彰燮  
見八一  
子東燮  
見八一  
子秉圭  
見八一

二十七世 子源燮

英祖辛亥生  
字聖極  
正祖己未三月五日卒  
墓水鍊洞壬坐  
配慶州金氏父春澤庚  
戌丙辰卒  
墓合附

乙巳生乙巳正月二  
日卒享年六十一年  
墓義城邑亭子洞生  
配浙江張氏父麗漢己  
未生乙卯二月十六  
墓合附

己亥生癸丑九月五  
日卒享年七十五  
墓亭子洞山田谷沖  
坐  
配義城金氏父世皓永  
樂齋致寬后己卯生  
乙卯四月十日卒

己未生丙子十一月  
二十三日卒享年七  
十八  
墓忠北報恩  
郡馬老面富坐里後  
萬驚公壬坐有瑞丙  
日卒年五十六  
墓

子相鎬  
字周京  
子楨燮  
字周吉  
子彰燮  
字周吉  
子東燮  
字仁

系仲父相範  
子鎮東  
見八三  
子秉圭  
見八三  
子泰燮  
見八三  
子楨燮  
見八二  
子彰燮  
見八一  
子東燮  
見八一  
子秉圭  
見八一

二十八世 子尚熙

英祖辛亥生  
字聖極  
正祖己未三月五日卒  
墓水鍊洞壬坐  
配慶州金氏父春澤庚  
戌丙辰卒  
墓合附

乙巳生乙巳正月二  
日卒享年六十一年  
墓義城邑亭子洞生  
配浙江張氏父麗漢己  
未生乙卯二月十六  
墓合附

己亥生癸丑九月五  
日卒享年七十五  
墓亭子洞山田谷沖  
坐  
配義城金氏父世皓永  
樂齋致寬后己卯生  
乙卯四月十日卒

己未生丙子十一月  
二十三日卒享年七  
十八  
墓忠北報恩  
郡馬老面富坐里後  
萬驚公壬坐有瑞丙  
日卒年五十六  
墓

子相鎬  
字周京  
子楨燮  
字周吉  
子彰燮  
字周吉  
子東燮  
字仁

系仲父相範  
子鎮東  
見八三  
子秉圭  
見八三  
子泰燮  
見八三  
子楨燮  
見八二  
子彰燮  
見八一  
子東燮  
見八一  
子秉圭  
見八一

重熙  
音卦  
見四八

子復教  
父允光  
字敎之  
配安東權氏父潤  
文安  
子善教  
父允光  
字義  
配安東權氏父潤  
文安  
子金宗鎬  
父允光  
字義  
配安東權氏父潤  
文安  
子朴相植  
父允光  
字義  
配安東權氏父潤  
文安

子翰朝  
父允光  
字義  
見四九

子冕璜  
父允光  
字義  
見四九

<b>重元</b>	<small>音原</small>
見五〇	
<b>子璫奎</b>	<small>音才</small>
<b>子冕華</b>	<small>音華</small>
<b>子達協</b>	<small>音協</small>
<b>子根學</b>	<small>音學</small>
<b>子元燮</b>	<small>音燮</small>
見九〇	

<b>光斗</b>	<small>音斗</small>
見四九	
<b>重燮</b>	<small>音燮</small>
見五〇	
<b>子復奎</b>	<small>音才</small>
<b>子冕恒</b>	<small>音恒</small>
丙寅生戊辰正月十	
<b>子仁祐</b>	<small>音佑</small>
純祖辛卯生丁丑八月	
<b>子洪植</b>	<small>音植</small>
子榮周殷周學周	
<b>子演煥</b>	<small>音煥</small>
見八八	
<b>光奎</b>	<small>音才</small>
見四九	
<b>子宗遂</b>	<small>音才</small>
基新基亥坐	
<b>子海朝</b>	<small>音才</small>
無后	
<b>子周朝</b>	<small>音玉</small>
无后	
<b>子德協</b>	<small>音協</small>
宇成伯號鳳沙	
<b>子永植</b>	<small>音植</small>
宇林彥號鳳陽面粉吐洞蟻	
<b>子圭炫</b>	<small>音炫</small>
女安權尚孚	
<b>子胄炫</b>	<small>音炫</small>
女金柳基春	
<b>子斗炫</b>	<small>音炫</small>
見八六	
<b>子胄炫</b>	<small>音炫</small>
見八八	
<b>子成煥</b>	<small>音煥</small>
系季父華植	
<b>子己燮</b>	<small>音燮</small>
見八九	
<b>子麟植</b>	<small>音植</small>
宇達彥	
<b>子榮煥</b>	<small>音煥</small>
見八九	
<b>子禎煥</b>	<small>音煥</small>
系族叔鳳植	
<b>子成煥</b>	<small>音煥</small>
見八九	
<b>子已燮</b>	<small>音燮</small>
見八九	
<b>子州金李存洞</b>	<small>音金</small>
<b>子成煥</b>	<small>音煥</small>
通政基潤琴隱后外	
<b>子己燮</b>	<small>音燮</small>
祖高敞吳進源丙申	
<b>子元燮</b>	<small>音燮</small>
配成陽朴氏父東衡祖	
<b>子璫奎</b>	<small>音才</small>
配成陽朴氏父延德甲	
<b>子冕華</b>	<small>音華</small>
寅生乙丑正月二十	
<b>子達協</b>	<small>音協</small>
配成陽朴氏父延德甲	
<b>子根學</b>	<small>音學</small>
丙坐	
<b>子元燮</b>	<small>音燮</small>
見九〇	

<b>子龍祐</b>	字大見 號雲叟 從仕郎參奉乙卯一 生庚午一九三〇年 四月二十日享年	配金州李氏父弼 寧大君提后士寅生 辛巳正月五日卒年 四十 墓甲藏後山 良坐有一男二女有 床石 配濟州李氏父德春祖 廷臣文度公居易后 外祖慶州李聖範癸 亥生己卯二月二十 八日卒 谷甲坐有柱床石	有床石
<b>文川陝李仁圭</b>	文川陝序一 海錫 序三 子華錫晚錫	配碧珍李氏父光浩祖 宜元花樹軒太南后 外祖城徐命庚甲 子生己酉十二月 十六日卒年四十六 墓先妣塋下同坐生 一男一女有床石 配興陽李氏父義教壬 辰生丙午十二月十 五日卒享年七十五 墓下開日後山辛坐	戊子生己酉二月二 十三日卒 廿七日卒年三十七 墓甲藏大孤谷卯坐 南柳村從男后外祖 達城徐能復庚寅生 壬辰六月二十八日 碑墳三内外有床石
<b>文澍植</b>	字國弼 辛巳一八 八年二月十五日 生丁亥一九四七年 十二月十九日卒享	配成陽朴氏父斗斐祖 禩榮竹園太古后 祖南陽洪大淵戊午 生癸酉正月九日卒 享年七十七 墓甲	禩榮竹園太古后 祖南陽洪大淵戊午 生癸酉正月九日卒 享年七十七 墓甲
<b>文養燮</b>	字大見 號雲叟 從仕郎參奉乙卯一 生庚午一九三〇年 四月二十日享年	必	見一〇一

<b>太模</b>	字明彥 嘉善大夫 肅宗己亥生庚申十月 十日卒享年八十二 墓長嶺西坐 配貞夫人義城金氏父 必炫 墓合祔	英祖壬戌生 正祖壬戌三月二十日 卒享年六十一 考塋左邊同坐有床 石 配赤羅朴氏父泰恒甲 子生戊子四月二十 九日卒 墓甲藏檜谷甲坐	己未生壬午九月十 七日卒 墓比安澤
<b>重煜</b>	字和卿 英祖壬戌生 正祖壬戌三月二十日 卒享年六十一 考塋左邊同坐有床 石 配赤羅朴氏父泰恒甲 子生戊子四月二十 九日卒 墓甲藏檜谷甲坐	英祖丁亥生 純祖壬午五月二十五 日卒年五十二 先舅朴氏塋下第二 墳同坐 配成陽朴氏父春馨丁 亥生丙申四月五日 卒 墓齊宮公會祖 勇塋崇山子坐 先妣朴氏塋下同坐	字進玉 已未生壬午九月十 七日卒 墓比安澤
<b>子弼奎</b>	字賛叔 英祖丁亥生 正祖壬午五月二十五 日卒年五十二 墓 先舅朴氏塋下第二 墳同坐 配成陽朴氏父春馨丁 亥生丙申四月五日 卒 墓齊宮公會祖 勇塋崇山子坐 先妣朴氏塋下同坐	字弼奎 正祖乙卯生戊辰正月 一日卒享年七十四 墓甲藏孤谷乾坐 樂濟致寃后甲寅生 丁丑十二月十二日 卒 墓考塋左邊同坐	字聖寬 乙丑生癸丑卒 軍威郡召保面法谷 庚坐
<b>子冕縉</b>	字邦彦 正祖乙卯生戊辰正月 一日卒享年七十四 墓甲藏孤谷乾坐 樂濟致寃后甲寅生 丁丑十二月十二日 卒 墓考塋左邊同坐	字冕縉 初名冕昌 字周伯 正祖庚寅丙寅六月 純祖庚寅丙寅六月 廿七日卒年三十七 墓甲藏大孤谷卯坐 配高靈朴氏甲辰生丁 未十一月九日卒 墓合祔	字聖寬 乙丑生癸丑卒 軍威郡召保面法谷 庚坐
<b>子尚祐</b>	字景夫 正祖庚寅丙寅六月 廿七日卒年三十七 墓甲藏大孤谷卯坐 配高靈朴氏甲辰生丁 未十一月九日卒 墓合祔	字尚祐 正祖乙卯生戊辰正月 一日卒享年七十四 墓甲藏孤谷乾坐 峰火峴戊坐 憲宗己亥生辛丑四月 十一日卒 墓甲藏	字故文 丁亥生辛未二月十 五日卒 墓報恩郡 山外面九峙前麓乾 坐
<b>子謙祐</b>	字景夫 正祖庚寅丙寅六月 廿七日卒年三十七 墓甲藏大孤谷卯坐 配高靈朴氏甲辰生丁 未十一月九日卒 墓合祔	字謙祐 正祖乙卯生戊辰正月 一日卒享年七十四 墓甲藏孤谷乾坐 峰火峴戊坐 憲宗己亥生辛丑四月 十一日卒 墓甲藏	字故文 丁亥生辛未二月十 五日卒 墓報恩郡 山外面九峙前麓乾 坐
<b>子鳳植</b>	字成九 壬子生辛卯十二月 三日卒 墓甲藏齊 生員晉行訥齋覲后	字鳳植 正祖庚寅丙寅六月 廿七日卒年三十七 墓甲藏大孤谷卯坐 配高靈朴氏甲辰生丁 未十一月九日卒 墓合祔	字成九 壬子生辛卯十二月 三日卒 墓甲藏齊 生員晉行訥齋覲后
<b>子東植</b>	字用休 哲宗丁巳生甲申十一 月二十五日卒享年 八十八 墓甲藏後 山祖妣塋下良坐有	字東植 正祖庚寅丙寅六月 廿七日卒年三十七 墓甲藏大孤谷卯坐 配高靈朴氏甲辰生丁 未十一月九日卒 墓合祔	字用休 辛酉生癸亥三月二 十二日卒享年六十 三墓山外面五六 里治山甲坐
<b>子亨燮</b>	字商 西生癸酉九月二日 卒 墓公塋右	字亨燮 正祖庚寅丙寅六月 廿七日卒年三十七 墓甲藏大孤谷卯坐 配高靈朴氏甲辰生丁 未十一月九日卒 墓合祔	字商 西生癸酉九月二日 卒 墓公塋右
<b>子禎煥</b>	字商 西生癸酉九月二日 卒 墓公塋右	字禎煥 正祖庚寅丙寅六月 廿七日卒年三十七 墓甲藏大孤谷卯坐 配高靈朴氏甲辰生丁 未十一月九日卒 墓合祔	字商 西生癸酉九月二日 卒 墓公塋右

<b>子忠植</b> <small>墓論山都議論山邑登 華洞山三六六의一 雙墳</small>	<b>子鳳燮</b> <small>見一〇七 봉암</small>
<b>初名璣植</b> <small>字敬甫</small>	<b>女柔順</b> <small>吳志</small>
<b>丙申一八九六年六月十三日生</b> <small>丁酉一九五七年二月二十日辛享年六十二</small>	<b>女密</b> <small>父信玉子良九</small>
<b>塗大德郡杞城面牛鳴里田一七〇壬生伯配星州李又壽父彥伯</b> <small>丁酉一八九七年十一月十三日生己酉一九六九年九月六日辛享年七十三</small>	<b>女鍾植</b> <small>父榮培</small>
<b>子桂植</b> <small>字英彥 己亥一八九九年五月十四日生甲寅一九七四年四月十七日辛享年七十六</small>	<b>女陽周</b> <small>父榮培</small>
<b>女定君</b> <small>昌憲 見一〇七 婿草溪卞承睦父達秀</small>	<b>子鳳燮</b> <small>見一〇七 奉</small>
<b>女玉珠</b> <small>字祚 子在輝</small>	

子志植  
字汝堅  
雙墳  
卒享年八十四歲  
墓

辛丑一九〇一年十  
月二十八日生丁亥  
年一九四七年四月十  
一日卒  
墓於山郡

配咸陽朴氏父周煥庚  
子一九〇〇年生乙  
丑一九二五年十一  
月二十一日卒  
配潘南朴氏戊午一九  
一八年一月三十七  
日生

配礪山宋昌錫父榮茂  
壬子一九一三年七  
月四日生甲辰一九  
六年七月十四日卒  
墓於餘郡扶餘

邑上錦里山四七之  
一  
配礪山宋昌錫父榮茂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官名仁碩  
字昌義  
祖秉浩忠靖公居信  
后外祖羅州丁炳善  
丙辰一九一六年三  
月三十日生

子寅植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子光煥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子日煥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子東煥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子貞順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子點順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子性煥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子台煥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子維煥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女金容達  
父在宅子性道性肅  
嫁金寧金漢金父斗燮  
子聖淳鍾仁鍾秀  
女龍全相龍  
父太承子炳烈享烈  
嫁光山金氏丙辰一八  
五年生丁卯一九  
二七年十二月二十  
五日卒享年七十二  
墓合前有床石

女正貴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女銅順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女貞煥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女淑煥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女點順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子周煥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子性煥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子台煥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子維煥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女又順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子允祐 字孚 初名鳳祐 己未生辛巳一九四 一年六月二十八日 卒享年八十三 墓合前有床石	女基植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女正貴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女金容達 父在宅子性道性肅 嫁金寧金漢金父斗燮 子聖淳鍾仁鍾秀 女龍全相龍 父太承子炳烈享烈 嫁光山金氏丙辰一八 五年生丁卯一九 二七年十二月二十 五日卒享年七十二 墓合前有床石	女基植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女正貴 字 官名仁碩 字昌義 壬子一九一三年七 月三十一日生	女金容達 父在宅子性道性肅 嫁金寧金漢金父斗燮 子聖淳鍾仁鍾秀 女龍全相龍 父太承子炳烈享烈 嫁光山金氏丙辰一八 五年生丁卯一九 二七年十二月二十 五日卒享年七十二 墓合前有床石	子允祐 字孚 初名鳳祐 己未生辛巳一九四 一年六月二十八日 卒享年八十三 墓合前有床石
配光山金氏丙辰一八 五年生丁卯一九 二七年十二月二十 五日卒享年七十二 墓合前有床石	配義城金氏丙戌一九 六年生丙寅一九 二六年十二月二十 二六年十一月七日 卒父禡賢	配義城金氏丙戌一九 六年生丙寅一九 二六年十二月二十 二六年十一月七日 卒父禡賢	配義城金氏丙戌一九 六年生丙寅一九 二六年十二月二十 二六年十一月七日 卒父禡賢	配義城金氏丙戌一九 六年生丙寅一九 二六年十二月二十 二六年十一月七日 卒父禡賢	配義城金氏丙戌一九 六年生丙寅一九 二六年十二月二十 二六年十一月七日 卒父禡賢	配義城金氏丙戌一九 六年生丙寅一九 二六年十二月二十 二六年十一月七日 卒父禡賢	配義城金氏丙戌一九 六年生丙寅一九 二六年十二月二十 二六年十一月七日 卒父禡賢
西青路洞峰火谷 池陰地疊坐	西青路洞峰火谷 池陰地疊坐	西青路洞峰火谷 池陰地疊坐	西青路洞峰火谷 池陰地疊坐	西青路洞峰火谷 池陰地疊坐	西青路洞峰火谷 池陰地疊坐	西青路洞峰火谷 池陰地疊坐	西青路洞峰火谷 池陰地疊坐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文川李萬植	父泰維子	字永承	女陽朴在運	女城金善奎	女永川李炳王	女應燮	女末粉	女寧海	女點粉	女末出	子盛植
配海州吳氏父淳一卒	坐有床石	庚子十二月二十一日生	十月二十日卒	基梨木鎮	子玉鑄汝鑄淳鑄	見一二	癸	婿韓山李用求	父夏圭子英毅点鉞	母	字明潤
卯三月三日生					子金宗	序七	父仁同張日壽	子金宗	父五長子春植俊植	母	英
十二日卒	墓	八月二			金順福		庚	金順福	英毅点鉞	母	英
					基		母	基	基	母	基

文福碩	婿永川李鴻榮父沂洛牛岩世憲后	女次順	婿成陽朴在勲父夏煥子重讓東鎮	子堪燦	婿成陽朴在勲父夏煥子重讓東鎮	子聖祚	婿扶安金炳善父定述	子甲生	婿月城朴斗榮	子秀卓	婿月城朴斗榮	女福祝	婿扶安金炳善父定述
九〇一年四月二十日生乙未一九五五年十月十三日辛	墓忠州池末順辛丑一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論山郡恩津面羊山里生美洞乙坐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寧玉三庚寅一八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宜寧玉三庚寅一八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慶州李泰順壬子一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〇一年四月二十日生乙未一九五五年十月十三日辛	墓忠州池末順辛丑一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論山郡恩津面羊山里生美洞乙坐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寧玉三庚寅一八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宜寧玉三庚寅一八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慶州李泰順壬子一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〇一年四月二十日生乙未一九五五年十月十三日辛	墓忠州池末順辛丑一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論山郡恩津面羊山里生美洞乙坐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寧玉三庚寅一八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宜寧玉三庚寅一八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慶州李泰順壬子一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〇一年四月二十日生乙未一九五五年十月十三日辛	墓忠州池末順辛丑一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論山郡恩津面羊山里生美洞乙坐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寧玉三庚寅一八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宜寧玉三庚寅一八	九〇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墓慶州李泰順壬子一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九一二年正月八日生丙辰一九七六年五月八

十九世二十世二十一世二十二世二十三世二十四世

二十一世二十二世二十三世二十四世

十九世二十世二十一世二十二世二十三世二十四世

二十一世二十二世二十三世二十四世

**允祐**

字文善

庚寅一八九〇年十

月十五日生辛亥一

九十七一年三月十六

日辛

墓甲藏堤內

卧芳谷左墮末午坐

配延安李氏父泰均祖

東震南溪后外祖玉

山張錫仁甲午一八

九四年七月六日生

丙辰一九七六年七

月十三日卒

墓雙

墳有床石

**子嶧植**

字文善

庚寅一八九〇年十

月十五日生辛亥一

九十七一年三月十六

日辛

墓甲藏堤內

卧芳谷左墮末午坐

配延安李氏父泰均祖

東震南溪后外祖玉

山張錫仁甲午一八

九四年七月六日生

丙辰一九七六年七

月十三日卒

墓雙

**子水植**

字天一

辛丑一九〇一年二

月二十八日生壬戌

**子光植**

字觀夫

子一九〇〇年四月

二十二日生壬寅一

九六二年十二月十

六日卒享年六十七

墓京畿道坡州郡龍

尾里外市廳第五

**子柳永玉**

字觀夫

子一九〇〇年四月

二十二日生壬寅一

九六二年十二月十

六日卒享年六十七

墓京畿道坡州郡龍

尾里外市廳第五

**子淨玉**

字觀夫

子一九〇〇年四月

二十二日生壬寅一

九六二年十二月十

六日卒享年六十七

墓京畿道坡州郡龍

尾里外市廳第五

**子洽**

字觀夫

子一九〇〇年四月

二十二日生壬寅一

九六二年十二月十

六日卒享年六十七

墓京畿道坡州郡龍

尾里外市廳第五

**子宗煥**

字觀夫

子一九〇〇年四月

二十二日生壬寅一

九六二年十二月十

六日卒享年六十七

墓京畿道坡州郡龍

尾里外市廳第五

**子華燮**

字文善

庚寅一八九〇年十

月十五日生辛亥一

九十七一年三月十六

日辛

墓甲藏堤內

卧芳谷左墮末午坐

配延安李氏父泰均祖

東震南溪后外祖玉

山張錫仁甲午一八

九四年七月六日生

丙辰一九七六年七

月十三日卒

墓雙

**子尹永植**

字文善

庚寅一八九〇年十

月十五日生辛亥一

九十七一年三月十六

日辛

墓甲藏堤內

卧芳谷左墮末午坐

配延安李氏父泰均祖

東震南溪后外祖玉

山張錫仁甲午一八

九四年七月六日生

丙辰一九七六年七

月十三日卒

墓雙

**子有燮**

字文善

庚寅一八九〇年十

月十五日生辛亥一

九十七一年三月十六

日辛

墓甲藏堤內

卧芳谷左墮末午坐

配延安李氏父泰均祖

東震南溪后外祖玉

山張錫仁甲午一八

九四年七月六日生

丙辰一九七六年七

月十三日卒

墓雙

**子朴成煥**

字文善

庚寅一八九〇年十

月十五日生辛亥一

九十七一年三月十六

日辛

墓甲藏堤內

卧芳谷左墮末午坐

配延安李氏父泰均祖

東震南溪后外祖玉

山張錫仁甲午一八

九四年七月六日生

丙辰一九七六年七

月十三日卒

墓雙

**子慶金圭烈**

字文善

庚寅一八九〇年十

月十五日生辛亥一

九十七一年三月十六

日辛

墓甲藏堤內

卧芳谷左墮末午坐

配延安李氏父泰均祖

東震南溪后外祖玉

山張錫仁甲午一八

九四年七月六日生

丙辰一九七六年七

月十三日卒

墓雙

文川柳林祚	文順朴海明	文興朴晚燦	文安金永球
序一 父雲植子允 生父永協祖斗湖辛 酉一九八一年九月 十四日卒享年六十 坐	序二 瞽謙菴雲龍后 父教春子煦 煥東煥	序三 父正培壽明溪后 甲正培壽明溪后 榮	序四 父雲植子正 求海求隱弘祚后 會再會
文山李白珪	文州丁榮鑄	文韓李白珪	文城金永球
序五 父基任子樂 華年七十七 九五一年月 生父永協祖斗湖辛 酉一九八一年九月 十四日卒享年六十 坐	序六 基乾位左 配玉山敬玉仙乙卯一 九五一年月 生父永協祖斗湖辛 酉一九八一年九月 十四日卒享年六十 坐	序一 父雲植子允 生父永協祖斗湖辛 酉一九八一年九月 十四日卒享年六十 坐	序三 父在鑄子一 華年七十七 九五一年月 生父永協祖斗湖辛 酉一九八一年九月 十四日卒享年六十 坐

祥奎	子冕碩	文城真李鑄	文天豎柳林祚	文義朴晚燦	文陽朴在觀
字周輔	字文受	序四 父能坤系子 源洛近仁堂宜泰后	序二 瞽謙菴雲龍后 父教春子煦	序三 父正培壽明溪后 甲正培壽明溪后 榮	序六 父潤坤子根河斗河 周河松安子修后
純祖辛卯生壬子四月 十八日卒年二十二 墓甲藏鷹峯丙坐有 床石	哲宗己酉生壬寅七月 二十六日卒年五十 四 墓甲藏捨谷甲	文永李泰道 序六 父章鉉子孝 植悌植忠植紫岩民 寢后	文順朴海明	文安金永球	文陽朴在觀
配岳林洪氏父範修敬 齋魯后丁亥生壬子 年五十五 桃谷右登艮坐有床石	配岳林洪氏父範修敬 齋魯后甲寅生癸丑 年六十 墓甲藏小	文城義金應輝 序八 系子鳳周	文川柳林祚	文義朴晚燦	文陽朴在觀
配岳林洪氏父範修敬 齋魯后丁亥生壬子 年五十五 桃谷右登艮坐有床石	配岳林洪氏父範修敬 齋魯后甲寅生癸丑 年六十 墓甲藏小	子榮澍	子鍾煥	子陽朴在觀	琴隱成陽后
字華元	字華元	號晚醒	見一一五	見一二〇	序六 父鼎煥子錢
壬午十二月十二日	壬午十二月十二日	見一一八	見一一九	見一二一	
生己酉十一月二日	卒享年八十八	見一二一	見一二一	見一二一	
卒享年八十八	甲藏青石谷圮之墻	見一二一	見一二一	見一二一	
甲藏青石谷圮之墻	壬坐有碣柱床石	見一二一	見一二一	見一二一	
配驪州李奇祥丁亥九	汝鍾文正公璠后外	見一二一	見一二一	見一二一	
月二日生父憲相祖	祖一善金鍾遠辛卯	見一二一	見一二一	見一二一	
七月二十一日卒享	年六十五 墓合祔	見一二一	見一二一	見一二一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子榮夏	英和	字道元	壬辰一八九二年八月十八日生己酉一月六九年七月二十日卒	七日卒	墓甲藏架
女金熙鶴	父炳祖子鍾律鍾休 訥齋覲后	字景元	九四年十二月六日生丙申一九五六年八月五日卒	長谷坐	後凋堂富弼后
文全崔承基	父炳祖子鍾律鍾休 訥齋覲后	字景元	九四年十二月六日生丙申一九五六年八月五日卒	基合	配碧珍李和甲午一八
女任昌宰	女川董	字道元	壬辰一八九二年八月十八日生己酉一月六九年七月二十日卒	基甲藏架	子潤善
子仲先	序七子新鑑	見一二二	七日卒	後凋堂富弼后	見一二一
子泰俊	女東權	見一二三	墓甲藏架	女潤善	見一二一
子大榮	女金出	見一二三	後凋堂富弼后	女任昌宰	見一二二
子富榮	女潤善	見一二四	九四年十二月六日生丙申一九五六年八月五日卒	子仲先	見一二二
子昌榮	女泰俊	見一二四	九四年十二月六日生丙申一九五六年八月五日卒	子泰俊	見一二三
子世榮	子大榮	見一二四	九四年十二月六日生丙申一九五六年八月五日卒	子金出	見一二三

鵝洲申氏悔堂公派世譜 乾卷 (判官派)

子冕燾	祥奎	字章憲	純祖甲午生性儉行純	境洞堂谷辛坐	
士珪祐	字瑞玉	士午生壬午二月十	配綏城具氏父夏英蹈	海窩謫后丙辰生丁	
子秀植	字亨弼	丁未生丙戌五月十	未二月二十一日卒	墓雙墳	
文洪良燮	林岳	魯后	配月城朴又蓮丁酉十	二月二十日生父斗	
文張鎮華	同序二	父聖鶴竹亭	斗涼斗八	星祖天祚柳村從男	
子晟煥	吉魁	見一二七	九	后外祖慶州李圭庚	
			墓乾位左雙墳	乙丑一九八五年二	
			月二日卒享年八十	月二日卒享年六	
				十九	
				墓甲藏大狐	

<b>子冕鎬</b>	祥奎
初名冕瑪	字啓文
號蘆齋	
憲宗戊戌生文學行誼	
見推於世遺錄卿解 有遺稿乙酉八月八 日卒年四十八墓	
上開日大孤谷良坐	
配密陽朴氏父萬都松	
堂英后戊戌生丙寅 十二月二日卒	
上開日大孤谷良坐	
配金寧金氏父大器祖	
道麟白村文起后外	
无育	

**子漢愚**

字周顯

甲戌生庚寅七月二

十二日卒享年七

五

墓五代祖考

肇

坐

下午坐

七

墓

五代

祖

考

肇

五代

配咸陽朴氏父秀淳琴  
隱成陽后外祖星州  
都錫龜戌申生庚戌  
六月十四日卒墓  
上閑日峰火峴士坐

永子漢柱  
序五  
省后  
父相德藥莘  
父善修子漢  
父萬基子金  
永俊永達永伯永稷

子潤植  
初名山祝  
丁未一九〇七年八  
月二日生渡日光復  
右百步許坐  
運勤己卯一九三五  
年二月四日卒大韓  
民國建國褒章追叙

墓祖妣咸陽朴氏塋  
婦月城孫基泓序二  
父台燮春堂仲良后  
子永欽車欽三欽  
範外祖安東權在義  
仲瞻后

子泰煥  
系伯父潤植  
婿月城孫基泓序二  
父台燮春堂仲良后  
子永欽車欽三欽  
女順祚  
初名山祝  
女正一  
子耕植  
初名点祝  
癸丑一九一三年五  
月十七日生己未一  
九七九年十二月二  
十六日卒享年六十  
一基上閑日大狐

子正煥  
見一三〇  
子大煥  
見一三一  
子承煥  
見一三一  
女承祚  
宋至  
婿義城金圭甲父泰厚  
子敬錄

漢柱  
丙子生癸巳正月十  
九日卒享年七十八  
墓五代祖考青龍燈  
上峰陽地申坐  
配昌寧成氏父仁植笑  
谷巽坐无有  
配永川李氏父柳在祖  
魯淵牛岩世憲后外  
祖奉化琴命烈丙戌  
生己丑五月二十七  
日卒享年六十四  
墓上閑日大狐谷子  
坐

配永川李氏父柳在祖  
魯淵牛岩世憲后外  
祖奉化琴命烈丙戌  
生己丑五月二十七  
日卒享年六十四  
墓上閑日大狐谷子  
坐

配南原梁甲生甲寅一  
九一四年六月二十一  
一日生父在後  
谷坐  
配南原梁甲生甲寅一  
九一四年六月二十一  
一日生父在後  
六基上閑日大狐

子泰煥  
系伯父潤植  
婿月城孫基泓序二  
父台燮春堂仲良后  
子永欽車欽三欽  
女順祚  
初名山祝  
女正一  
子耕植  
初名点祝  
癸丑一九一三年五  
月十七日生己未一  
九七九年十二月二  
十六日卒享年六十  
一基上閑日大狐

子正煥  
見一三〇  
子大煥  
見一三一  
子承祚  
宋至  
婿義城金圭甲父泰厚  
子敬錄

文城金宅鉉  
女林洪承佑  
女岳  
序五  
省后  
父相德藥莘  
父善修子漢  
父萬基子金  
永俊永達永伯永稷

文星李鍾瑾  
女岳  
序五  
子淳  
父寅植子正  
和正茂正活明溪銓

文興朴晚薰  
女台兆  
辛丑一九六一年二  
月六日生

子壽福  
一名寬植  
字致寬  
己未一九一九年四  
月二日生

配月城朴八先壬申一  
九三二年四月二十  
五日生父斗鶴祖  
祚柳村從男后

子國煥  
見一三一

子晉煥  
見一三二

子桂煥  
見一三二

子永煥  
見一三二

子國煥  
見一三一

子晉煥  
見一三二

子桂煥  
見一三二

子永煥  
見一三二

**子璫植** 呂立  
字爰玉  
庚申十一月十三日  
生甲子一九八四年  
九月二十六日卒  
墓上開日堤內山桃  
配永川李氏戊申四月

**子永燦** 呂立  
字爰玉  
見一三七

**子洞燦** 呂立  
見一三七

**子熙雨** 呂立  
見一三六  
**子在煥** 呂立  
見一三五  
**文善金鎮賢** 源

**子薰** 呂立  
序二 父士範子源

**子命採** 呂立  
初名容植  
癸卯生己卯一九三  
九年三月十日卒  
墓甲藏桃谷入口陽  
地第一墮子坐有柱  
床石  
配幸州殷氏父貞杓祖  
都正成煥吏判汝霖  
后外租密陽朴大禧  
丁酉一八九七年十一  
二月五日生丙辰一  
九七六年十二月十  
二日卒 墓雙墳

**子命採** 呂立  
初名容植  
癸卯生己卯一九三  
九年三月十日卒  
墓甲藏桃谷入口陽  
地第一墮子坐有柱  
床石  
配幸州殷氏父貞杓祖  
都正成煥吏判汝霖  
后外租密陽朴大禧  
丁酉一八九七年十一  
二月五日生丙辰一  
九七六年十二月十  
二日卒 墓雙墳

**子樟植** 呂立  
初名宗植  
丙申一八九六年八  
八五年正月初一日  
遇直祖持平光錄忠  
公萬里后外祖月  
城朴輝祚丙午生己  
卯一九三九年四月  
五日卒 墓甲藏香  
木雕右壁癸坐  
于此

**子樟植** 呂立  
初名宗植  
丙申一八九六年八  
八五年正月初一日  
遇直祖持平光錄忠  
公萬里后外祖月  
城朴輝祚丙午生己  
卯一九三九年四月  
五日卒 墓甲藏香  
木雕右壁癸坐  
于此

**子壽煥** 呂立  
見一三四  
**子富煥** 呂立  
見一三四  
**子壽賢** 呂立  
見一三四  
**子永燮** 呂立  
見一三二  
**子富益** 呂立  
見一三三  
**子灵** 呂立  
見一三三

**子壽煥** 呂立  
見一三四  
**子富煥** 呂立  
見一三四  
**子壽賢** 呂立  
見一三四  
**子永燮** 呂立  
見一三二  
**子富益** 呂立  
見一三三  
**子灵** 呂立  
見一三三

**子冕鉉** 呂立  
字景行  
號小南  
憲宗庚子生  
萬於孝早孤  
性醇氣和  
養無違及喪  
哀毀盡  
禮務恤施惠人  
多称  
頌丙辰二月二  
日卒享年七十  
七  
墓豐基秦氏塋  
左面  
餘步許異坐有  
碣柱  
床石

**子英枯** 呂立  
字樂三  
號雲樵  
高宗庚午生  
姿相端重  
性儉篤孝庚寅一  
九  
五〇年八月十一  
日  
辛享年八十一  
墓  
祖妣清州李氏左  
邊  
望下艮坐有碣柱  
床  
石

**子應植** 呂立  
字致華  
號雲樵  
高宗庚午生  
癸巳一八九三年十  
一月二十五日生辛  
酉一九八一年七月  
二十四日卒墓甲藏  
桃谷右壁中間卯坐  
公萬里后外祖月  
城朴輝祚丙午生己  
卯一九三九年四月  
五日卒 墓甲藏香  
木雕右壁癸坐  
于此

**子樟植** 呂立  
字致元  
丙申一八九六年八  
八年正月初一日  
遇直祖持平光錄忠  
公萬里后外祖月  
城朴輝祚丙午生己  
卯一九三九年四月  
五日卒 墓甲藏香  
木雕右壁癸坐  
于此

**子壽益** 呂立  
見一三二  
**子靈** 呂立  
見一三三  
**子永燮** 呂立  
見一三二  
**子富益** 呂立  
見一三三  
**子灵** 呂立  
見一三三

**子壽益** 呂立  
見一三二  
**子靈** 呂立  
見一三三  
**子永燮** 呂立  
見一三二  
**子富益** 呂立  
見一三三  
**子灵** 呂立  
見一三三

八日生父潤號白下  
祖宗遠敬學民歲后  
外祖春川朴南生癸  
丑一九七三年五月  
一日卒墓雙墳

文韓李佑馥  
父東城鄭富鉉  
父圭採子潤鉉

文城金相元  
父弘祚后

文山李佑鉉  
父景求睡隱

### 子湜枯

字仁齋

高宗庚辰生丙戌一九

四六年九月二十日

卒享年六十七

甲藏洞桃谷左壁未

入口祖妣清州李氏

塋下二百餘步許乙

坐有碣柱床石

配綾城具氏父炳祖祖

孟蕃海鬻后外

祖孝令司空榆己卯

生丁亥一九四七年

四月二十九日卒

墓甲藏後山中龍辰

宇樂中號仁齋

甲辰一九〇四年九

月二十九日生丙辰

一九七六年四月十

四日卒享年七十三

甲藏後山她塋下

異坐有床石

厚丙午一九〇六年

五月二十一日生乙

己一九六五年十二

月二十五日卒享年

六十

墓雙墳

### 子灝植

字而活

甲辰一九〇四年九

月二十九日生丙辰

一九七六年四月十

四日卒享年七十三

甲藏後山她塋下

異坐有床石

厚丙午一九〇六年

五月二十一日生乙

己一九六五年十二

月二十五日卒享年

六十

墓雙墳

### 文城金相元

父弘祚后

序六

父宗浩子鼎

父圭採子潤鉉

### 文山李佑鉉

父景求睡隱

### 子圭煥

字起

見一三八

### 子焯

斗

見一三八

### 子正煥

昌

見一三九

### 子熾煥

昌

見一三九

### 子宇煥

昌

見一三九

### 子五煥

昌

見一三九

### 子彰煥

昌

見一三九

### 子甲順

昌

見一三九

### 子圭煥

昌

見一三九

### 子熙健

昌

見一三九

### 子熙郁

昌

見一三九

### 子甲煥

昌

見一三九

### 子乙順

昌

見一三九

### 子熙泰

昌

見一三九

### 子貞順

昌

見一三九

### 女順子

昌

見一三九

### 女貞花

昌

見一三九

<b>文安趙國濟</b>	序一 父通政仁佑 子淵式淵世敬齋魯
<b>文月朴斗璡</b>	序二 父承洛子五 熙華山君應錄后
<b>文陽南富祚</b>	序三 父麟祚子元 錫萬鎮魯源太白后
<b>文咸朴榮煥</b>	序四 父秀草琴隱 成陽后
<b>文林洪龍欽</b>	序五 父九子柱 碩基輝後周堂當嗣
<b>文山宋元湜</b>	序六 父炳蒸子慶 后
<b>文山東權寧植</b>	序七 父元相子基 憲宗甲辰生甲戌卒
<b>文山金熙翊</b>	序八 父九子柱 哲宗甲寅四月四日卒
<b>文山洪龍欽</b>	序九 父九子柱 配金寧金氏甲申生甲
<b>文山宋元湜</b>	序十 父九子柱 辰十二月十二日卒
<b>文山東權寧植</b>	序十一 父九子柱 墓先塋下同坐
<b>文山金熙翊</b>	序十二 父九子柱 配義城金氏父震熙戊
<b>文山洪龍欽</b>	序十三 父九子柱 己卯生壬戌五月十
<b>文山宋元湜</b>	序十四 父九子柱 日 墓雙墳
<b>文山東權寧植</b>	序十五 父九子柱 甲辰正月六日生
<b>文山金熙翊</b>	序十六 父九子柱 配晉州姜氏父魯會己
<b>文山洪龍欽</b>	序十七 父九子柱 未三月十五日生
<b>文山宋元湜</b>	序十八 父九子柱 配咸陽朴氏辛酉八月
<b>文山東權寧植</b>	序十九 父九子柱 甲辰生甲辰十二月
<b>文山金熙翊</b>	序二十 父九子柱 日 墓祖
<b>文山洪龍欽</b>	序二十一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相奎戊
<b>文山宋元湜</b>	序二十二 父九子柱 己生壬戌十二月二
<b>文山東權寧植</b>	序二十三 父九子柱 日 墓雙墳
<b>文山金熙翊</b>	序二十四 父九子柱 甲辰生甲辰十二月
<b>文山洪龍欽</b>	序二十五 父九子柱 日 墓祖
<b>文山宋元湜</b>	序二十六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東權寧植</b>	序二十七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金熙翊</b>	序二十八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洪龍欽</b>	序二十九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宋元湜</b>	序三十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東權寧植</b>	序三十一 父九子柱 日 墓祖
<b>文山金熙翊</b>	序三十二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洪龍欽</b>	序三十三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宋元湜</b>	序三十四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東權寧植</b>	序三十五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金熙翊</b>	序三十六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洪龍欽</b>	序三十七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宋元湜</b>	序三十八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東權寧植</b>	序三十九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金熙翊</b>	序四十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洪龍欽</b>	序四十一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宋元湜</b>	序四十二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東權寧植</b>	序四十三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金熙翊</b>	序四十四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洪龍欽</b>	序四十五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宋元湜</b>	序四十六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東權寧植</b>	序四十七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金熙翊</b>	序四十八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洪龍欽</b>	序四十九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宋元湜</b>	序五十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東權寧植</b>	序五十一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金熙翊</b>	序五十二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洪龍欽</b>	序五十三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宋元湜</b>	序五十四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東權寧植</b>	序五十五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金熙翊</b>	序五十六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洪龍欽</b>	序五十七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宋元湜</b>	序五十八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東權寧植</b>	序五十九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金熙翊</b>	序六十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洪龍欽</b>	序六十一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宋元湜</b>	序六十二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東權寧植</b>	序六十三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金熙翊</b>	序六十四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洪龍欽</b>	序六十五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宋元湜</b>	序六十六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東權寧植</b>	序六十七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金熙翊</b>	序六十八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洪龍欽</b>	序六十九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宋元湜</b>	序七十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東權寧植</b>	序七十一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金熙翊</b>	序七十二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洪龍欽</b>	序七十三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宋元湜</b>	序七十四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東權寧植</b>	序七十五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金熙翊</b>	序七十六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洪龍欽</b>	序七十七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宋元湜</b>	序七十八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東權寧植</b>	序七十九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金熙翊</b>	序八十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洪龍欽</b>	序八十一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宋元湜</b>	序八十二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東權寧植</b>	序八十三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金熙翊</b>	序八十四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洪龍欽</b>	序八十五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宋元湜</b>	序八十六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東權寧植</b>	序八十七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金熙翊</b>	序八十八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洪龍欽</b>	序八十九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宋元湜</b>	序九十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東權寧植</b>	序九十一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金熙翊</b>	序九十二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洪龍欽</b>	序九十三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宋元湜</b>	序九十四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東權寧植</b>	序九十五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金熙翊</b>	序九十六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洪龍欽</b>	序九十七 父九子柱 日 墓子
<b>文山宋元湜</b>	序九十八 父九子柱 配咸陽朴氏父啟淳己
<b>文山東權寧植</b>	序九十九 父九子柱 己生癸巳十一月十
<b>文山金熙翊</b>	序一百 父九子柱 日 墓子

<b>子尚熙</b>	字和之 丙寅生戊戌十二月 二十日卒 配城邑亭洞回龍堤內 配海州吳氏父世基甲 辰生甲辰十二月二 十三日卒 配沃川全氏父而學士 辰生戊子卒 坐	<b>子瑞奎</b>	字曉甫 英祖甲申生甲戌卒 墓考塋左邊第二墳 同坐 配密陽朴氏父天健 墓會曾祖考塋下同坐 配順天朴氏父訥訥 墓甲藏索山下酉坐 位雙墳
<b>子冕泰</b>	字學仲 己巳生己卯七月二 十二日卒 配義城金氏父同樞世 確乙巳生戊申卒 墓雙墳生一女 辰生戊子卒 四 墓合祔	<b>子冕裕</b>	字彥樹 甲寅生戊午三月十 二日卒 墓堤內 配義城金氏父震熙戊 午生辛酉十二月二 十二日卒享年六十 日 墓合祔
<b>子孟協</b>	字敬汝 己卯生壬戌五月十 七日卒 回龍谷堤內異坐 配慶州金氏父聲喜士 午生 墓祔同原同 坐	<b>子恭協</b>	字敬汝 己卯生壬戌五月十 六日 墓益德郡五 十川牧谷壬坐 木酉坐 寅生忌十一月十八 十五日生 日 墓雙墳
<b>子善協</b>	字彥彥 辛巳生壬戌五月十 七日卒 回龍谷堤內異坐 配咸陽朴氏父相奎戊 午生 墓祔同原同 坐	<b>子相化</b>	字聖化 甲辰生甲辰十二月 二十三日卒 墓祖 考塋下同原 三日卒 墓舊亭子
<b>子相遠</b>	字德化 甲辰生甲辰十二月 二十三日卒 墓祖 考塋下同原 三日卒 墓舊亭子	<b>子誠煥</b>	字屏振 配晉州姜氏父魯會己 未三月十五日生 日 墓舊亭子
<b>子永煥</b>	字廷起 見一四三	<b>子泰燮</b>	見一四二

**子龍協** 系從祖敬教承重

字國瞻  
戊午生己未二月二  
十ニ日卒 墓學子  
洞細谷子坐

配浙江張氏父宅金華  
丑四月十九日卒  
墓義城邑如時介己  
坐

配海州吳氏父秉亨辛  
卯生乙未正月八日  
卒 墓青松郡西面  
己坐

**子明植** 明祿

字致遠  
庚戌生壬戌九月十  
五日卒 墓水淨洞  
上谷子坐

配義城金氏父永植乙  
丑生癸亥十月十日  
卒 墓祔同原同坐

**子琪煥** 見一四五

子在弘

**子斗煥** 見一四五

子在弘

**子基煥** 見一四五

子在弘

**子仁煥** 見一五

子在弘

**子城金國秉**

子昌大

**子興燮** 見一五二

子在弘

**子基煥** 見一四五

子在弘

**子仁煥** 見一五

子在弘

**子斗煥** 見一四五

子在弘

**子琪煥** 見一四五

子在弘

大

重

一

二

相鑄

**彰變** 恭智

見五二

**子敬教** 敬立

子敬

**子基燦** 基起

見五二

**子容錫** 容智

見五二

**子孟協** 明智

子敬

**子榮根** 英之

見五二

**子亨根** 亨之

見五二

**子笠植** 笠之

見五二

**子興燮** 興智

見五二

辛大農  
二十六日生  
己卯生丁亥二月二  
十六日卒享年六十  
二 墓楊州郡白石  
面坊城里山西四  
配順天朴氏父象東丁  
亥八月三日生卒  
墓合附

字孔淑  
甲寅生丁巳一九七  
七年十一月二十五  
日卒 墓楊州郡白  
石面坊城里山西四  
配順天朴氏父象東丁  
亥八月三日生卒  
墓合附

**子弘錫** 弘智

見五二

**子康錫** 康智

見五二

**子容錫** 容智

見五二

**子榮根** 英之

見五二

**子亨根** 亨之

見五二

**子笠植** 笠之

見五二

**子興燮** 興智

見五二

相鑄

**禎燮** 정燮  
字圭瑞  
甲午生乙酉五月十  
三日卒年五十二  
墓楊州郡白石面坊  
城里山四  
配義城金氏  
二十六日生父基河  
卒火葬

**子基湜** 기식  
字允元  
辛亥一九一一年間  
六月八日生癸亥一  
九八三年二月三十  
日卒享年七十三  
火葬

**子元錫** 원식  
字盛林  
癸未一九四三年正  
月十六日生

健榮

女英鎮 영진

婿坡平尹昌萬父成子

生父二出

**子基惺** 기성  
字慶八  
丁卯二月十五日生  
配延日鄭玉姬壬申一  
九三二年二月二十  
九日生父淳益

**子泰錫** 태식  
字九五  
甲午一九五四年三  
月十四日生  
配南平文貴順乙未一  
九五五年四月二十  
日生父榮根

**子聖根** 성근  
庚申一九八〇年五  
月三日生

相鑄

**禎燮** 정燮  
字圭瑞  
甲午生乙酉五月十  
三日卒年五十二  
墓楊州郡白石面坊  
城里山四  
配義城金氏  
二十六日生父基河  
卒火葬

**子基湜** 기식  
字允元  
辛亥一九一一年間  
六月八日生癸亥一  
九八三年二月三十  
日卒享年七十三  
火葬

**子元錫** 원식  
字盛林  
癸未一九四三年正  
月十六日生

健榮

女英鎮 영진

婿坡平尹昌萬父成子

生父二出

**子基惺** 기성  
字慶八  
丁卯二月十五日生  
配延日鄭玉姬壬申一  
九三二年二月二十  
九日生父淳益

**子泰錫** 태식  
字九五  
甲午一九五四年三  
月十四日生  
配南平文貴順乙未一  
九五五年四月二十  
日生父榮根

**子聖根** 성근  
庚申一九八〇年五  
月三日生

相鑄

相範

83

鵝洲申氏悔堂公派世譜 乾卷 (判官派)

泰燮 태燮  
字利九戌戌生癸巳  
十二月十九日卒  
墓安城郡寶閑面長  
谷里配安東金景葵己十二  
月四日生父邦漢

生父相範

字文九  
癸卯一九〇三年六  
月三十九日生配宋良順庚午一九三  
一年八月三日

**東燮** 동燮  
見五二  
子基鐸 기택

字大鈴  
乙丑一九二五年十  
月二三日生己酉一  
九六九年七月六日

配青松沈英姬辛酉一  
九二〇年一月二十  
日生父元燮

民  
辛火葬

字亨達  
戊戌一九五八年二  
月三日生壬辰移

性琪

女錕姬 경희

字亨達  
庚辰一九五八年二  
月三日生壬辰移

性琪

**子基泰** 기태  
丁巳一九一七年閏  
二月二十六日生癸  
亥一九八三年六月  
二十六日卒  
州郡白石面坊  
山西村一

**子南錫** 남식  
丙申一九五六年四  
月十七日生  
配漆原尹美愛壬寅一  
九六二年十一月六  
日生父基道

**子正根** 정근  
甲子一九八四年正  
月五日生

**女景玉** 경옥  
婿南陽洪完杓子性災

性琪

女錕姬 경희

性琪